2011.12 3

U.B. 한국학연구

✧ 훈민정음 창제과정과 정의공주의 변음토착(變音吐着) 문제 ,,, 최 기호
✧ 한국어 관용구가 생기게 된 요인 고찰 ,,, 테.뭉흐자르갈
✧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파생법 비교
-체언에서 동사파생을 중심으로 - ,,, 강 선화
✧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 이 영숙
✧ 몽골 대학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 아. 나랑게렐
✧ 학습 현장에서의 한국어 조사 오류 분석 ,,, 황 정숙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의 구조와 의미 ,,, 이 안나
✧ 가사의 주리론적 성향 ,,, 강 신구
✧ 한국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소설의 정치성 ,,, 현 길언
✧ Research about Kim Sowool ,,, 데. 나르만다흐
✧ 朴在森 詩에 나타난 죽음 이미지의 변모양상 ,,, 강 회진
✧ 조기천 시 연구 ,,, 이 석철
✧ 동북아시아의 가족학 분야 공동 연구 및 협력 증진 방안 ,,, 테.남질
✧ Blue stone in remain of Old Korea(Guuling) and
Blue stone statue in Altan Ovoo ,,, P.Batchuluun
✧ 금관가야 허왕후의 출신지에 관한 학설 검토 ,,, 데. 오강토야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Scanned with CamScanner

U.B. 한국학연구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Scanned with CamScanner

목차

언어

1. 훈민정음 창제과정과 정의공주의 변음토착(變音吐着) 문제 ……최 기호/4
2. 한국어 관용구가 생기게 된 요인 고찰 ……테.뭉흐자르갈/20
3.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파생법 비교 -체언에서 동사파생을 중심으로 - ……강 선화/32

교육

4.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 영숙/46
5. 몽골 대학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 아. 나랑게렐/71
6. 학습 현장에서의 한국어 조사 오류 분석 ……황 정숙/94

문학

7.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의 구조와 의미…… 이 안나/107
8. 가사의 주리론적 성향 …… 강 신구/132
9. 한국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소설의 정치성 …현 길언/165
10. Research about Kim Sowool …… D.Narmandakh/184
11. 朴在森 詩에 나타난 죽음 이미지의 변모양상 ……강 희진/198
12. 조기천 시 연구 ……이 석철/221

사회 · 역사 · 민속

13. 동북아시아의 가족학 분야 공동 연구 및 협력 증진 방안 ……남질/244
14. Blue stone in remain of Old Korea(Guuling) and Blue stone statue in Altan Ovoo …… P.Batchuluun/252
15. 금관가야 허왕후의 출신지에 관한 학설 검토 …오강토야/262

Scanned with CamScanner

Гарчиг

Хэл шинжлэл

1. Хүнминжонгым-ийн зохиосон үе шат болон Жонг И гүнжийн авианы өөрчлөлт тогтворжих тухай асуудал.....Чой Гихо/4
2.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 хүчин зүйлүүд. ..... Т. Мөнхжаргал/20
3.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йл үг үүсгэх аргыг харьцуулсан нь - Нэр үгээс үйл үг үүсгэх .....Кан Соньхуа/32

Боловсрол

4. БНСУ болон гадаад улс орон дах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хэтийн төлөв .....И Ёнсүг/46
5. Монголын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й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болон тулгарч буй асуудлууд .....А. Нарангэрэл/71
6. Сургалтын талбарт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нэр үгийн нөхцлийн алдааг ажиглах нь .....Хуан Жонсүг/94

Уран зохиол

7. “Хааны чих бол Илжигний чих” үлгэрийн бүтэц ба агуулга ..... И Анна/107
8. Каса дууны логик уялдаа .....Кан Шингү/132
9. Солонгосын үндэсний үзэл санаа болон үргэлжилсэн үгийн зохиолын улс төрийн чанар.....Хён Гилон/165
10. Солонгосын яруу найрагч Ким Су Волийн талаархи судалгаа Д.Нармандах/184
11. “Паг Жэсам” зохиолчийн шүлэгт илэрч буй үхлийн дүрслэлийн хувирах байдал .....Кан Хуэжин/198
12. Жу Гичонь зохиолчийн шүлгийн судалгаа……И Согчоль/221

Нийгэм · Түүх · Угсаатны зүй

13. Зүүн хойт Азид гэр бүл судлал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хөгжүүлье ..... Т. Намжил/244
14. Дарьгангын Гуулин хотын туурь болон Алтан овооны хөхөвтөр цайвар өнгийн хүн чулууны талаар өгүүлэх нь ..... П. Батчулуун/252
15. Кымгуань Каяа Хө Хатны уугуул нутгийн тухайд .....Д. Уугантуяа/262

Scanned with CamScanner

훈민정음 창제과정과 정의공주의 변음토착(變音吐着) 문제

최 기 호[1]

목 차

1. 훈민정음의 창제동기
2. 훈민정음의 창제과정
3. 훈민정음 창제에서 정의공주의 변음토착 문제
4. 훈민정음 창제에서 신숙주와 집현전 학자들
5. 맺음말

[국문초록]

세계 문자 중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글자는 훈민정음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종대왕께서 1443 년 경복궁에서 음양오행과 음성기관을 본 따 백성들이 쉽게 쓰도록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조선왕조실록> 계해년(1443) 12 월 조에는 '세종대왕께서 친히 언문 28 자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정통 11 년(1446) 9 월 상한(양력 10 월 9 일)에는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완성하여 이 날에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으로 해석하여 지금의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다.

훈민정음 창제를 도운 사람으로 흔히 집현전 학자들과 왕자들을 들고 있으나, 이가원 교수의 '이우준(李遇竣)의 몽유야담(夢遊野談)에서 문자창제'에서는 정의공주의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되었고, 융희 3 년(1909 년)에 간행된 <죽산안씨대동보>에는 세종대왕의 둘째 따님인 정의공주(貞懿公主)의 '공주유사(公主遺事)' 에 변음토착에 관한 연구를 정의공주가 풀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언문이라는 기록이 있다. 변음(變音)은 모음의 기본 글자를 결합하고 음양원칙에 따라 소리를 변화시키는 음운론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변음은 변궁(變宮) 변치(變徵)로서 반설음(ㄹ)과 반치음(ㅿ)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토착은 구결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문장구절마다 '-하고, -하니, -해라' 식으로 토를 다는 것으로 용언의 굴곡과 체언의 준굴곡의 형태론적인 문제로

[1]울란바타르대학교 교수/총장

Scanned with CamScanner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변음은 음운론의 문제이고, 토착은 형태론의 문제로 추정된다.

집현전 학자들의 반대와 어려운 과정을 무릅쓰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정의공주와 동궁이었던 문종, 진양대군, 안평대군 등의 도움으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친히 창제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성왕께서 창제하신 훈민정음은 조합형이 문자로서 오늘의 정보기술(IT)에 과학적으로 알맞으며, 21 세기 정보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음소문자이기에 우리는 한글을 빛내야 하는 민족적 사명이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세종대왕, 훈민정음, 정의공주, 변음토착, 창제과정.

1. 훈민정음의 창제동기

세계 문자 가운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만들었느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훈민정음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종대왕께서 1443 년에 경복궁에서 훈민정음을 음양오행과 음성기관을 본 따서 백성들이 쉽게 쓰도록 창제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계해년(1443) 12 월 조에는 '세종대왕께서 친히 언문 28 자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정통 11 년(1446) 9 월 상한(양력 10 월 9 일)에는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완성하여서 이날을 훈민정음 반포한 것으로 해석하여 지금의 한글날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2]

그러면 세종대왕은 과연 어떤 인물이며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했을까? [3]

세종대왕(1397-1450)은 조선 제 4 대 임금으로 재위기간이 32 년이나 되는 성군이시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왕도를 충실히 닦았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라는 정치철학에서 왕이 가는 길을 닦았으며 '치국평천하'가 그 목적이었다.

---

[2] 이 때 글자이름은 훈민정음이었는데 언문으로 많이 불렀고, 그 후로 정음, 암클, 절글, 중글, 반절, 가갸, 국문 등으로 부르다가 주시경 선생이 한글이라고 명명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제 4 대 세종(충녕대군)대왕(1397-1450)은 재위기간이 32 년(1418 - 1450).이었다. 왕후는 6 명이고 자녀는 18 남 4 녀가 있다. 소현왕후 심씨 소생으로 제 5 대 문종을 비롯하여 수양대군(제 7 대 세조), 안평대군, 임영대군, 광평대군, 금성대군, 평원대군, 영웅대군, 정소공주, 정의공주가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즉 나라를 다스려서 온 천하를 태평하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왕도라는 사실을 세종은 잘 알았다.

조선시대가 되면서 혼란기의 고려말기와는 달리 사회가 안정되고, 인구도 증가하였다 이 때 어리석은 백성(愚民)으로는 통치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백성을 가르치는 훈민(訓民)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민(愚民) 상태로는 세종대왕이 왕도를 이룰 수가 없고, 반드시 훈민을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 세종대왕의 통치 철학이었다. 그러니까, 백성이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태평천하를 만들자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는 남자 중에서 소수의 상류층만 한자를 알고 백성의 대부분이 글자를 모르는 문맹자였다. 그래서 통치자는 너무나 어려운 한자 대신에 쉽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문자가 절실히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당시에 국제적으로는 중국, 인도는 물론 여진이나 몽골, 일본, 서하 등도 모두 문자가 있었지만 우리만 문자가 없었고 중국의 한자를 빌려쓰고 있었다. 그러기에 세종대왕은 자주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알맞은 쉬운 글이 더욱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쉽게 쓸 수 있는 훈민정음 같은 문자를 창제하게 되는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동기는 1) 자주정신, 2) 애민정신, 3) 실용정신, 4) 창조정신의 발로로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훈민정음 창제 동기는 <훈민정음> 서문에 잘 밝혀져 있다.[4]

2.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

세종대왕은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와 아버지 태종 이방원과 같은 혁명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5] 아마도 험악한 무신의 가정에서

---

[4]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

[5] 태조 이성계(1335-1408)는 목조(안사) (효공왕후), 익조(행리) (정숙왕후), 도조(춘) (경순왕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환조(자춘) (의혜왕후)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조는 재위기간이 6 년 2 개월(1392.7 - 1398.9)이었다.부인은 3 명이었고 자녀는 8 남 5 녀이다. 신의왕후 한씨 소생으로 진안대군(방우), 영안대군(방과)(제 2 대 정종), 익안대군(방위), 회안대군(방간), 정안대군(방원)(제 3 대 태종), 덕안대군(방연), 경신공주, 경선공주가 있고, 신덕왕후 강씨 소생으로 무안대군(방번), 의안대군(방석), 경순공주, 의령옹주, 숙신옹주 등이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태어났기에 반작용으로 더욱 학문에 매진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세종대왕은 어려서부터 <논어>, <맹자>, <대학>, <주역> 등의 사서오경을 비롯하여 <성리대전>, <설문해자> 등의 고전을 깊이 있게 연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갑자상소(이른바; 언문반대 상소)에서 보듯이 세종대왕은 대단한 언어학자가 되었다.

과연 세종대왕은 언제부터 훈민정음을 창제하려고 하였을까? 세종대왕도 왕이 되면서 바로 훈민정음을 창제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종대왕의 재임기간이 32 년이다. 이것은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간으로 생각한다. 그이 재임기간을 셋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제 1 기 10 년 전기는 국방과 정치외교와 경제의 확립시기이고, 제 2 기 10 년 중기는 백성의 태평을 위한 사회 복지 구축시기이고, 제 3 기 10 여 년의 후기는 문자 창제와 문화의 확산시기이다.

세종대왕은 즉위하자 우선 국방과 외교, 경제문제를 중요시하였다. 명나라와의 정상적인 외교를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여진족을 물리치고 육진을 개척하였으며, 대마도를 정벌하여 왜구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경제 문제로는 백성들이 먹고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에는 농사이었기에 <농사직설>같은 책을 편찬하고, 측우기, 풍향기, 수표 등을 만들어 농업을 장려하였다. 농사를 위하여 가뭄과 태풍의 원인을 밝히려고 별자리 등 천문학을 깊이 연구하여 원나라 곽수경 이후 당대의 세계적인 천문학자가 되었으며, 해시계, 물시계, 화약, 금속활자 등도 연구하여 과학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전기의 치적이다.

제 2 기인 중기에는 백성의 태평을 위한 사회 복지 구축시기이었다. 노비의 문제를 정리하고 환자를 위하여 향약을 개발하고 산모의 유급 휴가를 시행하였으며 사회 전반의 여러 가지 법령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전통적으로 음악을 중시하는 제례와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음악에 관심을 가졌다. <악학궤범> 머리말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고, 좋은 정치를 하게되며 나쁜 음악은 나쁜 마음을 갖게 하므로 나쁜 정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음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종대왕은 세종 12 년 전후에 당악과 아악을 정리하고, 편경 같은 악기를 만들었으며 여민락 같은 노래를 장려하였다. 최종민

Scanned with CamScanner

교수의 연구에서 보는 것처럼 세종대왕은 세계 유일의 '길이악보'(세종악보, 井間譜))를 창안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세종대왕은 중국 음악과 조선 음악의 차이점을 깨닫는다.[6]

세종대왕은 이처럼 풍토에 따라 바람소리가 다르고, 바람소리가 다르기에 말이 달라져서 방언이 생기고, 다른 언어가 생긴다는 풍토설(風土說)을 믿는 것이다. 여기에서 세종대왕은 중국말과 글이 우리의 말과 글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세종대왕은 이 시기에 운서와 음운학의 대가가 되며 음악을 통하여 새로운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려는 뜻을 품은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세종대왕은 우리 백성에게 알맞은 쉽고 편리한 훈민정음을 창제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재위기간 중기에 음악을 통하여 글자와의 관계를 깨닫고 재위기간 후기에 비로소 세종대왕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인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다. 이것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극진히 사랑했고 그의 왕도 정치철학을 완성하기 위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다.[7]

결국 세종대왕의 32 년 간의 통치기간은 세종대왕으로 하여금 여러 신하(신권(臣權))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권(王權)을 가지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민권(民權)을 확립하였으며 그 결실로 아주 만들기 어려운 문자 창제를 세종대왕이 혼자 친히 노력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다.

3. 훈민정음 창제에서 정의공주의 변음토착 문제

훈민정음은 1443 년에 혼자 독창적으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다만 훈민정음 창제를 도운 사람으로 흔히 집현전 학자들과 왕자들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가원교수의 '이유준(李遇竣)의 몽유야담(夢遊野談)에서 문자창제'에서 정의공주의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그리고 융희 3 년(1909 년)에 간행된 <죽산안씨대동보>에는 세종대왕의 둘째

---

[6] 그래서 중국음악을 잘 연주하려면 중국에서 생산된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야 하고 조선음악을 잘 연주하려면 조선에서 생산되는 돌이나 대나무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세종대왕은 강조하였다.

[7]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사람의 음성기관에서 찾았다. 세종대왕은 뛰어난 음성학자로서 음성기관을 관찰하여 음운조직을 정확하게 밝히고 글자를 창제하였다. 사람의 왼쪽 얼굴을 보고 조사하였는데, 'ㄴ은(ㄴ)'이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형상을 닮은 것이다.'라는 글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따님인 정의공주(貞懿公主)의 '공주유사(公主遺事)'에서 거론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방언이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함을 민망히 여기시고 변음토착(變音吐着)을 연구하여도 잘 풀리지 아니하여 모든 대군들에게 풀어보도록 하였으나 모두 풀지 못하였다. 왕은 드디어 정의공주에게 명령하시니 공주는 즉시 연구하여 풀어서 올리니 이것이 지금의 언문이다. 세종대왕께서는 대단히 칭찬하시고 너무 기쁘시어 노비 수백 명 등을 하사하시었다.'

이 기록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훈민정음 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으로 정의공주가 기록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동궁이었던 문종과 진양대군, 안평대군 등이 세종을 도와서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공주가 풀었다는 변음토착(變音吐着)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변음(變音)은 모음의 기본 글자를 결합하고 음양원칙에 따라 소리를 변화시키는 음운론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변음은 변궁(變宮) 변치(變緻)로서 반설음(ㄹ)과 반치음(ㅿ)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토착은 구결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문장구절마다 '-하고, -하니, -해라' 식으로 토를 다는 것으로 용언의 굴곡과 체언의 준굴곡의 형태론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변음은 음운론의 문제이고, 토착은 형태론의 문제로 추정된다.

그러면 정의공주는 어떤 인물이기에 훈민정음 창제를 도왔을까? 정의공주는 세종대왕의 둘째 공주로서 죽산(竹山) 안씨 안맹담(安孟聃, 1415-1462)에게 시집을 갔다.[8] 이 안맹담은 세종 때의 서예가로서 초서(草書)에 능하였고, 사어(射御)를 잘 하였으며 음률(音律)과 약물(藥物)에도 밝았다.

정의공주는 부마인 안맹담과 함께 음률에 능하였으며 또한 수양대군 세조와도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정의공주의 해적이(연보)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정의공주의 해적이(연보)]

---

[8] 안맹담(安孟聃, 1415-1462)는 세종 때의 서예가로서 자는 덕수(德壽)이고, 시호는 양효(良孝)이다. 1428 년(세종 10) 세종의 딸 정의(貞懿)공주와 결혼하였다. 죽성군(竹城君)에 이어, 연창군(延昌君)에 봉해졌고, 뒤에 연창위(延昌尉)로 개봉(改封)되었으며 1455 년(세조 1) 원종공신(原從功臣) 1 등에 책록되었다. 초서(草書)에 능하였고, 사어(射御)를 잘 하였으며 음률(音律) . 약물(藥物)에도 밝았다.

Scanned with CamScanner

세종 10 년(1428) 02 월 12 일(갑자) ; 왕녀를 책봉하여 정의 공주로 삼고 안맹담을 죽성군으로 삼다

세종 10 년(1428) 02 월 13 일(을축) ; 정의 공주를 죽성군 안맹담에게 시집보내다

세종 25 년(1443) 09 월 23 일(갑술) ; 전 경창부 윤 유한의 처 박씨의 졸기

세종 28 년(1446) 03 월 27 일(갑오) ; 예조에서 왕비의 상제에 대해 아뢰다

세종 28 년(1446) 04 월 13 일(경술) ; 정의 공주가 빈전에 진향하다

세종 28 년(1446) 06 월 06 일(임인) ; 예조 판서 정인지가 영릉 지문을 지어 바치다

문종 02 년(1452) 02 월 02 일(병인) ; 《세종실록》을 감수하는 사람이 모두 세종조의 신하로 이를 집현전에 상고하여 아뢰게 하다

문종 02 년(1452) 02 월 13 일(정축) ; 유한이 적은 서명과 노비 문안을 들여보내기를 명하다

단종 01 년(1453) 10 월 14 일(정유) ; 세조가 정인지.한확.이사철 등과 더불어 간당의 죄를 의논하여 아뢰다

단종 03 년(1455) 01 월 24 일(경오) ; 혜빈.신빈.숙빈 등에게 난신의 노비를 나누어 주다

세조 01 년(1455) 08 월 26 일(기사) ; 환자 최습의 양주 전토를 정의 공주에게 하사하다

세조 02 년(1456) 02 월 01 일(신축) ; 강원도 고성 온정에 목욕가는 정의 공주에게 교자와 담부를 주도록 명하다

세조 02 년(1456) 04 월 17 일(병진) ; 광평 대군 이여의 집에 거둥하여 정의 공주를 영위하다

세조 04 년(1458) 07 월 21 일(병오) ; 사정전에 나아가 유가노 등을 인견하고 술.옷.흑마포를 내리다

세조 04 년(1458) 07 월 25 일(경술) ; 중궁과 함께 정의 공주의 집에 거둥하다

세조 04 년(1458) 08 월 08 일(계해) ; 황해도 관찰사에게 목욕하러 가는 정의 공주를 위해 잔치를 베풀게 하다

세조 06 년(1460) 09 월 29 일(임인) ; 정의 공주에게 쌀 1 백석을 내려주고 아들과 사위의 직질을 더하게 하다

Scanned with CamScanner

세조 06 년(1460) 윤 11 월 09 일(신해) ; 임영 대군 이구.영응 대군 이염.정의 공주에게 외방 노비를 1 구씩 하사케 하다

세조 06 년(1460) 12 월 05 일(정축) ; 정의 공주를 문병하다

세조 06 년(1460) 12 월 11 일(계미) ; 정의 공주를 문병하다

세조 07 년(1461) 01 월 03 일(갑진) ; 중궁과 더불어 정의 공주의 집에 거둥하고 질병을 문안하다

세조 07 년(1461) 03 월 05 일(병오) ; 정의 공주 집에 거둥하여 문병하다

세조 08 년(1462) 01 월 16 일(신해) ; 임영 대군.영응 대군.정의 공주에게 쌀과 콩을 내리다

세조 08 년(1462) 12 월 25 일(을유) ; 연창위 안맹담이 죽자 2 일간 철조하고 시호를 양효(良孝)라 하다. 그의 졸기

세조 10 년(1464) 08 월 12 일(계사) ; 정의 공주에게 쌀 1 백석을 내려 주다

세조 10 년(146) 10 월 23 일(계묘) ; 정의 공주.임영 대군. 영응 대군에게 매년 쌀 50 석씩을 주게 하다

세조 12 년(1466) 01 월 19 일(임술) ; 중궁과 영응 대군 이염의 집에 거둥하다

세조 12 년(1466) 윤 03 월 26 일(정유) ; 정의 공주의 집에 거둥하여 문병하다

세조 12 년(1466) 10 월 24 일(임술) ; 안빈세.최한경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후원에서 군사 훈련을 구경하다

세조 13 년(1467) 03 월 01 일(병인) ; 황치신.이윤.손성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세조 13 년(1467) 10 월 05 일(정유) ; 정의 공주의 집에 거둥하여 병을 문안하다

세조 14 년(1468) 01 월 25 일(병술) ; 임영 대군 이구가 임금을 알현하다

세조 14 년(1468) 01 월 26 일(정해) ; 정의 공주가 청동 화로를 바치니, 경창미를 내려 주다

세조 14 년(1468) 01 월 28 일(기축) ; 거가가 용인의 가질동에 이르러 사냥하고 저녁에 장호원 들에서 머물다

Scanned with CamScanner

세조 14 년(1468) 03 월 08 일(무진) ; 정의 공주가 온정에 와서 목욕하니, 곡진하게 대우할 것을 명하다

세조 14 년(1468) 03 월 18 일(무인) ; 노인이 취라치 박유정의 사연을 호소함. 영순군 이부의 집에 거둥하다

세조 14 년(1468) 05 월 22 일(신사) ; 임영 대군 이구.정의 공주 등에게 녹골주를 내려 주다

예종 00 년(1468) 11 월 21 일(정축) ; 정의 공주와 평안도 관찰사 이극배가 빈전에 향을 올리다

예종 01 년(1469) 06 월 11 일(계해) ; 정의 공주에게 쌀 1 백 석을 내려 주다

성종 05 년(1474) 06 월 09 일(임술) ; 현석규가 진주 목사 안치강의 방납의 죄에 대해 아뢰다

성종 08 년(1477) 02 월 11 일(경진) ; 정의 공주가 졸하다

중종 38 년(1543) 07 월 06 일(기유) ; 사헌부.예조 등에서 건의한 일들을 대신들과 의논하다

4. 훈민정음 창제에서 신숙주와 집현전 학자들

훈민정음 창제에 있어서 신숙주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은 과연 어떠한 일을 했을까? 우리는 흔히 신숙주, 성삼문 등의 집현전 학사들이 훈민정음을 직접 창제하였다고 말하거나 혹은 세종대왕과 공동으로 창제하였다고 말하는데 그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신숙주(申淑舟)는 세종조 이후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성삼문(成三問)과 자주 비교되는 인물로서 당대에 가장 뛰어난 언어학자이다.[9] 신숙주(申淑舟)는 1417(태종 17)년 6 월 13 일에 태어났고, 1438(세종 20)년 22 세 때에 진사시험에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1439(세종 21)년 23 세 때에는 생원시험에서 2 등으로 합격하였고, 같은 해에 문과에 3 등으로 합격하였다. 1441(세종 23)년 25 세 때에 처음으로 집현전(集賢殿) 부수찬(副修撰)이 되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는 해인 1443(세종 25)년 2 월 21 일, 그의 나이 27 세 때에 신숙주는 집현전을 떠나서, 일본 통신사 변효문의

[9] 보한재(保閑齋) 신숙주(1417-1475) 선생의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신숙주는 공조좌참판(工曹左參判)을 지낸 아버지 신장(申檣)과 지성주사(知成州事) 정유(鄭有)의 따님이신 정씨 부인의 사이에서 1417(태종 17)년 6 월 13 일에 태어났다. 자는 범옹(泛翁)이고, 호는 희현당(希賢堂) 또는 보한재(保閑齋)라 하였으며,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Scanned with CamScanner

서장관으로 일본에 가게 된다. 그리고 그 해 10 월 19 일에 귀국하니까, 결국 9 개월 동안 일본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신숙주는 1441(세종 23)년 25 세 때에 집현전(集賢殿) 부수찬(副修撰)이 되었고, 1443(세종 25)년 2 월 21 일 27 세 때에는 일본 통신사 서장관(書狀官)으로 일본에 가게 된다.[10] 그리고 그 해 10 월 19 일에 귀국하니 9 개월 동안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 후 1452(문종 2)년 9 월, 36 세 때에 명나라에 사은사(謝恩使)로 가는 수양대군의 서장관으로 동행하여 갔다가 1453 년 2 월에 귀국한다. 이때에 공과 수양대군 간의 밀접한 인간적 우정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본다.[11]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의 꼬리말에 의하면 "계해년(1443) 겨울에 우리 전하(세종대왕)께서 정음 28 자를 창제하시어 간략히 예의(例義)를 지어 보이시고 이를 '훈민정음'이라 이름 지으셨다"는 기록이 있다.[12]

이 때에 신숙주는 집현전에 부수찬으로 들어간지 2 년밖에 안 되었으며, 그의 나이는 27 세이었고, 성삼문의 나이는 26 세였던 것이다.[13] 그리고 신숙주는 1443 년 2 월 21 일에 일본 통신사의 서장관으로 가서 10 월 19 일에 귀국하게 된다. 결국 신숙주는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중요한 시기에 집현전을 떠나서 일본에 서장관으로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신숙주는 훈민정음 창제에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뒤에 세종의

---

[10] 신숙주 선생은 일본어도 능통하고, 중국어도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34 세에는 명사 예겸(倪謙)의 접대를 맡으면서 공의 사부(詞賦)가 굴원(屈原)과 송옥(宋玉)에 비할 만하다는 칭예를 얻었다." <보한재전서>상, 1984, 고령신씨문헌간행위원회

[11] 이 때에 수양대군과 신숙주는 장조카를 살해하고 황제가 되었던 영락제의 능을 참배하였다. 영락제는 '부도덕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업적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한바 있는데 이것이 수양과 신숙주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12] 실록에는 '癸亥冬上親製諺文二十八字'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해가 1443 년 세종 25 년 겨울이 되는 것이다.

[13] 그 당시의 집현전의 최고 책임자는 부제학 최만리(崔萬理)다. 그는 세종이 등극하던 해에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하며, 세종 2 년에 집현전 박사로 근무하여 훈민정음 창제할 때까지 25 년 간 집현전의 책임자였다. 그러나 언문반대상소를 올린 최만리를 비롯하여 김문, 정찬손 신석조 등은 훈민정음 창제를 도울만한 언어학자가 아니었으며, 또한 그 당시 언어학자인 신숙주와 성삼문은 27 세, 26 세의 어린 신진학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훈민정음은 당대 최고의 음운학자요, 음악가인 세종대왕이 친히 창제한 것이다.

Scanned with CamScanner

언어정책에 따라 한자음을 정리하는 사업에 주도적으로 일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4]

세종대왕이 1443 년(세종 25)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그에 대한 해설서인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이 1446(세종 28)년 9 월 상한(上澣)에 완성되는데, 신숙주는 여기에 직접 참여하였다. [15]

그리고 1445(세종 27)년에 권제, 정인지, 안지 등이 지어 올린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내용을 다른 여러 학자들과 함께 보완하여 1447(세종 29)년에 펴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해오고 있던 한국한자음을 분류 정리하여 1447 년(세종 29)에 완료된 <동국정운(東國正韻)> 전 6 권 편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여기에 서문을 써서 이 책의 편찬 경위 등을 밝혔다.[16]

세종대왕은 신숙주를 비롯한 여러 학자에게 한어발음사전의 하나인 <홍무정운(洪武正韻)>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숙주는 성삼문과 함께 요동에 와 있던 명나라 한림학사 황찬에게 8 차례(혹은 13 차례)나 찾아가 한음을 물어보았다고 한다. [17] 그러나 당시에 8 차례 혹은 13 차례나 찾아갔다는 데에는 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18]

아무튼 10 년 후인 1455(단종 3)년에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 전 16 권을 편찬 완료하고, 신숙주가 그 서문을 써서 그 동안의 경위와 내용을 밝혔다.

---

[14] <보한재집>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문충공행장을 보면, 신숙주는 한어, 왜어, 몽골어 등에 능통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언어능력으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 세종대왕이 계획하고 있던 표준용 우리나라 한자음과 표준학습용 중국 본토 한자음을, 모두 새 표음문자인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5] 1446 년에 완성된 <훈민정음> 해례에 참여했던 집현전 학사들은 예조판서로서 주관자라 할 수 있는 정인지(1396-1478)를 비롯하여 집현전 응교 최항(1409-1474), 부교리 박팽년(1417-1456), 신숙주(1417-1475), 수찬 성삼문(1418-1456), 돈녕부 주부 강희안(1418-1465), 행집현전 부수찬 이개(1417-1456), 이선로(? -1453) 등 여덟 사람이었다.

[16] 신숙주가 쓴 <동국정운>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審聲以知音 審音以知樂 審樂以知政"
"성을 알아야 음을 알고, 음을 알아야 음악을 알며, 음악을 알아야 정치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훈민정음 창제가 음운학과 음악과 훈민정음이 서로 관련이 깊으며, 백성을 명명덕(明明德)하려는 세종대왕의 언어관, 정치관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국정운>의 서문은 신숙주가 썼지만 이것은 세종대왕의 언어관을 나타낸 것이다. 아울러 신숙주도 음운학에 조예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17] 희현당(希賢堂)의 호는 신숙주가 1445 년 요동으로 황찬을 찾아갔을 때 황찬이 지어준 것이라고 한다.

[18] 신숙주 선생이 황찬(黃贊)의 말을 듣고 빨리 깨달아 막힘 없이 대화하였다고 하니, 신숙주 선생의 중국어 수준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신숙주는 영의정까지 지내는 정치가요, 중국어와 일본어와 몽골어에 능통한 유명한 외교가이며, 여진족을 물리친 국방 전문가이다. 그리고 특히 언어학적으로 큰 업적이 있는데, 세종대왕을 보필하여 <동국정운(東國正韻)>, <사성통고(四聲通考)>, <홍무정운역훈 (洪武正韻譯訓)> 등의 운서를 만드는데 직접 참여한 것이다. 그는 뛰어난 언어학자이며, <북천가>, <해동제국기> 등을 쓴 탁월한 저술가이다. 그리고 성삼문 등과 함께 한어교재인 <直解童子習譯訓評話)>를 1453(단종 1)년에 편찬 완료한 바 있다.

한편 집현전 학자 최만리 등은 1443 년 2 월 20 일에 갑자상소를 올렸다. 1443 년 2 월 16 일에 동궁, 세자와 최항, 신숙주, 박팽년, 이개, 이선로, 강희안, 하위지 등 소장학자 10 여명이 세종의 명으로 의서당에 모여서 <동국정운>의 운서를 편찬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김문, 정창손, 신석조 등이 나흘 뒤인 2 월 20 일에 이른바 '언문반대 상소문'을 만들고 집현전의 최고 책임자인 최만리에게 상의하여 상소문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 갑자상소문으로 자세히 보면 세종대왕은 대단한 음운학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운서를 아느냐? 내가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바로잡는단 말이냐?' 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운서를 정리하고 <동국정운>을 만들고 한자음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또 하나의 배경으로 한자음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갑자상소문에는 정치적인 갈등이 표출된 것이다. 소장 학자들의 운서 편찬을 위한 모임은 결국은 차기 왕권을 이끌어갈 인물들이기에 이에 참여하지 못한 김문, 정창손 등이 반기를 들은 것이다. 세종대왕이 김문에게 국문하며 '전에는 언문창제가 옳다고 하고 이제 와서 그르다고 하니 말바꾼 연유를 대라'고 하는 대목에서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반대와 어려운 과정을 무릅쓰고, 세종성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21 세기 정보사회에 알맞은 가장 훌륭한 음소문자를 우리 민족에게 선사한 것이다.

5. 맺음말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사람의 음성기관에서 찾았다. 세종대왕은 뛰어난 음성학자로서 음성기관을 관찰하여 음운조직을 정확하게 밝히고 글자를 창제하였다.

Scanned with CamScanner

사람의 왼쪽 얼굴을 보고 음운현상을 조사 연구하였는데, '니은(ㄴ)'이 '혀끝이 웃잇몸에 닿는 형상을 닮은 것이다.'라는 <훈민정음> 해례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집현전 학자들의 반대와 어려운 과정을 무릅쓰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정의공주와 동궁이었던 문종과 진양대군, 안평대군 등의 자문으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성왕께서 창제하신 훈민정음은 조합형이 문자로서 오늘의 정보기술(IT)에 과학적으로 알맞으며, 21 세기 정보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음소문자이기에 우리는 한글을 빛내야 하는 민족적 사명이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신항(1991).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강신항(2002), 「신숙주와 운서」, <국어생활>제 12 권 제 3 호 가을호, 국립국어연구원.

권연웅(1982). 「세종조의 경연과 유학」. <세종조 문화 연구> Ⅰ.

김무림(1999). <홍무정운역훈연구> 월인.

김상기(1955). 「독서당(호당)고」. <진단학보> 17 집, 진단학회.

민현구(2002). 「세종대왕」, <한국사시민강좌> 30.

박병채(1983). <홍무정운역훈의 신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보한재전서(保閑齋全書)>상,중,하 (1984) 고령신씨문헌간행위원회.

<보한재집> (1988). [한국문집총간]본 10. 민족문화추진회.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신상순.이돈주.이환묵 편(1988). <훈민정음의 이해>, 한신문화사.

안병희(2002), 「신숙주의 생애와 학문」 <국어생활> 제 12 권 제 3 호 가을호, 국립국어연구원.

왕력(王力)(1985). <漢語語音史> 중국사회과학출판.

유창균(1979). <동국정운>, 형설출판사.

이돈주(1995). <한자음운학의 이해>, 탑출판사.

이돈주(2002) 「신숙주와 훈민정음」 <국어생활>제 12 권 제 3 호 가을호, 국립국어연구원.

이숭녕(1981). <세종대왕의 학문과 사상>, 아세아문화사.

최기호(1983)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관한 연구. <동방학지> 34-35 합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최기호(1985)외 <국어학 서설> 정음문화사.

Scanned with CamScanner

최승희(1966,1967). 「집현전 연구」,<역사학보> 32, 33.
최현배(1955) <우리말본> 정음사.
허 웅(1983)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홍이섭(1971). <세종대왕>, 세종대왕기념사업회.
田中健夫(1991) 역주 <海東諸國記>, 岩波文庫 33-458-1.

Scanned with CamScanner

Хүнмин жонгым-ийн зохиосон үе шат болон Жонг И гүнжийн авианы өөрчлөлт тогтворжих тухай асуудал

Чой Ги Хо

[Хураангуй]

Дэлхий дээрх бичиг үсэг дунд хэн, хэзээ, хаана, юуг, хэрхэн яагаад зохиох болсныг нь тодорхой мэдэж болох бичиг бол зөвхөн Хангыл /Солонгос бичиг/ юм гэж хэлэхэд хэтрүүлэг болохгүй байх. Сэжун их хаан 1443 онд Гёнбуг ордонд ард олон нь сурч, хэрэглэхэд хялбар бичиг үсэг зохиосон нь Хүнмин жонгым бөгөөд түүнийг хүний 5 махбод, авиаг өгүүлэх эрхтний дүрс хэлбэрийг дуурайлгаж бүтээжээ. 1443 оны 12 дугаар сард “Жусон хааны тэмдэглэл”-д “Энэ сард Сэжун их хаан өөрийн биеэр 28 үсэг бүтээлээ” гэж тэмдэглэгджээ. Түүнээс хойш 1446 оны 10 дугаар 9-ний өдөр “Хүнмин жонгым” хэмээх номыг бичиж дуусгаад ард түмэнд тунхаглан зарласан болохыг судлан тогтоосноор өнөөдрийн Хангыл үсгийн өдөр болгон тэмдэглэж иржээ.

“Хүнмин жонгым”-ийг бүтээхэд гар бие оролцсон хүмүүсийн тоонд ихэвчлэн эрдэмтэн мэргэд, хунтайж нарыг дурьддаг бөгөөд, харин И Гавон багшийн “И Үжүний (李遇竣) Мунюядамд(夢遊野談) цагаан толгой бүтээсэн тухай” –д Жонг И гүнжийн асуудлыг анх хэлэлцэж, 1909 онд хэвлэн гаргасан “Жүгсанъ Ановогт Дэдонбо (죽산안씨대동보)”-д Сэжун хааны хоёр дахь охин Жонг И гүнж “Гүнжийн түүхэн тэмдэглэл(公主遺事)”-дээ авиан өөрчлөлтийг тайлан судалсан нь өнөөгийн Хангыл үсэг юм хэмээн тэмдэглэжээ. Авиан өөрчлөлт нь үндсэн эгшиг үсгийг нийлүүлэн авиан дүрмийн дагуу өөрчилдөг авиа зүйн бэрхшээл гэж хэлж болно. Тиймээс авиан өөрчлөлт нь Бёнъгүн, Бёнъчи болох хэлний хагас үзүүрийн авиа ‘ㄹ’, хагас шүргэх авиа ‘ㅿ’ ийн асуудал гэж тайлбарлаж болно. Мөн тухайн хэлэнд тогтворжих үзэгдлийг Гүгёл(구결) гэдэг бөгөөд үе болгонд “-하고, -하니, -해라” гэх мэт нөхцлийг залгаж үйлт нэрийн хувирал ба жинхэн нэрийн хувирал буюу үг зүйн асуудал хэмээн үзэж болно. Тиймээс авиан өөрчлөлт нь авиа

Scanned with CamScanner

зүйн асуудал болж, тогтворжих үзэгдэл нь үг зүйн асуудал болно хэмээн таамаглаж байна.

“Хүнмин жонгым”-ийг бүтээхэд гар бие оролцсон эрдэмтдийн багагүй эсэргүүцэл, саад бэрхшээлийг үл тоон бодитойгоор тус дэм үзүүлсэн Жонг И гүнж, Мүн Жун хан хүү, Жин Янг жонон, Ан Пён жонон зэрэг хүмүүсийн өргөн барьсан саналын тусламжтайгаар Сэжун хаан “Хүнмин жонгым”-ийг бүтээсэн байна.

Сэжун их хааны бүтээсэн Хүнмин жонгым нь цэг, зураас, дугуйгаас бүтсэн тул өнөөдрийн мэдээлэл технологийн 21 дүгээр зууны мэдээллийн нийгэмд нийцсэн хамгийн шилдэг бичиг үсэг тул бид бүхэн түүхийн өмнө Хангыл үсгийг бүх нийтэд таниулж, түүгээрээ бахархах үүрэгтэй билээ.

Голлох үг: Сэжун их хаан, Хүнмин жонгым, Жонг И гүнж, авианы өөрчлөлт тогтворжих, зохиосон үе шат.

Scanned with CamScanner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 хүчин зүйлүүд

Төмөрбаатарын Мөнхжаргал[19]

Агуулга

оршил
1.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 хэлний гадаад хүчин зүйлүүд
   1.1 Ардын зан заншлын хэлбэрүүд
   1.2 Сүсэг бишрэл
   1.3 Үзэл баримтлал, оюун санааны бүтээл
   1.4 Үндэсний онцлогтой зүйлүүд
   1.5 Нэр томьёо, мэргэжлийн үг хэллэг
   1.6 Нийтэд танил үзэгдэл, юмс
2.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 хэлний дотоод хүчин зүйлүүд
   2.1 Зүйрлэл
   2.2 Үгийн утга баяжих, хураангуйлагдах
   2.3 Зүйр цэцэн үгийн товчлол
   2.4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хувирал
   2.5 Бусад хэлнээс зээлдэх, хуулбарлах
Дүгнэлт

[Хураангуй]

Аливаа ард түмний соёл, ёс заншлын онцлогийг илүү тод илэрхийлдэг хэлний яруу хэрэглүүр болох өвөрмөц хэлц хэрхэн үүсдэгийг судалбал хэл хэлний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 аргын адил төстэй тал болон ялгаатай талыг илрүүлж болох юм.

Өвөрмөц хэлц нь олон хүчин зүйлээс үүсч болох бөгөөд тэдгээр хүчин зүйлүүд нь аль ч хэлэнд нийтлэг гэж үзэхээр байна.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 гадаад дотоод хүчин зүйлүүд бий.

Судлаачдын бүтээлээс үзвэл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 хүчин зүйлүүдийг хэлний дотоод, гадаад хүчин зүйл гэж ангилах нь зүй ёсны болох нь батлагдаж байна. Харин тэдгээр дотоод, гадаад хүчин зүйлд хамаарах зүйлийг өөрийн өнцгөөс харж шинээр ангилах оролдлого хийж байгаа нь энэ өгүүллийн гол зорилго юм.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 гадаад хүчин зүйлд: ардын ёс заншил, сүсэг бишрэл, нийт хүн төрөлхтний эсвэл тухайн үндэстний оюун санааны бүтээл, үндэсний онцлогтой зүйлүүд тухайлбал үндэстний сэтгэлгээг

[19] ШУТИС-ийн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сургуулийн багш

Scanned with CamScanner

илэрхийлсэн хэллэгүүд, тухайн ард түмний загвар дүрслэл, билэгдэл, нэр томьёо, нийтэд танил үзэгдэл, юмс зэргийг багтааж болно.

Харин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 хэлний дотоод хүчин зүйлд зүйрлэл чухал байр суурь эзэлнэ. Мөн бусад хэлнээс зээлдэх, хуулбарлах, зүйр цэцэн үгсийг товчлох, энгийн хэллэг аяндаа өвөрмөц хэлц болох, өвөрмөц хэлц дэх бүрдүүлбэр өөрчлөгдөх, эсвэл тэдгээр үгсийн утга баяжих, өвөрмөц хэлц хураангуйлагдах байдлаар шинэ өвөрмөц хэлц бий болох нь дотоод хүчин зүйлд хамаарна. Мөн ойролцоо утгатай хэлц үүсэх, утга салаалах, утга ижилсэх нь ч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сан баяжих нэгэн нөхцөл юм.

Аливаа хэлний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сан нь зөвхөн тухайн хэлнээсээ баяжихаас гадна гадаад хэлний нөлөөгөөр баяждаг. Солонгос хэлэнд хятад ханз хэрэглэж байснаас шалтгаалж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санд хятад хэлц ихээхэн орсон болох нь илэрхий байна.

Хэл хэлний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гарал үүслийг судлах нь хэлний онолын болоод практикийн талаас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юм. Иймээс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өвөрмөц хэлцийг гарал үүслийн хувьд илүү нарийвчлан судалж монгол хэлтэй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 хийх шаардлага байна үзэж байна.

Түлхүүр үг : Хэл-соёл судлал, хэлний гадаад хүчин зүйл, хэлний дотоод хүчин зүйл,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сан, гарал үүсэл.

Оршил

"Ард түмний зан байдал ба хэлний онцлог нь оюуны асар гүнээс нарийн уялдаатайгаар үүсэн гарсан байдаг" гэж В.Гумбольдт[20] бичжээ. Үүнээс үзэхэд аливаа хэлийг судлах явдал тухайн соёлтой салшгүй холбоотой байна. Хэл соёлын харилцан шүтэлцээний талаар В.Гумбольдтын онол нь өнөө үед хэлшинжээч нарын анхаарлыг зүй ёсоор татаж байгаа билээ. Хэлшинжлэл нь ерөнхий болоод тусгай соёлын судлалтай салшгүй холбоотой юм. Хэл, соёлын харилцан хамаарлын асуудал нь үндэсний сэтгэлгээний төлөв байдал, хэв шинж, зуршил дадлыг хэлний тодорхой баримт хэрэглэгдхүүнд тулгуурлан тайлбарлах нэг гол эх сурвалж болно гэж үзэх болжээ.

Хэл-соёл судлалын салбар өнөө үед улам бүр хөгжиж байна. Хэл-соёл судлалын судлах зүйл нь хэлээр дамжуулан соёлын мэдээллийг дамжуулагч, тухайн соёлыг бүтээгч хүнийг тэрхүү

[20] Тагарова Т.Б. Концептуально-прагматическа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х единиц бурят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прозы. Иркутск.2008, 83-р тал

Scanned with CamScanner

соёлтой нь харилцан үйлчлэлд нь судлах явдал юм. Янз бүрийн хэлний ялгаа нь соёлын ялгаан дээр тулгуурласан байдаг. Энэ ялгаа үгийн сангийн янз бүрийн нэгжүүд, тэр дундаа өвөрмөц хэлцэд ч илэрнэ. Учир нь нэрлэлт үүсгэж буй хэрэгслүүд нь хэлний гадаад талтай шууд холбоотой байдаг. Аж амьдралын аливаа зүйлд ард түмэн хэрхэн ханддаг нь уг зүйлийг нэрлэх хоёр дахь нэрлэлтээс нь илүү тодорхой харагддаг бөгөөд үндэсний соёлын онцлогтой нягт холбоотой байдаг.

Аливаа ард түмний соёл, зан заншлын онцлогийг илэрхийлж байдаг өвөрмөц хэлц хэрхэн үүсч бий болдгийг судалбал хэл хэлний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 аргын адил төстэй тал болон ялгаатай талыг нээж болох юм.

Өвөрмөц хэлц нь олон янзын нөхцөлд үүсч болох талтай боловч тэдгээр нөхцөл нь төрөл бүрийн хэлэнд нийтлэг гэж үзэхээр байна.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гэх ямар хүчин зүйлүүд байдгийг авч үзье. Энэ тухай орос буриадын судлаач Т.Б. Тагаровагийн бүтээл[21] болон солонгосын судлаач Шим Жае Ки, Чае Уан нарын хамтын бүтээлд [22] нэлээд тодорхой тусгасан байдаг. Оросын судлаач буриад өвөрмөц хэлцэд дүн шинжилгээ хийж, солонгосын судлаачид солонгос өвөрмөц хэлцийг судалсан. Эдгээр судлаачдын бичсэнээс үзвэл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 хүчин зүйлүүдийг хэлний дотоод, гадаад хүчин зүйл гэж ангилах нь зүй ёсны болох нь батлагдаж байна. Харин тэдгээр дотоод, гадаад хүчин зүйлд хамаарах зүйлийг өөрийн өнцгөөс харж шинээр ангилах оролдлого хийж байгаа нь энэ өгүүллийн гол зорилго юм.

1.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 хэлний гадаад хүчин зүйлүүд

1.1 Ардын зан заншлын хэлбэрүүд

Гэрлэлт, оршуулга гэх мэт ардын зан заншлын хэлбэрүүд нь олон өвөрмөц хэлцийг үүсгэдэг. Тухайн зан үйлд хэрэглэдэг байсан үг хэллэг нь аажимдаа нийгмийн болон соёлын хувьсал өөрчлөлтийн явцад өвөрмөц хэлц болж үлддэг. Жишээ авч үзье.

Солонгос хэлэнд 장가 가다, 국수를 먹이다 гэсэн өвөрмөц хэлцүүд бий. Эдгээр нь үгчилбэл “хадмын гэрт очих”, “гурилтай шөл идүүлэх” гэсэн үг юм. Гэтэл энэхүү хэлцүүд нь гэрлэх, хуримлах гэсэн утгатай ажээ. Энэ нь урьд цагт гэрлэсэн эр

---

[21] Тагарова Т.Б. Концептуально-прагматическа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х единиц бурят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прозы. Иркутск.2008

[22] 심재기 채완 공저. 언어와 의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

Scanned with CamScanner

хадмынхаа гэрт хэсэг хугацаанд хамт амьдардаг байсан болон хуриманд уригдсан зочдыг гурилтай шөлөөр дайлдаг ёс байснаас улбаатай.

1.2 Сүсэг бишрэл

Зарим өвөрмөц хэлц ардын сүсэг бишрэлээс үүдэлтэй. Жишээлбэл: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Бар ч гэсэн өөрийнх нь тухай ярихад ирдэг) хэн нэгнийг дурсахад тэр хүн мэдсэн юм шиг ирэх гэсэн утгаар хэлэгддэг энэхүү хэлц үг нь солонгосчууд эртнээс барыг үлгэр домгийн амьтан, тэр дундаа зүггүй хүүхдийг авч явдаг аймшигт амьтан гэсэн дүрслэлээр ярилцах нь элбэг байснаас үүджээ.

귀신 듣는 덴 떡 소리도 못한다(Чөтгөр шулмас сонсох газар ддогны тухай ч бүү дурс) гэдэг нь хүнээс нуумаар зүйлээ хаа газарт хамаагүй бүү ярь гэсэн утгатай.

Тэрчлэн солонгосчууд уламжлалт шашны зэрэгцээ Христийн шашныг дэлгэрүүлэх болсон нь зарим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эд нөлөөлсөн. Библи судраа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새 술은 새 부대에 (Mattew 9:17) гэсэн хэсгүүд нь өвөрмөц хэлц болон тогтворжсон байх жишээтэй. 눈에는 눈, 이에는 이 (нүдэнд нүд, чихэнд чих) гэдэг нь хүн юманд яаж хандана, түүнтэйгээ дүйцэх хариуг авдаг гэсэн утга илтгэсэн өвөрмөц хэлц болжээ. 새 술은 새 부대에 (шинэ архийг шинэ саванд) гэсэн хэллэг нь шинэ зүйлийг тусад нь байлгах хэрэгтэй, хуучирсан муу зүйлтэй хольж болохгүй гэсэн утгатай өвөрмөц хэлц болсон байна.

1.3 Үзэл баримтлал, оюун санааны бүтээл

Нийт хүн төрөлхтний эсвэл тухайн үндэстний үзэл баримтлал, оюун санааны бүтээл нь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сан баяжих нэгэн эх үүсвэр болно.

1.3.1 Зарим тохиолдолд ертөнцийг үзэх үзэл баримтлал, түүхийн үйл явдлууд, ардын дундах аман яриа, зөвхөн тухайн газар оронд болсон онцлог үйл явдалтай холбоотой үүсэх нь ч бий.

南山 골 센님 (Намсан уулын номч) ядуухан боловч хөгийн бардам зантай бичгийн хүнийг ингэж нэрлэдэг.

Scanned with CamScanner

강원도 안 가도 삼척(Канвон мужид очоогүй ч Самчог) Канвон мужид Самчог гэдэг их хүйтэн газар байдаг тул их хүйтэн байгааг зүйрлэн хэлсэн хэлц үг үүсчээ.

1.3.2 Ардын аман зохиол, эртний судар бичиг, тэмдэглэл зэрэг нь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эд нөлөөлдөг.

- Солонгос ардын аман зохиолын үлгэр, домог, пансори зэрэг нь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 нэг үндэс болдог.

억지 춘향『춘향전』(албадуулсан Чүнхян) хүчээр ямар нэгэн зүйл хийх

놀부 심사『흥부전』(Нульбүгийн хорон санаа) атгаг хорон санаа

빵덕 어미 같다『심청전』(Ббэндогийн ээжтэй адил) зальжин, муу зантай

Эдгээр хэлц солонгосын домог үлгэрээс үүсэлтэй.

- Хятадын уран зохиолын ишлэл хэсэг хэлц үг болох нь олонтаа. Мөн хангыл үсэг зохиогдохоос өмнө солонгосчууд хятадын дүрс үсэг хэрэглэж байсан тул ханзны гаралтай хэлц их юм. Жишээ нь:

내 코가 석 자나 빠졌다: 당(唐)의 은성식 (殷成式) 의『유양잡조 (酉陽雜俎)』의 "방이설화 (芳弛說話)" (миний хамар 3 жа сунасан) хувийн ажил ч их байхад юун өөр хүнд санаа тавихтай манатай.

도로아미타불: 부묵자 (副墨子) 찬(撰)『파수록 (罷睡錄)』(дахиад амита руу явах) хичээл зүтгэл нь талаар болох.

범강 장달이 같다 -『삼국지』(Бомган Жондаль нартай адил) муу хүн

- Барууны, болон дэлхий нийтийн оюуны бүтээлээс үүсч гарсан хэлцүүдийг дараахь жишээнээс харж болно.

판도라 (Pandora)의 상자(Пандорагийн хайрцаг) – 희랍 신화 санаандгүй тохиолдсон зовлон, 황금알을 낳는 거위(алтан өндөг гаргадаг галуу) – 이솝 우화 санамсаргүй олдсон ашиг

판도라 (Pandora)의 상자 гэсэн өвөрмөц хэлц Грекийн домгоос үүсчээ. Нээж болохгүй гэсэн тагийг Пандора нээснээс болж хайрцаг дотроос янз бүрийн гай гамшиг садран гарч ертөнцөөр таржээ. Тэгээд хайрцганд хүсэл мөрөөдөл л үлджээ хэмээн домогт өгүүлдэг байна.

Scanned with CamScanner

1.4 Үндэсний онцлогтой зүйлүүд

Үндэстний сэтгэлгээг илэрхийлсэн хэллэгүүд(1), тухайн ард түмний загвар дүрслэл(2), билэгдэл (3) зэрэг нь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 үндэс болдог.

1.4.1 Юмыг үнэлж цэгнэх үндэстний сэтгэлгээ өвөрмөц хэлцэд тусдаг.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нүдэндээ хийсэн ч өвдөхгүй) маш эгдүүтэй

떡을 해 먹을 집안 (ддог хийж идүүштэй гэр бүл) хэрүүл шуугиантай гэр бүл

김칫국부터 마시다(кимчитэй шөл түрүүлж уух) нөгөө хүнийхээ бодлыг мэдээгүй байж өөрийн таамагласандаа итгээд үйлдэл хийх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гэсэн өвөрмөц хэлцээс харахад монголчуудын "нүдний цөцгий мэт хайрлах " гэдэг өвөрмөц хэлцтэй ойролцоо байна. Хүнд ертөнцийг харах нүд нь хичнээн эрхэм билээ. Гэтэл тэр эрхэм нандин зүйл рүүгээ хийчихсэн ч өвдөхгүй гэдэг нь ямар их хайрлаж байгааг харуулж байна.

1.4.2 Тухайн нэг ард түмэнд тогтсон загвар дүрслэл нь тэдний ертөнцийг үзэх үзэл, ойлголтыг тусгаж, юмсыг хүнчлэн үзэхэд илэрдэг. Жишээ нь:

개뿔 같은 소리 (нохойн эвэр шиг юм ярих) дэмий үг, олиггүй яриа

인간의 가족을 쓴 이리다 (хүний арьс нөмөрсөн чоно) муу хүн

Эндээс харахад солонгосчууд нохой, чоныг муу юмны загвар болгодог нь харагдаж байна. Монголчууд нохойг үнэнч нөхөр, чоныг хийморьтой амьтны загвар болгодог. Чоно мал хулгайлдаг тул муухан юмны загвар болох нь ч бий. Харин эндээс харахад солонгос хэлэнд нохой, чоно хоёул таагүй дүр гаргаж байна.

1.4.3 Билэгдэл бол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 нэгэн үндэс болдог.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열 손가락 = модон зүйл) (арван хуруунихаа алийг нь хазсан ч өвдөнө) үр хүүхэд бүгд адил гэсэн утгатай байна.

Scanned with CamScanner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 (нэгийг нь харвал арвыг мэддэг) нэгийг нь харахад бүгдийг нь мэдэж болно гэсэн утгатай. Арвын тоогоор бүх юм гэсэн утгыг илэрхийлдэг.

서울은 한국의 심장이다. (Сөүл БНСУ-ын зүрх) Сөүл БНСУ-ын төв.

철수는 우리집 기둥이다.(Чолсү манай гэрийн багана.) Чолсү манай гэрийг авч яваа хүн гэсэн утгатай. Монгол хэлэнд илэрхийлдэг утгатай адил байна.

Арвын тоогоор бүх юм гэсэн утгыг илэрхийлдэг, зүрхийг ямар нэгэн зүйлийн гол төв гэж ойлгодог, баганыг түшиг тулгуур гэсэн утгаар хэрэглэдэг гэхчилэн жишээнээс харахад эдгээр билэгдэл нь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гэх нэгэн хүчин зүйл болж байна.

1.5 Нэр томьёо, мэргэжлийн хэллэг

Нэг салбарын нэр томьёо нь тухайн салбараасаа халиад олон түмний нийтлэг хэрэглэдэг хэлц болох тохиолдол цөөнгүй байна.

야구: 홈런(home run)을 치다(үүр лүүгээ гүйх)

배구/축구: 옐로 카드(yellow card)를 보이다(шар хуудас өгөх)

운전: 브레이크(brake)를 걸다(тормозлох) саад учрах

바둑: 머리를 들다(толгой өргөх) аажмаар хүч авч олонд танигдах

Дээрх жишээнээс харахад спорт, тоглоом, автомашин жолоодлогод хэрэглэдэг үгнүүд өвөрмөц хэлц болж хэвшсэн нь харагдаж байна.

1.6 Нийтэд танил үзэгдэл, юмс

Хүмүүст байнга харагдаж байгаа зүйлс нь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 нэгэн үндэс болно. Зарим тохиолдолд олон нийтийн мэдээллийн хэрэгслээр цацагдаж буй хэллэгээс үүдсэн өвөрмөц хэлцүүд байна. Олон нийтийн мэдээллийн хэрэгсэл бол хүмүүсийн сэтгэлзүй, ухамсарт нөлөөлөх хүчтэй зүйл байдаг тул байнга давтан хэрэглэж байгаа үг, хэллэгүүд нь дасал болсоор аажмаар өвөрмөц хэлц болох нөхцөл бүрэлддэг байна.

Жишээ:

정치: 검은 돈 세탁(хар мөнгө угаах) мөнгө угаах

경제: (기업들의) 제 살 깎아먹기(өөрийнхөө арьсыг хуулж идэх) компаниудын явуулсан үйл ажиллагаа өөрт нь муугаар эргэх

사회: 적과의 동침(дайсантайгаа унтах) дайсантайгаа хамт байх

Scanned with CamScanner

문화: 메가폰을 잡다(мегафоныг барьж авах) кино гэх мэт зүйлд найруулагчийн ажлыг авах

2.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 хэлний дотоод хүчин зүйлүүд

2.1 Зүйрлэл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нэлээд хувийг зүйрлэлээс үүссэн өвөрмөц хэлц эзэлдэг. Ерөнхийдөө аливаа зүйлийг шууд утгаар нь бус тойруугаар илэрхийлсэн нөхцөлд зүйрлэл бий болдог.

Жишээ:

벼락 맞다 (тэнгэрт ниргүүлэх) гэсгээл хүртэх

애 떨어질 뻔하다 (гэдсэн дэх хүүхдээ гаргачих шахах) гэнэт их цочих

떡이 생기다(ддогтой болох) санаандгүй ашиг олох

발이 맞다(хөл таарах) санаа нийлэх

입에 반창고를 붙이다(аманд нь шархны тууз наах) дуугүй болгох

2.2 Үгийн утга баяжих, хураангуйлагдах

Энгийн хэллэг тогтворжиж бүрдүүлбэр үгсийн утга баяжих, эсвэл хураангуйлагдах байдлаар өвөрмөц хэлц болох нь элбэг. Жишээ:

산통이 깨지다 (савхны сав хагарах) ажил хэрэг бүтэлгүйтэх

시집 가다 (хадмын гэрт очих) гэрлэх

술 한 잔을 먹다(ганц хундага архи уух) архи уух → 한 잔하다(ганц хундага уух) архи уух

다리를 놓다(гүүр тавих) холбоо тогтоох, 목을 자르다(хоолойг хэрчих) ажлаас халах

판을 치다(нэг өрөг тоглох) хүчээ авах

등을 돌리다(нуруугаа эргүүлэх) урвах, 머리를 깎다(үсээ хусах) шоронд суух

2.3 Зүйр цэцэн үгсийн товчлол

Зүйр цэцэн үгсийн бүрэлдэхүүний зарим хэсэг нь товчлогдож өвөрмөц хэлц болох нь бий. Жишээ: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 새우등 터진다(сам хорхойн нуруу задрах) замд нь хэлмэгдэх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다 → 재를 뿌리다(үнс цацах) бүтэж байсан юмыг бүтэлгүй болгох

Scanned with CamScanner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 → 발등을 찍히다(хөлөө цавчуулах) итгэж байсан хүндээ араар тавиулах

2.4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хувирал

Бусад хэлний нэгэн адил солонгос хэлэнд өвөрмөц хэлцэд утга ойролцоо хэлц үүсэх, утга салаалах, утга ижилсэх үзэгдлүүд байна. Жишээлбэл:

배가 부르다, 몸을 가지다, 몸이 무겁다 гэсэн хэлцүүд ойролцоо утгатай буюу жирэмслэх гэсэн утгаар хэрэглэгддэг.

팔자를 고치다 (хувь тавилангаа засах) гэсэн хэлц нь дараах хоёр утгатай байна. 1) эмэгтэй хүн дахин гэрлэх 2) аж байдал гэнэт сайжрах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олон хувилбар үүсэх, утга салаалах, утга ижилсэх үзэгдлүүдийг ажиглахад өвөрмөц хэлц хэдийгээр хэд хэдэн үгнээс тогтсон нийлэмж боловч үгэнд илэрдэг шинжүүд илэрч байгаагаараа үгтэй төстэй шинж чанартай байгаа юм.

2.5 Бусад хэлнээс зээлдэх, хуулбарлах

"Солонгос үндэстний соёлын их тайлбар толь"[23]-д хэлц үгийг уугал хэлц, харь хэлний гаралтай хэлц, холимог хэлц гэж ангилсан байдаг.

Солонгос хэлэнд олон өвөрмөц хэлцийг хятад хэлнээс авсан байдаг. Зарим ханзны хэлцийг яг байгаагаар нь зээлдэг(1) бол заримыг нь хятад хэллэгээс арай өөр болгосон(2) байдаг. Харин зарим хэсэг хэлц нь хятад ханзны хэлцийг уугал солонгос үгээр орчуулсан(3) байдаг. Түүгээр ч үл барам солонгосчууд хятад ханз ашиглан өөрсдөө зохиосон(4) хэлц ч байдаг.

(1) 오십보백보 (五十步百步) "тавин алхам, зуун алхам" гэдэг нь их ч идсэн өмхий, бага ч идсэн өмхий гэсэнтэй ойролцоо утгатай

(2) 어부지리 (漁父之利) ←어리(漁利) "загасчин хоорондын ашиг" гэснийг "загас барих ашиг" гэж товчлон хэрэглэх нь байдаг. Дундаас нь ашиг олох гэсэн утгатай.

(3) 무릎을 꿇다: 굴슬(屈膝) "сөгдөх" шалдаа буух, 눈 깜박할 사이: 순식지간(瞬息之間) "нүд ирмэх зуур" ахар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2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106-р хуудас

Scanned with CamScanner

(4) 독불장군 (獨不將軍) “ганцаараа хүн бол жанжин биш” гадуурхагдсан хүн

Солонгос, япон хэлэнд ижил өвөрмөц хэлцүүд нэлээн байдаг. Солонгосын эрдэмтэд бичихдээ японы колоничлолын үед солонгосчууд япончуудаас зээлдсэн хэлцүүд бий гэжээ. Гэхдээ хэн нь хэнээсээ зээлдсэн тухай баримт байхгүй учраас зарим нь солонгосчуудаас гаралтай байж ч болох юм.

구멍이 뚫리다(нүх гарах) саад гарах

어깨가 가벼워지다(мөр хөнгөрөх) сэтгэл хөнгөрөх

뜨거운 감자(халуун төмс) яаралтай ч шийдвэрлэхэд түвэгтэй асуудал

허트를 치다(цохих) нэрд гарах

피치를 올리다(завины хурдыг нэмэх) ажлаа хурдавчлах

Эдгээрээс гадна өөр хэлний хэлцтэй адил хэлц олон бий. Гагцхүү тэдгээрийн анхдагч нь ямар хэл болохыг тогтоох нь нарийн судалгаа шаардсан ажил юм.

Дүгнэлт

Эдгээрээс дүгнэн хэлэхэд аливаа ард түмний соёл, зан заншлын онцлогийг илэрхийлж байдаг өвөрмөц хэлц хэрхэн үүсч бий болдгийг нарийн судалбал хэл хэлний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 аргын адил төстэй болон ялгаатай тал нь харагдана. Гэхдээ өвөрмөц хэлц нь олон аргаар үүсч болох боловч тэдгээр нь төрөл бүрийн хэлэнд нийтлэг талтай байна. Энэ нь хүн төрөлхтний нийгмийн болоод хэлний хөгжлийн зүй тогтолтой холбоотой гэж үзэхээр байна.

Янз бүрийн хэлнийн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сан нь зөвхөн тухайн хэлнээсээ баяжих нь дийлэнх хувийг эзлэх боловч бас гадаад хэлнээс ч баяждаг тохиолдол цөөнгүй байгаа нь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 дотоод гадаад хүчин зүйлээс харагдаж байна.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сан баяжихад хятад, япон хэлний нөлөө нэлээд байгаа нь ажиглагдлаа.

Аливаа хэлний өвөрмөц хэлцийн гарал үүслийг судлах нь хэлний онолын болоод практикийн талаас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юм. Тухайлбал үгийн сангийн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нд, хэл соёл судлалд цаашилбал сургалтанд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Тиймээс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өвөрмөц хэлцийг гарал үүслийн хувьд илүү

Scanned with CamScanner

нарийвчлан судалж монгол хэлтэй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 хийх шаардлага байгааг манай хэлшинжээчид анхаарч үзэх нь зүйтэй.

Номзүй

1. Баянсан Ж. Соёл, хэл, үндэстний сэтгэлгээ. 2002
2. БГУ. Евроазийский фронтир. Улан-Удэ. 2009
3. Маслова В.А. Лингвокультурология. М., 2010
4. Минакова Е.Е. Современная русская идиоматика. М., 2005
5. Тагарова Т.Б. Концептуально - прагматическа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х единиц бурят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прозы. Иркутск.2008
6. 심재기 채완 공저. 언어와 의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
7. 박연준 공저. 관용어 사전. 태학사. 1995
8. 천소영. 한국어와 한국문화. 도서출판 우리책. 2005
9. 김향숙. 한국어 감정표현관용어 연구. 한국문화사. 2003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1991

Scanned with CamScanner

한국어 관용구가 생기게 된 요인

테.뭉흐자르갈

[한국어초록]

어떤 민족이든지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의 특징을 표현하는 관용어가 있다. 관용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연구해보면 각 나라마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용 표현의 생성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요인들은 각 나라마다 유사하다.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관용 표현의 생성 요인은 언어외적인 요인과 언어내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고의 목표는 이러한 생성 요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언어 외적인 요인으로는 민속 풍습, 민족의 전통 신앙, 인류나 그 민족만의 정신적 작품, 민족정신을 표현하는 특별한 구절, 예를 들면 민족정서를 나타내는 말들, 해당 국민들의 문화적 요소가 있는 표현, 상징, 용어, 일상생활의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표현 등이 있다.

언어 내적인 요인으로는 은유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외래어로 인한 관용표현, 속담이 생략된 것, 일반 구절이 관용어가 된 것, 관용어 구성 요소의 변화, 의미 변화, 관용어 요소 생략 등이 있다. 또한 관용어가 유의어에서 생성된 것, 의미가 달라지는 것, 의미는 같으나 형태가 달라지는 관용 표현 등이 있다.

여러 언어에서의 관용 표현 어휘는 그 언어뿐만 아니라 외래어에 의해서도 풍부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관용 표현 생성 요인을 분석하여 몽골어 관용 표현의 생성 요인과 비교-대조해보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주제어: 문화 어휘, 언어 외적 요인, 언어 내적 요인, 관용 표현 어휘, 어휘 생성 유래

Scanned with CamScanner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파생법 비교
-체언의 동사파생을 중심으로

강 선 화[24]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어와 몽골어의 조어법
Ⅲ.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파생법
Ⅳ. 공통점과 차이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알타이어족에 속한 한국어와 몽골어는 교착어로서 문장성분 중 서술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접사에 의해 동사를 파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사를 만드는 접사의 수도 적지 않다. 각각의 품사가 동사를 파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체언의 동사파생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의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포함되며, 이 중에서 명사만이 동사파생을 할 수 있으나, 몽골어의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명사가 포함되며, 이들 모두 동사파생이 가능하다. 두 언어의 체언은 동사로 파생이 가능하며, 이는 동사파생접사에 결합하여 동사를 파생한다. 또한 동사로 파생한 후 사동이나 피동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어와 몽골어의 체언에서 동사파생에서 여러가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에는 순수한국어, 한자어에 모두 붙을 수 있으나 한자어의 생산성이 더 높으며, 색깔을 나타내는 명사는 동사파생을 할 수 없다. 명사에 '-다', '-하다' 접사가 붙어 본 명사의 뜻을 더하거나 의미를 완성하며, 파생된 동사는 사동이나 피동활용이 모두 가능하거나 어느 한쪽만 활용이 가능하다.

몽골어 체언에 붙는 동사파생접사의 수가 한국어의 동사파생접사보다 많으며, 색깔을 나타내는 체언에도 동사파생접사가 붙을 수 있다. 또한 파생접사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고, 본 체언의 의미를

[24] 울란바타르대학교 교수

Scanned with CamScanner

더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단어에 다양한 동사파생접사가 결합할 수 있으며, 파생된 모든 동사는 사동형이나 피동형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주제어: 체언, 명사어근, 동사파생접사, 파생동사, 조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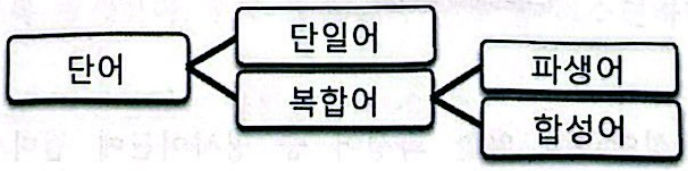
Ⅰ. 들어가는 말

한국어와 몽골어는 알타이어족으로, 그 중에서도 공통점이 많은 언어이다. 문장성분 중 서술어가, 서술어의 기본인 동사는 두 언어의 가장 중요한 품사이다. 교착어의 특성상 어근에 붙는 접사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며,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다. 몽골어는 많게는 6 개의 접사까지 붙을 수 있다.

본인은 2006 년 논문에서 두 언어의 접사에 의한 동사에서 동사로의 파생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본 고에서는 접사에 의한 체언에서 동사로 파생하는 규칙에 대해 형태론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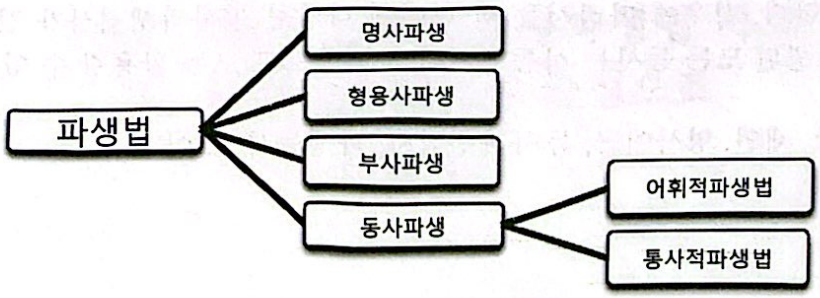
Ⅱ. 한국어와 몽골어의 조어법

2.1 한국어의 조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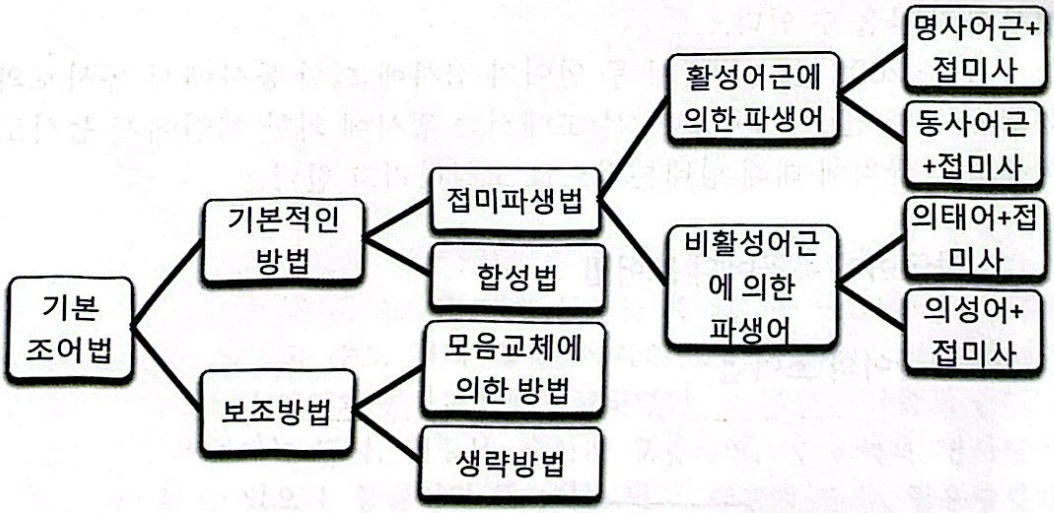
이 중 파생어는 접두사와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으로 나뉘며,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은 다음과 같다.

Scanned with CamScanner



본 고에서는 동사파생 중 통사적파생법, 그 중에서는 체언에서 동사로의 파생을 다루고자 한다.

2.2 몽골어의 조어법



본 고에서는 활성어근에 의한 파생어 중 명사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동사를 파생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Ⅲ.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파생법

3.1. 한국어 체언의 동사파생

한국어의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포함된다. 한국어의 체언에서 동사파생은 흔치 않으며, 대명사나 수사에서 동사로의 파생은 일어나지 않는다.

Scanned with CamScanner

1. '-다'

순우리말에 '-다'가 결합하여 동사를 파생하며, 적은 수의 동사만을 파생한다.

1) 가물[25] + 다 = 가물다 , 누비+ 다= 누비다, 띠, 뭉치, 빗, 신, 품

2. '-하다'

현대 한국어학자들은 '-하다'파생은 동사파생이 아니라 '-을 하다'의 준말로 보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최현배는 '-하다'를 동사파생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최현배의 주장을 따른다.

남기심 고영근은 '-하다'는 문법가에 따라서는 단순한 동사로 보는 일도 없지 않으나, '-되다'와 대립하여 능동사와 피동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접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으며, '밥, 공부, 생산' 등 동작성을 띤 명사에 붙는다고 했다.[26]

'-하다' 접사는 명사에 붙는 경우, 자립성없는 일부 한자에 붙는 경우, 일부 한자어에 붙는 경우, 외래어에 붙는 경우 등 넷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명사 + '-하다'

2) 가늠- 가늠하다, 가을- 가을하다, 갈음- 갈음하다, 거랑-거랑하다, 굿- 굿하다, 새암- 새암하다, 지랄- 지랄하다, 치다꺼리- 치다꺼리하다, 텃세- 텃세하다, 푸새- 푸새하다, 하소연- 하소연하다, 하품- 하품하다.

(2) 자립성없는 일부한자 + '-하다'

3) 가- 가하다, 간- 간하다, 갈- 갈하다, 감- 감하다, 격- 격하다, 곡- 곡하다, 곤- 곤하다, 과- 과하다, 논- 논하다, 급- 급하다.

(3) 일부 한자어 + '-하다'

4) 간과- 간과하다, 간주- 간주하다, 고무- 고무하다, 골몰- 골몰하다, 기피- 기피하다, 능가- 능가하다, 박탈- 박탈하다, 반포- 반포하다, 비상- 비상하다, 주저- 주저하다, 회피- 회피하다.

---

[25] 가뭄의 고어

[26]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98, pp203.

Scanned with CamScanner

(4) 외래어 + '-하다'

5) 프린트하다, 스크랩하다, 다이어트하다, 브리핑하다, 게임하다, 레코딩하다.

3. –치다

6) 뒤치다, 합치다, 해치다.

3.2. 몽골어 체언의 동사파생

몽골어의 체언[27]은 명사, 대명사, 형용명사, 수사가 포함된다. 한국어와 달리 몽골어의 체언에서 동사파생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체언에 결합하는 동사파생접사의 수도 많으며, 하나의 접사가 명사, 대명사, 형용명사, 수사에 결합하여 동사를 만들 수 있다.

3.2.1. 명사어근에 붙는 타동사파생접사

1. –л / –на4

본 명사로 표현된 것을 사용한다는 뜻의 동사를 파생한다. –л 접사는 명사어근에서 동사 파생 접사 중에 생산성이 가장 높아 명사, 형용명사, 수사에 두루두루 붙을 수 있다. –на4 접사는 -л 접사의 이형이다.

(1) –л

–л은 모음, н, м 외의 자음에 결합한다.

7) Эмч - эмчлэ-, зууч- зуучил-, гэрч- гэрчил-, гэр- гэрэл-, ус- усал-, цэцэг- цэцэглэ-, жимс- жимсэл-, амгай- амгайл-.

8) гурав- гуравла-, дөрөө- дөрөөл-.(수사)

그러나 현대 몽골어의 –л 접사는 м으로 끝난 적은 수의 어기에 붙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역사적[28]으로 단모음으로 끝난 어기이다.

9) ам(ама-) - амла-, сум(суму-)- сумла-, хэм(хэми-)- хэмлэ-, нум(нуму-)- нумла-.

---

[27] 본고에서 몽골어의 체언이라함은 명사어근(нэр язгуур)을 말한다.

[28] 몽골 문어 문법으로 몽골 비칙을 말한다.

Scanned with CamScanner

고대 몽골어의 혀끝소리 н 에서 이어져 현대 몽골어의 비음 н(г)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붙이면 н(г)는 탈락한다.

10) Дулаан – дулаал-, хөнгөн - хөнгөл-, хоосон – хоосол-, аршаан – аршаал-, ноён – ноёл-, ганган – гангал-, хурдан – хурдал-, түргэн – түргэл-, сайн – сайл-, халуун – халуул-.

(2) –на4 는 н, м 자음과 결합한다

11) Өн- өгнө-, дүн- дүгнэ-, шан- шагна-.

12) Эм- эмнэ-, дом- домно-, дэм- дэмнэ-, дам- дамна-, дөм- дөмнө-, хэм- хэмнэ-.

11)의 예는 자음 н 과 결합하는 예로써, 비음인 н(г)로 끝난 어기에 또 하나의 비음(콧소리)인 н 으로 시작된 접미사를 붙이면, 어기말음인 н(г)가 г 로 바뀐 후 –на4 접사가 붙게 된다. 12)의 예는 자음 м 과 결합한 형태이다.

2. –д

Н 이외의 명사 어근에 접속하며, 관계외 명사[29]에서 그 명사를 사용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파생한다. 성질관계명사[30]에서 그 명사로 나타낸 성질의 과함의 의미를 가리키는 동사로 파생한다.

13) жолоо- жолоод-, дуу- дууд-, буу- бууд-, арга- аргад-, алга- алгад-, алба- албад-, цулбуур- цулбуурд-, сэлэм- сэлэмд-.

14) чих- чихэд-, хөл- хөлд-, гар- гард-.

15) их- ихэд-, бага- багад-, өндөр- өндөрд-, том- томд-, хол- холд-.

13)의 예는 본 행위를 완성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가리키는 어기에 붙어 그것을 사용하는 행위의 뜻을 가진 동사를 파생한 것이며, 14)는 행위를 당하는 것(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물건, 신체기관)을 가리키는

[29] Ш. Лувсанвандан 의 품사분류 상 관계외 명사(харьцааны бус нэр)는 일반명사(жинхэнэ нэр)를 일컫는다.

[30] 성질관계명사(харьцааны нэр)는 형용명사, 수사 등 주어가 될 때 관형어가 필요한 명사를 말한다.

Scanned with CamScanner

어기에 붙어 타동사를 파생한 예이다.[31] 15)는 명사의 본 성질의 크기를 초월한(지나침)의 뜻을 나타낸 예이다.

3. –чил

–чил [32] 은–ч(-чи) + -л 의 형태로 명사파생접사 –ч(-чи)와 동사파생접사 –л 이 결합한 형태의 이중접사이다. –чил 접사에 의해 파생된 동사는 다음 세가지 의미를 가진 동사를 파생한다.

16) хүү- хүүчил-, үр – үрчил-, ах – ахчил, загвар – загварчил-, шатар – шатарчил-, бөх – бөхчил-.

17) Газар – газарчил-, загас – загасчил, өртөө – өртөөчил-, суртал – сурталчил-, айл – айлчил-.

18) Шинэ – шинэчил-, ил – илчил-, чухал – чухалчил-, ойр – ойрчил-, нарийн – нарийвчил-.

16)의 예처럼 사람이나 만물 현상을 가리키는 명사 어기에 붙어 선행어기와 똑같이 여기며 행한다는 타동사를 만들기도 하고, 17)과 같이 만물현상을 가리키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그것을 관리, 운영한다는 뜻의 타동사를 주로 파생한다. 또한 18) 수사나 형용명사의 어기에 붙어 그 특성이나 수치가 되게 하는 의미의 타동사를 만든다

4. –шаа4

-ш(-ши) + -аа4(-йа)의 형태로 모음조화에 의해 –шаа4 의 이중접사로 만물현상이나 특성을 가리키는 명사어기에 붙어 타동사를 만든다. 파생된 동사는 어떤 일을 꺼리거나 싫증을 내거나 마음에 들어 열중한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일을 책망하거나 칭찬하는 뜻의 동사를 만든다.

19) Төвөг – төвөгшөө-, бэрх – бэрхшээ-, зүрх – зүрхшээ-, тээр – тээршээ, хойрго – хойргошоо-.

20) Муу – муушаа-, буруу – буруушаа-, сайн – сайшаа -, адил – адилшаа -.

---

[31] Ц. Өнөрбаян.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йл үг бүтэх ёс」, УБ, 2000, p. 28.
[32] Ц. Өнөрбаян.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йл үг бүтэх ёс」, УБ, 2000, p. 30. 일부 학자들은 –чил 파생접사로 만들어진 단어들은 명사에서 타동사파생접사를 만드는 -л 파생접사의 예에 포함되기 때문에 독립된 파생접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Ш.Лувсанвандан, П.Бямбасан.)

Scanned with CamScanner

5. –лд

본 명사를 행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를 파생하며, 그 수가 적다.

21) Тохойлд, нуруулд, өсгийлд, шанаалд.

3.2.2. 명사어근에 붙는 자동사파생접사

현대 몽골어 명사어기에 –р/-л, -д/-с, –ж, –ш, –т, –с, –рх, –ц, –жир, –шир 등의 접사가 붙어 자동사를 파생한다. 자동사파생접사가 타동사파생접사보다 수적으로는 많으나 각각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1. –р/-л

본 명사로 나타낸 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자동사를 파생한다. –л 는 –р로 끝난 명사에 붙는다. 만물 현상의 색깔, 형태, 특성 등을 가리키는 어기에 붙어 그 특성의 어떤 한 힘의 영향으로 생기는 뜻을 가진 자동사를 만든다.

22) Ил- илэр-, зэв- зэвэр-, галзуу- галзуур-, үгүй- үгүйр-, цай- цайр-.

23) Бор- борло-, хар- харла-, хөх- хөхөр-, ногоо- ногоор-, шар- шарла-.

24) Тод – тодор-, хөх – хөхөр-, хар – харла-, муу – муур-, хатуу – хатуур-, чанга – чангар-.

25) Тоос – тоосор-, зэв – зэвэр-, манан – манар-, хөвч – хөвчир-, хамуу – хамуур-, хохь – хохир-.

24)의 예는 선행어기인 형용명사나 명사 어기가 나타내는 성질을 갖게 되는 자동사 파생이며, 25)의 예는 선행어기인 명사가 나타내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런 특성을 지닌 동사를 파생시킨 예이다.[33]

2. -д/-с

형용명사에 결합하여, 그 성질을 더하거나 감하는 뜻을 가진 동사를 파생한다. 형용명사 어기에 붙어 그 특성을 가지거나, 그 성질에 적합한 수준을 넘었다는 뜻의 자동사를 파생한다. 또한 같은 명사 어기에 -д, -с 접사 모두를 결합할 수도 있다.

---

[33] Ц. Өнөрбаян.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йл үг бүтэх ёс」, УБ, 2000, p. 35.

Scanned with CamScanner

26) Урт- уртад- уртас-[34], сул- сулд- сулас-, богино- богинод- богинос-, их- ихэд- ихэс-, бага- багад- багас-, хол- холд- .

н 으로 끝난 명사어기는 접사와 결합할 경우 н 이 탈락한다.

27) Нимгэн – нимгэд-, нарийн – нарийд-, хурдан – хурдад-, удаан –удаад-, шингэн – шингэд-.

3. –ж

명사 어기에 –ж 를 붙여, 선행어기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자라거나 생기고, 개선되고 견고해지는 것, 선행 어기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자동사를 파생한다.

28) Үр- үрж-, амар- амарж-, төл- төлж-, мал- малж-, үйлдвэр- үйлдвэрж-, намар- намарж-.

4. –ш

명사어기에 –ш 접사를 붙여 선행어기가 가리키는 현상과 성질을 갖게 되거나, 그 현상이 오래 지속적으로 일어남을 표현하는 동사를 만든다.

29) Алдар- алдарш-, нутаг- нутагш-, суурь- суурьш-, зөв- зөвш-, идээ- идээш-, хоног- хоногш-, хэв- хэвш-, байр- байрш-, ижил- ижилш-, урам- урамш-, адил- адилш-.

-ш 접사는 н 으로 끝난 명사어기에 붙을 때 н 은 м 으로 바뀐다.

30) үнэн – үнэмш-, ээн – ээмш-.

5. –рх/ -лх

형용명사어기에 붙어 그 사물, 현상, 특성을 자랑하거나, 거만한 태도로 대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자동사를 만든다.

31) Омог- омогрх-, чилээ- чилээрх-, бах – бахарх-, тал – таларх-, бие – биерх-.

32) эр – эрэлх-, бяр – бяралх-, нэр – нэрэлх-, дээр – дээрэлх-, сүр – сүрэлх-.

---

[34] уртад-는 단시간에 길어진 것을 의미하며, уртас-는 긴시간을 거치면서 길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д, -с 접사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33) баян – баярх-, сайн – сайрх-, сонин – сонирх-.

31)은 -рх 접사는 모음, -р 외의 자음으로 끝난 명사어기에, 32)는 –лх 접사는 –р 로 끝난 명사어기와 각각 결합한다. 33)의 예는 –н 로 끝난 명사어기와 결합할 때 –н 이 탈락한 예이다.

6. –т

사물, 현상, 특성을 나타내는 명사어기에 붙어 본 명사의 뜻을 실현하거나 성취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파생한다.

34) Гэм- гэмт-, хир- хирт-, ойр- ойрт-, сэв- сэвт-, хор- хорт-, сайр- сайрт-.

7. –с

형용명사의 어기에 붙어 그것을 열렬하게 바라거나 원하는 자동사나, 꿈꾸거나 빠져든다는 뜻의 자동사를 파생한다.[35]

35) нөхөр- нөхөрс-, элэг- элэгс-, эл- элс-, мах- махас-, гэр- гэрс-, төрөл- төрөлс-, бус- бухас-, алга- алгас-, хөл- хөлс-, эрхэм- эрхэмс-, айл- айлс-, хор- хорс-, үүр- үүрс-, хий- хийс-.

36) Найр- найрс-, эв- эвс-, баяр – баярс-, ганган – гангамс-, хадам – хадамс-, өөрийн – өөриймс-, хань – ханьс-, хам – хамс-.

8. –ц

사물 현상을 가리키는 적은 수의 명사 어기에 붙어서 본 명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동사를 파생하거나, 특성을 나타내는 적은 수의 명사어기에 붙어 어떤 한 사물에 본 성질이 영향을 주는 뜻의 동사를 파생한다.

37) мөрий- мөрийц-, тэн- тэнц-, шагай- шагайц-, булхай- булхайц-, тал- талц-, солби- солбиц-.

38) Хариу- хариуц-, дулаан – дулаац-, сэрүүн – сэрүүц-[36].

9. –жи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적은 수의 명사어기에 붙어 그 특성을 갖게 하는 의미의 동사를 파생한다.

---

[35] Ц.Өнөрбаян.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йл үг бүтэх ёс」, УБ, 2000, p. 44-45.

[36] Н 자음으로 끝난 명사어기에 붙을 때는 н 이 탈락한다.

Scanned with CamScanner

39) Сайн – сайжир-, муу- муужир-, анги – ангижир-.

10. –шир

명사어근에서 자동사를 만드는 –ш, -р 가 결합된 이중파생접사이다. 이 접사는 만물현상이나 성질을 가리키는 소수의 명사어기에 붙어 그 사물이나 성질로 만들거나, 지속하는 뜻의 자동사를 만든다.

40) Бодлого – бодлогошир-, санаа – санаашир-, олон – олшир-, удаан – удаашир-.

Ⅳ. 공통점과 차이점

4.1 공통점

첫째, 체언에서 동사를 파생한다.

둘째, 체언에서 동사로 파생한 후 사동·피동 활용이 가능하다.

	명사	파생동사	사동형	피동형
41)	신	신다	신기다/ 신게 하다	신게 되다.
	손질	손질하다	손질시키다.	손질되다/ 손질당하다
42)	Алдар	Алдарш-	Алдаршуул-	Алдаршигд-
	үр	Үрж-	Үржүүл-	Үржигд-

예 41)은 한국어 파생동사의 사동형과 피동형이고, 42)는 몽골어 동사의 사동형과 피동형이다.

셋째, 명사화된 외래어에 접사를 붙여 동사를 파생할 수 있다.

43)프린트하다, 커피하다, 드라이하다, 스캔하다, 게임하다,

44)Приитл-, санонд-, машинд-, рсд-, мэсежд-, реклад-.

4.2 차이점

첫째, 한국어의 체언에는 명사, 수사, 대명사이나, 몽골어의 체언에는 명사, 수사, 대명사, 형용명사가 포함된다.

둘째, 한국어에 비해 몽골어가 체언에 결합하는 동사파생접사의 수가 많다. 한국어는 3 개, 몽골어는 15 개이다.

Scanned with CamScanner

셋째, 한국어는 고유어, 한자어에 모두 붙을 수 있으나 고유어보다 한자어에 더 생산성이 높다.

넷째, 한국어에는 색깔을 나타내는 명사에는 '-다'나 '-하다'가 붙을 수 없으나, 몽골어는 색깔을 나타내는 명사 'бор', 'хар', 'шар' 에 각각 '-л' 접사가 붙어 'борло-', 'харла-', 'шарла-'가 될 수 있다.

다섯째, 한국어는 '-다'나 '-하다'로 본 명사의 뜻을 더하거나 의미를 완성하는 반면, 몽골어는 파생접사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가 부여된다. 명사의 의미를 풍성하게 만든거나, 실현, 원하는 것이 완성되는 의미를 부여한다.

여섯째, 한국어는 한 단어에 '-다'나 '-하다' 만 붙을 수 있는 반면 몽골어는 다양한 접사가 붙을 수 있다.

45) Ам-, амл-, амс-.
Мэргэ-, мэргэж-, мэргэш-.
Дэм-, дэмж-, дэмнэ-.

일곱째, 한국어 체언에서 파생동사는 사동활용과 피동활용이 모두 가능한 동사가 있고, 어느 한쪽만 활용이 가능한 동사가 있는 반면, 몽골어의 체언에서 파생된 동사는 사동활용, 피동활용이 모두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46)공부하다-공부시키다(ㅇ)/ 공부당하다(x), 공부되다(x)
47) Амл- амлуул-(ㅇ)/ амлагд-(ㅇ)

Ⅴ. 결론

한국어와 몽골어의 체언에서 동사파생을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의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포함되며, 이 중에서 명사만이 동사파생을 할 수 있으나, 몽골어의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명사가 포함되며, 이들 모두 동사파생이 가능하다. 한국어와 몽골어의 체언은 동사로 파생이 가능하며, 이는 동사파생접사에 결합하여 동사를 파생한다. 또한 동사로 파생한 후 사동이나 피동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어와 몽골어의 체언에서 동사파생에서 여러가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에는 순수한국어, 한자어에 모두 붙을 수 있으나 한자어에서 생산성이 더 높으며, 한국어에는 색깔을 나타내는 명사는 동사파생을

Scanned with CamScanner

할 수 없다. 명사에 '-다', '-하다', '-치다' 접사가 붙어 본 명사의 뜻을 더하거나 의미를 완성한다. 파생된 동사는 사동이나 피동활용이 모두 가능하거나 어느 한쪽만이 활용이 가능하다.

몽골어 체언에 붙는 동사파생접사의 수가 한국어의 동사 파생접사보다 많으며, 색깔을 나타내는 체언에도 동사파생접사가 붙을 수 있다. 또한 파생접사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고, 본 체언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단어에 다양한 동사 파생접사가 결합할 수 있다. 파생된 모든 동사는 사동형이나 피동형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2005,『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1』, 커뮤니케이션북스.
김계곤, 1996,『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남기심·고영근, 1998,『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남궁환, 1995,『알맹이 국어어휘 1 어휘형성편』, 비젼.
최현배, 1977,『우리말본』, 정음문화사.
하치근, 1989,『국어파생형태론』, 남명문화사.
허웅, 2004,『옛말본』, 과학사.
МУБИС. 2004.『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 УБ.
Өнөрбаян.Ц. 2000.『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йл үг бүтэх ёс』, УБ.
Өнөрбаян.Ц. 2004.『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 зүй』, УБ.
Лувсанвандан.Ш. 1999.『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бүтэц дэд дэвтэр』, УБ.

논문

강선화, 2006,『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элний үүсмэл үгийн харьцуулал –үйл үгээс үйл үг үүсгэх дагаврын жишээн дээр』, 울란바타르대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아띠야수릉, 2007,『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 파생접미사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체렝허를러, 2000,『현대 한국어 조어법의 언어유형론적 특징- 현대 몽골어와 대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Scanned with CamScanner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йл үг үүгсэх аргыг харьцуулсан нь

- Нэр үгээс үйл үг үүсгэх -

Кан Соньхуа

[Хураангуй]

Алтай язгуурын хэлний аймагт хамаарах монгол хэл болон солонгос хэл нь залгамал хэл тул тэдгээрийн өгүүлбэрийн гишүүд, тэр дундаа өгүүлэхүүн гишүүн нь маш чухал үүрэг гүйцэтгэх болдог. Дагавар залган үйл үг үүсгэх бөгөөд тэрхүү үйл үг үүсгэх дагавар нь ч тооны хувьд цөөнгүй. Олон үгсийн аймгаас үйл үг үүсгэж болох авч энэ дундаас нэр үгээс үйл үг үүсэх байдлыг харцуулахаар боллоо. Өөрийн дүгнэлтийг нь дараах байдлаар хураангуйлав.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нэр үгэнд жинхэнэ нэр, төлөөний үг, тооны нэр багтдаг. Эдгээрээс жинхэнэ нэр л үйл үг үүсгэх боломжтой. Гэвч монгол хэлний нэр үгэнд жинхэнэ нэр, төлөөний үг, тооны нэр, тэмдэг нэр багтах бөгөөд эдгээр нь бүгдээрээ үйл үг үүсгэдэг.

Хоёр хэлний нэр үгс нь үйл үг үүсгэх боломжтой. Энэ нь үйл үг бүтээх дагавар залгаж бүтээнэ. Мөн үүсмэл үйл үг нь үйлдүүлэх болон үйлдэгдэх хэвээр хувирч болдог.

Монгол хэл боло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нэр үгсэд үйл үг үүсгэх явцад янз бүрийн ялгаа байдгийг ажиглаж болно. Солонгос хэлэнд уугуул солонгос үг, ханз үг бүгдэд нь залгаж болох ч ханз үгээс үйл үг үүсэх нь илүү бүтээлч, өнгө заасан жинхэнэ нэр нь үйл үг үүсгэх боломжгүй байдаг. Жинхэнэ нэрэнд '-다', '-하다', '-치다' дагавар залган уг жинхэнэ нэрийн уул утгыг нэмэх буюу үүссэн үйл үг нь үйлдэгдэх болон үйлдүүлэх хэвээр хувилах бөгөөд зарим нь үйлдэгдэх, үйлдүүлэх хэвийн аль нэгээр хувилдаг нь бий.

Монгол хэлний нэр үгэнд залган үйл үг бүтээх дагавар солонгос хэлэнд байгаагаас их байдаг. Өнгө заасан нэр үгэнд ч үйл үг бүтээх дагавар залгадаг. Мөн дагавраасаа шалтгаалаад янз бүрийн утга нэмэх буюу уул утга нь илүү нэмэгддэг. Зарим тохиолдолд нэг үгэнд олон янзын үйл үг бүтээх дагавар залгах ба үүссэн үйл үг нь бүгд үйлдүүлэх, үйлдэгдэх хэвээр бүрэн хувирдаг.

Голлох үг : нэрийн ай, нэр язгуур, үйл үг үүсгэх дагавар, үүсмэл үйл үг, үг бүтэх ёс.

Scanned with CamScanner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37]

이 영 숙[38]

목차

1. 머리말
2. 한국어 교육의 시대별 발전 과정
3. 국내 한국어 교육의 현황
4. 국외 한국어 교육의 현황
5. 한국어 교육의 발전 과제
6.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50 여 년 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이 개교한 이래로 국내 한국어 교육은 질적, 양적 성장을 하고 있다. 재외동포와 순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외 한국어 교육도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여성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 귀국 자녀 등으로다양해지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기관이 운영되다가 1990 년대 후반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2010 년 9 월까지 국내에는 120 여개의 한국어 교육기관이 생겨났다. 2000 년대는 한국어 교육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유관 기관의 정책 수립과 지원 확대, 국내외 지역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교재 개발 활성화 및 특성화,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생의 증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 발급 및 한국어 교원 능력 검정시험의 제도화에 따른 한국어 교원의 증가 등 국내의 한국어 교육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재외 동포 및 재외교육기관의 증가, 국외 대학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 강좌가 총 64 개국 750 개 대학에 개설되는 등 국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어 교육의 시대적 특성을 다변화 및 재정립기로 특징지어 보면, 이는 최근 2000 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한국어 학습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은 물론 다변화되고 대내외적으로 한국어 교육의 제도적인

[37] 이 논문은 나라사랑 119 호(2010)에 실린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38]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 교수, 02) 2220-1672, yslang@hanyang.ac.kr

Scanned with CamScanner

변화와 발전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더욱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발전에 걸맞게 교육과정, 학습자, 교사, 교재와 교수법, 평가, 정부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면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한국어 교육, 국내외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현황, 한국어 교육 과제, 한국어 교육 기관

1. 머리말

국내 한국어 교육은 50 여 년 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기관이 개교한 이래로 지금까지 국내외적인 정세 변화와 맞물려 양적 팽창은 물론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등 다각적인 면에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와 같은 국내 한국어 교육의 열기 못지않게 재외동포와 순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외 한국어 교육도 큰 발전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발전은 한때 국가의 주권을 빼앗겼던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말과 글을 지켜 내고자 했던 애국선열들의 항쟁의 시기가 불과 1 세기밖에 안 지났음을 생각해 볼 때 그 의미는 더욱 깊다고 할 수 있다. 자칫 우리말과 글이 사라질 뻔했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세계 유수의 언어학자들에 의해 한글이 과학적 문자라는 것이 밝혀지고 한국어가 미국의 SATII 외국어 과목[39] 중의 하나로 채택이 되는 등 한국어의 위상과 비중이 드높아진 것은 실로 엄청난 발전과 변화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립국어원(2010)에서 발간한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에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우리말의 현재 모습을 밝히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골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 수: 7,700 만여 명
2) 전 세계 언어 중 모어 사용자 수에 따른 한국어의 순위: 13 위
3) 1920 년부터 2010 년까지 국내에서 발간된 국어사전의 종류: 125 종

[39] SATII 외국어 과목은 모두 9 개이며 이에는 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라틴어, 독일어, 일본어, 이태리어, 현대 히브루어가 속한다.

Scanned with CamScanner

4)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단어: 약 51 만 개

5)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 보급 기관의 수: 2 천여 개

6) 해외 한국어 보급 기관의 수강생 수: 25 만여 명

7)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국내외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 약 3,400 권

8) 작년 아시아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합격자 수: 12 만 명 응시, 9 만 명 합격

위 내용에서는 우리는 한국어의 위상, 한국어 관련 연구와 한국어의 세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국외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화자 수에 걸맞게 한국어 보급 기관과 학습자 수도 크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 세계화 시대에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변화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어 교육의 시대별 발전 과정

조항록(2010:47-48)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발전 과정을 태동기, 도약기, 안정 성장 및 확대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표 1>로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의 발전은 국내외 정세와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지며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정책 구현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볼 수 있다.

<표 1> 한국어 교육의 발전 과정

<table>
<tr><td></td><td>태동과 점진적 성장기
(국내: 1959 년-1980 년대 초반
해외: 19 세기 후반 ~ 1980 년대 초반)</td><td>도약기
(1980 년대 중반~1990 년대 중반)</td><td>국내: 안정 성장 및 확대기
해외: 재정립기
(1990 년대 후반-현재)</td></tr>
<tr><td>거시 지표</td><td>극소수의
한국어교육기관
제한된 발간 교재의 수</td><td colspan="2">교육 기관의 증가, 학습자의 증가, 개발 교재의 다양화
* 해외의 경우 지역에 따라 2000 년대에 들어와 교육 기관 및 학습자 수가 감소하는 등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남으로써 재편되고 있음.</td></tr>
</table>

Scanned with CamScanner

주요 배경	한국의 경제적 후진성 한국어 수요 유발 요인의 부재	경제 성장, 국제적 역할 증대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재외동포 후세의 증가 구 공산권국가와 수교	IMF 관리체제의 극복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 정책 중국의 경제발전과 한국어 학습자 증가 한류 열풍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실시
국가적 사회적 기능의 설정 및 구현	도구적 기능 수행 * 해외에서는 냉전 시대에 따른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함	도구적 기능 수행 정치적 고려의 유입 민족교육적 요소의 유입 시민교육적 요소의 부분적 도입	시민교육의 급격한 부상 정치적 고려 약화 민족교육적 요소의 지속
제도화의 수준	개별 교육 기관 차원 국가 정책 미미 * 해외의 경우 개인 차원의 노력이 크게 부각됨	민간 차원의 제도화 진행 정부 차원의 제도화 태동	법적 보완 유관기관 협의조정기구 운영 학문적 기반 구축 정책 지원 강화 전지역화의 진행 언어+문화 추진
내적 역량 구축	소수의 전문가와 열정어린 교육자 자급자족형 역량 구축	교육 공급 능력의 확대 주요 쟁점 해결 능력 미흡	교육과정의 다양화 시도 주요 쟁점 보완 노력 학문적 정체성 확보 추진
주요 행위자의 발전 모델	국내의 경우 시스템 의존형, 개인 의존형이 두루 나타나나 해외의 경우 국가 주도형 또는 개인 의존형이 주를 이룸	시스템 확충을 통한 발전 노력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발전 시도 * 선발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발전이 주를 이룸으로써 한국어 교육 발전 모델의 보편성이 나타남 * 해외의 경우 한국 의존형 발전 모델이 나타남	특화프로그램의 개발 수요자의 신규 창출을 통한 발전 원스톱 모델 개발 국내-현지 연계 모델 학교 내 기관 위상 강화 노력 인적자원 충원을 통한 발전 노력

Scanned with CamScanner

3. 국내 한국어 교육의 현황
-한국어 교육의 다변화 및 재정립기(2000 년대 중반~현재)

2000 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한국어 교육은 또 다른 외적 요인과 패러다임으로 변화, 발전해 오고 있는데 두드러진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1. 한국어 학습자 증가 및 다양화

한국어 교육의 발전 양상을 보면 국제 사회에 한국이 알려지기 시작한 1980 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학습자 증가세를 보여 왔다. 그 후 2000 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와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에 힘입어 학습자 증가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 노동자 등 한국어 교육의 대상은 더욱 다양해졌다. 그 중 주요 한국어 교육 대상자인 외국인 유학생과 여성결혼이민자, 이주 노동자, 귀국 자녀 등의 국내 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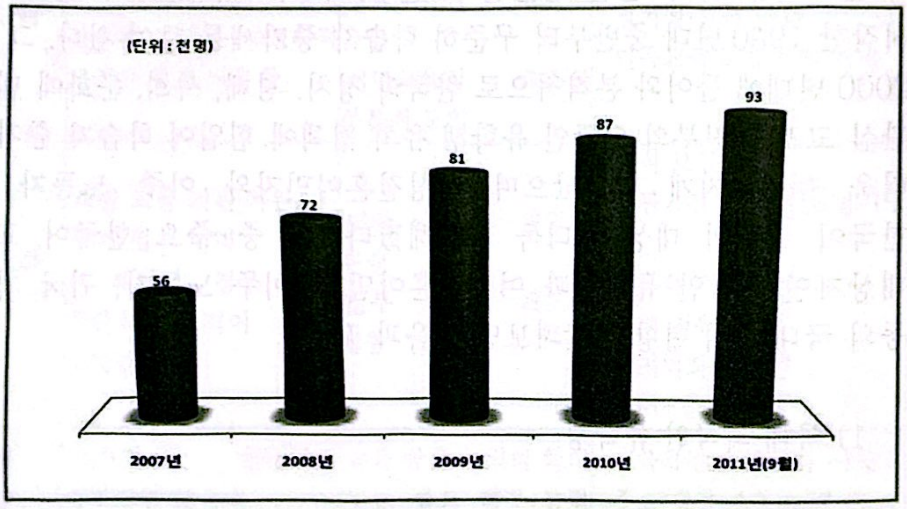
<표 2>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40] 체류현황
(2011.9.30. 현재. 단위: 명)

구 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9 월)
총계	56,006	71,531	80,985	87,480	93,232
중국[41]	43,252	56,197	63,209	66,635	67,973
한 국 계	3,813	3,775	3,526	2,959	2,360
몽골	1,795	2,747	3,691	4,405	4,898
베트남	2,613	2,788	2,870	3,033	3,235
일본	1,563	1,537	1,626	1,745	2,433
미국	1,062	1,032	982	966	1,229
우즈베키스탄	557	790	752	738	729
인도	488	576	638	695	771
인도네시아	238	350	394	526	658

[40] 외국인 유학생: 2009 년 이전(D-2 전체 및 D-4-4), 2010 년 이후(D-2 전체 및 D-4-1)
[41] 한국계 포함

Scanned with CamScanner

말레이시아	432	511	553	597	625
방글라데시	343	429	529	578	611
러시아	365	371	462	543	597
타이완	270	311	357	512	609
필리핀	280	335	401	464	570
기타	2,748	3,557	4,521	6,043	8,294



<표 2>에 의하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는 아시아 주요 국가와 미국, 기타 국가로 크게 나누어지며 2011 년 현재 국내 전체 유학생 93,232 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그 밖에 몽골, 베트남, 일본, 유학생의 비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루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을 국적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국적별 외국인 유학생[42] 체류현황
(2011.9.30. 현재,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유학(D-2)	한국어연수(D-4-1)
총계	93,232	73,838	19,394
중국[43]	67,973	54,245	13,728
한 국 계	2,360	2,122	238

[42] 외국인 유학생: 2009 년 이전(D-2 전체 및 D-4-4), 2010 년 이후(D-2 전체 및 D-4-1)

[43] 한국계 포함

Scanned with CamScanner

몽골	4,898	3,158	1,740
베트남	3,235	2,735	500
일본	2,433	1,499	934
미국	1,229	1,106	123
우즈베키스탄	729	429	300
인도	771	725	46
말레이시아	625	585	40
방글라데시	611	567	44
러시아	597	485	112
인도네시아	658	592	66
타이완	609	398	211
필리핀	570	483	87
기타	8,294	6,831	1,463

2) 결혼이민자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민자 증가로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2011 년 현재 국내 결혼이민자는 143,253 명이며 이 중 남성이 19,387 명이고 여성은 123,866 명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지역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방문 또는 집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민자 증가는 이민자 2 세 한국어 교육과 이중 언어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표 4>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2011.9.30. 현재, 단위 : 명)

구분	2010 년	2011 년			
	12 월말	3 월말	6 월말	9 월말	12 월말
총 계	141,654	143,004	144,058	143,253	
남 자	18,561	18,899	19,269	19,387	
여 자	123,093	124,105	124,789	123,866	

3) 이주 노동자

고용허가제 실시로 인해 이주 노동자가 늘어나 현재 국내 체류 노동자는 총 600,138 명으로 이 중 단순 기능 인력은 552,746 명으로

Scanned with CamScanner

나타났다.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들이 언어 소통과 문화 이해를 통해 보다 빨리 한국에 적응하도록 돕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닌 한국의 산업 발달과도 관련을 맺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집단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과 논의도 부족하다. 교재 또한 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를 활용하여 교사가 재구성하여 쓰는 것이 현실이다.

<표 5> 취업자격[44] 체류외국인 총괄현황

구 분	총 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총체류자	600,138	47,392	552,746
합법체류	545,369	44,258	501,111
불법체류	54,769	3,134	51,635

(2011.9.30. 현재, 단위 : 명)

4) 귀국자 자녀

교육부 초, 중, 고 유학생 출국 및 귀국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귀국 유학생이 2003 년도에 각각 7,471 명, 3,006 명, 1,721 명이었는데 2008 년도에는 각각 13,845 명, 5,585 명, 2,833 명으로 늘어났다.[45] 이들 중 많은 학생들은 귀국 후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습이 부진하여 특별반 또는 일반통합학급 형태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반 개설은 일부 지역의 학교에 한정되어 있어 교재 개발과 아울러 전담 교사의 특별 지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기타 한국어 학습자로는 새터민(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이 있으나 한국어 능력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교육과정과 문화의 이질화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질화에서 생겨난 문제를 좁혀 나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4] 총계 : 산업연수(D-3) 제외

[45] 이 통계 자료는 파견 동행 귀국 학생을 제외하고 순수 유학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하다 귀국한 학생만 다루고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3.2.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의 증가

1990 년대 후반부터 한국어 교육 기관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원인은 각 대학의 적극적인 국제화 전략, 정부의 후원, 한국의 금융 위기 등을 들 수 있다.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로 예비 대학생을 위한 한국어 연수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으며 이 때문에 대학에서는 부속 언어 연수 기관을 시급히 개설해야 했다. 한국어 교육의 성장기에는 서울 수도권의 주요 대학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기관이 운영되다가 1990 년대 후반부터 점차 전국적인 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고, 2000 년대 중반부터는 전 지역에 걸쳐 한국어 교육 기관이 생겨나게 되었다. 2010 년 9 월 현재 국내에는 120 여 개의 한국어 교육 기관이 있는데[46] 이들 교육기관은 한국어 교육 기관 대표자 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에 대한 공조 체계를 이루며 교육 과정과 기관 정책 결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6> 한국어교육기관 대표자협의회 회원교 현황

	대학교	기관
1	가야대학교	국제교육원
2	강남대학교	국제어학교육원
3	강릉원주대학교	국제교류원
4	강원대학교	어학교육원
5	건양대학교	국제교육원
6	경기대학교	국제교육원
7	경남대학교	국제교류센터
8	경동대학교	국제교육원
9	경북대학교	어학교육원
10	경북전문대학교	국제교육원
11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
12	경성대학교	한국어학당
13	경원대학교	국제어학원
14	경일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15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16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17	계명대학교	국제교육센터 한국어학당
18	계원조형예술대학교	기획처

[46] 한국어 교육 기관 대표자 협의회 자료(2010.9)에 의하면 국내 대학의 한국어 연수 기관은 120 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 단체에 가입한 회원 기관을 중심으로 한 통계 자료이며 이외에도 더 많은 기관이 생겼으리라 추측한다.

Scanned with CamScanner

19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	공주대학교	언어교육원
21	광운대학교	언어교육원
22	광주대학교	국제교류센터
23	광주여자대학교	국제교육원
24	국민대학교	한국어학당
25	군산대학교	어학교육원
26	극동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7	금강대학교	금강어학원/국제교류센터
28	금오공과대학교	국제교류센터
29	김천대학교	국제교류처
30	남부대학교	우암국제교류원
31	남서울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32	단국대학교	국제어학원
33	대경대학교	국제교류처
34	대구공업대학교	한국어학당
35	대구대학교	한국어교육원
36	대구카톨릭대학교	어학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37	대구한의대학교	어학교육원
38	대불대학교	국제교류학원
39	대전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40	대진대학교	국제협력과
41	덕성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42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43	동명대학교	언어교육원
44	동방대학원대	대외협력실
45	동신대학교	국제교류협력센터
46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
47	동의과학대학	국제교류센터
48	동의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49	두원공과대학교	국제교류센터
50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
51	명지대학교	국제교육원
52	목원대학교	대외교류과
53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54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원
55	백석대학교	국제어학원
56	부경대학교	언어교육원
57	부산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58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Scanned with CamScanner

59	삼육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60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화센터
61	상지대학교	평생교육원
62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6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64	서울디지털대학교	교무처
65	서울산업대학교	국제교류실
66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어학당
67	서원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
68	선린대학교	국제협력실
69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70	성공회대학교	아시아언어문화센터
71	성균관대학교	성균어학원
72	성덕대학교	국제어학원
73	성신여자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74	세종대학교	국제어학원
75	송호대학교	국제교육원
76	순천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77	순천향대학교	한국어교육원
78	숭실대학교	어학교육원
79	신성대학교	국제교류원
80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
8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82	영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83	영산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84	예원예술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85	우석대학교	한국어교육원
86	우송대학교	우송한국어교육원
87	울산대학교	국제교류원
88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89	위덕대학교	어학교육원
90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91	인제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92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93	전남과학대학	국제교류교육원
94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95	전주기전대학교	한국어교육원
96	전주비전대학교	전주비전대학
97	제주대학교	국제교류센터
98	제주한라대학	언어교육센터

Scanned with CamScanner

99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100	조선이공대	국제교류원
101	중국천음면양예술대학교	문화창의산업센터
102	중앙대학교	한국어교육원
103	창신대학교	국제교류센터
104	청운대학교	인력개발센터/취업지원팀
105	청주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106	초당대학교	국제어학원
107	충남대학교	언어교육원
108	충북대학교	국제교류원
109	충청대학교	국제교육원
110	탐라대학교	한국어교육원
111	평택대학교	국제교육원
112	한국교원대학교	대외협력과
113	한국국제대학교	국제교류처
114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어센터
115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원
116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국제교육센터
117	한국항공대학교	한국어교육원
118	한국해양대학교	국제교류협력원
119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
120	한림대학교	국제교육원
121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
122	한성대학교	언어교육원
123	한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24	한신대학교	국제교류원
125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
126	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127	호남대학교	국제교육원
128	호원대학교	국제교류교육센터

2010-09-08

3.3. 한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기반 구축과 확대화

위에서 살펴본 한국어 학습자 증가와 교육 기관의 증가 못지않게 의미 있는 것은 2000 년대는 바야흐로 한국어 교육학이 학문으로서 정립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한국어 교육학이 국어교육학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최근 많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학을 학부에서 전공 학과로 개설하거나 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으로 개설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Scanned with CamScanner

사실은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음은 물론 정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게 되어 한국어 교육의 전문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47]

3.4. 정부 유관 기관의 정책 수립과 지원 확대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는 국가와 정부의 대내외적인 정책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의 변화, 발전도 국가 정책의 구현과 사회 제도의 수준 안에서 이어져 왔다. 도약기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교육부와 문화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긴 하였으나 정립된 수준은 아니어서 이중적인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반면에 최근에는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해 다음과 같이 역할과 기능을 정립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표 7> 한국어 교육 관련 정부 유관 부처 및 기능

관련 부처	지원 기관	주요 기능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① 국립국제교육원	1992 년 재외국민교육 및 국제교류협력과 교원들의 국외 연수를 목적으로 설립됨. 재외동포교육(단기예비, 단기 교육, 계절제 교육), 재외동포교육, 관계자 연수, 해외 한국어과 대학생 초청 연수, 온라인 한국어 교육 시스템(KOSNET) 운영,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집필 및 배포 등 담당
	② 한국교육원	Korean Center, 주요 동포 지역에 설립한 한국어 교육 기관
	③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외 한국학 교수 파견 사업 등 실시
	④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재외동포용 한국어교재 개발 사업과 1 회~20 회까지 한국어능력시험 주관[48]
	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학술대회와 초청 연수 실시

[47]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학과 개설과 전공 개설 현황은 김중섭(2010:451~454)을 참조할 수 있으며, 최근 국립국어원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0 년 현재 총 85 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전공 학과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48] 제 21 회 이후에는 한국어능력시험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국어민족문화과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사 파견 연수 및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CIS, 중국), 한국어 교원 자격의 부여(국어기본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표준 문법,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문화학교(세종학당)의 단계별 설립과 운영, 온라인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방송 체계 구축 등
	②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어 교재 개발과 보급, 초청 연수, 1 회~3 회까지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주관
외교통상부 문화교류협력과, 재외동포협력과, 재외동포정책과	① 재외동포재단	민족 문화 및 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한 국외 한극학교 지원 사업 및 대학생 모국 연수, 청소년 모국 연수, CIS 한국어 교사 연수 등의 재외동포 초청 연수 사업과 영어권 재외동포 학습자 사이버 한국어 강좌(Teen Korean)를 운영
	②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국과의 각종 교류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을 알리고 국제적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한국어 학습 기회 확대, 교육자 양성, 교육 기반 구축 사업,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한국학 교류, 교육 자료 개발 사업 등
	③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한국어 연수생 초청 사업 및 한국어 교육 봉사단 파견, 제 3 세계 국가의 한국어 교육 지원, 민간단체(NGO) 지원, 해외 봉사단 및 전문 인력 파견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EPS-KLT 와 한국어교원능력검정시험 주관

3.5. 국내외 지역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정부 유관 기관의 지원으로 한국어 교육 관련 학회와 단체에서 이미 동남아, 동유럽, 중앙아, 북미 등을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 한국어 교육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왔으며, 이는 국내와 현지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과 교수법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여러 선진국이 자국어·문화 보급 기관을 브랜드로 육성하여 전 세계에 자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문화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내외 한글 보급 기관을 '세종학당'이라는 통합브랜드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와 수요자 접근성을 높이고,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한국어 교육 사이트를 통합해 원격 학습 체계와 각종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U-세종학당'을 구축('09~'11)

Scanned with CamScanner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한국어 교육 기관과 교원의 국제네트워크 구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6. 국내외 교재 개발 활성화 및 특성화

지금까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국내외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는 약 3,400 여 권에 해당한다. 1900 년대 중반부터 의사소통 교수법과 과제중심 교수법에 근거한 교재들이 우후죽순으로 개발되어 교재 개발과 연구가 전성기를 맞게 되었으나 교육기관마다 차별화 되지 못한 비슷한 교재들이 개발됨으로써 인적, 경제적 낭비라는 지적도 일게 되었다.

그러나 2000 년대에 접어들어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재가 더욱 필요하게 되어 범용 교재 개발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학업 목적에 따른 교재, 학습자 유형에 따른 교재 개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정부기관의 지원 사업으로 재외동포용 교재, 여성결혼이민자용 교재, 이주 노동자를 위한 교재, 현지화 교재 등의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도 결실을 보게 되었다.

3.7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 증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숙달도를 평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으로는 TOPIK 과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른 EPS-KLT, 방문취업비자 발급제로 인한 B-TOPIK 등이 있다. 그 중 TOPIK 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으로 유학과 취업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유학과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응시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 2 회 실시하던 시험을 17 회부터 일 년에 4 회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지난 2010 년에는 총 39 개국 139 개 지역에서 149,650 명이 응시하였다. 1997 년에 시행된 제 1 회 시험에서는 한국, 일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4 개국 14 개 지역에서 2,274 명이 응시하였는데 2010 년의 수치와 비교해 보면 이는 14 년 동안 65 배가 증가한 것이다.

해마다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시험을 통하여 국가 및 한국어 브랜드를 높이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3.8 한국어 교원 자격증 발급 및 한국어교원능력검정시험의 제도화

2005 년 국어기본법과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사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 제도가 생기게 되어 자격증 소지자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2011 년 제 6 회 시험이 교사 자격시험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일 년에 한 번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주관하여 시행되어 오다가 4 회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다. 한국어 교사 자격은 전공, 학위 여부, 교사 경력 등을 기준으로 1 급~3 급으로 나누어지며 자격 소지자는 '한국어 교원'이라는 자격을 가진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자는 2006 년 868 명이었으나 2010 년 5 월 현재 총 4,643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49]

<표 8>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현황

구분	급별				과정별		
	1 급	2 급	3 급	총취득자	학위	비학위	승급
2011 년	65	1,082	130	1,284	980	105	192
2010 년	0	826	1,331	2,157	871	1,286	0
2009 년	0	613	424	1,037	637	400	0
2008 년	0	341	501	842	369	473	0
2007 년	0	185	454	639	215	424	0
2006 년	0	269	599	869	346	522	0
합계	65	3,316	3,439	6,828	3,418	3,210	192

4. 국외 한국어 교육의 현황

4.1. 재외동포 및 재외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국외 한국어 교육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재외교육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한국어

[49] 자료 출처: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license/stat.do)

Scanned with CamScanner

교육은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 강좌가 개설된 대학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지역별 재외동포의 현황을 보면 <표 9>와 같다.

<표 9> 지역별 재외동포 현황

(단위:천명, '09. 7. 기준)

아 주				미 주				구 주			중동	아프리카	합계
중국	일본	기타	소계	미국	캐나다	중남미	소계	CIS	기타	소계			
2,337	913	461	3,711	2,102	223	107	2,433	538	118	656	14	10	6,823

위의 자료에 의하면 2009 년도 기준으로 재외동포는 총 682 만 명으로서,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14%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외동포 규모는 중국, 이태리, 이스라엘, 인도에 이어 세계 5 위이며, 인구대비 비율로는 이스라엘,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3 위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리고 이들은 세계 173 개국에 분포 거주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일본, .중국, .구소련 등에집중 거주하여 국력신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등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쳐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들을 교육하는 재외교육기관의 종류와 운영 현황을 보이면 <표 10>과 같다.

<표 10> 재외교육기관 운영현황[50]

('09.12 월말 기준)

구 분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설치 현황	15 개국 30 개교	14 개국 34 개원	110 개국 2,111 개 기관
성 격	정규학교(학력인정)	교육행정기관	비정규학교
학생 및 인력현황	◦ 학생 : 10,965 명 ◦ 전임교원 : 954 명 (파견공무원 39 명 포함)	◦ 파견공무원 : 42 명	◦ 학 생 : 28,046 명 ◦ 교원수:14,870 명

[50]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문화원을 포함한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을 세종학당으로 지정했다.

Scanned with CamScanner

수 요 자	◦재외국민으로서 초·중·고등학교 과정 이수 대상자	◦ 재외국민(학령 무관) ◦한국어·한국문화 등에 관심이 있는 현지인	◦ 재외국민 (학령 무관)
기 능	◦ 일시 체류민 및 영주동포 자녀에 대한 국내 연계교육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지 교육과정 병행 운영	◦ 한국어.한국사.한국문화 등의 교육 실시 ◦ 유학지원 및 교육정보수집 등 행정업무 담당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문화 등 민족교육 실시
지원 내용	◦ 학교장과견 ◦ 시설비·운영비 지원 ◦ 교과서 무상지원	◦ 원장(교육공무원)파견 ◦ 운영비 지원 ◦ 교재 개발 및 보급	◦ 운영비 지원 ◦ 교사연수 ◦ 교재 개발 및 보급(교과부)
수업 시간	◦「초·중등교육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교과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에 준하여 운영	◦교육원별로 한국어.한국사.한국문화 등과 관련한 과정을 개설하고, 과정별로 주당 2-4 시간 운영	◦주로 주말학교(토·일)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당 2-6 시간 운영
소관 부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4.2. 국외 대학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 강좌 개설

국가별 한국어학과, 한국학 전공 강좌 개설 대학은 총 64 개국 750 개 대학에 달한다(박영순, 2007). 이들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 국가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비롯한 제 3 국가에서도 한국어학과 개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국가의 공통적 특징은 우리나라의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밀접한 관련을 가진 지역,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지역, 한국으로의 인력송출국가 등의 관련성을 맺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51]

[51] 기타 중국, 일본, 미국, 호주, 중앙아시아 지역의 약 500 여개에 달하는 초, 중, 고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표 11> 국외 한국어학 개설 대학 현황

지역	국가	대학 수	국가	대학 수
동북아	일본	335	대만	9
	중국	54	홍콩	2
	몽골	11		
유럽	독일	10	네덜란드	1
	프랑스	7	벨기에	1
	영국	3	포르투갈	1
	이탈리아	3	핀란드	1
	오스트리아	2	노르웨이	1
	스페인	2	아일랜드	1
	덴마크	1	에스토니아	1
	스웨덴	1		
북미	미국	148	캐나다	9
대양주	호주	7	뉴질랜드	2
동유럽/ CIS	러시아	42	루마니아	2
	카자흐스탄	10	체코	2
	우즈베키스탄	5	헝가리	2
	세르비아	2	우크라이나	2
	키르키스스탄	2	불가리아	1
	폴란드	3	아제르바이잔	1
	유고	2		
아프리카, 중동	이집트	2	알제리	1
	모로코	2	요르단	1
	이스라엘	2	이란	1
	튀니지	1	수단	1
	가나	1		
동서남아	베트남	10	인도네시아	3
	태국	8	필리핀	2
	말레이시아	6	싱가포르	2
	인도	4	미얀마	2
	터키	2	스리랑카	1
중남미	아르헨티나	3	파라과이	1
	멕시코	3	브라질	1
	세르비아	2	칠레	1
	페루	2	과테말라	1

Scanned with CamScanner

5. 한국어 교육의 발전 과제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2000 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어 교육을 다변화 및 재정립기로 규정해 보았다. 그리고 다변화기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한국어 교육이 태동한 이후로 양적 발전과 질적 발전을 거쳐 왔지만 또 새롭게 변모해 가는 국제화 시대에 더욱 발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기관, 정부의 유관 부서가 협력하여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보다 발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기로 한다.

5.1. 한국어 교육과정의 표준화

한국어 교육과정은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다수의 한국어 교육기관은 독자적인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교재도 기관에 따라 차이가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급별 학습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 옮겨 가는 학습자들에게 가장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즉, A 기관의 3 급 이수자는 B 기관의 3 급 이수자와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이 다른 현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에 따라 교육과정을 표준화하여 학습목표, 교육 내용, 평가 항목 등의 표준화 작업이 시급하다.

5.2. 유학생 유치 및 지속적인 관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후속적인 관리 없이 지속적인 증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유학생 유치 전략과 홍보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유학생을 배려한 교과목 개발, 졸업 후 관리 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 기관과 정부 부처의 공조 체계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5.3. 특성화된 교재 및 교수법 개발

최근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경쟁적으로 독자적 교재 개발을 해 왔다. 그러나 차별화되지 못한 교재는 인적, 경제적 손실만 가져올 뿐이며 교육의 효과는 기대하지 못한다. 이제는 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교재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수 방법도 개발되어 교재

Scanned with CamScanner

구성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정부 기관의 지원으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재, 이주 노동자를 위한 교재, 세종학당 교재, 현지화 교재 등은 개발에서 그치기보다 보급과 활용 방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5.4. 한국어 교원의 전문화에 따른 인식 전환

다변화기 한국어 교육의 주요 변화 중의 하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 시행이라는 점을 앞서 밝힌 바가 있다. 그리하여 한국어 전문 교사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일반화될 것이다.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영역별 교과목을 정해진 시수나 학점에 맞게 이수해야 하거나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후에 자격증을 부여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자가 한국어 교사가 된 후에는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학부속기관의 한국어 교사는 대다수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사명감과 봉사심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5. 목적별 한국어능력 평가 종류 개발

한국어능력 평가의 종류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몇 가지 종류가 있으나 이들의 주관 부서가 각기 다르고 브랜드화하지 못해 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주관부서를 통일하되 목적별로 한국어능력시험의 종류를 달리하여 유학, 취업 등에 활용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대학 지원 자격을 부여하여 TOPIK 4 급 이상인 자들만 대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52] 이와 같이 목적에 따라 유효한 시험을 응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5.6. 정부 유관 부서의 업무 분담과 효율적 관리

성장기 한국어 교육과 비교해 본다면 정부 유관 부서의 업무 분담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과 한국어

[52] 국내 대학의 유학생 입학 자격에 대해서는 TOPIK 3 급을 요구하는 학교와 4,5 급을 요구하는 학교 등 입학 자격이 일정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졸업자격으로 4 급을 요구하는 추세이다.

Scanned with CamScanner

능력시험 관리는 최근에 그 주관 부서가 바뀜에 따라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그 주관 부서의 업무 담당이 긴밀성과 당위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은 그 주무부서가 여섯 곳 이상이 되어 이중적인 활동과 지원이 이루어져 예산 낭비를 가져온다는 비판도 있다. 적절한 업무 분담과 효율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국어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5.7. 세계적 한국어 교육망 구축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미 U-세종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한국어 문화 보급 창구를 확대해 나가고 세계적인 온라인 한국어 교육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세계한국어교육자 대회에서는 오프라인 상으로 지역 간, 정부와 교사, 학자 간 한국어 교육의 문제를 공유하고 강연이나 워크숍을 통하여 토론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지역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교수법과 교재 개발 등 공통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5.8. 다문화 사회 한국어 교육의 내용과 효율성 모색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 노동자의 증가로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특성화된 교재를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남편과 자녀 등 가족과 어우러지도록 하는 방안,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도록 하는 방안 등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6. 결론

지금까지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한국어 교육의 시대적 특성을 다변화 및 재정립기로 특징지어 보았다. 이는 최근 2000 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한국어 학습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은 물론 다변화되고 대내외적으로 한국어 교육의 제도적인 변화와 발전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더욱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발전에 걸맞게

Scanned with CamScanner

교육과정, 학습자, 교사, 교재와 교수법, 평가, 정부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면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2010,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재외한국학교 선
진화방안.
국립국어원, 2010,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2005, 한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김중섭, 2010, 한국어 교육의 이해, 도서출판 하우.
정일선(2009), "다문화 사회의 이해", 한국어 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조항록, 2010,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문화사.
최용기, 2008, 한국어 교육 현황과 세종학당 운영 방안, 세종학당 논총,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기관 대표자 협의회 자료, 2010. 9.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license/stat.do)

Scanned with CamScanner

БНСУ болон гадаад улс дах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хэтийн төлөв

И Ёнсүг

[Хураангуй]

50 орчим жилийн өмнөөс Йөнсэгийн их сургууль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институт нээгдэн гадаад хүнд зориулса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явуулах болсноор солонгос дах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чанар, тоо хэмжээний хувьд өсөн нэмэгдэж байна. Мөн гадаад улсад оршин суугаа солонгос иргэд болон гадаад иргэдэд зориулса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ч эрчимтэй хөгжиж байна.

БНСУ-ын хувьд солонгос хэл суралцагчдын тоонд солонгос хүнтэй гэр бүл болсон гадаад эмэгтэйчүүд, гэрээгээр ажиллагч гадаад иргэд, нутаг буцан ирсэн гадаадад оршин сууж байсан солонгос иргэдийн үр хүүхдүүд хамрагдах болсноор хүрээгээ улам бүр тэлж, тооны хувьд ч өсөн нэмэгдэж байна. Эхэн үедээ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г Сөүл хотын томоохон их сургуулиудад төвлөрүүлэн явуулдаг байсан хийгээд 1990 оны хоёрдугаар хагасаас улсын хэмжээнд тогтмол явуулах болсноор 2010 оны есдүгээр сарын байдлаар дотооддоо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явуулдаг байгууллагын тоо 120 орчим болсон байна. 2000 оноос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заах арга зүй нь бие даасан шинжлэх ухаан болон хөгжөөд зогсохгүй,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эрх бүхий байгууллагын бодлого төлөвлөх, дэмжлэгийг нэмэгдүүлэх, гадаад дотоодын байгууллага, боловсон хүчнүүд хооронд харилцаа холбоо тогтоох, сурах бичгийг эрчимтэй боловсруулж гаргах, мэргэшүүлэх,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түвшин тогтоох шалгалт өгөгчдийн тоо нэмэгдэх,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агшлах эрх олгох,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агшлах эрхийн шалгалтын систем бүрэлдсэнээр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агшийн тоо нэмэгдэж,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өдөр ирэх тусам улам бүр хөгжиж байна.

Жишээлбэл, гадаадад оршин суугаа солонгос иргэдэд зориулагдсан, гадаад улс дахь солонгос хэл,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чиглэлээр сургалттай байгууллага нийт 64 улсын 750 их дээд сургуульд байгуулагдаад байна.

Үүнд үндэслэн сүүлийн үе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цаг үеийн онцлогийн өөрчлөлт, дахин төлөвлөлтийг тусгайлан үзвээс 2000 оны дунд үеэс өнөөдрийг хүртэл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Scanned with CamScanner

суралцагчдын тоо огцом өсөхийн хэрээр улам нь өргөжиж, гадаад дотооддоо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тогтолцоонд өөрчлөлт гаран хөгжиж иржээ.

Гэсэн хэдий ч ийм бодит нөхцөл байдал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г нөхцөлдүүлэн улам бүр хөгжүүлэхийн тулд тоонд нь таарсан сургалтын үе шат, суралцагч, багш, сурах бичиг болон заах арга зүй, үнэлгээ,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дэмжлэг зэрэг олон талын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лыг хамтран шийдвэрл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на.

Голлох үг :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БНСУ болон гадаад улс орон дах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хэтийн төлөв,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явуулдаг байгууллага.

Scanned with CamScanner

몽골 대학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아.나랑게를 (A.Narangerel)[53]

목차

1. 들어가기
2. 몽골 대학의 한국어교육 현황
   2.1. 교수진
   2.2. 교육과정
   2.3. 교재
3. 문제 제기와 향후 과제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몽골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소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 있다.

몽골과 한국 양국은 1990 년 수교 이후로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2010-2011 학년도 조사에 의하면 약 31 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 한국교육을 하고 있다.

양국 교류가 여러 분야에서 확대되고,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0-2011 년 통계에 의하면 2008 년도까지 급증했던 한국어 학습자 수가 비교적 고정된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몽골 정부 측 정책과 사회 대중의 관심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즉, 20 년을 지난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은 현재,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맞는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첫째, 그 동안 한국(어)학 전공자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을 해 왔으나 앞으로 한국어 비전공자를 위한 교수법과 교재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어)학 전공자를 보다 질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이에 한국어 기초 교재 외에 교과과정에 맞는 한국학, 한국어통번역 교재 개발과 교수진 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교육에 중심이 된 교수진 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수들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동기 부여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 교사양성과정에 몽골인과 한국인 교수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본 과정을 몽골에서 실시하면 참여율을 늘릴 수 있고 더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53] 소속: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학과
연락처: 976-8801-1345, naraanav@hanmail.net

Scanned with CamScanner

단기과정과 대학원(박사) 과정에서 가르칠 고급인력이 요구되지만 재정 문제 때문에 몽골에서 해결하기 어렵기에 대한민국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

주제어: 한국어교육, 교재, 교수진, 단기 한국어교육자 양성과정, 박사과정, 교수법

1. 들어가기

몽골과 한국은 오래 전부터 역사적, 문화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져온 이웃 나라다. 그러나 1921년의 몽골의 공산혁명과 한반도의 남북분단 등의 이유로 양국 교류가 중단되었다. 1949년에 몽골이 북한과 외교를 수립했지만 남한과는 이념적인 차이로 교류가 없었다. 이에 당시 몇 학생을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교로 유학 보내는 일로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이 시작되었다.

1990년에 몽골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 즉 자본주의 민주사회로 전환하여 그 해 3월 26일에 몽골과 대한민국이 정상 외교를 수립하였다[54]. 따라서 오래 전의 역사적인 교류로써 사돈지간 같은 양국의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서서히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양국간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몽골의 한국어교육도 절실히 요구되었다.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양국이 국교를 수립한 해인 1990년에 시작되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당시 외무부에서 일했던 베.하과(B.Lkhagwaa) 선생 요청으로, 주몽골 한국대사관의 지원하에 1990년 5월 몽골 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한국학연구센터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였다[55]. 1991년 10월에는 몽골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가 최초로 설립되었다. 그후 여러 대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1993년에 제23번 중학교를 비롯한 초·중·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정규선택과목으로 채택하였다.

본 발표는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에서 실시한 2010-2011 학년도 통계와 한국어교육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

[54] 한국정부는 1990 년 6 월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 몽골주재 한국대사관을 개설하였고, 몽골정부는 1991 년 2 월에 한국주재 몽골대사관을 개설하여 당시 몽골 외무부장관이었던 곰보수릉이 1991 년 3 월에 서울을 방문하였고, 한국측에서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외교안보수석이었던 김종휘가 7 월 울란바타르를 방문하였다. (주한 몽골 대사관, 『한·국 몽골수교 10 주년』 (서울, 2000). 한몽교류협회, 『한·몽 교류천년』 (서울, 1995).)

[55] 한몽교류협회, 『한·몽 교류천년』 (서울 1995), p.p. 72~73.

Scanned with CamScanner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소개하고 그 현황과 문제점들을 밝혀 보려 한다.

2. 몽골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은 1990 년 5 월 한국어 강좌를 비롯하여 1991 년 10 월에 몽골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56]가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후 1992 년 9 월에는 몽골국립외국어대학에서 한국어학과를 개설하였다. 1993 년에 시작한 '울란바타르 한국어강좌'는 (사립)울란바타르 대학으로 성장하여 한국인이 설립한 최초 대학, 몽골의 대표적인 한국어교육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57].

이후 어르흥대학(1998), 몽골국립교육대학교(2000), 세룰륵대학(2001), 한몽기술대학(2002),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2003) 등 2010-2011 학년도 통계로 31 여 개의 대학에 한국어학과나 한국학과를 개설하였거나 혹은 한국어 교육에 힘쓰고 있다. 권성훈(2009:74)에 의하면 2008-09 학년도에 25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을 한다고 하였는데 2 년 후인 2010-11 학년도 통계에 의하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6 개 대학으로 늘었다.

이 중에서 9 개는 국립대학, 22 개는 사립대학이다. 9 개의 국립대학 중에서 몽골국립대학교 소속 어르흥(지역) 대학[58], 홉드대학교[59], 도르노드대학[60]이 지방 대학이고 나머지 6 개의 대학교는 몽골 수도인 울란바타르에 위치한다. 그러나 22 개의 사립대학 중에서 다르항대학과 신다르항 2 개의 대학이 다르항[61] 시에 위치한다. 신다르항 대학은 2011 년 9 월 한국어 전공자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학교 행정을 전환하였다.

---

[56] 몽골국립대학교는 1994 년에 '한국이학과' 명칭을 '한국학과'로 변경하였다.
[57] 윤순재 선교사가 '울란바타르 한국어강좌'를 개설하여 1995 년에 '울란바타르대학' 설립인가를 받고 2002 년에 대학 법인이 세워지면서 2010 년까지 울란바타르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이는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상을 보여주어 외국인으로서 몽골정부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58] 수도에서 서부 방향으로 370km 떨어진 지역 대학이다.
[59] 수도에서 서부 방향으로 1425km 떨어진 지역 대학교이다.
[60] 수도에서 동쪽으로 660km 떨어진 지역 대학이다.
[61] 수동에서 북쪽으로 220km 떨어진 지역이다.

Scanned with CamScanner

수도 울란바타르에서만 대학들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학이 설립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사립대학의 경우, 국가 중심지에서 떨어진 지방에서 대학을 세운다는 것, 특히 한국어교육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졸업 후 취업할 한국의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에서 몰려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한국어교육을 하는 경우 시장성이 없고, 또 수요가 많지 않아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몽골의 넓은 땅에서 교육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사립대학들의 지방캠퍼스 참여도 필요하며, 지방에서의 사립대학 개교에 몽골정부의 적극 지원이 요구된다.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이 금년 20 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2000 년 전까지 한국어교육을 하는 2 개의 국립대학, 4 개의 사립대학교가 있었다. 그러나 2000 - 2006 년까지 4 개의 국립대학과 14 개의 사립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을 시작하였다. 7 년 사이에 한국어교육을 하는 대학이 급등하여 현재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 31 대학의 약 60%가 한국(어)학과가 개설되거나 한국어를 교육하게 되었다. 2000 년부터 양국간 외국 근로자 계약 체결, 유학생 교환, 몽골 시장에 많은 한국 기업 진출 등 여러 가지 교류가 활성화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10-11 학년도, 몽골 대학에서의 한국어 학습자는 4,187 명에 이르렀다. 국립대학교에서는 711(총 학습자의 17%)명, 사립대학교에서는 3,476(총 학습자의 83%)명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몽골에서의 대학 한국어교육은 대부분 사립대학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관련 지원, 특히 한국정부 지원이 국립대학교에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한 예로, KOICA 한국어교육 단원들을 사립대학교에 배정하지 않고, 국립교육기관에만 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사립대학, 특히 한국어교육이 오래 되지 않은 대학 중심으로도 한국어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이 더욱 튼튼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 중에서 한국어를 전공[62] 하는 학생은 2,130(총 학습자의 51%)명이고, 비전공 선택 과목으로 학습하는 학생은 2,067(총 학습자의 49%)명에 이르고 있다.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711 명 중 한국어 비전공 학습자가 90(국립대학교 한국어 학습자의 1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립대학교에서

[62] 복수 전공 포함.

Scanned with CamScanner

한국어를 학습하는 3,476 명 중 한국어 비전공 학습자는 1,967(사립대학교 한국어 학습자의 57%)에 이르고 있다.

통계결과, 국립대학들은 주로 한국(어)학 전공자를 배출하고 있는 반면에 사립대학들은 비전공 학습자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학은 자체 운영이기 때문에 사회 요구를 예민하게 받아드려 교육에 반영한다. 따라서 현재 몽골 사회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것보다 전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래 다른 분야와 연결될 수 있는 준비기점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한국 유학 혹은 한국과 관련된 취업으로도 미착할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교육의 방향과 목표 설정에 영향을 주는 지점이 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은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동안 증가하고 있는 비전공 한국어학습자들 증가로, 그들을 위한 새로운 교수 방법과 교재가 요구된다고 본다. (표 1 참조)

<표 1>몽골 대학들의 한국어교육 현황(2010-2011)[63]

구분	№	학교명		학과-전공	한국어 교육 시작	학생인원 전공/선택
	1	몽골국립 대학교[64]	외국어 대학	한국학과- (1) 한국학 (2) 한국어학 (3) 한국어교사	1991	107/0
	2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학과 - 몽골어·한국어	1996	146/50

[63] 이 표 내용은 몽골교육문화과학부에서 실시한 2010-11 학년도(몽골은 9 월 학기 시작) '몽골 대학 전공 · 학생 인원' 통계조사를 기반으로, 권성훈(2009)과,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 사이트에 실린 조사를 참조하여 필자가 각 대학의 한국어교육 담당자와 인터뷰로 작성한 것이다.

또한 통계조사에는 (주간) 학부생 인원만 제시하였고 교수 인원은 전임교수자만 포함하였고 년대순으로 나열하였다.

[64] 2010-11 학년도에 정부 지시로 국립 대학교들이 합병하였다. 이에 한 예로 국립울란바타르대학교와 어르헝 지역 대학은 그 전에 별도로 운영되었지만 2010-11 학년도부터 몽골국립대학교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국립	3		어르헝 지역 대학	한국어통번역	-	20/0
	4	교육대학교		동양어학부-한국어교사	2000	91/0
	5	몽한기술전문대학*[65]		한국어통번역	2001	40/60
	6	과학기술대학교		(1)엔지니어교사 /한국어·영어/ (2)기술전문통번역 /한국어/	2003	152/0
	7	농업대학교		교양	2006	0/30
	8	홉드대학교		컴퓨터·한국어	2007	58/0
	9	도르노드대학		한국어통번역	-	7/0
	총					621/90
사립	1	인문대학교		한국학과 - 한국학	1992	70/0
	2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학과 - 한국어통번역	1993	327/751
				한국학과 - 한국학	2003	89/0
			몽골어학과	몽골어·한국어학	2007	45/0
				몽골어·한국어 교사	2009	81/0
	3	어요대학		한국어학과-한국어통번역	1998	48/0
	4	어르헝대학		한국어통번역	1998	94/0
	5	뭉흐아노대학		외국어학부 - 한국어	2000	25/30
	6	식품기술전문대학[66]		교양	2000	0/60
	7	세룰륵대학		한국어통번역	2001	10/150
	8	가자르친대학		외국어학부-한국어통번역·관광	2001	42/60
	9	몽골국제대학*		교양	2002	0/196
	10	빌렉대학[67]		관광·한국어통번역	2003	5/0
	11	다르항대학		한국어통번역	2003	3/0
	12	이흐자삭대학		한국어·한국학	2005	84/0
	13	어트겅탱게르대학교		동양어학부-한국어통번역·교사	2005	47/103
	14	유러아시아대학		한국어·영어통번역	2005	5/21

[65] *별 표는 한인 설립 대학을 표시한다. 그 중에서 몽한기술전문대학은 한·몽 정부 협력으로 설립된 학교이고 신다르항대학은 2005 년에 한국인이 인수하였다.
[66] 본 전문대학은 2000 년부터 한국어교육을 선택과목으로 하다가 2009 년부터 호텔경영과 필수과목으로 한국어수업을 하게 되었다.
[67] 본 대학은, 2011 년에 '헬솓을라츠대학'과 합병하였다. 헬솓을라츠대학은 2003 년부터 한국어교육을 해 왔지만 최근 3 년 동안 관광-한국어통번역과 신입생 모집이 미달하여 현재 4 학년 재적생 5 명이다.

Scanned with CamScanner

	15	몽골민족대학	동양어학과- (1) 한국어통번역 (2) 한국학	2005	97/70
	16	울란바타르 에르뎀어요대학	동양어학부- (1) 한국어·관광 (2) 한국어교사·통번역	2005	54/0
	17	엥흐어르츨렁대학*	외국어학부- 한국어통번역	2005	290/450
	18	신다르항대학[68] *	한국어통번역	2006	31/0
	19	텡게르대학	교양	2006	0/46
	20	항가이대학	과광·한국어	2007	10/0
	21	후레대학교*	한국어통번역	2009	43/30
	22	시티대학	한국어통번역	2011	9/0
	총				1,509/ 1,967
총계					2,130/ 2,067
합계	31				4,187

몽골에서 한국어교육을 하는 31 개 대학 중에서 6 개 대학이 한국인과 한·몽 정부 설립대학이다. 이 6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인원이 2,433 으로 총 한국어학습자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몽골의 대학들 한국어학습자 수적 변화[69]

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6	2008	2010
인원	15	54	160	230	260	290	302	400	460	600	720	850	1,012	2,507	3,958	4,187

권성훈(2009:74)에 의하면 2008-09 학년도에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배우는 학생은 1,748 명, 외국어 선택으로 배우는 학생 수는

[68] 본 대학은 2011 년 9 월 한국어 전공자 신입모집을 중지하고 학교 행정전환하였음.
[69] 한·몽학술회의 발표논문집(2001:172), 몽골개황(2006:80)참조.
2006-07 학년도까지의 학생수는 한국어전공 학부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까지 포함하였지만 2008-09 학년도(권성훈(2009:74))와 2010-11 학년도 통계는 한국어 전공 학습자와 비전공 학습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Scanned with CamScanner

2,209 명, 총 3,957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였다. <표 1>과 같이 2 년 후인 2010-11 학년도 통계에 의하면 한국어를 전공으로 배우는 학생은 382 명으로 증가하여 2,130 명, 외국어 선택으로 배우는 학생(비전공)은 142 명으로 감축되어 2,067 명, 총 4,187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였다.[70]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2008-2009 학년도까지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2011 년 이후 비교적 고정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강신(2007:162-163)에서는 몽골국내의 사회적 수요를 지나치게 초과한 맹목적인 한국 학과의 증설과 지나치게 많은 대규모의 학생모집을 우려하였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추세로 한국(어)학과 졸업생들의 과포화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머지 않아 수 많은 대학들에서 한국학과가 통폐합되거나 폐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예측대로 이러한 현상을 본고 <표 1>의 세룰륵대학, 유러아시아대학, 다르항대학, 신다르항대학, 빌렉 대학에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8-9 학년도에 비하면 한국어교육을 하는 대학이 6 개 대학으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크게 늘지 않았다.

이는, 최근 들어 몽골정부 측에서 인문계열을 압축하고 자연계열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을 뿐더러,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가 대중화 되고 있으면서 한국어를 전공하고자 하는 사회 관심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2.1. 교수진

현재 몽골의 31 여 개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전임교수자는 114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학위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어전공 박사 5 명[71]이고 총 교수진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2 명은 몽골인, 3 명은 한국인이다[72]. 한국인과 몽골인

---

[70]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은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활성화를 보이고 있다. 1993 년에 제 23 번 중학교를 비롯하여 몽골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는 영어 다음으로 제 2 외국어로서 정규선택과목으로 선정되었다. 주몽골대한민국 대사과 사이트에 실린 한국어학습 초중고교생 현황 2009 년 10 월 조사에 의하면 몽골에서 11 개 초중고등학교들이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으며 초 1,248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

[71] 국제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을 하는 박사 2 명은 영어과, 신학과 박사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72] 데.샌빌렉트는 서울대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였고 현재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데.에르덴수릉은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인문대학교에 있다. 최기호는 연세대학교에서

Scanned with CamScanner

교수들 중에 박사과정생[73]이 총 24 명으로 교수진의 21%를 차지하고 있지만 석사학위 취득자는 79 명으로 총 교수진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박사과정에 진학하지 않고 있다. 학사는 4 명으로 총 교수진의 4%를 차지한다. <표 3> 참조.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 교수진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석사 교수자들을 다시 분석해 보면, 74 명의 몽골인 교수자 중 58 명(78%)이 석사이다.

몽골인 석사 교수들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몽골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에서 결정으로, 석사와 그 이상의 취득자가 교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의 전임강사로 들어가면 교양과목을 포함한 강의 수(주 22 시간 이상), 행정적인 업무까지 부과하고, 초기 교수자로서 초급 혹은 중급에 해당하는 교육에 치중하게 됨으로 본인의 실력도 향상하지 못하고 연구자나 학자로서 준비되기 이전에 적당히 안주하는 등, 상위 학위를 위한 도전이나 연구의 동기유발이 부족해지는 현상에 매몰되기도 한다. 이에 앞으로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을 향상하기 위해 몽골인 석사 교수진들을 향한 정책이 시급하다.

몽골 석사 교수자들이 한국에 유학을 가서 대학원에 다니거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자를 위한 단기 교사양성 과정에 참석할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 진행되는 한국어교사양성 과정을 몽골에서 개최하면 참여율이 높아져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시간과 공간, 경제적인 효율성과 함께 더 많은 이들에게 교육 향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학습자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한국정부와 한국어교육 기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 초기 시기에는 몽골에 있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국어를 가르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선행 연구에 이미 많이 다뤘다.[74] 그러나 이번 현황 조사에 의하면 석박사 한국인 교수가 비교적 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인 전문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몽골에서 한국어교육을 하고

국어학 전공하였고 2011.3~현재 울란바타르대학교 총장이며 한국학과 교수로서 주로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다. 이탄미는 중앙대학교에서 창작문학을 전공하였고 2003~현재까지 한국어학과 교수로, 현재 울란바타르초중고등학교 교장을 겸임하고 있다. 송의민은 몽골 과학아카데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3 년부터 현재까지 국립교육대학교에 한국어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73] 박사과정 수료자 포함.

[74] 강신(2007:161-162).

Scanned with CamScanner

있는 40 명의 한국인 교수 중 21 명(52.5%)이 석사이다. 한국인 교수 학위 증진을 위해서 몽골에서 거주하며 한국어교육을 하는 교수들을 전문교육하는 것과 한국에서 고급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능한 한국인 교수진 확보 문제에는 역시 재정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 몽골 대학들 자체적인 교육예산으로는 한국인 교수의 보수 지급이 힘들기 때문에 KOICA 같은 정부단체들이 한국에서 단원을 모집 할 때 대학원생[75]들 외에 한국의 대학교에서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는 고급 인력들, 경험 많은 교수들을 채용해서 몽골에 보내 주면 몽골에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 몽골인 교수, 한국인 교수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76].

<표 3> 몽골 대학들의 한국어 교수자 현황[77] (2011.11)

구분	№	학교명		교수		
				인원 한국인/몽골인	한국인 학사/석사/박사과정/박사	몽골인 학사/석사/박사과정/박사
국립	1	몽골국립대학	외국어대학 한국학과	1/4	0/0/1/0	0/0/3/1
	2		울란바타르대학교	1/5	0/1/0/0	0/4/1/0
	3		어르헝(지역)대학	0/1	0/0/0/0	0/1/0/0
	4	교육대학교		1/2	0/0/0/1	0/2/0/0
	5	몽한기술전문대학		0/2	0/0/0/0	0/2/0/0

[75] KOICA 단원들은 대개 학사나 석사(한국어교육 전공 무관) 학위에 한국어교육자격증 취득자로 밝혀졌다. -단, 확인한 바로는 2006 년도 대구카톨릭대학교 국어국문과 출신의 석사가 노동부와 울란바타르대학교에서 전공-문법-을 가르친 바 있다.

[76] 몽골 대학들은 경험이 많은 한국어 전공자를 채용하고 싶지만 실제 봉급 문제 해결이 많이 어렵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77] 각 기관 담당자 인터뷰.

Scanned with CamScanner

	6	과학기술대학교	1/5	1/0/0/0	0/4/1/0
	7	농업대학교	0/1	0/0/0/0	0/1/0/0
	8	홉드대학교	1/0	0/1/0/0	0/0/0/0
	9	도르노드대학	0/1	0/0/0/0	0/1/0/0
	총		5/21	1/2/1/1	0/15/5/1
사립	1	인문대학교	4/2	0/4/0/0	0/1/0/1
	2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학과	8/11	0/2/5/1	0/6/5/0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과	2/6	0/0/1/1	0/4/2/0
	3	어요대학	0/2	0/0/0/0	0/2/0/0
	4	어르헝대학	1/3	0/0/1/0	0/3/0/0
	5	식품기술대학	0/0	0/0/0/0	0/0/0/0
	6	뭉흐아노대학	1/2	0/2/0/0	0/2/0/0
	7	세룰륵대학	2/2	0/2/0/0	0/2/0/0
	8	가자르친대학	1/1	0/0/1/0	0/1/0/0
	9	몽골국제대학	4/0	1/1/0/2[78]	0/0/0/0
	10	빌렉대학	0/1	0/0/0/0	0/1/0/0
	11	다르항대학	0/2	0/0/0/0	0/2/0/0
	12	이흐자삭대학	2/4	1/0/0/0	1/3/0/0
	13	어트경탱게르대학교	0/3	0/0/0/0	0/3/0/0
	14	유러아시아대학	0/1	0/0/0/0	0/1/0/0
	15	몽골민족대학	3/2	0/3/0/0	0/2/0/0
	16	울란바타르 에르뎀어요대학	1/2	0/1/0/0	0/2/0/0
	17	엥흐어르츨렁대학	2/4	0/2/0/0	0/4/0/0
	18	신다르항대학	0/0	0/0/0/0	0/0/0/0
	19	탱게르대학	1/0	0/1/0/0	0/0/0/0
	20	항가이대학	0/1	0/0/0/0	0/1/0/0
	21	후레대학교	3/3	0/1/2/0	0/2/1/0
	22	시티대학	0/1	0/0/0/0	0/1/0/0
	총		35/53	2/19/10/2-2	1/43/8/1
총계			40/74	3/21/11/3-2	1/58/13/2
합계	31		114	4/79/24/5-2	

[78] 국제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 하는 박사 2 명은 영어과, 신학과 박사이다.

Scanned with CamScanner

2011 년 현재 몽골 대학에서 전임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는 모두 114 명이다. 그 중에서 몽골인 74 명이고, 한국인은 40 명이다. 권성훈(2009)을 보면, 2009 년에는 몽골이 63 명, 한국인이 45 명이었던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몽골인 교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한국인 교수는 반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4> 참조.

<표 4> 몽골 대학들 한국어 전임교수 인원

	1991	2000	2009	2011
몽골인	1	10	63	74
한국인	3	20-30	45	40

2.2. 교육과정

몽골에 총 31 여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본고는 이들 중에서 대표적인 세 대학의 한국어 교육의 교육과정을 소개한다[79].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지시로 몽골에 있는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필수, 선택), 전공기초과목(필수, 선택), 전공심화과목(필수, 선택)으로 이뤄지고 있다. 본고는 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 중에 있는 교양과목을 제외한다.

(1) 몽골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몽골 국립대학교는 1991 년에 한국어과를 최초로 개설하였다. 1994 년에 학과 명칭을 한국학과로 전환하였다. 한국학과의 한국어교육은 1, 2 학년 4 학기 동안 한국어 기초 실력 교육에 집중하고, 3 학년부터 한국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과는 신입생 모집이 1 개 반이며, 3 학년에 올라가서 한국학, 한국어학(통번역), 한국어교사 전공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학과 교과과정을 보면,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한국어통번역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유리하지만 한국어교사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경우 선택 과목의 범위가 좁은 것으로 보인다.

[79]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전통이 오래되고 경험이 많은 한국어교육 기관으로 알려진 몽골국립대학교, 인문대학교, (사립) 울란바타르대학교의 한국어교육과정을 소개한다. 권성훈(2009) 참조.

Scanned with CamScanner

<표 5>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교과과정(2011)

학년	1학기		2 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한국어 (전필[80])	10	한국어 2 (전필)	10
2	한국 3 (전필)	10	한국어 4 (전필)	10
			언어학개론 (전필)	2
			한국의 역사 (전심필[81])	2
3	글씨기 (전필)	6	말하기 (전필)	6
	한국의 외교 정책사 (전심필)	2	한국문학 (전심필)	2
	사회·정치 통번역 (전심필)	2	법률 통번역	2
	국제학개설 (전심필)	3	비교문화 (전심필)	3
			한국인의 사상 역사 (전심필)	2
4	한국문헌 번역 (전심필)	2	한국어 통역 (전심필)	2
	한국 정치 (전심필)	2	한국 경제 지리 (전심필)	3
	실습	3	한국의 민속학 (전심필)	2
선택	선택 1		선택 2	
	한국의 문화 정책	2	통번역 이론	2
	한국의 사회와 문화	2	공문서 번역	2
	한국의 교육 역사	2	문학 번역	2
	중세·근대 한국어	2	한국어 능력시험	2

(2) 인문대학교 한국학과

국립외국어대학교[82]가 1992 년 9 월에 동양어학부에 한국어과를 개설하여 2003 년에 한국학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하였다.

본 대학교 한국어학과는 1997 년부터 매년 2, 3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몽골에서의 한국어 능력시험인 TOPIK 제 5 회 시험부터 인문대학교 한국학과 학과장인 최선수 교수가 현재까지 책임을 맡고 있다.

[80] 전공필수 과목.
[81] 전공심화필수 과목.
[82] 현 인문대학교.

Scanned with CamScanner

교과과정은 1,2 학년에서는 한국어 회화를 중심으로 한국어 기초 실력을 닦고 3,4 학년에서는 분야별 통번역과 한국학 관련 강의들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학생들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6> 인문대학교 한국학과 교과과정(2010~현재)

학년	1학기		2 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듣기 · 말하기 1	2	듣기 · 말하기 2	2
	쓰기· 문법 1	2	쓰기· 문법 2	2
	읽기 · 어휘 1	2	읽기 · 어휘 2	2
2	듣기 · 말하기 3	2	듣기 · 말하기 4	2
	쓰기· 문법 3	2	쓰기· 문법 4	2
	읽기 · 어휘 3	2	읽기 · 어휘 4	2
			번역번역 실습 1 (한몽)	2
3	듣기 · 말하기 5	2	한국역사 1 (전선)	2
	쓰기· 문법 5	2	한국경제 (전선)	
	읽기 · 어휘 5	1	TOPIK 중급 (전선)	2
	한자 1	1	한자 2	1
	한국인과 사회 (전선)	1	통역실습 1 (한몽)	2
	비교문화 (전심필)	2	관광 · 여행 번역	2
	한국학 (전심필)	2	한국문학 (전심필)	2
	번역실습 2 (몽한)	2	언어문화 (전심필)	2
			번역이론 (전심필)	2
4	한국문학	3	사회 · 정치 · 언론 번역	2
	한자	1	공문서 번역	3
	법률 번역	2	과학 · 기술 번역	2
	통역 실습 2 (몽한)	4	문학번역	2
	한국역사 2 (전선)	2	경영 · 경제 번역	2

(3)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학과

울란바타르대학교는 한국인이 몽골에 세운 최초의 사립대학이며 1993 년 가을부터 한국어교육을 시작하여 1995 년에 몽골 교육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았다. 본 대학교는 2002 년 2 월에 상명대학교 지원으로 한국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또한, 2002 년

Scanned with CamScanner

10 월에 석사과정을, 2010 년 3 월에 박사과정[83] 을 한국학, 한국어교수법 전공으로 개설하였다. 이 대학 한국어학과는 2003 년까지 한국학, 한국어통번역 전공[84] 으로 교육을 하다가 2003 년 9 월에 한국학과를 따로 개설하여 현재까지 한국어학과, 한국학과가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다. 한국어학과는 한국어 통번역자를, 한국학과는 한국학자를 배출하고 있다.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학과는 언어의 기초 영역인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를 같이 4 학기 동안 교육하고 있으며, 3 학년 1, 2 학기에는 말하기(2 학점)만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경희사이버대학교 지원으로 2005 년부터 울란바타르대학교에서 한국어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이버 수업 시간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업 시간에 학습한 지식을 더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하여 폭 넓은 지식을 가지게 된다.

한국어학과는 한국어통번역자를 배출하기 때문에 3 학년부터 분야별 통번역 수업이 진행되며, 한국학 관련 과목은 대개 선택 형식으로 되어 있다.

<표 7>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학과 교과과정(2011.09-현재)

학년	1학기		2 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말하기 · 듣기 1 (전필)	3	말하기 · 듣기 2 (전필)	3
	읽기 · 쓰기 1 (전필)	3	읽기 · 쓰기 2 (전필)	3
	음운론 (전필)	1	사이버 수업 2 (전필)	2
	사이버 수업 1 (전필)	2		
2	말하기 · 듣기 3 (전필)	3	말하기 · 듣기 4 (전필)	3
	읽기 · 쓰기 3 (전필)	3	읽기 · 쓰기 4 (전필)	3
	사이버 수업 3 (전선[85])	2	사이버 수업 4 (전선)	2
	한-몽 번역 1	2	한-몽 번역 2	1

[83] 현재 울란바타르대학교 대학원생이 석사 70 여 명, 박사 20 여 명에 이르렀다.
[84] 2003 년까지 '한국어통번역 및 교사' 전공으로 인재를 양성하였다.
[85] 전공선택 과목.

Scanned with CamScanner

	(전필)		(전필)	
			몽-한 번역 1 (전필)	2
			한자 1 (전필)	2
3	말하기 · 듣기 5 (전필)	2	말하기 · 듣기 6 (전필)	2
	몽-한 번역 2 (전필)	1	관광 통번역 (전심필)	2
	한국어고급작문 1 (전심필)	2	한국어고급작문 2 (전심필)	2
	한국현대문학 1 (전심필)	3	한국현대문학 2 (전심필)	3
	한국어형태론 (전필)	3	한국어통사론 (전필)	3
	한자 2 (전필)	2	한자 3 (전선)	2
	통번역이론 (전심필)	2	한국어의통역 (전심선[86])	2
			실습[87]	4
4	한국학 (전심필)	2	한-몽 비교 문법 (전선)	2
	공문서통번역 (전심선)	2	한국문화와 풍습 (전선)	2
	사회언론통번역 (전심선)	2	경제통번역 (전심선)	2
	한국어 어휘론	2	건축-광산통번역 (전심선)	1
	한국의 역사 (전선)	2	문학통번역 (전심선)	1
	한국인의 사상 (전선)	2	한국정치 (전심선)	2
	법률통번역 (전심선)	2	한국민속학 (전심선)	3
	과학기술통번역 (전심선)	1		
	의학통번역 (전심선)	1		
	한국고전문학 (전심선)	2		
	한국경제	2		

[86] 전공심화선택 과목.

[87] 한국어학과에서는 통역 실습(2 학점), 번역 실습 (2 학점)을 별도로 하고 있음.

Scanned with CamScanner

	(전심선)			

2.3. 교재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 초기에 몽골의 대학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교재를 가져다 편집하거나 제본해서 사용하였다. 한국어교육이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체 개발한 여러 개의 학습교재가 발간되고 있다. 권성훈(2000:93, 2009:83-86)에 의하면, 1991-2009 년까지 총 51[88] 종의 한국어 학습교재가 몽골에서 출간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자체 개발된 교재들은 대부분 저자의 학교 내부에서 행하는 강의에 초점을 맞춘 교재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는 주교재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혼자 학습할 때 참고하거나 자료로 사용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8-2011 사이에 개발된 『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는 대부분의 대학 교육과정에 맞춘 교재로 현재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89].

『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는 총 6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Ⅰ,Ⅱ 권은 한국의 방성원, 우인혜 교수와 몽골의 데.샌빌렉트, 데.에르덴수릉 교수가 2008 년에 공동집필하였다. III-VI 교재는 한국의 이영숙 교수가 합류하여 공동집필하여 2011.12 월에 VI 권이 몽골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본 교재는 단원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네 영역을 중심으로 문법, 어휘, 발음, 문화를 다루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KB 국민은행 후원으로, 몽골인 전문가와 한국인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하여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 교육과정과 학습자 생활현장의 특성에 맞게 개발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교재 보급이 문제 되고 있다. 국제교류재단에서는 본

---

[88] 남정주, 『재미있는 한국어 기초공부』, Munkhiin useg, 2005.
박인욱, 『몽골어-한국어 번역』,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부, 2009.
송의민, 『한국어 기초교본』, 몽골 국립사범대학교, 2006.
이안나, 『한국문화와 풍습』,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부, 2008.
이탄미, 『한국현대문학』, 『고급작문』,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부, 2008.
Baigali.D, 『한국어 문법풀이』, 한몽기술대학, 2008.
Erdenechimeg.G, 권성훈, 『한국어 1-3』, Munkhiin useg, 2005.
Erdenesuren.D, 『한국어 1』, Nom khur, 2006.
Munguntuul.Ts, 『한국어문법』, 2004.
Narmandakh.D, 『한국어 회화』, 2005.
Otgonjargal.O, 『몽한 속담 100』, 『몽한 관용어 100』,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부, 2008. 등이다.

[89] 현재 (사립)울란바타르대학교에서 본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1 권을 '말하기·듣기'(3 학점), '읽기·쓰기'(3 학점) 수업 시간에 1 학기(16 주) 동안 교육하고 있다. 이런 씩으로 2 학년까지 4 권을 나간다. 5,6 학기에 2 학점짜리 '말하기' 수업만 있기에 한 권을 한 학기에 나가기 어려우므로 본 종합 교재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교재를 복사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1 권당 80~100 권 정도 무료 보급했다. 울란바타르대학교 같은 경우 1 년에 약 150 명의 한국어전공 신입생을 뽑고 있으며, 1 년에 800 여명의 비전공 한국어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보급 받은 교재가 턱 없이 모자란다. 따라서 국제교류 재단이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정식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다.

2009 년 이후에도 꾸준하게 한국어 학습교재 편찬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안나 · Narangerel.A · Oyungerel.B · Ganchimeg.B 편집, 『한국어 형태론 · 통사론』,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사, 2011.

최명선, 『과학·기술과 함께 하는 한국어[90]』,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 한국어학과, 2011.

한정탁 · Dulmaa.B · Otgonbayar.O, 『시사몽골어』, Munkhiin useg. 2009.

Ariunbaatar.B · Ganzorig.G, 『한국어 TOPIK 중급』, YDMN, 2011.

Bayarmaa.E, 『공문서 번역』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사, 2011.

Bayarmaa.G · Amartaivan.M · Uugantuya.D 편집, 『법률 번역』,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사, 2011.

Munkhjargal.T, 『과학·기술번역 1』,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 한국어학과, 2011.

Narangerel.A, 『언론 번역 1』,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사, 2011.

앞에 소개한 3 대학의 교육과정을 보면 언어 4 영역 외에 한국(어)학과 통번역과 한국학 관련 과목들이 많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교재는 주로 한국어 기초 4 영역 능력을 키우는 교재였다. 최근 들어 교육과정에 맞춰 여러가지 번역 교재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지만 한국학, 번역 교재들이 한 학교 교육과정과 내용에 맞춰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민속학, 언론번역, 경제번역, 정치번역, 법률번역, 문학번역 등 과목에 모든 대학들이 동일하게 사용할 만한 교재가 개발에 현지 한국어교육자와 한국의 전문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공동 집필이 요구된다.

권성훈(2000:93, 2009:83-86)에 의하면, 1991-2009 년까지 몽골에서 출간된 한국어 사전류는 8 권[91]이며 이들 중에 2 권을 소개하겠다.

---

[90] World friends Korea, KOICA 후원.

Scanned with CamScanner

첫째, 몽골 국립대학교 한국학과에서 출간한『한몽 사전』(2004). 표제어는 40,000 여 개에 이르며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들이 4 년동안 집필하였다.

둘째,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과 · 한국어학과에서 출간한『몽한 사전』(2009). 표제어는 35,000 여개에 이르며 울란바타르대학교 교수들이 3 년에 걸쳐 집필한 사전이다.

그 동안 한국어교육기관에서만 한국어 사전류를 발간하였지만 최근 들어 타 기관에서도 한국 사진류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한국어의 대중화를 보여 주는 하나의 예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Mongolian National Legal Institute,『영어·한국어·몽골어 법률용어사전』, 2010.
QA International,『몽한 포켓 그림 사전』, NEPKO, 2010.
QA International,『몽·러·중·한·영 그림 사전』, NEPKO, 2010.

3. 문제 제기와 향후 과제

2008 년까지 양적으로 불어났던 한국어 교육이 2010 년 들어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20 주년을 맞이하는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에 전환의 시기가 닥쳐 온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향후 한국어교육 방향을 바꾸는 것과 한국어학습자(학부생, 대학원생 포함)를 교육할 고급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학생 수와 사회 욕구

(1) 총 한국어 학습자 중 83%가 사립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을 받는다. 따라서 한국어교육 관련 지원이 사립대학교로 향해야 한다.

(2) 총 한국어 학습자 중 49%가 비전공 한국어 학습자이다. 그 동안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은 한국어 전공자 위주로

---

[91] 강남욱 · 박상희,『몽골어-한국어 학습소사전』, 연락, 2002.
김현정,『한몽 용어사전』, 한국 국제협력단, 2005.
여병무 · 강선화,『한몽, 몽한 사전』,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부, 2004.
한국학과,『한몽 사전』, 몽골 국립대학교, 2004.
한국학 연구소,『몽한·사전』,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부, 2009.
Amartaivan.M,『가이드를 위한 어휘집』,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부, 2009.
_____,『건축 용어 사전』,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부, 2009.
_____,『의학 용어집』,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부, 2009.

Scanned with CamScanner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 비전공자들을 위한 새로운 교수법과 교재가 요구된다.

(3) 현재 울란바타르 수도 외에 3 곳에서만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립대학교들이 지방에서 한국어교육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국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교수진

몽골인 교수진

(1) 해가 갈수록 몽골인 교수자 인원이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인 교수들은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앞으로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을 향상 시키기 위해 총 교수진의 70%를 차지하는 석사 교수(몽골인, 한국인 포함)를 향한 정책이 시급하다.

(2) 몽골에서의 한국어 전공 대학원 과정 개설을 더 활성화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생을 포함한 대학원생들을 지도할 교수 즉, 고급 인력들이 필요하다.

(3) 몽골인 석사 교수들이 한국에서 박사 공부를 할 지원이 필요하다.

(4) 한국어교사양성 과정을 몽골에서 개최하면 참석률이 높아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인 교수

(1) 한국인 교수 학위 증진을 위해서 몽골에서 거주하며 한국어교육을 하는 교수들을 전문교육하는 것 즉 몽골에서 한국어교육양성과정이 진행되면 교육에 효과가 높다.

(2)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강의할 고급 인력을 채용이 필요하다. 유능한 한국인 한국어 교수진 확보 문제에는 역시 재정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에 KOICA 같은 정부 단체들 지원이 필요하다.

(3) 앞에 소개한 3 대학 교과과정을 보면, 한국학 관련 과목이 많다. 따라서 한국어 전공 외에 한국학 전공 교수진이 요구된다.

셋째, 교재

(1) 『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교재 보급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2) 몽골의 비전공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재가 시급하다.

(3) 한국학, 한국통번역 수업용 교재 한몽 전문가 공동 집필이 요구된다.

Scanned with CamScanner

참고문헌

<단행본>

주한 몽골 대사관, 한국 몽골 수교 10 주년, 서울, 2000.

한몽 교류 협회, 한·몽골 교류 천년, 서울, 1995.

몽골소비자국립청, 『Bolovsrolin lavlah』, 울란바타르, 2010.

몽골소비자국립청, 『Bolovsrolin lavlah』, 울란바타르, 2011.

<논문>

강신,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제 22 회 한말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 2005.

____,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몽골학』 22, 한국몽골학회, 2007, pp. 147-211.

권성훈, 「몽골 대학들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문학연구』 제 53 집, 2009, pp. 71-97.

성비락,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발전방향」, 제 22 회 한말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 2005.

송명희·툽싱바야르, 「몽골 대학의 한국문학교육 연구」, 『한어문교육』 제 23 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0.

이계심,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수진 양성과정에 대한 연구」, 울란바타르대학교 석사논문, 2004.

이안나,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과제」, 4 차 한국어 교육자 워크샵,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5.

최기호, 「몽골에서 한국어교육 현황과 과제」, 『문법교육』 6, 한국문법교육학회, 2007, pp. 187-211.

Scanned with CamScanner

Монголын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й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болон тулгарч буй асуудлууд

А. Нарангэрэл

[Хураангуй]

Уг судалгааны зорилго нь монголын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удад явуулж буй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лыг танилцуулж, улмаар тулгарч буй асуудлыг илрүүлэхэд оршино.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хоёр улс 1990 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эхэлсэн гэж үзэж болох бөгөөд 2010-2011 оны хичээлийн жилийн байдлаар гуч гаруй улсын болон хувийн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у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г тодорхой хэмжээнд явуулж байна.

Хоёр орны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бүх л салбарт өргөжин тэлж,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н талаарх сонирхол нэмэгдэх тусам солонгос хэлийг сонирхон судлах оюутнуудын тоо ч нэмэгдэж байна. Гэвч 2008 он хүртэл огцом нэмэгдэж байсан солонгос хэл сонирхон суралцагсдын тоо 2010-2011 оны байдлаар ерөнхийдөө тогтворжих хандлага ажиглагдаж байна. Энэ нь Монголы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явуулж буй бодлого болон нийгмийн олонхын сонирхолтой холбоотойгоор янз бүрээр тайлбарлаж болох юм. Өөрөөр хэлбэл хорин нас хүрч буй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шилжилтийн үе дээрээ ирсэн гэж хэлж болох бөгөө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талаар зөв бодлого явуу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на. Үүнд,

Нэгдүгээрт,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г явуулахдаа зөвхөн мэргэжлийн ангийн хүүхдүүдэд чиглүүлэх бус мэргэжлийн бус, солонгос хэлийг сонгон суралцаж буй оюутнуудад хандсан заах арга болон сурах бичгийн боловсруулах.

Хоёрдугаарт,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мэргэжлийн ангийн оюутнуудыг тооны хувьд нэмэгдүүлэх бус чанарын хувьд сайжруулахад анхаарах. Үүний тулд сургалтын төлөвлөгөөнд тохирсон сурах бичиг боловсруулж, багш нарын чадварыг дээшлүүлэх.

Гуравдугаарт, сургалтын чанарыг сайжрлуулахын тулд сургалт явуулж буй багш нарын мэргэжлийг дээшлүүлэх. Багш нарыг докторын сургалтанд хамруулж зэрэг хамгаалахад нь дэмжих. Мөн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ы мэргэжил дээшлүүлэх сургалтанд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багш нарыг БНСУ-руу явуулж хамруулахаас гадна ийм

Scanned with CamScanner

төрлийн сургалтыг монголд зохион байгуулбал илүү олон багш хамрагдах боломжтой.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ы сургалт болон докторын сургалтанд багшлах туршлагатай, өндөр түвшний мэргэжлийн багшийг солонгосоос урьж авчрахад санхүүгийн бэрхшээл тулгарах бөгөөд үүнд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дэмжлэг шаарлагатай байна.

Голлох үг :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сурах бичиг, багшлах боловсон хүчин,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ы мэргэжил дээшлүүлэх сургалт, докторын сургалт, заах арга.

Scanned with CamScanner

학습 현장에서의 한국어 조사 오류 분석

황 정 숙[92]

목차

1. 서론
2. 조사의 오류 유형 분류
  2.1 오류 분석
  2.2 오류의 원인 검토
3. 결론

[국문초록]

체언의 격을 표시해 주는 조사는 한국어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면서 문장 안에서 주요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현장에서 학습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조사 학습'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제 2 언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가 범하는 조사의 오류 자료를 수집하여, 유형별로 분류하여, 국적, 빈도수, 모국어의 양상 차이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둔다.

오류의 유형은 '생략 오류', '대치 오류', '첨가 오류', '형태 오류', '환언 오류'로 나타났다.

오류의 원인에는 모국어의 지나친 간섭, 제 2 언어의 일반화, 학습자의 상태나 환경, 교재 제시 방법, 교사의 교수방법 등이 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사는 언어 학습자의 학습 현장과 배경 지식 등을 잘 파악해서 위와 같은 다양한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최소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훌륭한 교사는 학습자를 잘 아는 교사이다. 학습자의 어려움을 바로 진단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는 만큼 가르친다는 말이 있다. 교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학습자도 바르게 배울 수 있다.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지도하는 교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올바른 정보를 보다 쉽게 한국어 학습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한국어 학습 현장에서 일으키는 오류 현상들을 바로 파악하여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해 수업을 이끌어 가는 유능한 한국어 교사가 되기 바란다.

---

[92] 미국 팰리세이드팍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전 럿거스주립대 한국어 강사.

Scanned with CamScanner

1. 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현장에서 학습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조사 학습'이다. 체언의 격을 표시해 주는 조사(助詞)는 한국어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면서 문장 안에서 주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습자들이 조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조사(助詞)나 어미(語尾)를 사용하지 않는 모국어 권에서 성장한 학습자에게는 생소한 항목이기 때문에 조사 학습은 어렵다. 한국어를 지도하는 교사가 오류(誤謬)의 유형과 이유를 바로 안다면 학습 현장에서 한국어 학습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조사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제 2 언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가 범하는 **조사(助詞)의 오류** 자료를 수집하여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제 2 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자료를 먼저 유형별로 분류하고, 국적, 빈도수, 모국어의 양상 차이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둔다. 본 고의 오류 유형 분류의 연구가 대학에서의 한국어 학습 현장과 한국학교 학습 현장의 새로운 교육방법 제시에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

Brown(200:217)은 "오류란 원어민의 성인 문법으로부터 일탈된 것으로 학습자의 중간 언어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Nunan(1988:28)은 바르지 못한 발화를 표준문법규준에서의 일탈이 아닌 부분적으로 바르고 불완전한 발화로 봄으로써 이를 '틀린 것'이라기보다 다소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Nunan 의 견해를 바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습득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오류의 유형을 추론이 가능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조사의 오류 유형 분류

조사(助詞)는 체언에 첨가되어 그 체언의 격을 표시해 주는 일이 주된 기능인 품사이다. 한국어 조사(Particle)는 크게 격조사와 보조사, 접속조사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김유미(2000)에서는 오류 분석 결과 부사격 조사, 보조사, 목적격 조사, 주격 조사의 순으로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 Douglas Brown 의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에서 "학습자는 제 2 언어 습득의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며, 그 오류를 통하여 언어 습득 과정을 습득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Scanned with CamScanner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인데, 분석을 통하여서 연구가와 교사들은 그 학습자의 언어 습득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Corder(1967:167)는 "학습자의 오류는 중요하다. 이러한 오류는 언어를 어떻게 학습 또는 습득하는지, 즉 그 언어를 발견해 나갈 때 학습자가 어떤 전략이나 절차를 사용하는 지에 대한 증거를 연구가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고석주 외 (2004)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구축과 오류 주석>에서는 현상적인 측면에서 오류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 **조사의 생략**이다. 조사를 써야 할 환경에서 조사를 쓰지 않고 회피한 경우인데 이 유형은 조사가 없는 언어권 학습자의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하며 초급 학습자에서 고급 학습자까지 폭넓게 나타난다.

둘째, **조사의 대치** 오류이다. 이 유형은 조사를 사용했으나 조사의 용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조사의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로 조사 오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의 형태이다.

셋째, **조사의 첨가** 오류이다. 이 유형은 조사가 불필요한 환경에 조사를 표기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 보태고 싶어서 불필요한 조사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오류이다. 과잉 적용이 적용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넷째, **조사의 형태** 오류이다. 이 유형은 똑 같은 기능을 가지면서도 음운적 환경에 따라 두 가지의 이 형태가 적절하게 선택되어서 쓰지 못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조사의 환언** 오류이다. 이 유형은 한국어에 그 표현을 적절한 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의 용법을 알고 있지 못한 학습자가 다른 어휘적 표현을 써서 조사의 의미를 대신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모국어 사용자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다.

2.1 오류 의 분석

초급 단계의 학습자는 한국어 문법적 특징에 대해 이해 수준이 낮으며 새로운 문법 항목을 계속 학습해 가는 단계이다. 초급 단계 학습 과정에서는 학습자에게 특히 조사 사용과 동사의 활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정희(2003: 133)의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에서는 초급 단계의 학습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법 항목이 '조사'이며 조사의 오류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51.7 %나 된다고 밝히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대학생(럿거스 뉴저지주립대학교) 남녀와 외국인과 한국인

Scanned with CamScanner

(사랑한국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급의 한국어 학습자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 오류의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다양한 현상 오류의 수집을 위해 기타 교재를 통해 얻은 초급 자료도 공동 분석하였다. 유형 분류 기준으로는 고석주 외 (2004)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구축과 오류 주석>의 현상적인 측면의 오류 유형을 참조하였다.

1)조사 생략 오류(PO) - 5 개/ 70 개 (70 개 자료 중 5 개 발견됨을 의미)

- 저는 결혼* Ø(√을) 못 했어요. (러시아. 초급)
- 한국 음식하고 중국음식*Ø(√이) 맛있어요. (중국. 초급)
- 그러나 그들* Ø (√은) 지금 이미 퇴직했어요. (중국. 초급)
- 아파트 근처에 가게* Ø (√가)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 초급)
- 컬리지 애브뉴에서 왼쪽* Ø (√으로) 돌아서 왼쪽에 있어요. (미국. 초급)

이정희 (2003)에서는 초급 단계의 학습자 오류의 특징 중 하나는 누락과 대치 유형이 많다는 것인데, 조사의 '생략 오류'는 조사가 없는 언어권 학습자의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라고 한다. 대학생(럿거스 뉴저지주립대학)과 외국인, 한국인(교포 학생)의 경우 조사 생략 오류가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많은 재미교포 학생들의 모국어가 한국어이거나 그렇지 않아도 한국어에 많이 노출된 교 포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조사 생략 후에도 충분히 서로간 대화가 가능했다. 이 유형은 구어가 아니라 문어로 쓰여지면 더 많은 오류가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석주(2004)와 이은경(1999)에서 밝혀준 오류의 원인 중 조사가 없는 언어권 학습자의 경우에 모국어의 영향으로 조사를 생략하였고, 조사의 사용이 숙달되지 않아 회피와 단순화의 결과로 조사 생략 오류가 나타났다. 이 유형은 발달 단계의 첫번째 단계인 임의적 오류라고 할 수 있다.

2)조사 대치 오류(PL) - 46 개/ 70 개

- 학교*에(√가) 예뻐요. (필리핀. 초급)
- 두 달 전에 반 친구*가(√를) 사귀었어요. (영국. 초급)
- 미끄러운 계단*에(√을) 내려가다가 엎어졌어요. (러시아. 중급)
- 후배가 컴퓨터*로(√를) 통해서 번개팅을 시킨 거예요. (인도네시아. 고급)

Scanned with CamScanner

• 하숙집 주인이 친절한데다가 요리 솜씨*는(√?도) 좋아요. (프랑스. 초급)
• 아침에 집*을(√에서) 잤어요. (중국. 초급)
• 여기서 오른쪽*에 (√으로) 가세요. (중국. 초급)
• 오늘 선생님*은(√께) 말씀 드릴 거예요. (중국. 초급)
• 동대문 시장은 한국*에(√에서) 아주 유명한 시장입니다. (중국. 초급)
• 조선생님이 학생*으로(√한테) 한국어를 가르치십니다. (중국. 초급)
• 저는 꽃*이(√을) 좋아합니다. (일본. 초급)
• 저기 지하도 밑*에(√으로) 가세요. (일본. 초급)
• 식당 건물*이(√을) 세우고 싶어요. (베트남. 초급)
• 오른쪽*을(√으로) 가세요. (미국. 초급)
• 저는 중국 영화*를(√가) 좋아요. (미국. 초급)
• 민지 씨, 일본*은(√에서) 편지가 왔어요. (미국. 초급)
• 나는 수증기 다리미*를(√가) 있어요. (미국. 초급)
• 아침 몇 시에 집*이(√에서) 나오세요? (미국. 초급)
• 저기 지하철 밑*에(√으로) 가세요. (미국. 초급)
• 저는 서울*한테(√에) 전화 자주 해요. (미국. 초급)
• 영화를 유니온 극장*에(√에서) 봤습니다. (미국. 초급)
• 민지 씨, 일본*한테서(√에서) 편지가 왔어요. (미국. 초급)
• 날마다 학교*에(√에서) 한국말을 공부해요. (미국. 초급)
• 저는 백화점*에(√에서) 옷하고 구두를 샀습니다. (미국. 초급)
• 이 선물은 집*에(√에서) 가까운 백화점*에(√에서) 샀어요. (미국. 초급)
• 컬리지애브뉴 왼쪽*에(√으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른쪽*에(√으로) 가세요. (미국. 초급)
• 저는 무서운 영화*를(√가) 좋아요. (재미교포. 초급)
• 방에 책*을(√이) 있어요. (재미교포. 초급)
• 백화점*에(√에서) 옷하고 구두를 샀어요. (재미교포. 초급)
• 이 가방 누구*한테(√한테서) 받은 선물입니까? (재미교포. 초급)
• 한국어 수업은 스캇홀 안*에(√에서) 해요. (재미교포. 초급)
• 집*에서(√에) 동생*을(√이) 한 명 있어요. (재미교포. 초급)
• 저는 뉴욕*에(√에서) 태어났어요. (재미교포. 초급)
• 린다 씨는 어디*에(√에서) 공부하세요? (재미교포. 초급)
• 교실*은(√에) 학생이 많아요. (재미교포. 초급)
• 저는 서울*으로(√로) 전화 자주 해요. (재미교포. 초급)

Scanned with CamScanner

• 컬리지 애비뉴 뒤*에(√로) 걸어가세요. (재미교포. 초급)
• 어제 동생*을(√한테) 생일선물* 山(을) 줬어요. (재미교포. 초급)
• 오른쪽*에(√으로) 가세요. 그리고 지하도를 건너세요. (재미교포. 초급)
• 오른쪽*로(√으로) 가요. 그리고 워렌*에(√에서) 돌아요. (재미교포. 초급)
• 여기서 학교*에서(√까지) 차*까지(√로) 얼마나 걸려요? (재미교포. 초급)
• 뉴욕에는 차가 많고 사람*을(√이) 많이 있어요. (재미교포. 초급)
• 나는 이 선물*은(√을) 내 집 가까운 백화점에서 샀어요. (재미교포. 초급)
• 저기서 왼쪽*일(√으로) 도세요. *왼쪽 돌고 내려 가세요.
(√왼쪽으로 돌아서) 내려 가세요. (재미교포. 초급)
• 한국어 교실*에(√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걸어 가세요.
책방*을(√이) 보일 거예요. (재미교포. 초급)
• 죠지 스트릿에서 오른쪽 *하세요(√으로 가세요). 그리고 큰 터널 밑*을(으로) 가세요. (재미교포. 초급)

조사 (助詞)의 '대치 오류'는 조사의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로서 조사 오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조사 대치 오류는 일본어 화자의 경우에 가장 낮고 여타의 언어들에서는 조사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아마도 모국어에 대한 지식이 조사의 학습에 간섭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조사 대치 오류를 조사마다 급 별로 살펴 보면, 대체로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오류의 빈도가 낮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 '에'의 경우에는 고급으로 갈수록 오류의 비율이 높아진다. 같은 부사격조사인 '에게'와 '에서'는 중급일 때가 가장 오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중국어 화자의 조사 대치 오류의 큰 특징은 다른 모국어 화자에 비해 조사 오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일본어 화자의 조사 오류의 특징은 다른 모국어 화자의 경우보다 오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영어 화자의 조사 대치 오류 양성의 특징으로는, 초급에서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오류가 다른 모국어 화자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과, 영어의 전치사에 해당하는 부사격 조사 (특히 조사 '에')의 오류가 상당히 높고 급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를 좋아하다', '-를 알다', '-를 못하다' 등 타동사로 쓰이는 동사들이 일본어와 일대일 대응시키면 자동사가 되기 때문이다. 영어권 학습자들은 주격 조사 '-

Scanned with CamScanner

이/가'를 목적격 조사 '-을/를'로 바꾸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국어 형용사나 자동사 중 몇몇 용언들이 학습자의 모국어에서는 타동사와 일대일 대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한다. 교포 학생들은 잘못된 언어 지식으로 인한 오류가 많다.

3)조사 첨가 오류(PA) - 7 개/70 개

- 걸어서 5 분*에(Ø) 걸려요. (중국. 초급)
- 큰 빌딩이 보이지요? 5 분*에(Ø) 걸어 가세요. (중국. 초급)
- 제 친구*의(Ø) 타케시 씨는 아주 재미있어요. (일본. 초급)
-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오 분*에(Ø) 걸려요. (재미교포. 초급)
- 학교 식당*은(Ø) 음식이 싸요. (재미교포. 초급)
- 저는 집*안에서(√에서) 숙제를 해요. (재미교포. 초급)
- 다음 학기에 한국어*를(Ø)하고 경제학을 공부할 거예요. (재미교포. 초급)

초급 학습자의 경우 동사 앞과 명사 뒤에 불필요한 조사를 넣는데 첨가 오류의 원인은 과잉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동사 앞과 명사 뒤에 조사를 넣는 문장에 익숙해져 있다. (예: 학습자는 '한국어 공부해요' 보다 부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공부해요'와 같은 문형을 사용)

4)조사 형태 오류(PF) – 6 개/70 개

- 오늘 선생님*은(√이) 말씀드릴 거예요. (미국. 초급)
- 조 선생님*이(√께서) 학생*을(√한테) 한국어를 가르치십니다. (미국. 초급)
- 그러나 자동차*과(√와) 사람이 아주 많아요. (중국. 초급)
- 오후에 *제가(√?저는) 혼자 하숙집에 있었습니다. (일본. 초급)
- 지하철*으로(√로) 가면 동대문운동장 역에서 내려요. (인도네시아. 초급)
- 조 선생님*이(√께서) 학생*만(√한테) 한국어를 가르치십니다. (재미교포. 초급)

조사의 '형태 오류'는 초급 학습자의 오류에서는 그리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초급 학습자들은 뜻이 같지만 형태만 틀리게 쓴 '형태오류'보다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쓴 '대치오류'를 많이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 유형은 모든 나라의 학습자 오류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오류의 형태였다. 미국학생의 한국어의 존대법 사용을 어려워해서 나타나는

Scanned with CamScanner

오류가 있었기에 이는 모국어의 간섭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조사의 기능을 알지만 적합한 조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미숙의 표현이다.

5)조사 환언 오류(PP) – 6 개/70 개

- 어머니*분이(√는) 쉰한 살이에요. (일본. 초급)
- 금요일*이예(√에) 뉴욕에 갈 거예요. (미국. 초급)
- 저는 백화점에서 옷*이(√하고) 구두를 샀습니다. (중국. 초급)
- 지금 어디*에루로(√로) 가세요? (재미교포. 초급)
- 우리 집에 *세 방이(√방이 셋) 있어요. (재미교포. 초급)
- 서머세트에서 왼쪽*으러(√으로) 도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러(√으로) 도세요. (재미교포. 초급)

조사의 '환언 오류'에서는 재미교포 학생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초기부터 언어 학습자들이 가정에서 배운 잘못된 언어지식과 언어 습관에도 원인이 있었다. 또한, 그 잘못된 구어를 문어로 표기하면서 자주 발생되는 오류의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제 2 언어 체계를 빠르게 안정화 시키면서 작은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자신의 언어로 만드는 화석화 현상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2.2 오류의 원인 검토

제 2 언어의 학습자 언어 발달 단계 Corder(1973)는 학습자 언어 발달 단계를 네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임의적 오류(random error)**이다. 이 유형은 일관성 없는 무작위적인 오류를 범하는 단계로 "전체계적(presystematic)"단계라고 지칭한다. 이 단계는 학습자가 특정 항목 부류에 다소 체계적인 질서가 있다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 단계이다.

둘째, **출현(emergent) 단계**이다. 이 유형은 학습자가 제 2 언어를 좀 더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들은 제 2 언어에 대한 체계를 구분해 가고 특정 언어 규칙들을 내재화, 즉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목표어의 기준에 맞추어 보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학습자들은 자신의 언어 수준에서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셋째, **체계적(systematic) 단계**이다. 이 단계는 학습자가 머리 속에 내재화해 놓은 규칙들이 모두 구조적으로 정형화 된(well-formed) 것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으며 목표어 체계에 더 근접한

Scanned with CamScanner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발화에 나타난 오류를 지적 받았을 때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데에 있다.

넷째, **안정화(stabilization) 단계**이다. 이 유형은 학습자는 거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며 유창성과 의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 제 2 언어 체계를 습득한 단계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제 2 언어 체계를 매우 빠르게 안정화시켜 나가면서 매우 작은 오류는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자신의 언어로 만드는 화석화(fossilization) 현상을 보일 수 있다.

Selinker(1974:121)는 언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건설적인 자료로 보았다. 또한 오류를 언어학적, 심리학적인 면에서 고찰 가능한 것으로 보고 오류의 원인을 모국어(native language), 교육과정, 교육 자료에 대한 학습자의 접근, 모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자의 접근 목표어 규칙의 과잉일반화로 분류하였다.

교실 수업의 장에서는 교사나 교재가 학생들로 하여금 언어에 대한 잘못된 가설을 만들어 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것을 가리켜 Richard(1971)는 "잘못된 개념(false concept)"이라고 했고, Stenson (1974)은 "유도된 오류(induced error)"라고 지칭했다. 교사가 설명을 잘못하거나, 학습하고자 하는 구문과 낱말에 대해 잘못된 내용이 책에 제시되어 있거나, 훈련을 통해 기계적으로 암기하였으나 적절한 상황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직 배우지 못한 문형이 있을 때에도 학습자들은 종종 오류를 범한다. 오류의 원인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눈다.

첫째, **언어간 전이**이다. 제 2 언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는 모국어로부터의 언어간 전이가 특히 많이 일어난다. 즉, 모국어 간섭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는 제 2 언어 체계에 익숙해지기 전인 초기 단계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학습에 끌어들일 수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언어는 모국어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습하는 언어간의 언어적, 문화적 관련성이나 학습의 장을 포함한 여러 요인들에 따라 제 1 언어와 제 2 언어가 제 3 언어에 미치는 영향, 즉 언어간 간섭의 정도가 달라진다.

둘째, **언어내 전이**이다. 제 2 언어 학습 연구가들(Jaszczolt 1995; Taylor 1975)은 언어간 전이인 간섭이 학습 초기 단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일단 학습자가 제 2 언어 체계의 일부분을 습득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언어내 전이, 즉 목표어 내에서의 일반화 현상이 일어난다.

Scanned with CamScanner

고석주 외(2004)와 이은경(1999)의 연구에서는 오류의 원인을 모국어의 전이(transfer of mother tongue), 목표어 규칙의 과잉 일반화(over generation), 단순화(simplification), 회피(escape), 과잉 적용(over monitoring) 등으로 설명한다. 이정희(2003)에서는 격조사 는 언어권 별 오류 순위가 영어권, 기타 언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러시아권의 순으로 나타나며, 보조사는 영어권, 중국어권, 기타 언어권, 러시아권, 일본어권의 순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오류의 원인에는 모국어의 지나친 간섭, 제 2 언어의 일반화, 학습자의 상태나 환경, 교재 제시 방법, 교사의 교수방법 등이 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 2 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가 범하는 조사의 오류 자료를 수집하여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았다. 제 2 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국적과 성별, 빈도수, 모국어의 양상 차이를 살피면서 오류의 원인 파악에 접근해 보았다. 이에는 학습자의 일차 언어인 모국어가 미치는 영향도 있었으며, 학습자의 상태나 노출된 언어 환경, 교사의 교수 방법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의 '**생략** 오류'는 조사가 없는 언어권 학습자의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인데, 대학생(럿거스 뉴저지주립대) 남녀와 외국인과 한국인(교포 학생)의 경우에는 조사 생략의 오류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많은 재미교포 학생들의 모국어가 한국어이거나 그렇지 않아도 한국어에 많이 노출된 환경에서 사는 학생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조사의 '**대치** 오류'는 조사의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로, 조사 오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조사 대치 오류는 아마도 모국어에 대한 지식이 조사의 학습에 간섭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셋째, 조사의 '**첨가** 오류'는 과잉 적용(over monitoring)이 적용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특히 초급 학습자의 경우 '-이다' 동사 앞에서 '-이/가'나 '-을/를'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Scanned with CamScanner

넷째, 조사의 '**형태** 오류'는 초급 학습자의 오류에서는 그리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학습자 오류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오류의 형태였다.

다섯째, 조사의 '**환언** 오류'에서는 재미교포 학생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초기부터 언어 학습자들이 가정에서 배운 잘못된 언어지식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그 잘못된 구어를 문어로 표기하면서 자주 발생되는 오류의 한 유형이다.

오류의 원인에는 모국어의 지나친 간섭, 제 2 언어의 일반화, 학습자의 상태나 환경, 교재 제시 방법, 교사의 교수방법 등이 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사는 언어 학습자의 학습 현장과 배경 지식 등을 잘 파악해서 위와 같은 다양한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최소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훌륭한 교사는 학습자를 잘 아는 교사이다. 학습자의 어려움을 바로 진단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는 만큼 가르친다는 말이 있다. 교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학습자도 바르게 배울 수 있다.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지도하는 교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올바른 정보를 보다 쉽게 한국어 학습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한국어 학습 현장에서 일으키는 오류 현상들을 바로 파악하여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해 수업을 이끌어 가는 유능한 한국어 교사가 되기 바란다.

<참고문헌>

고석주 외. 2004.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오류분석. 한국 문화사.

고영근, 구본관. 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국립국어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2>.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유미. 2000. 학습자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학습자 오류 분석,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희. 2001. 한국어 '-더라'의 교수 방안. 이화어문논집 19,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이관규. 1999. <학교문법론>. 월인.

이은경. 1999.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에 나타난 오류 분석. 연세대 석사 학위 논문.

이익섭, 이상억, 채완. 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이익섭, 채완. 2001.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이정희. 2003.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연구>. 박이정.

Scanned with CamScanner

이해영 외. 2005.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이해영. 2003.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교육, <국어교육>.
이희자, 이종희. 2001. <한국어 학습용 어미· 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Baston, R. 1995.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Brown, H. D. 2001. <원리에 의한 교수>.
Cook, Vivian. 1996. 제 2 언어 학습/교수론.
Thornbury, S. 2000. How to Teach Grammar. Longman.
Ur, P. 1988. Grammar Practice Activities: A Practical Guide for Teach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anned with CamScanner

Сургалтын талбарт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нэр үгийн нөхцлийн алдааг ажиглах нь

Хуан Жонсүг

[Хураангуй]

Гадаад хэлний үүднээс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талбарт суралцагчдад хүндрэлтэй байдаг нэгэн сэдэв бол “нэр үгийн нөхцөл” байдаг. Нэр үгийн байрыг зааж өгдөг эдгээр нөхцөл н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онцлогийг хамгийн сайн илэрхийлдэг, мөн өгүүлбэрт чухал үүрэг гүйцэтгэдэг билээ. Гэтэл олон суралцагчид нэр үгийн нөхцлийг зөвөөр хэрэглэж чадахгүй байгаагийн учир шалтгаан нь юу юм болоо? Нэр үгийн нөхцөл болон үйл үгийн нөхцлийг ашигладаггүй өөрийн эх хэлний ойлголтонд дассан суралцагчдад шинэ содон зүйл болохоор нэр үгийн нөхцөлийг таньж мэдэхэд хэцүү байх.

Солонгос хэлийг зааж буй багш нь гарсан алдааны хэлбэр болон шалтгааныг шууд мэдэж чадвал сурах явцад нэр үгийн нөхцлийн талаар солонгос хэл суралцагчид илүү үр дүнтэй сургалт явуулж болохыг харж болно.

Эл үүднээс энэхүү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ичгийн хоёр дахь хэл болгон сурч буй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алцагчийн гаргаж буй нэр үгийн нөхцлийн алдааг цуглуулан түүнийг хэлбэрээр нь ангилан шинжлэхээр зорилоо. Үүний тулд эхлээд алдаа бүхий материалыг цуглуулан ангилж, улсын харьяалал, алдааны давтамж, эх хэлний эзэмшсэн байдал гэх мэт ялгааг ажиглахад гол зорилгоо болголоо. Уг судалгаан дахь алдааны ангиллын судалгаа нь их сургуулий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талбар, мөн шинэ заах арга барилд хувь нэмрээ оруулна хэмээн найдаж байна.

Голлох үг :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агч , Хоёр дахь хэл, Гадаад хүнд зориулса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нэр үгийн нөхцөл, алдаа.

Scanned with CamScanner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의 구조와 의미

이 안 나[93]

목 차

1. 들어가기
2. 한국의 설화 유형
3. 유고와 그리스 설화 유형
4. 몽골의 설화 유형
5. 설화의 구조와 의미
6.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 광포되어 있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 유형 가운데 신화, 전설, 민담 구조를 갖는 그리스, 한국, 몽골, 유고의 설화를 중심으로 그 구조와 의미, 전승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스 미다스 이야기와 경문왕 설화는 신화와 전설에 속하며, 미다스 신화는 새로운 생명력을 회복하는 자연 질서의 비의를 함축한 죽음과 재생의 희생제의적 성격을 띤다. 신화적으로 왕의 비밀을 알게 된 목격자는 살해되고, 그 장소에서 다시 말이 살아나는 내면적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화의 '비밀'과 '말-소문'은 죽음과 재생의 의미 맥락을 내포하며, 상호 모순 관계를 띤다. 전설적 형태에서는 이러한 근저 위에 신성성이 역사적 정황 속에서 부정적 방향으로 해석될 소지를 내포하며, 신체적 기형은 비극적 성격을 띠게 된다.

신화, 전설은 왕의 기형이 후천적이고, 하층민이 지지되지 않는데 반해, 민담은 후천적 기형이 명시되지 않으며, 하층민을 지지하는 해피엔딩의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죽음에서 벗어나는 예외자의 등장으로 서사가 확대, 발전된다. 예외자의 등장은 신화적인 죽음과 재생의 모티브를 소거시키고, 캐릭터들의 성격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변화시킨다. 신화와 전설이 미해결의 열린 구조로 되어 있다면, 민담은 대개 문제가 해결되는 닫힌 구조로 되어 있다. 민담은 기본형태, 확장형태, 변이형태로 구분된다. 기본형태는 소문에 대한 왕의 긍정적 수용과 갈등 해소, 확장형태는 비밀 폭로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문제가 해결되며, 변이형태는 문제 해결이 동물 생태담에 결부되거나 풍자성을 띠는 구조로 되어있다. 민담에서는 민의를

[93] 상명대학교 다문화사회연구소 학술연구교수.

Scanned with CamScanner

수렴하는 통치자의 수용적 태도와 군신민의 화해를 주제로 한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 설화 유형이 여러 지역에서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온 것은 그 서사구조가 통치자나 권력층들을 비판하는 민중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제어 : 임금님 귀, 당나귀 귀, 죽음, 재생, 비밀, 말-소문, 예외자, 민중의식

1. 들어가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유형[94]의 설화는 한국뿐 아니라 그리스, 인도, 포르투갈, 터키, 키르기즈, 몽골 등 유럽, 중동, 인도, 아시아, 북아프리카 등의 넓은 지역에 퍼져있는 광포설화이다. 한국에는 「삼국유사」 권 2 기이 편의 <48 경문대왕> 조에 수록되어 있는데, "동일 설화권에 속하는 한.중.일 3 국 중에서 유일하게 채록된 것[95]"이라는 사실이 주목된다.

보통 주인공의 기형의 유형은 당나귀 귀 이외에도 말 귀, 염소 귀 황소 귀, 당나귀 발, 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당나귀 귀' 화소는 고대 그리스의 미다스 신화를 비롯해 한국과 몽골, 인도 등 여러 나라 설화에 나타난다.[96] 각국 설화의 주인공은 대부분 왕으로 등장하며, 이들은 기형적 외모로 인해 고통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폭로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형성을 가진 고귀한 신분의 지배자와 그 사실을 아는 신민(臣民) 간의 갈등은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힘과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본능 사이에서 발생한다. 진실이 은폐당하지만 결국 폭로된다는 설화 구조는

---

[94] 스티스 톰슨의 <설화의 유형>에 의하면, 이 설화는 AT 782 번 '마이다스와 당나귀 귀'(Midas and Ass's Ears)로 실려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경문왕 설화', '경문왕의 귀 설화', '경문대왕의 귀', '여이설화(驢耳說話)'라고 한다."(김기창,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說話 考」, 『진리논단』, 한남대, 2003. p.57)

[95] 조희웅,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한국설화의 유형연구』, 일조각, 1996, p.328.

[96] 조희웅은 기존의 연구 34 편 이외에 『삼국유사』 자료를 합한 35 편의 분석 자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당나귀 귀' 화소는 고대 그리스, 포르투칼, 네델란드, 이탈리아, 터키, 투르키스탄, 키르기스, 인도, 몽골, 한국 설화에 나타난다.(위의 책, pp.338~340)

Scanned with CamScanner

봉건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현대 사회의 지배구조 속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원형 소재로 계속 반복되며 전승되어 왔다.[97]

지금까지 경문왕 설화에 대한 기존 연구는 최남선(1929) 이래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최남선은 처음 경문왕 설화 모티프가 여러 나라에 유사하게 퍼져 있음을 언급했고, 홍명희(1946)는 희랍 신화가 한국에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고, 중앙아시아나 인도에서 중국을 경유해 들어왔을 것이라는 추리적 견해를 제시하여, 초기 연구에서 설화의 광포성과 전파경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개 경문왕 설화가 중심이 되어 왔으며, 경문왕의 당나귀 귀는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집권자의 고집스런 태도를 반영하거나 풍자하는 것으로 본 것[98] 이 지배적이었으며, 원시 종교의 의례적[99], 도교적[100], 언어적 완곡어법[101] 의 측면으로도 해석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또 왕을 중심으로 설화를 해석하는 경우가 지배적이었지만, 복두장이의 입장에서 민중의 억압된 감정을 발산하고 해소하는 쪽으로 보기도 했다.[102]

이렇게 한국에서 본 설화를 해석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으나 본 논의에서는 그리스, 유고, 몽골 등의 다양한 이본들을 함께 소개하고, 설화의 전반적인 구조와 의미, 내재적 원형성과 전승 양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네 나라의 설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보가 그에 한정되기 때문이지만, 이들 설화의 기본 구조가 거의 유사한 점과 신화, 전설, 민담의 형태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개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97 심치열,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서사적 계승 연구-경문왕 설화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005, pp.302~303 참조. 본 설화의 화소는 전래동화에서뿐 아니라 현대문학에서도 서사적 모티프 혹은 원형성을 중심으로 시, 소설, 희곡 등으로 꾸준히 창작되어 왔다.

98 李寬逸, 「景文大王과 카타루시스-설화를 통해본 문학의 속성-」, 『文湖』 제 4 집, 건국대 국어국문학회, 1966. 조희웅, 앞의 책. 김현룡, 『한국고설화론』, 새문사, 1984. 손정희, 『민간신앙과 한국문학』, 세종출판사, 2001.김기창, 앞의 책.

99 李寬逸, 「景文大王과 카타루시스-설화를 통해본 문학의 속성-」, 앞의 책.

100 김종대,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다른세상, 2001.

101 김영수, 「景文大王 <驢耳說話>의 再解釋」, 『東아시아고대학』 제 20 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9.

102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Scanned with CamScanner

2. 한국의 설화 유형

그리스 미다스 왕 신화로 많이 알려졌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는 「삼국유사」 권 2 기이편 <48 경문대왕>조에 실려 있다. 왕의 이름은 응렴으로 18 세에 국선이 된다. 탁월한 지혜와 어진 성품으로 헌안대왕(憲安大王)의 부마가 되어, 신라 48 대 왕위(861~875)에 오른다.[103] 「삼국유사」에 기록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화소에 관련하여 경문왕에 대한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왕위에 오르자 왕의 귀가 갑자기 길어져서 나귀 귀처럼 되었다. 왕후와 궁인들이 모두 이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복두장이 한 사람만이 이 일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이 일을 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죽을 때가 되어서야 도림사 대밭 속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대나무를 보고 외치기를 "우리 임금의 귀는 나귀의 귀와 같다."고 했다. 그런 후부터는 바람이 불면 대나무 밭에서 "우리 임금의 귀는 나귀의 귀와 같다."는 소리가 났다.

왕은 이 소리가 싫어 대나무를 베어 버리고 그 대신 산수유나무를 심었다. 그랬더니 바람이 불면 "우리 임금의 귀는 길다."고 하는 소리가 났다.[104]

이러한 이야기가 왜 경문왕에 관련하여 부회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신화적으로보면 동물적 특성은 범인과 다른 비범한 존재의 표징인 경우가 적지 않다. [1]의 기사 앞에는 왕의 침전에 날마다 저녁이면 수많은 뱀이 모여들었고, 궁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이를 쫓아내려 하면 왕이 "내게 만일 뱀이 없으면 편히 잘 수 없으니 쫓아내지 말라[105]"고 했다. 정치적 정황이 어찌 되었든 이러한 기사는 동물 친화적인 경문왕에게 도인 내지 이인(異人)의 면모가 있음을 암시해 준다.

---

[103] 그는 뛰어난 지략으로 부마(駙馬)가 되어 왕위에까지 올랐지만, 15 년의 재위 기간 동안 3 번의 모반 사건, 크고 작은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나는 등 정치적으로 그리 안정된 왕권을 유지하지 못한다.(김부식, 이병도 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97, pp.288~291)

[104] 일연, 이은봉 역, 『삼국유사』 제 2 권 기이편 <제 48 대 경문대왕>조, 교문사, 1993, pp.180~181.

乃登位　王耳忽長如驢耳.　王后及宮人皆未知.　唯幞頭匠一人知之. 然生平不向人說. 其人將死. 入道林寺竹林中, 無 人處向竹唱云. 吾軍耳如驢耳. 其後風吹. 則竹聲云, 吾君耳如驢耳. 王惡之. 乃伐竹而植山茱萸. 風吹則但聲云. 吾 君耳長.

[105] 위의 책, p.178.

Scanned with CamScanner

이 설화는 복두장이의 갈등은 해소되었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미해결의 구조를 보인다. 민담 형태와는 달리 왕이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아는 사람을 죽이거나 '자신의 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금기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이면적으로 보면 그에게 왕의 귀에 대한 것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민간에 전해오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의 다른 한 이본에는 머리를 손질하는 사람이 목격자로 나타나며, 머리를 손질하고 나면 왕은 자신의 비밀이 새 나갈까봐 그를 죽인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예외자가 죽음을 모면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 말이 씨가 되어 결국 왕의 비밀이 폭로된다.

[2] 옛날에 어떤 왕이 귀가 당나귀 귀만한 큰 귀를 가지고 있었다. 귀가 너머나 커서 왕은 이런 귀 가진 것을 챙피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서 이런 귀를 남한티 뵈지 않을라고 늘 두건을 써서 귀를 내놓지 않았다. 그리서 신하도 궁녀도 모르고 심지어 왕비까지도 왕의 귀가 당나귀 귀만한 것을 통 몰랐다.

왕이 머리를 감고 새로 상투를 쫄 때에는 두건을 안 벗을 수 없지. 그렁께 상투 조는 사람이 왕의 귀가 당나귀 귀만큼 큰 것을 아는데 왕은 이 사람을 그냥 내보냈다가는 제 부끄런 비밀을 퍼뜨릴까바서 상투를 쪼고 나면 죽여 버렸다. 그래서 왕의 귀가 당나귀 귀만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모르고 있었다.

그런디 왕의 상투를 쪼로 대궐에 들어간 사람은 살어나오지 않고 모다 죽어나온다는 소문이 나라 안에 퍼졌다. 그리서 백성들은 왕의 상투 쪼로 불려 들어갈가바 겁을 먹고 있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왕의 상투를 쫄라고 왕의 두건을 벳기고 봉게 귀가 당나귀 귀만해서 깜작 놀랬다. 왕이 이런 귀를 남한테 뵌 것을 챙피허고 부끄러워 하는 것을 보고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상투 쪼로 들어온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유를 알았다. 자기도 왕의 상투를 다 짜고 나면 쥑일 것을 알아채렸다.

이 사람은 왕의 상투를 다 쪼고 나서 왕한테 말했다. "소인에게는 노모 한 분 계시는데 노모는 소인만 의지하고 사는데 노모를 죽기 전에 한 번 만나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께 왕은 노모를 만나보고 죽겠다는 말에는 어쩔 수 없었던지 "그래라 만나보고 오너라. 그런데 내 귀가 당나귀 귀만하다는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궐을 나와서 노모 계시는 데로 갔다.

이 사람은 노모를 만나려고 가는데 날이 저물어서 어떤 산속의 고목나무 속이 빈 홈통 속에서 밤을 새게 되었다. 깊은 산중의 밤은 죽은 듯이 고요한데 이런 데서 밤 새기를 기다리자니 무척 지루했다. 더욱이 말벗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더욱 적적하고 답답했다. 지가 저한테 말이라도 붙여서 이 답답징을 풀을 심정이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만하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만하다고 중얼댔다.

Scanned with CamScanner

이러고 말하고서는 아풀사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뉘우쳤다. 그렇지만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이니 상관없다 하고 마음을 달랬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고목나무 홈통에서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만하다."는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멀리 퍼지고 산중에 빽빽이 들어선 나무들이 "우리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만하다."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날이 새서 나무꾼들이 산에 나무하러 올라왔다. 고목 홈통에서랑 나무들이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만하다."는 소리를 내고 있어서 나무꾼들은 이 소리를 듣고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만하다."고 노래처럼 불렀다. 이렇게 해서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만하다는 사실이 온 백성에게 알려지게 됐다.

그런데 백성들은 왕의 귀가 당나귀 귀만하다는 것을 왕의 흉으로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널리 들어서 좋은 정사를 할려고 그런 큰 귀를 가지신 거라 하고 왕을 더욱더 우러러보고 더욱더 위하게 되었다. 왕은 자기의 귀가 너머 큰 것을 부끄럽고 챙피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백성들은 되려 왕을 더 우러러보게 하는 것으로 된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상투 쫀 사람이 돌아왔을 때 앙은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큰 상을 내렸다고 한다.[106]

이 설화는 [1]과 달리 임금은 자신의 기형적인 귀의 정체가 알려질까 봐 상투 쪼는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 이렇게 목격자를 죽이는 화소는 뒤에서 살펴볼 몽골, 유고 설화에서도 나타난다. 위 설화에서는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노모를 만나보고 싶다는 소원으로 죽음을 모면한 예외자가 된다. 왕은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금기를 제시하고 보내준다. 그러나 이러한 금기는 자의적이지는 않지만 결국 나무와 나무꾼에 의해 깨진다. 여기서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왕은 백성들이 갖는 자신의 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알고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은폐해 왔던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백성과 평화롭게 화해한다.

이본 [3]에는 상투를 쪼는 사람 대신 '머리를 빗질하는 신하'가 나온다. 왕은 신하들이 다 죽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신하에게 자기 비밀을 말하지 말 것과 말하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그를 살려둔다. 신하가 왕의 머리를 빗기고 보니 너무 흉측스럽고 그걸 말하지 못하게 되어 죽을 지경에 이른다. 그래서 의사에게 보이니 약으로는 못 고치고 말을 해야 낫는다고 진단을 한다. 그는 괭이를 가지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땅을 파고 "대국 천자 호필연의 귀는 당나귀 귀"하고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땅을 도로 메워 놓고 돌아왔는데, 그 후 그곳에서 참대 순이 자라난다. 단소를 좋아하던

106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6, 평민사, 1993, pp.83~84.

Scanned with CamScanner

어떤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자라고 있던 참대를 잘라 단소를 만들어 불자, 단소에서 "대국 천자 호천자, 호필연 귀는 당나귀 귀" 하는 소리가 난다. 그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가고, 왕은 크게 놀라며 분노한다. 단소를 불던 사람을 붙잡아 와서 문초를 하자, 머리를 손질하던 사람이 와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다. 왕은 그의 솔직한 마음에 감동하여 그 두 사람을 모두 살려준다.[107]

위의 두 설화는 경문왕 설화보다 서사가 훨씬 구체적이고 인과적이다. 왕의 비밀을 알던 사람들을 죽이다가 살려주는 조건으로 자기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제시되고, 상투 쪼는 사람 혹은 머리 빗질 하는 신하의 심적 갈등과 위기, 결말이 매우 짜임새 있게 전개된다. 특히 두 설화 모두 결말 부분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민담의 특성을 갖는다. 설화 [3]에서는 소리를 지른 곳에서 대나무가 자라고, 그것으로 만든 악기에서 왕의 귀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확대 구조로 되어 있다.

앞서 조희웅의 논의 가운데 제시되는 35가지 설화 가운데 소문이 퍼지는 매개체로 악기가 나오는 예는 19개로 조사되고 있다.[108] 세계 설화 가운데 소문의 매개체가 악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처럼 한국 설화도 이 두 형태가 존재한다.

3. 유고와 그리스 설화 유형

유고 설화에서도 [3]과 같이 소문의 매개물로 악기가 등장하며, 또 왕이 스스로 자신의 갈등을 해소하고 군신민의 화해로 평화로운 결말을 맺는 해피엔딩의 구조를 보여준다.

[4] 옛날에 유고슬라비아에 모자를 무척 즐겨 쓰는 임금님이 있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사를 불러 머리를 깎았는데 대궐에 들어간 이발사 중 집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 한 젊은 이발사의 차례가 되어 대궐에 들어가 임금님의 귀를 보니 당나귀와 똑 같았다.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임금님의 머리를 깎았다. 임금님은 이발사에게 귀에 대한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하면서 많은 상을 주어 보냈다. 사람들이 임금님의 머리에 대해서 물으러 이발사 집에 몰려 왔으나 이발사는 임금이 모자를 좋아할 뿐이라고 대답했다.

---

[107] 조희웅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1-4, 정신문화연구원, 1980, pp.115~118.
[108] 조희웅(1996), 앞의 책, pp.338~340.

Scanned with CamScanner

그 후 이발사의 배가 올챙이 모양으로 불룩해지기 시작했다.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 보았더니 하고 싶은 말을 오랫동안 참았기 때문이라 하면서 배가 점점 불러 나중에는 목숨까지 잃을 병이니 자기에게만이라도 털어놓으라고 했다. 이발사가 그럴 수는 없다고 하자 땅바닥에 구멍을 파고 그 속에다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여 그대로 했더니 다시 건강해졌다.

그 때 그 구멍에 씨가 한 알 떨어져 큰 나무로 자랐다. 한 양치기 소년이 그 나뭇가지를 잘라 피리를 만들어 불어보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하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그 소년은 신기하게 생각하고 여러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어 그 피리를 불며 마을을 돌아다녔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끝내는 그 소문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 임금님은 젊은 이발사와 양치기 소년을 대궐로 불러들였다. 그들은 그 동안의 이야기를 사실대로 하였다. 임금님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피리를 직접 불어 보았더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하는 노래가 기운차게 울려 퍼져 나왔다. 임금님은 껄껄 웃으며 "이제야 속이 다 후련하구나. 지금까지 내 귀에 대해서 알려질까 봐 무척 꺼리면서 지냈는데 막상 이렇게 알려지고 보니 도리어 마음이 편하구나. 이게 모두 그대들 덕분이로다."하고 그 두 사람에게 많은 상금을 주었다.[109]

위 설화에서는 왕이 자신의 기형적 귀에 대한 부끄러움을 스스로 해소하고, 금기를 풀게 됨으로써 평화가 달성된다. 그런 의미에서 왕은 민담의 주인공으로 변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야기는 비교적 인과적 구성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죽음에서 벗어난 이발사가 왜 죽음을 면했는지, 왜 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인과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스의 미다스 왕 신화에 나오는 당나귀 귀 이야기는 상징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신화적 세계의 사건을 보여준다. 왕의 귀가 후천적으로 당나귀 귀가 된 것으로 언급되는 예는 한국의 경덕왕 설화[1]와 그리스의 미다스 왕 신화인데, 이 신화에는 미다스 왕이 왜 당나귀 귀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력이 소개된다. 미다스는 실종된 디오니소스의 스승이자 양아버지 실레노스를 궁으로 모셔 잘 대접하고 돌려보내준 덕으로 디오니소스로부터 무엇이든 만지면 황금이 되는 마법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자 디오니소스에게 다시 간곡히 청해 황금의 마법에서 풀려난다.

---

109 『세계 옛날이야기』, 계림문고 108, 1986, pp.86~92.(김기창, 앞의 논문, pp.67~68 재인용)

Scanned with CamScanner

[5] 그 후 미다스는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시골에서 살며 들의 신 판의 숭배자가 된다. 어느 날 들의 신 판과 태양신 아폴론이 피리와 수금으로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 심판관인 산의 신 토몰로스는 아폴론의 승리를 선언한다. 그러나 미다스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화가 난 아폴론은 이렇게 무식한 귀를 더 이상 인간의 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귀를 잡아늘여 당나귀 귀와 같게 만들어버렸다.

미다스 왕은 머리에 넓은 수건이나 두건을 써서 귀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했다. 그러나 왕의 머리카락을 손질하던 이발사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왕은 발설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이발사는 그 비밀을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는 들판으로 나가 땅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왕의 비밀을 말하고 구덩이를 다시 메웠다. 오래지 않아 그곳에 갈대가 자라났는데, 그 갈대는 이발사가 말했던 비밀을 속삭였다. 그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 위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갈대가 이 비밀을 속삭인다고 한다. [110]

위 설화는 지상의 신의 편을 들다가 태양신인 아폴론에게 저주를 받는 미다스 왕을 주인공으로 한다. 아폴론은 그가 음악을 잘 들을 줄 모른다며 귀를 잡고 당나귀 귀처럼 길게 늘인다. 즉, 귀가 작아 잘 듣지 못했으니, 당나귀 귀처럼 큰 귀로 잘 들으라는 것이다. 이 신화의 표층적인 내용으로만 보면 미다스 왕의 귀가 당나귀 귀가 된 것은 아폴론 신의 분풀이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이야기는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신화이며, 일반적으로 이에 앞선 고전(古傳)과는 어느 정도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111] 그리스의 구전 설화에는 왕의 기형이 염소 귀로 나타나며, 희생자인 이발사가 구덩이를 파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곳에서 갈대가 자라나고, 그곳을 지나던 여행자가 그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 불어 소문이 퍼져나간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112] 이것은 한국의 설화 '천자호필연'의 플롯과 유사하다.

4. 몽골의 설화 유형

몽골에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 유형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몽골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의 한 형태를

---

[110] 토마스 벌핀치, 이윤기 역,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 대원사, 1996, pp.91~93. 다른 이본에는 왕이 끝에 이발사를 죽여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제.에프.비얼레인, 현준만 역, 『세계의 유사신화』, 세종서적, 1999, p.231)

[111] 조희웅, 앞의 책, pp.337~338.

[112] 조희웅, 위의 책, p.338 분석표 재구.

Scanned with CamScanner

「신이한 좀비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좀비 이야기는 인도에서 티베트를 통해 몽골에 전래된 이야기인데, 몽골 이본은 몽골의 전통적인 특성이 덧붙어 널리 전파되었다. 몽골의 여러 이본 가운데 26 장 이본의 22 장에 <당나귀 귀를 가진 왕> 이야기가 전한다.

[6] 동방의 중국에 한 당나귀 귀를 가진 왕이 살았다. 그는 자신의 당나귀 귀를 다른 사람에게 모르게 하기 위해 날마다 머리를 손질해 준 사람을 죽이곤 했다. 어느 날 한 노파의 외아들이 왕의 머리를 손질할 차례가 되었다. 노모는 자신의 젖으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작고 둥근 빵과자를 만들어 아들의 가슴에 넣어주면서 "왕의 머리를 손질할 때 이걸 조금씩 먹거라."하고 일러주었다. 아들은 왕의 머리를 빗질하면서 빵과자(보브)를 먹었다. 왕이 그것을 보고 "그게 무엇이냐?" 하고 물으며 그것을 가져다 먹었다. 왕은 그것이 그의 어머니 젖으로 반죽한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우리는 한 어머니의 젖을 먹었으니 이제 형제가 되었다. 형제를 죽일 수는 없으니, 내 너를 죽이지 않겠노라. 그렇지만 내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 만약 말하면 널 죽여버릴 것이다." 그는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 왕의 머리를 손질했던 사람은 예전처럼 죽임을 당했다. 그러자 모두가 놀라워하며 노파의 아들이 운이 좋다고 했다.

노파의 아들은 왕의 귀가 엄청나게 큰 것을 보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어 마음의 병이 들었다. 의원 승려, 경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면 병이 나을 걸세."라고 말했다. 젊은이는 왕이 두려워 한 들쥐 구멍에 입을 대고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하고 여러 번 반복해 말을 했다. 그러고 나서 병이 나았다. 그 구멍의 들쥐가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하며 찍찍거렸다. 바람이 그 말을 퍼뜨려 왕의 귀에 들어갔다. 왕은 노파의 아들을 불러오라는 명을 내려 사신을 보냈다.

"내가 너에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 내가 그 말을 들었노라." 하고 문책하자, 젊은이는 "병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들쥐 구멍에 가서 말했습니다."라고 사실대로 말했다.

왕은 젊은이를 죽이지 않고 용서한다. 그리고 "내 귀를 어떻게 할 방도가 네게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젊은이는 "폐하를 비롯하여 궁의 모든 신하에게 귀가 있는 넓은 모자를 쓰게 하십시오."라고 말해주었다. 그런 귀가 있는 넓은 모자를 쓰게 되자 왕의 귀가 큰 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 왕은 기뻐하며 자신의 머리 빗질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게 되었다. 노파의 아들은 나라의 대신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113]

---

[113] Ц. Дамдинсүрэн, 『Монголын уран зохиолын тойм Ⅱ』, УБ, 1977, p.548.

Scanned with CamScanner

위의 설화는 <당나귀 귀를 가진 왕>의 한 이본인데, 1962 년에 출간된 「티베트.몽골의 신이한 좀비 이야기」 26 장의 이본 가운데 22 장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전개된다.

[7] 오랜 옛날 인도의 동쪽 중국에 태방이라는 왕에게 한 아들이 있었다.[114] 그는 왕자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날마다 나라 가운데 준수한 젊은이를 데려다 머리를 빗질하게 하고는 죽여버렸다. 여러 해 동안 이런 일이 계속 되었다. 어느 날 한 노파의 외아들이 왕[115]의 머리를 손질하고 죽게 될 차례가 되었다. 그러자 노모는 슬퍼하며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자신의 젖으로 밀가루를 반죽해 작고 둥그런 빵과자를 만들어 주면서 "왕의 머리를 빗질할 때 조금씩 먹어라. 너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라고 했다. 그 아들이 궁에 들어가 금빗으로 왕의 머리를 빗질하다가, 왕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생긴 것을 보았다. 그는 왕이 이러한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머리를 손질한 사람들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노파의 아들은 왕의 머리를 빗질하면서 빵과자를 먹었다. 왕은 "무얼 먹느냐?" 하고 물었다. "빵과자입니다."라고 하자 그것을 달라고 해서 조금 먹어보더니 "맛과 냄새가 아주 좋구나. 무엇으로 반죽해 만들었지?" 하고 물었다. 젊은이는 "저희 어머니께서 당신의 젖으로 반죽해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하자 왕이 '이자를 죽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어머니 젖을 먹었으니 형제와 다름없는데 어떻게 널 죽이겠느냐? 죽이지 않을 테니 내가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단히 일렀다. "대왕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젊은이가 말하자 "네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마라라. 만약 누군가에게 말하면 널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엄명을 내렸다.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젊은이가 돌아간 뒤 왕은 전처럼 여전히 자신의 머리를 손질한 사람들을 죽였다. 아들이 돌아오자 모두가 놀라며 운이 좋다고 했다. 모두가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그는 대왕의 귀가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젊은이는 말하고 싶은 것을 참다가 마침내 병이 나고 말았다. 약을 먹고 민간요법을 써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자 한 의원을 모셔와 진맥을 짚어 보게 했다. 의원은 "자네에게 마음의 병 이외에 다른 병이 없네. 이 병에는 약이 소용없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면 나을 걸세."라고 했다. 그러자

---

[114] 1923 년 제. 체월이 출간한 이본에는 22 장 이본에는 "인도 동방에 사는 태봉이라는 왕의 아들이 당나귀 귀 같이 큰 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 마지막 부분에는 왕과 신하들이 모두 뿔 모양이 달린 모자를 쓰게 되었고, 왕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Д. Цэрэнсодном, 『Монгол ардын домог үлгэр』, УБ, p.212.

[115] 앞에서는 '왕자'라고 하다가 '왕'으로 언급하는데, 이것은 설화의 구술전승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모두가 할 말이 있으면 당장 해라, 죽는데 하지 않은 말을 언제 하겠느냐고 했다. 젊은이는 아니라고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어머니가 무슨 곡절이 있느냐고 다그쳐 묻자 왕의 명으로 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노모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돌이나 나무에 대고 말하면 병이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남몰래 들쥐 구멍에 입을 대고 "우리 왕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말하자 곧 병이 나았다. 그 땅굴에 있던 들쥐들이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따라서 내자 말이 바람에 실려 왕의 귀에 들어갔다. 왕은 노파의 아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라고 여기고 신하를 보내 그를 잡아들이라고 했다. 왕은 "내가 너에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했는데 왜 소문을 냈느냐?"고 질책했다. 그러자 젊은이가 "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 왕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어째서 내 귀에 들렸겠느냐?" 하고 추궁하자 젊은이는 "집에 돌아가 중병에 걸렸는데, 친척과 이웃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한 의원을 불러 진맥을 했더니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해서 들쥐 구멍에 대고 말한 것 외에 말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이 자를 죽여서 무엇하겠는가?" 생각하고 "내 귀에 대해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말해 보라"고 했다. "폐하, 제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게 무어냐, 말해 보라 내가 듣겠노라." "폐하께서 먼저 모자 하나를 만드십시오! 양쪽 귀를 가리는 뿔 달린 모자를 만들어 쓰시고, 옆에 신하들도 따라서 쓰게 하심이 좋을 듯싶습니다." 왕은 그의 말대로 뿔 달린 모양의 모자를 만들어 쓰고 왕좌에 앉자, 모든 신하들이 그 모습을 칭송했다. 모두 왕의 귀가 당나귀 같다는 것을 모른 채 장식으로 여겼다. 그 모자는 "뿔 달린 모자"로 유명해졌으며, 젊은이는 왕국의 신하가 되었다. 왕은 그 이후 사람들을 죽이지 않게 되었고,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다.[116]

위 설화에서는 한국 설화와 달리 '노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아들' 역시 몽골 설화에서는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한다. 부모가 모두 없거나 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운칭'(өнчин) 즉, '고아'라 하는데, 이는 문학적 함의 속에서 '신의 자식'이란 의미를 내포한다. 몽골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에 대부분 '외아들'이 등장하고, 죽음에서 벗어날 뿐 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이러한 몽골의 전통적인 관념이 설화 속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116] Г. Базаррагчаа, Д. Цаданбалжир, 『Төвд Монгол шидэт хүүрийн үлгэр』, ШУА, 1962, p.137~141.
1923 년 이본인 22 장 가운데 19 장 이본은 위의 이야기와 거의 유사한데, 여기서도 당나귀 귀를 가진 주체가 왕자였다가 왕으로 바뀐다.

Scanned with CamScanner

이 설화는 왕이 뿔 달린 모자를 쓰게 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형태를 보여준다. '미다스와 당나귀 귀' 설화를 종합적으로 고찰을 했던 크루크는 21 개 이본을 검토하고, 이 설화 유형에 대해 고대 제의와 관련하여 복장사적 해석을 시도했다.[117] 그 뒤 레만-니체도 처음에는 당나귀 귀나 말의 머리로 만든 두건의 귀에서 그 모자를 쓰고 다니던 사람의 귀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다음에는 그 모자를 쓴 사람의 육체적인 기형을 설명하는 식으로 변형되었다[118]"고 했다. 이처럼 몽골 설화에도 모자와 관련된 화소가 부회되어 있다.

몽골학자 게. 포타닌의 <서북부 몽골 여행기>에는 몽골 여러 지역에 회자되는 이야기를 채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8] 옛날에 이흐 일즈겡('큰 당나귀'란 뜻)과 박 일즈겡('작은 당나귀'란 뜻)이라는 두 지역이 있었다. 그 일즈겡 지방의 윗 선조에 일즈겡 노융이라는 당나귀 귀를 가진 왕이 있었다. 그 왕은 자신의 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 이발사에게 자신의 머리를 자르게 한 후 죽여버렸다. 그때 어떤 여자의 외아들이 왕의 머리를 자를 차례가 되어 궁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자 엄마는 아들에게 자신의 세 방울의 젖을 가져가게 했다. 그 아들이 왕의 머리를 자르고 있을 때, 젖 한 방울은 왕의 입으로, 두 번째 방울은 왕의 가슴으로, 마지막 한 방울은 신발로 떨어졌다.

왕이 자기 입에 떨어진 젖을 맛보니 기막히게 맛이 있었다. 왕이 "너 이거 어디서 얻었느냐?"하고 묻자, 아이는 가다가 먹으라고 어머니가 젖 3 방울을 주었는데, 그것이 이거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은 "내가 네 엄마의 젖을 맛보았으니, 이제 나는 네 형이다. 그러니 너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되느니라." 하고 일렀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왕의 귀에 대해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어머니에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죠?" 하고 물었다. "쥐구멍에 가서 말하렴." 그러자 아들은 쥐구멍에 대고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말했다. 그것을 쥐가 듣고 개와 사람에게 그 말을 퍼뜨렸다.[119]

이 설화에는 당나귀 귀를 가진 왕이 살았으며, 그의 별명을 따서 지방명을 불렀던 것으로 언급된다. 내몽골의 바링 호쇼 지방에 있는 고대 도시 터를 '일즈겡 치흐트'(당나귀 귀) 성터라고 전설적으로

---

[117] 조희웅, 앞의 책, p.330.

[118] 조희웅, 위의 책, p.331 재인용.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고대 시리아 혹은 리키아 혹은 오늘날 아프가니스탄-벨루투쉬스탄에서는 '양쪽 귀가 솟아있는 장식용 두건'을 사용했으며, 그것은 말이나 당나귀의 이마 부분 위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다고 한다.

[119] Д. Цэрэнсодном, 「Монгол ардын домог үлгэр」, УБ, 1989, pp.212~213.

Scanned with CamScanner

말한다.[120] 이것을 통해 보면 고대 당나귀 숭배나 그와 유사한 신앙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몽골의 지방명은 종족명과 같이 불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동물명이 붙여진 경우 보통 그 동물을 토템으로 삼았던 자취를 보여준다.[121] 몽골의 서사시에서도 당나귀는 괴물의 탈것, 또는 괴물의 화신[122]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이러한 화신은 일종의 토템으로 보기도 한다.

위의 몽골 설화에서 왕의 머리 손질을 위해 궁에 보내진 젊은이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동기는 어머니의 지혜와 자식 사랑에 있다. 자신의 3 방울의 젖을 주거나 젖을 넣은 빵과자('보브')를 준 것이 동기가 되어 자식을 살리게 되는데, 이것은 여타 다른 나라 설화와는 매우 다른 몽골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또 그가 왕과 형제 관계가 되어 궁 밖으로 나가거나 신하가 되는 등은 모두 어머니 젖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어머니의 젖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머니의 젖을 자식의 생명과 등가적인 것으로 보는 몽골인들의 관념을 반영해 준다.

이처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는 기본적인 틀에 몽골의 전통적인 삶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한 예는 '타르박의 발가락이 네 개가 된 이유'라는 설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9] 아주 오랜 옛날 슬하에 외아들을 둔 한 왕이 살았는데, 그는 아들을 숨겨 놓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라 가운데 신민들의 아이들을 불러들여 교대로 아들을 돌보게 했지만,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 이상한 일을 듣고 매우 놀랍게 여겼다.

그 지역에 외동딸과 함께 한 노파가 살고 있었는데, 노파의 딸이 왕의 아들을 돌볼 차례가 되었다. 노파는 딸을 궁에 보내면서 왕자를 돌보면서 먹으라고 자신의 젖으로 아아롤[123]을 만들어 주었다. 딸은 밤낮으로 왕자를 돌보고 지내다가, 어느 날 두려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배가 고파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주신 아아롤을 꺼내 먹었다. 그때 왕자가 그것을 보고,

"뭘 먹고 있는 거니? 나 좀 다오!" 하고 말했다.

그녀가 아아롤을 왕자에게 조금 주자, 왕자는 그것을 먹어보더니 아주 맛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어디서 났니? 내게 좀 얻어다 줄래!"라고 했다.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셨어요."

---

120 위의 책, p.213.

121 예를 들어, 몽골의 키야드, 키오드, 치노스, 초노스 등은 늑대를 의미하는 씨족명으로, 이들은 늑대를 자신의 조상으로 삼았던 씨족들이다.(이안나, 『몽골민간신앙 연구』, 한국문화사, 2010, p.136)

122 ШУА хэл зохиолын хүрээлэн, 『Гэсэр』, УБ, 1986, p.127.

123 술찌끼를 건조해서 만든 건과류.

Scanned with CamScanner

"집에 가서 아아롤을 가져다주겠느냐! 그렇지만 궁 밖으로 나가서 누구에게도 나에 대해 말해선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되면 타르박(들쥐의 일종) 땅굴에 대고 소리를 지르렴."

왕자의 부탁과 함께 딸은 집으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왕자에 대해 여러 가지로 물어 보았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는 왕자에 대해 말하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 초원으로 가 타르박이 사는 땅굴에 대고 "왕자는 아주 못생기고 소처럼 뿔이 났고, 이는 멧돼지 이 같다."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길 가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말았다. 그 이후로 왕의 백성들은 왕자를 돌보는 일에 자식들을 보내지 않게 되었다. 왕은 크게 진노하여 누가 왕자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는지 알아오게 했는데, 초원의 타르박이 소문을 퍼뜨린 것이 확인되었다. 왕은 타르박을 산 채로 가져오게 하여, 다섯 발가락 가운데 하나를 잘라버렸다. 그 이후로 타르박은 발가락이 네 개가 되었다고 한다.[124]

이 설화는 앞에 소개한 <신이한 좀비 이야기> 22 장 설화와 흡사한데, 타르박의 발가락이 네 개인 생태담이 첨가되어 있다. 이 설화는 남자 대신 여아가 궁으로 들어가는 화소로 되어 있지만, 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왕자의 귀가 당나귀 귀가 아니라 '뿔 난 머리'와 '멧돼지 같은 이'로 나오고, 왕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몽골 설화와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문왕 설화[1], 미다스 왕 신화[5]와 같은 미해결의 부분에 타르박의 이야기가 부회되어 있다.

몽골의 경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화소의 설화는 주로 지배층에 대한 조롱과 풍자에 사용되었다. 몽골은 200 년가량 만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는데, 만주 통치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풍자적 민담으로 회자되어 민중의 한을 푸는 통로가 되기도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옛날에 일즈겡 치흐트 왕('당나귀 귀를 가진 왕')이라고 이름난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만주 총독이 드넓은 고비로 들어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는 그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웃음을 터뜨릴 만한 박쥐날개 같은 길고 큰 두 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큰 귀를 숨기려고 매우 애를 썼다. 먼 길을 갈 때는 신복과 시종들을 길 양쪽으로 나란히 열을 지어 가게 하면서 삽과 곡괭이로 흙과 돌을 뿌리게 하여 매우 은밀하게 길을 가곤 했다.

민중의 마음에 큰 고통을 주는 이 총독은 자신의 큰 귀에 대해 소문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머리를 자르는 이발사를 죽여 버리곤 했다.

---

[124] 데. 체렌소드놈, 이안나 옮김, 『몽골의 설화』, 문학과지성사, 2006, pp.52~53.

Scanned with CamScanner

그렇기 때문에 총독이 지나가는 길 주변에는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지 않았다. 그러자 총독은 방법을 바꾸어 속민의 외아들로 자신의 머리를 자르게 했다.

한 번은 한 노파의 외아들이 머리를 자르는 차례가 되었다. 노파는 총독에게 갔던 사람들이 하나 같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슬퍼했다. 원래 가난하여 힘든 생활을 하던 노파에게 한 가지 좋은 수가 떠올랐다. 노모는 이웃집 사람들에게서 보릿가루 한 줌을 얻어와, 그것을 자기 집 열 다섯 마리 염소젖으로 반죽해 둥근 빵을 몇 개 만들어 말렸다. 그리고 그것을 아들에게 주면서 배가 고프면 하나씩 먹되 한두 개씩 총독의 가슴에 떨어뜨리라고 일러주었다. 만약 그것을 맛보고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고 물으면 어머니 젖으로 반죽해 만들었다고 하고, 한 어머니 젖을 먹었으니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다고 말하라고 일러주었다.

아들은 총독에게 가서 어머니가 시킨 대로 말하자 총독은 정말 우리는 정말 형제와 같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 귀에 대한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하고 집으로 보내주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는지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을 하고 싶어 괴로워하다 엄마에게 상의를 하니 들쥐 구멍에 가서 작은 소리로 말하라고 일러주었다. 아들은 길을 가다 들쥐 땅굴이 보이면 그곳에 가서 "당나귀 귀를 가진 왕이 지나간다."라고 말하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총독이 오태 굼벵을 향해 길을 가다가 인적이 없는 고비에 내려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길을 떠났다. 그때 들쥐 땅굴마다 많은 들쥐들이 들락날락거리며 "당나귀 귀를 가진 왕이 오고 있다." 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그는 '들쥐까지 내 귀에 대해 아는구나! 이제 다시는 이 길로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해서 당나귀 귀를 가진 왕은 그 후 헤르멩 길로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125]

위의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만주 총독으로 등장하지만 뒤로 가면 왕으로 변하는 것은 원래 왕의 이야기에 총독이 대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설화가 몽골의 여타 이본의 화소와 다른 점은 신복과 시종들이 흙을 뿌려 그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갔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청자들의 흥미에 따라 덧붙여진 화소라 할 수 있다. 다른 이본에서는 왕이 빵과자를 먹고 스스로 머리 손질하는 자에게 형제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반해 이 이야기에서는 노모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이르고, 염소젖으로 반죽하고도 자신의 젖으로 반죽했다고 말하라고 이른다.

이 설화와 미다스 왕의 신화를 비교해 보면 약 2000 년이 넘는 시간차가 있다. 당나귀 귀를 가진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오랜

[125] Ч. Жанчин, 『Мэргэн ардын үг』, УБ, 1988, pp.153~155.

Scanned with CamScanner

세월 동안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회자되었던 것은 본 설화의 플롯이 봉건주의 시대 자신들을 압제하는 왕과 지배자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의식을 담기에 적절한 형태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몽골인들은 만주의 지배를 받으면서 중국을 당나귀로 표현하여,[126] 그 혐오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또 가렴주구를 일삼는 지배자들을 폄하하기 위해 당나귀를 타고 다니는 존재로 묘사했다.[127] 몽골 설화에서 당나귀는 종종 악귀의 탈것으로 등장하며,[128] 몽골의 <게세르 서사시>에서도 주인공 게세르가 망가스(마왕)의 주술에 걸려 당나귀로 변해 온갖 고생을 다한다.[129] 이처럼 몽골 설화에서 당나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형상으로 나타난다.

나라마다 각 지역의 생활 특성을 반영하면서 몇 가지 화소에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예전에 남녀 공히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기형에 대한 목격자로 이발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몽골의 경우 모계사회의 흔적이 반영되고, 초원을 삶의 터전으로 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장소가 대개 들쥐 땅굴로 나타난다.

5. 설화의 구조와 의미

앞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유형의 다양한 설화들을 살펴보았다. 설화의 공통적인 요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형인	기형	목격자	살해	예외자	금기	귀가	병	말을 함	치병	소문
한국	[1]	왕	당나귀 귀	복두장	/	/	△	○	○	○	○	○
	[2]	왕	당나귀 귀	상투 쪼는이	○	○	○	○	○	○	○	○
	[3]	왕	당나귀 귀	빗질하는 이	○	○	○	○	○	○	○	○
유고	[4]	왕	당나귀 귀	이발사	○	○	○	○	○	○	○	○
그리스	[5]	왕	당나귀 귀	이발사	/	/	○	○	△	○	△	○

[126] М. Зэнээ, 『евөр Монголын ардын аман зохиол』, УБ, 1981, pp.71~72.
[127] 위의 책, p.185.
[128] 데.체렌소드놈, 이안나 옮김, 앞의 책, p.388.
[129] ШУА-хэл зохиолын хүрээлэн, 『Гэсэр』, 1986, УБ, p.192.

Scanned with CamScanner

몽골	[6]	왕/왕자	당나귀 귀	빗질하는 이	○	○	○	○	○	○	○	○
	[7]	왕	당나귀 귀	빗질하는 이	○	○	○	○	○	○	○	○
	[8]	왕	당나귀 귀	이발사	○	○	○	○	○	○	○	○
	[9]	왕자	소뿔, 멧돼지 이	시종/여아	○	○	○	○	○	○	○	○
	[10]	총독/왕	당나귀 귀	이발사	○	○	○	○	○	○	○	○

신화, 전설적 이야기에 속하는 [5], [1]의 경우를 보면 미해결, 기형이 후천적인 것이 명시되며, 하층민이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설화의 고대적 형태는 신화로, 현재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고대 비의적(秘儀的)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설화에는 일종의 '희생제의적'인 요소가 보이는데, 크루크는 이 이야기를 소아시아 반도 및 미케네 문화에 속했던 지역에 있었던 제의와 연관된 것으로 추론했다. 즉, 제정일치적 군주가 신과의 교류를 나타내기 위해 희생물이나 성수(聖獸)의 가죽으로 된 옷을 입었고, 짐승 모양을 한 사제에 의한 의식이 보편적으로 행해졌는데, 이것이 이 설화의 기원이었을 것으로 추측했다.[130] 희생제의의 원초적인 형태인 인신공희의 양상으로 복두장이는 왕의 대리자로서 죽음을 맞게 것으로 볼 수 있다.[131] 고대인들은 '탄생, 죽음, 재생'의 순환적 질서를 자연계에도 적용시켰는데, 이러한 자연관에서는 재생을 위해서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며, 우주가 질서를 회복하고 세계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처럼 자양분과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이런 의미에서 [5]의 미다스 신화는 표면적으로 복두장이가 살해되지 않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살해가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크루크(1911)는 '마이다스와 당나귀 귀' 설화 유형(AT 782)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고찰을 한 뒤, 이 이야기의 원형은 왕자의 불구가 귀나 뿔의 성장으로 인한 것이며, 그 비밀을 안 까닭에 피살된 사람의 시체로부터 나무가 솟아나고, 누군가가 그것을

130 위의 책, p.330.

131 희생제의에서 죽음은, 신, 제사장, 왕, 왕의 대리자, 일반인들의 죽음, 약자의 죽음, 인간을 대신 하는 동물의 희생, 토우(土偶) 내지 상징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띤다.

Scanned with CamScanner

베어 악기를 만들어 불었을 때, 그 악기로 인해 왕자의 신체상의 비밀이 폭로되는 것[132]으로 보았다.

[5]와 [1]이 미해결의 구조를 보이는 것은 '재생'이라는 신화적 관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에서 특별히 '비밀'과 '말'이 중요한 기능을 하며, 서사에서 주요 갈등은 왕의 신체적 기형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에서 야기된다. 비밀로 인해 말이 금기시되고, 금지된 말로 인해 병이 생기고, 말을 함으로써 병이 낫고, 그 말이 살아서 대숲, 갈대, 나무, 동물로 전달되고, 그로 인해 결국 비밀이 탄로되는 '비밀'과 '말'의 순환적 구조를 보여준다. 여기서 '비밀'이 신성한 영역이라면 '말'은 신성한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동시에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모순적인 이중성을 갖는다. 금기시되는 비밀이 깨지고 말로 살아나는 것은 죽음을 통한 재생의 한 패턴을 이루며, 이것은 또 겨울과 여름(봄)의 대결과 화해의 순환적 사고를 반영한다. 즉, 비밀과 말, 금기와 파기, 겨울과 여름의 대결이 죽음과 재생 모티브를 통해 순환되는 자연 질서의 신화적 비의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즉, 왕의 비밀을 알게 된 목격자가 살해되고 그 장소에서 다시 말로 살아나는 내면적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화 원형을 내면적 모태로 하여 흥미와 교훈을 주는 민담 형태가 발전되어 나간 것이라 볼 수 있다.

[1]의 경문왕 관련 설화는 [5]의 신화적 구조를 기반으로 전설의 형태로 변용되어 있다. 신적, 영웅적 존재, 이인(異人)들이 범인과 차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신체적 기형이라 할 수 있는데, 반인반수 혹은 신체의 일부에 동물적 특성을 갖는 이러한 존재는 문화적 변이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적인 형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133] 이 설화는 [5]와 같이 당나귀 귀처럼 귀가 길어진 내력이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의 애매함이 존재한다. 신체적 기이성은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영웅적 존재의 비범함으로, 부정적 상황에서는 불구성 또는 우회적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전설이 비극적 주인공을

---

[132] W. Crooke, "King Midas and His Ass's Ears" Folk-Lore(1911), pp.183~202.(조희웅, 앞의 책, p.330 재인용)

[133] 고대에 당나귀 머리는 풍요의 근원으로 생각되었으며,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의 동생인 세트는 당나귀로 상징되었다.(진쿠퍼, 이윤기 옮김,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2000, p.23) 세트는 오시리스를 죽이고 상이집트의 권력을 일시적으로 장악했으며 셈족의 침입자들에게 유일신으로 숭앙되었다. 그러나 세트는 그리스인들에게는 거대한 괴물 티폰과 동일시되었다.(아서코트렐, 까치편집부 역, 『세계신화사전』, 까치, 1999, p.48)

Scanned with CamScanner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경문왕 설화 역시 긍정적인 측면보다 경문왕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는 민담이나 풍자적 이야기 형태로 전승.발전되는데, 민담적 형태는 주인공의 기형이 선천적인 경향을 띠며, 하층민이 지지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 민담에서는 미다스 신화나 경덕왕 설화와 달리 죽임을 당하던 이발사나 머리를 손질하던 사람 가운데 죽음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존재가 등장한다. 예외적 존재의 등장은 살해와 재생 화소를 소거시키고, 서사의 확대, 변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민담적 성격의 이야기들은 목격자의 피살을 전제로 하여 죽음에서 벗어나는 예외자의 이야기가 부회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형은 주인공들이 비의적인 색채에서 현실적인 성격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외자가 죽음을 모면하고 귀가하는 이유를 보면, 한국의 설화[2]에서는 죽기 전에 노모를 한 번 만나고 오겠다는 부탁 때문으로 나타나며, 유고의 [4]는 명확하지 않다. 몽골의 설화 [6]~[10]에서는 어머니의 사랑 또는 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서 몽골인의 생활 전통과 정서가 차별적으로 드러난다. 설화에는 대개 노모(老母), 외아들 혹은 외동딸[9]이 등장하며, 노모가 자신의 젖으로 빵과자를 만들어 왕의 머리를 손질할 때 먹으라고 준다. 그 빵과자로 인해 자식이 궁에서 나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왕의 신하가 되는 전격적인 신분상승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몽골 설화에 등장하는 '노파'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며 예지적인 존재로 부계사회 뒤편에서 지혜를 발현하는 모계사회의 지도자적인 인물 유형인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외아들 역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神)을 아버지로 하는 민중을 대변하는 존재로 많이 등장한다. [9]의 이야기는 설화의 고정체계에 타르박의 생태담이 결부되어 있지만, 몽골의 다른 설화와 마찬가지로 노모의 지혜가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 설화를 보면 [2]에 노모가 등장하나 몽골의 경우에 비해 그 역할이나 행위가 적극적이지 않다.

폭로 양상에서 왕의 비밀이 폭로되는 장소를 보면 한국의 [1] 대밭 [2] 산속 고목나무 홈 [3] 땅 구덩이, 유고의 [4]는 땅 구덩이, 그리스 [5] 땅 구덩이, 몽골의 설화에서도 들쥐, 쥐, 다람쥐, 타르박 등의 땅구멍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각 지역의 지리 환경적인 것인 조건에 따라 변이됨을 보여준다. 또 소문이 퍼지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단계 구성

Scanned with CamScanner

① 1 차적 전파 : [9] 타르박 [10] 들쥐 〈 [5] 갈대〉
② 2 차적 전파 : [2] 고목나무 홈통 → 나무꾼, [6] 들쥐 → 바람, [7] 들쥐 → 바람, [8] 쥐 → 개와 사람 〈 [1] 대나무 밭 → 산수유(바람)〉
– 2 단계 구성 : [3] 땅 구멍에서 참대가 자람, 어떤 사람이 단소를 만들어 붊. [4] 땅 구멍에서 나무가 자람, 양치기가 그것으로 피리를 만들어 붊.

비밀이 퍼져 나가는 양상은 자연이나 동식물로 전달되는 경우와 악기로 전달되는 경우인데, 세계 여러 나라 설화도 이 두 가지 스토리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몽골의 경우는 초원이라는 환경 생태적인 조건으로 땅 구멍에서 자란 나무로 만든 악기 화소가 나타나지 않는데 반해 한국과 유고의 [3] [4] 설화에는 악기 화소가 나타난다. 이 악기 화소는 고대 그리스 구전 형태[134]에 등장하는데, 미다스 왕의 귀가 길어진 것과 관련 있는 들의 신 판이 피리를 만든 신이라는 것과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악기는 그리스 신화의 제의적 성격에 비추어 제의와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담에서는 결말이 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형태적으로 기본 형태, 확장 형태, 변이 형태로 구분된다. 기본 형태는 소문이 퍼진 것에 대한 왕의 긍정적 수용과 갈등이 해소되는 형태로 [2], [3], [4]이 이에 속하고, 확장 형태는 왕이 폭로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6], [7]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폭로자는 문제의 해결사 역할로 왕의 신하가 되어 신분상승이 이루어진다. 변이 형태로는 타르박 생태담이 결합된 것 [9], 압제자에 대한 풍자적 이야기 [10]을 들 수 있다.

민담 형태들은 주로 하층민을 중심으로 하여 교훈적이고 풍자적인 방향으로 서사가 전개되며, 지역적 생활 특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설화를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민의(民意)를 수렴하는 통치자의 수용적 태도와 군민의 화해라는 주제를 보여준다. 특별히 몽골의 만주지배기에 생성된 [10] 설화는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내용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몽골 설화에는 '밝은 정신은 아름다운 몸에 존재한다'는 미학적 원리에 따라 당나귀 귀, 눈에 눈물이 나는 병이 있는 사람, 기형적인 체구로 묘사되는 존재들은 이들이 비록 부자나 권세가로 등장해도 결국 풍자의 대상이 된다.[135] 인도, 티베트, 몽골의 이본들을 총체적으로 비교한 연구를 보면,

---

[134] 조희웅, 앞의 책, p.338.

[135] Ш. Гаадамба бусад, 『Монгол ардын аман зохиол』, УБ, 1988, p.281.

Scanned with CamScanner

『신이한 좀비 이야기』 26 장 이본의 '당나귀 귀를 가진 왕' 이야기는 문학성이 풍부하고, 사회의 모순과 대립을 예리하게 보여주며, 왕과 지배층들을 직간접적으로 비판[136]하는 민중적 특성을 갖는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의 여러 이본들은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서사의 틀 위에 약간의 변용을 이룬다. 이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으로 전승되어 왔으며, 신화, 전설적 이야기에서는 복두장이의 죽음이 은닉되어 있는 미해결의 열린 구조로 되어 있다면, 민담에서는 복두장이의 계속적인 죽음이 전제되며 죽음에서 살아난 예외적인 존재로 이야기가 확대, 발전되는 닫힌 구조로 되어 있다. 미해결의 구조는 신화는 희생제의의 주지를 내포하며, 죽음과 재생의 종교 의례적 성격을 띤다. 죽음과 재생은 '비밀'과 '말-소문'이라는 역학관계 속에서 그 긴장을 유지하며, 이러한 죽음과 재생은 우주의 새로운 생명력을 회복하는 자연 질서의 비의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설적 이야기는 이러한 비의적인 의미를 근저에 두면서, 신성성은 역사적 정황 속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될 소지를 내포한다. 신체적 기형은 신화적으로 신성한 존재의 형상을 대변하는데, 전설에 오면 이러한 신체적 기형은 비극적 성격을 띠게 된다.

신화, 전설적 이야기에서는 왕의 기형이 후천적이고 하층민이 지지되지 않는데, 이것은 설화 근저의 신성한 의례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담에서는 왕의 신체적 기형의 후천성에 대한 명시가 없고, 하층민이 지지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야기 전승의 주체가 민중으로 옮겨 가면서, 그들의 욕망을 반영하며 발전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민담은 임금의 기형에 대한 목격자의 죽음을 전제로 하면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예외자라는 캐릭터의 등장으로 서사가 확대, 발전된다. 예외자의 등장으로 신화적인 죽음과 재생의 모티브는 소거되고, 결말은 주로 해피엔딩의 형태를 갖는다. 민담 형태는 주로 하층민이 중심을 이루고, 교훈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을 띠는데, 내용면에서 민의의 수용과 군신민의 화해와 소통이라는 주제를 보여준다.

---

[136] 위의 책, pp.522~559 참조.

Scanned with CamScanner

민담은 지역적인 특성을 갖는데, 한국이나 몽골에 경우 노모가 등장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몽골 민담의 노파는 예지적 존재로 죽음의 위기에 처해진 아들을 살리는 결정적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죽음에서 벗어난 목격자가 지배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왕의 신하가 되어 신분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은 민중의 염원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분의 귀천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던 몽골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 유형은 계급을 기본으로 하던 봉건시대뿐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 통치자나 권세를 누리는 특권층들을 비판하는 민중의식을 매우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오랜 세월 전승되어 왔다. 또한 현대에도 다양한 풍자문학의 전형으로 지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는 소지를 갖는다.

[참고문헌]

김부식, 이병도 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97.

일연, 『삼국유사』, 이은봉 역, 교문사, 1993.

조희웅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1-4, 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2, 두산동아, 1996.

김기창,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說話 考", 『진리논단』, 한남대, 2003.

김영수, 「景文大王 <驢耳說話>의 再解釋」, 『東아시아고대학』 제 20 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9.

김종대,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세종출판사, 2001.

김현룡, 『한국고설화론』, 새문사, 1984.

박성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의 전승양상과 교재로서의 지도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손정희, 『민간신앙과 한국문학』, 세종출판사, 2001.

심치열,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서사적 계승 연구-경문왕 설화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005.

이관일, 『文湖』 제 4 집, "경문대왕과 카타르시스", 건국대국어국문학회, 1966.

이안나, 『몽골민간신앙 연구』, 한국문화사, 2010.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6, 평민사, 1993.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Scanned with CamScanner

장덕순, 조동일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3.
정운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구조와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연구』, 일조각, 1996.
데. 체렌소드놈, 이안나 옮김, 『몽골의 설화』, 문학과지성사, 2006.
J.F. 비얼레인, 『세계의 유사신화』, 현준만 역, 세종서적, 1999.
아서 코트렐, 『세계신화사전』, 까치편집부, 까치, 1999.
진 쿠버, 『세계문화상징사전』, 이윤기 역, 까치, 2000.
토마스 벌핀치, 이윤기 역,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 대원사, 1996.
프레이저, 『황금가지』 1, 삼성출판사, 1994.
Г. Базаррагчаа, Д. Цаданбалжир, 『Төвд Монгол шидэт хүүрийн үлгэр』,УБ, 1962.
Ц. Дамдинсүрэн, 『Монголын уран зохиолын тойм Ⅱ』, УБ, 1977.
Ч. Жанчин, 『Мэргэн ардын үг』, УБ, 1988.
М. Зэнээ, 『Өвөр Монголын ардын аман зохиол』, УБ, 1981.
Д. Цэрэнсодном, 『Монгол ардын үлгэр』, УБ, 1982.
Д. Цэрэнсодном, 『Монгол ардын домог үлгэр』, УБ, 1989.
ШУА-хэл зохиолын хүрээлэн, 『Гэсэр』, УБ, 1986.

Scanned with CamScanner

[Abstract]

The Structure and Meaning about the Tales of 'Ears of the King are ears of the donkey'

Lee Anna

In this paper, it is observed what are the structures, meanings and aspects of transmission about the tale of 'Ears of the King are ears of the donkey', which has been widespread in several countries around the world with a variety of types, by focusing on Greek, Korean, Mongolian, and Yugoslavic tales with the structure of myth, legend and folktale in its type.

Greek story on the King Midas and Korean tale on the King Kyungmun belong to the type of myths and legends, and the myth on the King Midas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sacrifice rituals for death and regeneration, which implies the secret meanings of the natural order which restores a new life with vital forces.

It is described in such stories as myths and legends that deformities of the king are acquired, not natural and does not support the lower classes, whereas it is found in folktale that acquired deformities of the king are not clarified explicitly and it supports the lower classes with the structure of a happy ending story. In particular, the narration of the story is expanded and advanced with the appearance of exceptional figure who escapes specially from dead. The advent of exceptional figure removes the mythical motif of death and regeneration and makes the nature of the characters transformed into a realistic and concrete ones.

The folktale has three types of shapes, which are basic, expanded and mutated form. The basic form for folktale has the story structure in which the king accepts the rumors positively and the conflicts is resolved. The expanded form has the structure in which the king solves the problem after seeking advices to the people who expose the secret of the king. The mutated form has the structure in which problem solving is described in connection with animal ecological stories or as a form of satire.

It is the reason why the type of the tale of 'Ears of the King are ears of the donkey' has been transformed for a long time in several countries around the world, because the narrative structure of it, could have effectively exposed the consciousness of people which criticizes the rule or the power elite.

Keywords: ear of the King, ear of the donkey, death, regeneration, secret, word-rumor, exceptional figure, consciousness of people

Scanned with CamScanner

가사의 주리론적 성향

강 신 구[137]

목차

Ⅰ. 서론
Ⅱ. 인의정치
Ⅲ. 도문일치
Ⅳ. 결론

[국문초록]

가사 작품 수가 많다는 것은 작자와 독자 즉 향유자로서의 관심도가 보통이 아님을 말해 준다. 선인들의 가사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은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고도의 표현 수법보다 자연스레 표출 방식에 의하여, 수준 높은 창법보다 누구나 가능한 음영에 의존하여 표현할 수 있었던 가사문학의 특성 때문이리라 믿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조선 후기에 나타난 가사의 경우이고, 조선 전기의 상황은 달랐으리라고 본다.

그간 학계의 가사문학 연구는 첫째, 가사의 발생과 변천에 관한 연구, 둘째, 가사문학의 형태와 양식에 관한 연구, 셋째, 내용 사상 배경에 관한 연구로 요약되며 이들의 영역을 종합한 개별 작품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또 영남가사라고 하는 지역성이나 내방가사라고 하는 특수 계층의 가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사문학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전기의 작품, 특히 사림 지식 계층의 가사에 대한 형태적인 면이나 내용, 주제면으로 집중적 연구를 수행한 일은 거의 없었다. 본 논문은 조선 전기 사류 지식 계층의 가사를 살핌으로 그 표제상 「歌」와 「別曲」이 갖는 형태적 의미와 조선 전기 가사문학의 세계관을 규명함으로 그 문학적 위상을 정립함에 목적을 둔다.

조선 전기 가사는 대체로 조선 건국에서 17 세기 중엽까지로 잡고 있으나, 여기서는 임진왜란 전후까지로 한다. 그것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후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시기는 종전 시점으로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쟁의 후유증은 상당히 오래 가기 때문이며, 특히 사상사 혹은 문학사의 기술에 어떤 사실은 역사적 선상에 정확하게 시종을 밝히기란 어려운 일이다. 연구 대상 가사 작품은 다음과 같이 26 편으로 한정한다.

---

[137] 혜광고등학교 교감, 문학박사, 전 울란바타르대학 강사 역임.

Scanned with CamScanner

주제어 : 가사, 조선 전기와 후기, 사림, 사류, 가요, 임진왜란

Ⅰ. 序 論

가사 작품 수가 많다는 것은 작자와 독자 즉 향유자로서의 관심도가 보통이 아님을 말해 준다. 선인들의 가사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은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고도의 표현 수법보다 자연스레 표출 방식에 의하여, 수준 높은 창법보다 누구나 가능한 음영에 의존하여 표현할 수 있었던 가사문학의 특성 때문이리라 믿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조선 후기에 나타난 가사의 경우이고, 조선 전기의 상황은 달랐으리라고 본다.

그간 학계의 가사문학 연구는 첫째, 가사의 발생과 변천에 관한 연구, 둘째, 가사문학의 형태와 양식에 관한 연구, 셋째, 내용 사상 배경에 관한 연구로 요약되며 이들의 영역을 종합한 개별 작품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또 영남가사라고 하는 지역성이나 내방가사라고 하는 특수 계층의 가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사문학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전기의 작품, 특히 사림 지식 계층의 가사에 대한 형태적인 면이나 내용, 주제면으로 집중적 연구를 수행한 일은 거의 없었다. 본 논문은 조선 전기 사류 지식 계층의 가사를 살핌으로 그 표제상 「歌」와 「別曲」이 갖는 형태적 의미와 조선 전기 가사문학의 세계관을 규명함으로 그 문학적 위상을 정립함에 목적을 둔다.

조선 전기 가사는 대체로 조선 건국에서 17 세기 중엽까지로 잡고 있으나, 여기서는 임진왜란 전후까지로 한다. 그것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후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시기는 종전 시점으로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쟁의 후유증은 상당히 오래 가기 때문이며, 특히 사상사 혹은 문학사의 기술에 어떤 사실은 역사적 선상에 정확하게 시종을 밝히기란 어려운 일이다.

연구 대상 가사 작품은 다음과 같이 26 편으로 한정한다.

番	歌 辭	號	作 者	生沒年代	創作年代	出 典
1	賞春曲	不憂軒	丁克仁	(1401-1481)	成宗年間	不憂軒集
2	萬憤歌	梅溪	曺偉	(1454-1503)	1498	雜同散異
3	樂志歌	繼淑	李緖	(1482- ?)	1523(中宗 18)	夢漢零稿

Scanned with CamScanner

4	俛仰亭歌	俛仰亭	宋純	(1493-1582)	1524(中宗 19)	俛仰亭集
5	道德歌	南溟	曺植	(1501-1572)	?	雜史
6	琴譜歌	退溪	李滉	(1501-1570)	1550 년경	長篇歌集
7	相杵歌	退溪	李滉	(1501-1570)	1550 년경	古今歌曲
8	勸義指路歌	退溪	李滉	(1501-1570)	1550 년경	聖學十圖
9	南征歌	蓬萊	楊士彦	(1517-1584)	1555(明宗 10)	南判尹遺事
10	美人別曲	蓬萊	楊士彦	(1517-1584)	1555(明宗 10)	牒冊
11	關西別曲	岐峰	白光弘	(1522-1556)	1556(明宗 11)	岐峰集
12	箕城別曲	岐峰	白光弘	(1522-1556)	1556(明宗 11)	岐峰集
13	香山別曲	岐峰	白光弘	(1522-1556)	1556(明宗 11)	岐峰集
14	星山別曲	松江	鄭澈	(1536-1593)	1560(明宗 15)	松江歌辭
15	西湖別曲	松湖	許橿	(1520-1592)	1570 년경	筆寫本
16	自警別曲	栗谷	李珥	(1536-1584)	1576(宣祖 9)	筆寫本
17	關東別曲	松江	鄭澈	(1536-1593)	1580(宣祖 13)	松江歌辭
18	思美人曲	松江	鄭澈	(1536-1593)	1585(宣祖 18)	松江歌辭
19	續美人曲	松江	鄭澈	(1536-1593)	1587(宣祖 20)	松江歌辭
20	回心曲	休靜	西山大師	(1520-1604)	壬亂前後	校註歌曲集
21	閨怨歌	蘭雪軒	楚姬	(1563-1589)	壬亂前後	古今歌曲
22	鳳仙花歌	蘭雪軒	楚姬	(1563-1589)	壬亂前後	古今歌曲
23	雇工歌	?	許㐮	(?)	壬亂直後	筆寫本雜歌
24	雇工答主人歌	梧里	李元翼	(1547-1633)	壬亂直後	筆寫本雜歌
25	百祥樓別曲	交翠堂	李俔	(1540-1618)	1595(宣祖 28)	交翠堂集
26	江村別曲	五山	車天輅	(1556-1615)	1600 년경	校註歌曲集

Ⅱ. 인의정치

조선 전기 대상 가사 작가들은 17 명으로 「歌」와 「別曲」의 작가는 각각 9 명이다. 楊蓬萊가 가와 별곡을 지었기 때문이다. 曺偉, 李緖, 宋純, 曺植, 李滉, 楊士彦, 許楚姬, 許㐮, 李元翼 등은 歌의 가사 작가들이고 丁克仁, 楊士彦, 白光弘, 鄭澈, 許橿, 李珥, 西山大師, 李俔, 車天輅는 「別曲」 가사 작가들이다. 이들은 조선 전기에서 학문의 갈래와 정치의 형성 노선 등으로 양분된다. 즉 朱子學을 받아 들여 理氣論을 펼친 主理論과 主氣論으로 나뉘게 되었다.

중국 송나라 때의 유학은 주자학으로 정립되어 고려에 들어왔다. 安珦, 鄭夢周, 吉再 등에 의해 조선 시대로 전해졌으나 역성 혁명으로

Scanned with CamScanner

신유교 지식인과 정치인은 갈등을 나타내었다. 성균관을 중심으로 양성된 官學派와 정통 성리학의 인맥을 형성하고 향리에서 학문의 길을 닦은 士林派가 있었다.

사림은 동인과 서인으로 크게 양분되었으며 학문과 이념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詞章을 중시하면서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가진 관학파인 勳舊派를 견제한 士林派는 역성 혁명에 참가하기를 거부했다. 三隱의 학통을 이은 이들은 金宗直과 金宏弼로 이어지면서 사상계를 성리학 중심으로 이끌었다. 사림은 경세적 기능보다 관념적인 理氣論 중심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였다.

15 세기 말부터 훈구와 사림간의 정치 갈등이 일었고 사림 자체에서도 분화가 생겼다. 徐敬德을 선구자로 하면서 경험적 세계를 중요시하는 主氣論과 李彦迪을 선구자로 하면서 원리적 문제를 중요시하는 主理論이다. 두 학파를 이은 사람은 주리론의 李滉과 주기론의 李珥이다. 이들은 영남학파와 기호학파로도 나뉘어 지며 동인과 서인으로도 대립을 보였다.

따라서 조선 전기 가사의 작가에 있어서 작품과 학맥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 흐름과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작품 모두가 主理論과 主氣論으로 갈라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조선의 문물 제도가 정비된 成宗 때를 전후로 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을 士林이라고 불렀다. 사림의 연원은 고려 왕실에 절의를 지켰던 鄭夢周와 吉再 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吉再는 고향인 선산에 은거하면서 많은 제자를 길러 냈다. 그후, 金宗直에 이르러 그 수가 부쩍 늘어나, 영남 일대에서 점차 큰 세력을 형성하더니, 뒤에는 기호 지방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들의 가계는 대개 고려 말기의 향리로서, 과거나 군공 등으로 신분이 상승한 지방의 중소 지주 계층이었다. 또 그들은 조상 전래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과 성리학적 소양을 발판으로 향촌 사회에서 지배 기반을 구축해 갔다. 동시에, 그들은 절의와 명분을 중시하여 世祖의 왕위 찬탈을 불의로 간주하였다. 사림의 학풍은 詞章 중심의 관학과는 달리 經學에 치중하고,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는 성리학을 학문의 주류로 삼았다. 사림은 性理學 이외의 학문과 사상을 이단으로 배격하고, 중앙 집권 체제보다는 향촌 자치를 내세웠다. 그들은 도덕과 의리를 숭상하고, 학술과 언론을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 사림파는 朱子의 문예 의식을 그들 나름대로 수용하여 사림파의 문학론을 전개하였다. 이런 사림파의 학문 활동을 통해 그들의 의식을 굳히고 있었으나, 왕권이 강화되고 제도의 정비가

Scanned with CamScanner

진척되던 조선 초기에는 그들의 뜻을 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성리학이 조선 왕조의 지도 이념으로 자리를 굳히고, 향촌 사회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자, 사림은 중앙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三司에서 주로 언론과 문학을 담당하였다.

成宗 때부터 지방의 사림들이 대거 중앙의 정치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훈구세력과의 정치적 갈등이 나타났다. 成宗은 훈구 세력의 일방적인 비대를 막고, 그들의 정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행을 겸비한 참신한 인재들을 등용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 진출한 신진 사류들은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여, 당시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훈구 세력과 대립하였다. 사림들이 현실을 비판하고, 그들의 주장을 펴게 된 데에는 훈구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 사회의 모순이 드러난데다가, 훈구 세력이 권세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농장을 더욱 확대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사림들의 세력 기반을 많이 침해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두 세력 사이에는 그들의 학문적,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서 은연중에 대립의 형세를 자아냈다.

그리하여 燕山君의 실정을 계기로 戊午士禍, 甲子士禍가 일어났다. 두 차례에 걸친 사화로 사림들은, 趙光祖를 중심으로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급진적인 개혁을 꾀하였다. 趙光祖 등은 왕도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賢良科를 실시하여 인물 중심으로 사림을 등용하였으며, 삭훈 문제를 내세워 훈구 세력을 제거하는 데 적극성을 띠었다. 또, 그들은 불교나 도교와 관련된 종교 행사를 폐지하고 공납 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였으며, 鄕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소학 교육을 장려하여 향촌 자치와 성리학적 윤리를 강화하려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사림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높여 주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여망에도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사림들은 모든 개혁을 일시에 달성하려는 조급함을 드러내어, 마침내 반대파의 공세를 받게 되었다.

한편, 젊은 사림들이 물러난 뒤, 조정 권신들의 정권 다툼은 외척 간의 싸움으로 번져 明宗 때 乙巳士禍가 일어났다. 되풀이 되는 사화 속에서 거듭 심한 타격을 받았다. 그리하여 사림 세력은 한때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향촌에 확고한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세력은 서원과 향약을 토대로 발전하여 갔다. 단순한 교육만을 맡은 사학의 서재는 고려 말부터 있었으나, 선현을 봉사하는 사묘를 겸한 서원은 중종 때 풍기 군수 周世鵬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작이다. 이 서원은 李滉의 건의로 소수 서원으로 賜額되고, 국가로부터 서적과

Scanned with CamScanner

토지, 노비 등을 받아 경제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많은 서원이 여러 지방에 설치되었는데, 특히 李滉과 그 제자들의 노력이 컸다.

서원의 확산은, 성리학을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학문과 교육을 지방으로 확대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화를 통해 탄압을 받았던 사림들은 서원을 중심으로 학파 또는 정치,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여 다시 뜻을 펼 기반으로 삼았다. 사림은 서원에 들어감으로써 양반의 지위를 보장받고, 국가의 각종 부담에서 면제되었다.

여러 차례의 사화에도 불구하고, 서원 및 향약을 바탕으로 향촌에 뿌리를 깊이 내렸던 사림들은 그 세력을 확장하여 16 세기 후반에는 중앙의 정치 무대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려는 양반의 수는 더욱 많아지는 데 반하여, 관직과 경제적 특권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양반 상호간의 대립과 반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더구나 양반들은 농, 공, 상업 등 생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평생을 학업에 정진하여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려 했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균형을 이룬 양반 사회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조선 전기의 유학은 새 왕조의 개창을 둘러싸고 두갈래의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사장을 중시하면서 현실의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가진 관학파 학풍이며, 다른 하나는 경학을 중시하여 유교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의 추구에 주력했던 사학파 학풍이었다. 이 두 학파 간에는 실제로 학문의 경향과 현실 정치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조선 왕조를 개창하면서 신진 사대부들은 전통적인 유학과 불교, 도교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성리학을 새로운 정치 지도 이념으로 내세웠다. 鄭道傳과 權近 등 관학파는 성리학을 정치 지도 이념으로 정착시키는 동시에, 사회 개혁과 국가 운영의 기본 정신으로 삼아, 왕권의 강화와 중앙 집권 체제의 정비에 노력하였다. 새 왕조의 개창과 지배 체제의 정비에 공이 많았던 이들 관학자들은, 국가 체제가 갖추어지고 불교의 사회적 폐단이 많이 시정된 15 세기 중엽 이후로는 성리학만을 크게 내세우지 않고 불교, 도교, 풍수사상, 민간신앙 등 여러 사상들에 대해서도 관대한 정책을 썼다. 이러한 사상 정책은 특히 世宗, 世祖에 의하여 주도되어, 개성이 강한 관학의 학풍을 이룩하였다. 이들은 뒤에 훈구파라 하여 사림파의 학자와 구별되었다. 훈구파는 성균관과 집현전 등을 통해서 양성되어, 수준 높은 근세 문화를 창조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심오한 철학적 이론과

Scanned with CamScanner

학문적 논쟁이 피어나, 성리 철학이 크게 융성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이 되었다. 당시의 철학적 조류는 크게 두 계통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徐敬德을 선구자로 하면서 경험적 세계를 중요시하는 主氣論이며, 다른 하나는 李彦迪을 선구자로 하면서 원리적 문제를 중요시하는 主理論이다. 이 두 학자의 뒤를 이어 조선 성리학을 대성한 사람은 李滉과 李珥였다.

李滉은 朱子書節要와 聖學十圖 등을 지어, 朱子의 理氣 二元論을 더욱 발전시켜 主理 철학을 확립하였다. 그의 사상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주리 철학은 대체로 향촌에서 중소 지주적 경제 기반을 가진, 생활이 비교적 안정된 사림들이 발전시켜 나갔다. 이들은 경험적 세계의 현실 문제보다는 도덕적 원리에 대한 인식과 그 실천을 중요시하여,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도덕 규범의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李滉의 학통은 金誠一, 柳成龍 등의 제자에 의하여 영남 학파를 형성하였다.

주리론은 理가 작용하여 氣가 이에 따르기도 하고(理發而氣隨隱), 氣가 작용하여 理가 그 위에 타기도 한다(氣發而理乘之)는 주장이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남학파를 형성하였으며 동인 계열을 이끌었다.

梅溪 曺偉의 萬憤歌를 보자 佔畢齋 金宗直의 일을 돕다가 무오사화를 만나 의주, 순천 유배의 길에 오르게 된 曺梅溪는 한때 趙光祖의 醇正文學인 道學派에 반기를 들고 詞章 文學을 주장하면서 맞서기도 했다. 그러던 중 曺偉는 명나라 하정사로 다녀 오다가 압록강에서 체포되었다.

天門九萬里를 꿈이라도 갈동말동
차라리 싀여지여 억만번 변화하여
南山 늦은 봄의 두견의 넉시 되여
梨花 가디 우희 밤낫즐 못 울거든
三淸洞裏의 졈은 한널 구름 되여
胸中의 싸힌 말삼 쓸커시 사로리라
……<중략>……
北風의 혼자 셔셔 가 업시 우난 뜻을
하날 가튼 우리 님이 젼혀 아니 살피시니 (萬憤歌)

그는 유배지에서 成宗을 그리워하며 그의 가슴에 쌓인 비분을 구구절절이 호소하고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군은이 믈이 되여 흘러가도 자최 업고
玉顔이 꼿이로되 눈믈 가려 못 볼로다
이 몸이 녹아져도 玉皇上帝 處分이요
이 몸이 싀여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萬憤歌)

順川 유배지에서 운명을 하기까지 임금에 대한 충절을 다하는 梅溪였다. 그의 이러한 신의는 경학에 바탕을 둔 사림의 도덕성으로 군신간의 의리에서 나왔다. 또 주리론의 연원은 天道요, 복희씨의 經世와 周公의 仁義에 바탕을 둔 것으로 曺偉는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이 몸이 젼혀 몰라 天道 漠漠하니
물을 길이 젼혀 업다 伏羲氏 六十四卦
천지만물 상긴 뜻을 周公을 꿈의 뵈와 (萬憤歌)

道德歌는 집을 짓되 '道德'의 강령에 의해 짓자는 것이니, 이를테면 孔夫子의 도덕을 집에 비유하였다. 後生에게 孜孜勤念해서 勉勵하는 것을 儒道의 교육으로서 인간의 정신을 啓導하자 함이라고 한다.

南溟 曺植은 昌寧 사람으로 李彦迪과 李滉의 벼슬 천거와 부름을 받았으나 모두 듣지 않고 頭流山 德小洞에 들어가 살았다. 사후에 선조는 大司諫을 추증하고 光海君 때는 영의정을 추증했다.

宇宙에 비겨 셔셔 生生코 생각하니
周公의 道德 됴흔 터을 가리혀 나의
六十四卦 뽀바내혀 箇箇椽木 거러놋코
三百八十四爻數로 次第로 산자매고
太極으로 蓋瓦하고 日月星辰 窓戶하야 (道德歌)

이 가사는 집을 짓되 道德으로 하자는 것으로 가령 「大家를 세우실제 五行으로 주초 놋코 仁義禮智로 기둥 세워 三綱領 大梁 언꼬 八條目 도리 언져」와 같은 대목이라든지 「仁門을 놉히 열고 義路를 널리 닷가 禮樂文物 가초 놋코 來者을 밧자하니 宮墻이 깊은 곳에 누구누구 엿보혓더냐」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성현들의 집을 찾아가서 구경하고 後生들에게 孜孜勤念해서 이런 집을 세우도록 권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退溪 李滉은 琴譜歌와 相杵歌, 勸義指路歌의 가사를 지었다. 琴譜歌는 거문고를 도덕적으로 풀이하여 읊은 것이다. 일명 琴賦歌라고도 하며 續箕雅와 長篇歌集 등에 전한다. 거문고를 만들 때

체법이 음양의 이기에 맞아야 화음이 됨을 노래한 것으로 周敦頤와 程子, 朱子의 理氣學을 풀어 설명했다.

上中下體한 法이 天地人 三才로다
中虛外實하야 陰陽을 配合하니
三陽은 우의 잇고 二陰은 아래 잇다
背部의 둥글기난 이 아니 天圓이며
腹部의 모나기난 이 아니 地方인가 (琴譜歌)

그는 이 琴譜歌에서 태평 성대의 음악이던 正聲인 舜琴을 찬양하여 거문고의 갖춤새와 聲律을 도덕적인 견지에서 부연 설명하고, 차츰 세상이 어지러워짐에 따라 男女相悅의 變聲만이 성행하는 것을 탄식했다. 거문고를 단순한 사물로 보지 않고 음양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치를 규명한 작자의 정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主理論을 주장한 李滉은 그의 가사 相杵歌에서 방아찧기 작업을 통하여 治國安民으로부터 父母供養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할 일을 교훈한 道德性을 노래하고 있다.

太古的 混沌하야 穀食이 업돗더니
神農氏 試驗하야 장기 따부 맹근 後에
后稷氏 따흘 보아 논밧츨 分別하니 (相杵歌)

그도 농사의 기원을 神農氏와 后稷씨에서 찾고, 그들에 대한 경외와 감격을 찬양하고 있다.

勸義指路歌는 李滉이 世俗을 근심하고 後學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것인데, 지은 때는 분명하지 않다. 이 가사는 聖學十圖라는 필사본에 붙여 실린 것으로, 거기에 指路辭後敍도 있어 전해진 경로를 알 수 있게 한다. 이 필사본은 1894 년 봄에 상산에서 썼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그 표기법의 不統一은 어찌할 수 없으나 그런대로 退溪의 도학자다운 家風은 잘 나타나 있다.

仁義로 길을 삼고 五倫으로 집을 삼아
天地 되여 날 제 五行이 갓차시며
사람이 되여 날제 오륜이 잣차시니
天地ㅣ 天地 아녀 오행이 천지오
사람이 사람 아녀 五倫이 사람이라
日月 갓치 달려시니 一時도 어렵거든
주자 太極圖애 그림조차 전하시니

Scanned with CamScanner

百事랄 생각하면 輕重이 다 이시며
萬物을 혜아리면 長短이 다 잇나니
節序를 알아낼손 천지의 中이로다
하날 땅 두 사이의 나와 셋 뿐이로다 (勸義指路歌)

李滉의 주리론은 주자의 성리학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다. 그는 만물의 근원을 음양오행보다 중시하고, 만물 본연의 性을 氣質의 性보다 앞세우며 居敬과 窮理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居敬은 기질의 性에 생기는 인욕을 끊고 외부의 유혹을 물리쳐 精心함에 있다.

嶺南學派의 主理論的 성향을 李滉의 가사 작품을 비롯하여 여타의 몇몇 작가와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 볼 때, 仁義政治, 道文一致의 주제로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孔夫子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하는 유교사상은 그 도통을 상고 시대 삼황과 堯, 舜, 禹, 湯, 文, 武, 周公 등 열 분 제왕의 인의정치에 두고 있으며, 道德歌는 그 인의정치 사상을 두드러지게 담고 있다. 여기서는 三皇과 二帝 三王, 도덕가인 周公까지를 범위로 해서 고찰하겠다. 이제 삼왕은 堯帝, 舜帝와 禹王, 湯王과 文王, 武王을 일컫는다.

(1) 三皇

伏羲氏는 삼황 중 비조이다. 萬憤歌, 俛仰亭歌, 相杵歌에는 伏羲氏와 神農氏가 등장한다. 인간 생활을 유익하게한 伏羲씨는 太昊라고도 하며 風姓이고 蛇身人首의 모습을 하였다.

물을 길이 젼혀 업다 伏羲氏 六十四卦 (萬憤歌)

羲皇을 모을너니 니 젹이야 긔로괴야 (俛仰亭歌)

어업, 목축, 팔괘를 가르쳤고, 萬憤歌에 八卦, 64 괘의 점술 얘기가 나온다. 그는 그물로 고기 잡는 법과 사냥하는 기술을 가르쳤다. 漢代의 緯書에는 어머니 華胥氏가 雷澤에서 巨人의 발자국을 밟고 伏羲氏를 낳았다고 하며 列子에는 그는 人面蛇身 牛首虎尾의 형상을 한다고 했다. 그를 조물주로 생각하여 왔다.

神農氏는 농업을 가르쳐 백성을 농사짓게 했다. 이로해서 神農이란 이름이 붙었으며 불사용으로 炎帝라 불렀다. 또 烈山 사람이기 때문에 烈山氏라 했다. 方書를 만들어 의술을 펴고 경제 通貨를 사용하기도

Scanned with CamScanner

한 유익한 왕이다. 조선 전기 가사에서 농기구에 관한 노래가 相杵歌에 나온다.

神農氏 試驗하야 장기 따부 맹근 후에
后稷氏 따흘보아 논밧츨 分別하니 (相杵歌)

또 孟子에는 농업의 시조로, 역경에는 의술, 악사의 신으로 기술되고 구리 제조, 술 담는 법 등 상업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神農氏와 后稷氏는 중국 고대 농사법을 일깨운 인간에게 유익한 황제로 相杵歌에서 노래하고 있다.

神農氏 試驗하야 장기 따부 맹근 후에
后稷氏 따흘보아 논밧츨 分別하니 (相杵歌)

(2) 二帝三王

먼저 二帝는 唐堯와 虞舜으로 조선 전기 가사에 자주 등장한다. 樂志歌, 琴譜歌, 南征歌, 勸義指路歌 등에서 이제를 노래함으로써 唐虞 시대를 동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唐堯의 乃微服, 擊壤歌와 虞舜의 畊歷山, 漁雷澤에 관한 얘기가 琴譜歌에 보인다. 勸義指路歌에는 堯舜을 찬양하는 부분이 있으니 「四海를 平케함과」 「大聖」을 찬양하였음을 불 수 있다. 또 樂志歌에 「당우태평 오백년」 「人皆 堯舜 本然之心 操存不舍」라고 읊었다. 또 琴譜歌에 堯舜을 「太平代 聖帝王」으로 불렀다.

唐虞太平 五百年의 湯武休治 一千載라
天雨洗兵하야 海垈永淸하니
人皆堯舜 本然之心 操存不舍 하여보새
舜何人也 余何人也 顔子말삼 粹然하며 (樂志歌)

太平代 聖帝王이 堯舜밧긔 또 잇나냐
乃微服 遊康衢의 擊壤歌도 죠커니와
耕歷山 漁雷澤의 讓畔이 어더턴고
大舜은 別과되여 上位을 摠領하고
南薰殿 月明夜의 손죠 빗겨 안으시고
百工이 相和하야 和答하고 이러나니
그 아니 舜琴이며 이 아니 舜琴인가 (琴譜歌)

堯舜적 닷근 길이 네브텨 일넛거든

Scanned with CamScanner

너희난 무사 일노 斜路로 드러시며
堯舜과 孔孟인들 五倫 밧게 사람이라
堯舜이 이 아니면 四海를 平케 하며
堯舜은 大聖이라 배호면 堯舜이요
이 길의 나선 후의 堯舜의 거련이와 (勸義指路歌)

三王은 夏나라 禹王과 殷나라 湯王, 周나라 文王, 武王이다. 중국 국가 형태인 하나라는 그 肇國王이 大禹이다. 치세가 뛰어난 왕으로 악장 龍飛御天歌에 禹, 湯, 文, 武의 三王을 함께 노래하고 있으며, 禹湯 또는 湯武, 文武 등으로도 부른다. 勸義指路歌에 「禹湯文武들도 어든 거시 中이로다」라고 하여 삼왕의 중용지도를 찬양하였다.

먼저 禹는 夏의 첫 임금이다. 夏는 사백여 년간 이어간 중국 최초의 국가 형태를 갖춘 나라이다. 勸義指路歌에는 禹, 湯, 文, 武王을 성군으로 찬양하고 있다. 夏, 商, 周나라 첫 임금들로 조선조 선비들이 찬양하는 군왕들이다. 이들은 역성혁명의 본보기로 조선조 창업의 합리화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근거로 삼아 애송되었다. 龍飛御天歌 125 장에 夏 大禹의 손자 太康王을 읊은 부분이 보이며, 조선조 가사와 악장에 夏나라 초기의 사적을 노래함으로, 위대한 大禹의 뒤를 이어 후왕들이 근념할 수 있도록 권계한 것이다.

周文武 二加絃도 千古에 是非잇고 (琴譜歌)

唐虞太平 五百年의 湯武休治 一千載라 (樂志歌)

湯武와 桀紂 사이 千萬里 갓건마난
禹湯 文武들도 어든 거시 中이로다 (勸義指路歌)

湯은 商의 첫 임금인 成湯 履이다. 사류 가사에 湯武, 禹湯, 文武 또는 文, 武, 湯王으로 등장한다. 탕은 夏의 桀王의 뒤를 이어 商을 세웠다. 夏의 마지막 왕 桀이 포악하여 제후들이 湯을 섬기자 군사를 일으켜 夏를 멸망시키고 桀王을 南巢로 추방했다. 이처럼 成湯은 조선 전기 가사에 불리리만치 오래된 역성혁명의 인물로 좋은 소재가 되었다. 즉 樂志歌, 勸義指路歌 등을 보면 湯王은 禹王, 武王과 함께 중국 고대 삼국의 역성혁명의 창업주로 칭송되고 있다. 특히 湯武休治 一千載라 한 樂志歌의 구절은 堯舜이나 葛天씨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조선 건국 李太祖의 덕치를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文王은 舜帝, 堯帝 다음으로 추앙을 받는 군왕이다. 武王과 周公의 아버지로 忠孝와 도의 정치를 강조하여 三皇五帝의 영향을 실천한 성군이다. 아들 武王을 타일러 殷의 紂王을 위하도록 했으나 갑자기 병사함으로써 역성 혁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文王은 殷나라 제후왕으로 西伯이었으나 아들 發에게 제후를 넘겨주고 죽는다. 발이 西伯의 위패를 앞세워 군병과 함께 종주국인 商나라를 칠 때 西伯을 文王이라 칭했다. 周公은 도덕 군자로 萬憤歌, 樂志歌, 道德歌에 나온다.

天地萬物 상긴 뜻을 周公을 꿈의 뵈아 (萬憤歌)

文王我師 豈欺我哉 周公之道 大矣로다 (樂志歌)

周公의 도덕 됴흔 터을 가리혀 나의
번리을 배포하고 대가을 세울실 졔 (道德歌)

周公은 孔子와 비견할 만한 道德歌이다. 文王의 아들이고 武王의 아우이며 어린 成王의 숙부로 섭정을 잘하여 주나라 백성뿐만이 아니라 후세인에게 칭송을 받는 분이다. 周公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 자세는 고고하며 三吐哺, 三握髮로도 유명했다.

이렇듯 三皇과 二帝三王의 道學 儒宗은 仁義政治의 표상이다. 孔夫子 이전의 유도가 자리잡은 이 시대는 상고대에서 기원전 1 백여년까지이다. 결국 皇, 帝, 王의 치세에서 만들어진 유교는 孔夫子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학자들이 일으켰던 사상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부 정치적 행위와 통치를 돕고 그 기강을 세우도록 협력하는 것과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孔孟과 그 弟子

조선 전기 가사에 孔孟의 인의를 찬양한 작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陳蔡之厄을 聖人도 못 면하며
유예非罪를 君子인들 어이하리 (萬憤歌)

陋巷簞瓢 자바다가 安貧이나 하여보새
唐堯曾祝 華山으로 夫子昔登 泰山되야
太和元氣 공부자의 絃歌一曲 依依하며 (樂志歌)

Scanned with CamScanner

아마도 됴흔 집은 孔夫子님 집이로다 (道德歌)

陋巷애 해 놉흔 제 簞瓢도 잇고업고
仲尼 적 놉픈 날이 이제도록 발갓거든
堯舜과 孔孟인들 五倫 밧게 사람이랴
孔孟과 楊墨사이 方寸인 닷 하건마난
孔孟의 말을 하고 孔孟의 法을 하면
孔孟이 이 아니면 一貫을 法할소냐 (勸義指路歌)

夫子는 유교의 開祖로 魯나라 산동성 곡부현에서 叔梁紇과 顔徵在 사이에서 출생했다. 젊을 때는 委吏, 司職 등 낮은 관직에 종사했다. 周 洛邑 방문을 계기로 제자 교육을 시작하다가 三桓의 난을 받아 齊나라로 도피했다. 그곳에서 음악을 논하고 景公에게 正名主義 정치 이상을 말했다. 淫樂에 빠진 정공을 보고 사임 후 10 여 년 동안 간난신고의 魏, 宋, 曺, 丁, 秦, 蔡 등 열국을 주유하며 仁義正道의 王道政治를 역설했다. 그는 후진 교육에 전념하여 詩, 書, 藝 제정과 春秋, 周易을 演하고 爻傳을 지었다.

夫子의 내면적 인격 완성과 사상은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에서 표현되고 있다. 그의 사상은 論語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 근본은 仁이다. 그것은 심오한 인도주의다. 必也正名, 君君臣臣이고 盡乙, 推乙, 己所不欲勿施於人 등 諸德이 仁에 해당된다. 仁과 禮를 지키면 군자요. 보편적이고 비상대적인 것이 또한 군자이다. 이것은 부자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워 경원한다 하니, 仁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夫子의 사상은 曾子, 子思, 孟子로 이어지며 漢武帝 때 중국을 지배하는 사상이 되었다. 夫子의 덕치와 인을 군왕과 일반에게 알리려는 가사 작가들은 正名主義와 인의 보편화를 꾀하였다.

魯나라 흐린 술희 한鄙이 무슴 罪며
陳蔡之厄을 聖人도 못 면하며 (萬憤歌)

西周文物 八百이요 東魯衣冠 七十이라 (樂志歌)

秦家 百萬兵이 魯舌의 믄허지니 (勸義指路歌)

Scanned with CamScanner

夫子가 도덕적 생활을 위해 이웃 나라들을 다니며 설득과 교육으로 십여년 간을 보낸 적이 있다. 주로 제후국이었으며 秦, 楚, 魯, 晋, 蔡, 越, 魏 등의 나라였다.

復聖은 顔回로 삼공 중 공묘 대성전에 기록된 사성 중의 한 사람이다. 夫子의 제자로 총애를 받다가 요절한 사람이며 夫子가 애석히 여겼다. 樂志歌에 「顔子 말삼 粹然하며」라고 읊고 있다. 道德歌에는 성현의 학문 경지와 도야된 인격형성을 높여 저택으로 비유하여 「復聖公宅 구경하고」라고 하였다. 또 勸義指路歌에 「顔子라도 하시려던」이라고 하여 바른 언행을 강구하였다.

舜何人也 我何人也 顔子말삼 粹然하며 (樂志歌)

武夷九曲으로 도라들 復聖公宅 구경하고 (道德歌)

過門不入은 顔子라도 하시려던 (勸義指路歌)

復聖과 子路는 孔子의 가까운 제자들이다. 復聖은 樂志歌, 道德歌, 勸義指路歌에 등장한다. 「무이곡으로 도라들어 복성공택 구경하고」는 孔子 학문의 축성으로 顔子의 경지를 말한 것이다. 顔子는 孔子의 신임이 두터운 가난한 제자였다. 그의 성품과 학문하는 태도도 가사 작가들의 관심사였다.

述聖은 子思로 夫子 손자 孔伋이다. 曾子의 제자로 中道를 述한 中庸의 작가이며 사성의 한 사람이다. 道德歌에 子思의 학문적인 경지를 「송성공택 구경하고 술성공택 구경하고」라고 노래했다. 子思의 학문 경지를 노래한 구절이다. 子思는 孔子 학문을 전하고 誠을 천지 자연의 법칙이라 했다. 天人合一의 철학을 세운 子思는 유학을 학문으로 발전시킨 분으로 조선조 가사 작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孟子는 夫子 버금가는 성인이라 하여 亞聖이라 한다. 그는 述聖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齊나라 宣王, 梁나라 惠王을 가까이 해서 인의의 도덕실천을 주창했으나 諸侯들의 용납을 얻지 못했다. 亞聖은 제자들과 더불어 詩經과 書經의 뜻을 풀이하고 夫子의 뜻을 펴서 「孟子」를 저술했다. 孟子를 夫子와 함께 孔孟으로 부르는 것은 조선 전기 가사 작가들이 亞聖을 夫子의 線上에 올려 그 인의사상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勸義指路歌에 「孔孟과 楊墨 사이, 孔孟의 말을 하고 孔孟의 법을 하면, 孔孟이 되려니와, 孔孟이 이 아니면, 堯舜과 孔孟인들」이라고 표현했다.

Scanned with CamScanner

道學 道統系인 程子는 孔子는 仁만을 말했으나, 孟子는 仁과 義를 함께 말했다고 했으며 또 크나큰 학문의 공적은 성선설을 주장한 것이다. 道德歌에 그의 높은 학문의 경지를 「亞聖 公宅 구경 후에 杏壇을 바라보니」라고 읊었다. 子路, 冉有, 閔子騫과 曾點은 夫子의 제자들로 유학 신장을 위해 노력한 유가들이다. 또 「子路 冉有 閔子騫은 門內에 겨우 들고」라고 했다. 勸義指路歌에 「증점을 따라가면 수인장 도라드러」라고 한 부분에서 曾點의 교육관을 볼 수 있다.

亞聖公宅 구경후에 杏壇을 바라보니 (道德歌)

堯舜과 孔孟인들 五倫 밧계 사람이랴
孔孟과 楊墨사이 方寸인 닷 하건마난
孔孟의 말을 하고 孔孟의 法을 하면
孔孟이 이 아니면 一貫을 法할소냐
孔孟이 되려니와 盜跖의 옷살 입고
孟子 浩然章애 거 대강 일너 잇고 (勸義指路歌)

亞聖公은 道德歌에서도 학문 축성을 생활 주택의 크기와 안락도로 비견하고 있다. 東周 시대 사상가였던 그는 산동성 鄒縣에서 기원전 372 년 경에 출생했다. 성명은 孟軻이다. 夫子를 사숙한 孟子는 어머니의 삼천지교, 단기지훈으로 유명하다. 가사에 그의 사적을 읊은 것은 환경에 따른 모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子思의 제자에게 배웠다고도 하는 孟子는 梁, 齊, 宋, 魯 등의 여러나라 제후에게 王道를 開陳했다. 주로 齊의 宣王, 梁의 惠王, 藤의 文公이었다. 共鳴은 얻었지만 용납되지 않았다. 귀국후 제자 萬章과 詩와 書를 논하고, 孔子의 뜻을 祖述해서 孟子 칠편으로 전하게 되었다. 그의 윤리 및 정치 중심 사상은 性善說로 仁義禮智 四德의 端書가 된다. 악행은 물욕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浩然은 善性을 잘 기름을 말하며 정치설은 孔子와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孔子의 尊周論을 民權主義로 해석한다. 이것은 덕없는 군주의 代替를 말한다. 그는 또 周 文王의 井田法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孔子의 仁義說을 확장하고 유학 이론의 기반을 수립한 것을 조선 유교 지식인들은 높이 평가한다. 83 세까지 산 孟子는 오륜 주장과 호연장의 얘기가 가사에 전한다.

(4) 周子, 程子, 宋聖公

Scanned with CamScanner

유교사상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도학자들은 周子, 程子, 宋聖公이다. 이들은 송나라 유학자들로 유교의 이론적 합리화 및 확장 곧 형이상학적이고 유사 자연철학적 요소들의 유입과 체계화는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한 세기 이상 변형된 이러한 유교는 원시 유교와 상당한 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발전된 유교를 신유교라 한다.

신유교 학파의 연구와 송성공의 주해는 性과 理를 집중적으로 탐구한다는 의미에서 성리학이라 불리고 있다. 性은 本性, 그 중에서도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고 理는 우주 만물의 근본 질서의 바탕인 道의 소우주적 현상체를 의미한다. 신유교는 일종의 우주 기원론 곧 우주 생성에 대한 사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주 생성론은 그 자체의 존립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로부터 예절의 원칙과 교육의 근본 법칙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인간 본성 존재의 사실성과 법칙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신유교의 근엄하고 실천적인 생활 지향은 국내외에 추종자를 얻었다. 韓민족에게는 고려 중기 이후에 들어오기 시작하여 조선 왕조 하에서는 국가 종교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조선조에서는 일상적인 삶과 정치 및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유교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런데 李成桂가 조선조 창업주로 등장했을 때 신유교의 교양을 쌓은 관료 집단 지식인들은 두 파로 분열되었다. 즉각적으로 신왕조에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유교의 원리는 신하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분파는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의 神 및 有關한 어떤 한 종교를 필요로 했다.

이렇게 하여 조선의 신유교는 불교를 대신해서 국가의 공식 종교가 되었다. 이때 한 분파였던 신유교적 지신인들은 편리한 孟子의 존주론인 혁명 이론을 발견해 냈다. 그것은 지배권의 정당성은 정치 권력이나 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의 덕성에 있다. 하늘은 덕성있는 자에게 전권을 위임한다고 했다.

관료 집단의 한 분파인 신유교 이데올로기 주창자였던 鄭三峯은 「經濟 文監」과 「高麗 國史」에서 孟子의 혁명 이론에 걸맞는 말을 했다. 고려 왕조 마지막 네 왕인 恭愍王, 禑王, 昌王, 恭讓王을 덕을 잃은 군주로 시도했다. 또 「高麗史節要」에서 이 시기에 자연 이변과 민란이 많음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는 천명이 떠났음을 암시하고 반대로 무장 李成桂를 덕을 지닌 인물로 묘사했다.

따라서 이들 신유교 지식인들은 종교화에 박차를 가했다. 가부장적인 사회의 구조를 보존하고자 하는 이해 관계 때문에

Scanned with CamScanner

신왕조를 개창하자마자 조상의 靈에 대한 숭배 및 신유교적인 의례들을 사회 속에 제도화하려 했다. 또 그들은 중국의 신유교 예의 범절을 따라서 제도를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 왜냐하면 한편 유교 국가적 이유에서 백성들에게 종교를 갖게 해 주어야만 했다. 孔子의 말에 의하면 신앙 없이는 세상의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종교를 갖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아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까지 하다.

신유교의 지식인 즉 관료들은 조선 전기 가사에서 과거 시험에 교양 문학을 과하듯 중국적 道文一致의 사상 강조를 위한 周子, 程子, 宋聖公을 노래했다. 道德歌에「梨川에 배를 타고 濂溪로 나려갈제」라고 한 것이라든가 또 勸義指路歌에 「周子 太極圖에 그림조차 전하시니」가 周子에 관한 구절이며 북송의 周敦頤를 위하고 있다.

> 周子 太極圖애 그림조차 전하시니 (勸義指路歌)
>
> 梨川에 배을 타고 濂溪로 나려갈제
> 晦庵에 들어 자고 明道에 길을 무러 (道德歌)
>
> 川邊盡日 訪花하니 程明道가 賢師로다 (樂志歌)
>
> 程朱는 大賢이라 내 어이 못 갓탈고
> 明道께 길흘 물어 가다가 져물거던
> 伊川의 배랄 띄워 智水로 건너 셔어 (勸義指路歌)

북송 도학자 濂溪 선생은 염계에 살았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道德歌에 周濂溪의 號의 유래와 그의 학문 사상을 노래하고 있다.

濂溪, 明道, 伊川등은 孔子 학문을 정리하여 체계를 세운 도학자들이며 북송 시대에 활약한 사람들이다. 明道에 대하여는 그 칭호의 뜻에 의거하여 「明道에 길을 무러」와 「程明道가 賢師로다」라고 노래함으로 함축된 의미를 드러내고 신유교의 관료들은 山積한 새왕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방향을 찾으려 하였다. 또「程朱는 大賢이라」와「明道께 길흘

Scanned with CamScanner

물어」라고 한 것도 성현의 指導를 希求하는 심정에서 나온 표현이라 하겠다. 樂志歌에는 「川邊盡日 訪花하니 程明道가 賢師로다」라고 하여 明道는 조선조 가사 작가들에게 잘 알려진 유학자이다. 정이는 伊水의 畔에 居한 고로 이천 선생이라 한다. 明道선생의 아우로 함께 정자라 칭한다. 「梨川에 배랄 타고」와 「伊川에 배랄 띄워」에서 梨川은 伊川의 誤記일 것이다.

晦庵에 들어 자고 明道에 길을 무러
宋聖公宅 구경하고 述聖公宅 구경하고 (道德歌)

程朱는 大賢이라 내 어이 못 갓탈고
晦菴애 들어 자고 沂水의 沐浴하고
朱文公 업슨 후의 中道랄 뉘 傳할고 (勸義指路歌)

宋聖公 朱子는 조선조 전기 가사 작가들에 의해 추앙을 받았다. 신유교 즉 성리학자들인 가사 작가들은 주자가례를 전통의식으로 채택하는데 노력한 도학자들이었다. 「宋聖公宅 구경하고」는 儀禮와 고전 유학의 주해로 宋聖公을 우러러 표현한 것이다. 「晦菴에 들어 자고」는 朱子 文集과 十駕齋新養錄에 朱憙를 朱子, 晦庵, 雲谷 老人 등으로 부르고 있다. 「程朱는 大賢이라」와 「朱文公 업슨 후의」라고 하여 宋聖公을 찬양하는 뜻을 담고 있다.

宋聖公은 孔子와 孟子보다 상거 일천육백여 년 뒤에 태어난 송나라 유학자이다. 「朱文公업슨 후의 中道랄 뉘 전할고」라고 읊고 있는 바 程伊川에 이어 북송 유학을 모아 대성하여 朱子學이라고도 한다. 그는 居敬窮理의 학설을 제창했다.

(5) 屈原, 諸葛亮, 李牧, 馬援, 夷齊

楚客 屈原은 배소에서도 事君의 정과 충절을 잃지 않은 문인이었다. 萬憤歌에 「黃河水 말다만난 초객의 후신인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굴원의 戀主情은 조선조 가사 작가들에 의해 회자되었으며 특히 鄭松江의 작품들에서 표현의 절실함을 보여 주었다. 萬憤歌의 경우, 謫所의 情을 吟詠한 曺梅溪와 相照한 하소의 뜻이라 여겨진다.

臥龍은 諸葛亮으로 戰塵에서 의연하게 충군의 길을 걸어간 제상이고 장군이었다. 형주에 있을 때 魏의 曹操에 쫓겨 피신중 劉備를 알게 되고 그의 신하가 되었다. 吳와 연합하여 조조의 위군을 赤壁에서 격파했다. 유비는 강남 형주에다 巴蜀을 잡고 나라를 세웠다. 孔明은 유비 사후 어린 유선왕을 도와 오나라와 修好하고 남정하여

Scanned with CamScanner

여러 만국을 토벌했다. 운남까지 평정하다가 227 년 出師表를 바치고 북벌을 담당했으나 사마의의 위군을 五大原에서 만나 전사했다. 그도 지성 충의의 정신으로 중국 사상 孔子와 함께 추앙받는 인물이다. 외풍과 소음에도 대처하고 死者의 몸으로도 헌신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전쟁에서도 적군 포로에게 절조를 보인, 중국인의 양식에 남아 있는 사람이다. 樂志歌에 「臥龍 先生 諸葛亮은 南陽 따의 밧슬 갈며」라고 하였고, 금보가에도 「晋處士 漢臥龍도」라 하여 그의 지성충의를 찬양했다.

廉頗 李牧이면 수이 아니 할가마난
馬援矍鑠을 어늬 스칙 발흘뵐고 (南征歌)

廉頗 李牧과 馬援은 장군으로서 楊蓬萊가 倭敵과 接戰하던 용장의 패기를 보고 가사에 담은 것이다. 인의의 충사상을 실천한 중국 장군들이다.

盜跖도 셩히 놀고 伯夷도 餓死하니
東陵이 놉픈 작가 首陽이 나즌 작가
南華 三十篇의 議論도 하도 할샤 (萬憤歌)

그리고 절의를 지킨 伯夷 叔齊에 관한 서적은 사기 伯夷傳에 전하는데 萬憤歌에서 불사이군의 정을 노래하고 있다. 「盜跖도 성히 놀고 伯夷도 餓死하니」라 했다.

Ⅲ. 道文一致

조선 전기 가사 작가는 대부분 신유교 지식인들로 공부자의 문학관을 철저히 신봉했다. 까닭에 작가적 활동에 있어서도 성현의 法言에 따라 道文一致인 문학이론에서 仁義的인 형상 繼述로 출발했다. 따라서 가사 내용을 주제별로 갈라보면 道德勉勵와 道德崇尙 그리고 淸廉節義를 나타내고 있다. 가사 문학은 이러한 사상적 思惟의 반영이고 그것으로써 문학 이론이 형성되었다고 보여진다. 徐四佳의 東文選 序文과 成俔의 慵齋叢話, 李退溪의 陶山十二曲 序文에도 도문일치를 엿볼 수 있다. 유교사상은 적극적으로 문학의 진로를 지도하고 유학과 문학을 동일시했다.

(1) 道學勉勵

Scanned with CamScanner

몸을 닦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유학사상의 중요한 내용이다. 愼獨, 反求諸乙, 克己復禮, 毋自欺의 노력으로 유학 학풍과 인격도야에 힘썼다. 조선 전기 대상 가사에서 도학 면려에 해당하는 가사를 살펴보면 도덕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이보소 사람들아 이내 말 드러보소
한 길난 어대 두고 斜路로 가나산다
堯舜적 닷근 길이 네브터 일넛거든
너희난 무사일노 斜路로 드러시며
仲尼적 놉픈 날이 이재도록 발갓거든
너흐난 무사일로 밤으로 단이난다
인의로 길을 삼고 오륜으로 집을 삼아
이길을 일치말고 져 집으로 니고시라(勸義指路歌)

윤리사상으로 도덕 정치를 폈던 堯舜과 전대의 사상을 모아 탐몰했던 유교의 祖宗 공부자를 效則하여 儒家의 길로 입문할 것을 면려하고 있다. 勸義指路歌에 孔孟의 유학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孔孟의 말을 하고 孔孟의 法을 하면
孔孟이 되려니와 盜跖의 옷살 입고
盜跖의 말을 하면 이아니 盜跖인가 (勸義指路歌)

그리고 堯舜과 孔子에 이어 孔子와 孟子의 도학을 다시 촉구하고 있다. 孔孟에 이어 孟子와 朱子의 도덕을 따를 것을 말한다. 또 堯舜과 윤리 사상은 中庸之道로 인격의 형성과 도야에 나타났다. 伏羲의 河圖가 先天數로 易思想인 仁義에 귀착되었다면 後天數인 禹湯의 洛書는 洪範思想을 담고 있다.

孟子 浩然章애 거 대강 일너잇고
周子 太極圖에 그림조차 傳하시니
堯舜이 이 아니면 四海랄 平케 하며
孔孟이 이 아니면 一貫을 法할소냐
禹湯 文武들도 어든 거시 中이로다 (勸義指路歌)

다시 文武는 대법인 홍범사상과 중국 사상의 시조인 삼황의 인의 역사상을 부흥시키고 보다 발전시켜 나갔다. 이것은 周公을 거쳐

Scanned with CamScanner

孔孟에 이르러 유교사상으로 집대성시켰으니 도통의 계통을 보고 있다. 이는 過不及인 중용지도에 이를 것을 면려한 구절이다.

玄黃 造化間에 알 이 업시 브쳐시니
至矣 中庸을 맛 아란지 오라로다
堯舜은 大聖이라 배호면 堯舜이요
程朱는 大賢이라 내어이 못 갓탈고 (勸義指路歌)

「玄黃造化間」은 삼황 易思想의 仁義로 簡易, 變易, 不易이다. 인간의 생사와 계절의 주기는 변역이며 그 변역은 그치지 않고 변함없이 흐르므로 不易性이다. 이런 우주관은 간단없이 쉽게 이루어지므로 간역에 해당된다는 역술의 이해이다. 유교 경전 중에서 가장 존중시 되었던 역은 周나라를 거치면서 주역으로 바뀐다. 孔夫子와 亞聖이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탐독했던 것으로 論語에 「내게 數年을 더하여 역을 공부하도록 하면 가히 대과는 없겠나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비로소 원시생활에서 벗어나 삼황의 문화 시대로 접어들었으니 과학적 역사상의 내용보다 그 기저의 계승이긴 하나 인륜의 중용사상을 면려함에 容易로왔다. 그것은 「배호면 堯舜이요」라는 표현이 가능했다.

三達德 모든 길로 誠意關을 차자 가서
伊川의 배랄 띄워 智水로 건너 셔어
明道께 길흘 물어 가다가 져물거던
晦庵애 들어 자고 沂水의 沐浴하고
春服을 뜰쳐 입고 舞雩의 바람쏘여
曾点을 따라 가면 數仞墻 도라들어
杏壇애 올오리라 나도 첫 길이라 (勸義指路歌)

三達德과 誠意關은 변치않는 智, 仁, 勇의 세가지 덕이며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관문이다. 誠은 言의 信으로 나아가 언행일치를 示現함이다. 순수하고 허위와 사욕이 없는 진실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또 誠은 詩經의 思無邪라고도 할 수 있다. 敬은 誠에 이르는 길로 표현은 恭이고 겸손이 敬에 해당된다. 따라서 誠은 함축된 信이어야 할 것이다. 도학의 면려를 曾點의 儒家에서 效則하도록 한 것이며 孔夫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杏壇으로 말하고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어와 져 양반아 도라안자 내 말 듯소
엇지한 져믄 소니 헴업시 다니산다
마누라 말삼을 아니 드러 보나산다
나난 일얼만뎡 外方의 늙은 툐이
공밧치고 도라갈재 하난 일 다 보앗내
우리댁 셰간이야 네부터 이러튼가 (雇工答主人歌)

外職 僚仕를 마치고 견문 감상을 노래한 雇工答主人歌는 李梧里의 가사로 許堉의 雇工歌에 대한 답신이다. 「우리댁 셰간이야 네부터 이러튼가」에 신유교 지식인 관료나 백성들이 도덕생활을 위해 면려했지만 조선 전기를 지나면서 도덕성이 점점 해이해 짐을 보고 그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삿꼬기 마라시고 내말삼 드로쇼셔
집일을 곳치거든 죵들을 휘오시고
죵들을 휘오거든 賞罰을 발키시고
상벌을 발키거든 어른 죵을 미드쇼셔
진실로 이리 하시면 家道 절노 닐니이다 (雇工答主人歌)

관료들의 도덕적 解弛가 백성들에까지 蔓延될까를 염려한 雇工歌에, 公私 모두 도덕 강목을 토대로 도덕 면려에 힘써 여전하게 家道를 竪立하자는 雇工答主人歌의 호소를 들을 수 있다. 국사를 田民 주종의 관계로 비유한 이 가사는 임란의 황폐와 도학자들의 붕당을 보고 애민 애국의 내용으로 諷諫한 작품이다.

(2) 道德崇尙

도덕을 說한 유도자들과 충, 효, 열의 사상 수립에 노력한 도학자들은 흠모의 대상이었다. 인륜 도덕이 살아 있어 사회 질서가 정돈되고 風紀의 振張을 기함이 유교의 덕치와 正名을 이루기 때문이다.

유학사상은 비교적 理知的, 貴族的, 學究的 이념으로 조선민족 전체의 사상이나 생활에 준 감화와 영향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조선 전기 가사 작가들의 신유교적 이념이 강성했고 정치적으로 배려가 따랐기 때문이다.

西周 文物 八百이요 東魯 衣冠 七十이라
唐虞太平 五百年의 湯武休治 一千載라

Scanned with CamScanner

周나라 武王은 箕子의 도움을 받아 夏, 商의 洪範思想을 물려받았다. 西伯 文王 부친으로부터 八卦를 발전시킨 64 卦와 아우 周公이 탐구한 384 爻의 易思想까지 치세에 적용했다. 殷의 紂王을 몰아내고 周나라를 세운 武王은 문화 번성을 기하는데 초석이 되었다. 8 백년 동안 禮樂, 文物, 典章, 法度가 절정에 달함을 「西周 文物 八百이요 東魯 衣冠 七十이라」고 했다. 도학의 정립 시기를 기념함으로써 堯舜의 치세였던 唐虞 나라와 湯武 치세였던 商나라와 周國을 동경하고 있다.

人皆堯舜 本然之心 操存不舍 하여보새
牛山伐木 모든 사람 伐木마소 伐木마소
嘉木森森 夜來하니 虛明氣象 淡然하다
仁義禮智 天賦之性 率而爲綱 하여셔라
前溪擊水 모든 아해 擊水마라 擊水마라
綠水洋洋 下逝하니 順流形勢 美哉로다
小學之方 배여내여 灑掃應對 일윈 後의
大學之道 달나드러 窮理正心 하여셔라
舜何人也 余何人也 顔子 말씀 粹然하며
文王我師 豈豈我哉 周公之道 大矣로다 (樂志歌)

하늘이 주면 命이고 받으면 性이 된다. 性을 중요하게 여겨 率而爲綱하기를 호소하고 있다. 중국의 사상은 물과 같아서 강이 흘러 거슬리지 않고 순류함을 가르치고 있다. 도통의 도학이 상고 시대에 나타나서 중간 여과를 거치고 오늘에 이르면서 발전과 맥을 따라 변천된 것이다. 「顔子 말씀 粹然하다」는 復聖의 誠을 노래한 것이다.

繼叔 李緖의 樂志歌는 중종 18 년(1523) 경 그의 나이 42 세 무렵에 謫所에서 賜還된 뒤 전라도 담양군 대덕면 등갈리에 은거하면서 지은 가사이다. 탈속적인 선현들의 처세를 仰慕하고 仲長統의 樂志論을 私淑하여 부른 도덕 숭상의 노래이다.

중국 仲長統의 낙지론은 文王의 사적과 비교된다. 周文王이 西伯 시절에 간신의 讒訴를 만나 殷의 紂王 때 獄에 갖힌 몸이 되었다. 이때 그는 深思潛求하여 인간의 剛柔, 表裏, 順逆 등 각 방면에서 周到하고도 치밀하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이때 武王의 父인 서백은 64 卦에 대한 卦辭를 지었다고 한다.

Scanned with CamScanner

周公의 道德 됴흔 터을 가리혀 나의
번리을 排佈하고 大家을 세우실 제
五行으로 주초놋코 仁義禮智로 긔둥세워
三綱領 大梁언꼬 八條目 도리언져 (道德歌)

周公은 舊傳에 의하면 이름이 旦이고 周文王의 子이다. 武王의 弟인 周公은 어린 成王을 輔하여 禮樂을 制定하고 주왕실 8 백년의 터전을 닦았다. 三皇의 易思想과 堯舜의 中사상 禹湯의 洪範思想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周國 魯나라 봉토에서 태어난 孔夫子에게 전할 수 있게 했다. 伏羲의 易術을 西伯의 뜻에 따라 384 효로 세분 확장하여 우주관을 세웠다. 더욱 역사상의 인의를 堯舜의 중사상에 일치시켜 사상의 분파를 막아 합일의 세계관을 확립했다. 周公의 세계관 확립이 「周公의 道德 됴흔 터을 가리혀 나의」로 표현되었다. 삼황 중 伏羲의 역은 자연 변화의 오행으로써 인간 생활을 섭리하며 인의사상으로 승화하게 된다. 孔夫子의 仁은 후학인 孟軻에 의해 사단으로, 다시 칠정을 덧붙이게 되었다.

三綱領 八條目은 儒家의 강목으로 成造時 골격이다. 大家는 明明德 親民 止於至善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誠意 正心 格物 致知의 삼강령 팔조목으로 이루어 진다고 노래하였다.

禮樂文物 가초 놋코 來者를 밧자하니
宮墻이 깁흔 곳에 누구누구 엿보혔더냐
風乎舞雩詠歸師난 堂上에 올나잇고
陋巷春風簞瓢師난 空中에 들어잇고
子路 冉有 閔子騫은 門內에 겨우 들고
其外에 三千門人이 歷歷히 다 올소냐 (道德歌)

도덕으로 집을 짓되 인과 의의 중심 사상으로 大家를 만들자고 노래한 것이 그의 작품 道德歌이다. 한국 유학의 宗師요 孔夫子라 불리는 李退溪는 道德歌에서 孔夫子와 그의 제자 등 원시 유교 도학자들을 집에 비유하여 노래했다.

續箕雅와 長篇 歌集에 실려 전하는 琴譜歌는 唐虞 태평대의 正聲 舜琴을 찬양한 李退溪의 가사이다. 남녀 相悅의 變聲이 유행하는 세상에 도학숭상의 正聲을 강조함으로써 사회 기강을 바로 잡고자 했다.

乃微服 遊康衢의 擊壤歌도 죠커니와

Scanned with CamScanner

耕歷山 漁雷澤의 讓畔이 어더틴고
民心을 타도하야 一張琴 맹그실 제
蒼梧山 碧溪邊의 졀노 즉은 石上梧桐
上中下體한 法이 天地人 三才로다
中虛外實하야 陰陽을 配合하니
三陽은 우의 잇고 二陰은 아래 잇다
그아니 舜琴이며 이아니 舜琴인가
周文武 二加絃도 千古에 是非잇고
晋處士 漢臥龍도 이 뜻즐 다 아던가
엇지타 大聖 遺譜을 誤傳할 줄 잇슬는가 (琴譜歌)

윤리 치세로 中思想을 만든 二帝의 追崇과 거슬러 올라가 천문 지리와 음양 오행으로 易사상을 펴낸 삼황 시대를 노래하고 있다. 또 여러 인의사상을 응축시켜 조화롭게 유교로 만들어낸 주나라 시대를 말하고 대성현들을 경모하는 내용이다. 古今歌曲에 전하는 李退溪의 相杵歌는 부모 공양의 효사상을 강조한다.

太古的 混沌하야 穀食이 업돗더니
神農氏 試驗하야 장기 따부 맹근 후에
后稷氏 따흘 보아 논밧츨 분별하니
入孝出悌난 先輩의 할 일이오
本務 易穡은 百姓의 할 일이오
紡績 住食은 夫婦의 할 일이오
親上 死長은 軍士의 할 일이오
우리도 이 방하 찌허내야 부모 供養하리라 (相杵歌)

삼황은 전설적 중국 태고 사람으로 인간을 유익하게 한 분들이다. 그 중 神農氏는 천하의 근본인 농업을 가르쳐 준 분이다. 또 烈山, 炎帝라고도 불리는 그는 불의 사용과 病藥의 처방을 일러주었다. 后稷氏도 농업을 맡았던 관리였다. 相杵歌는 치국안민, 부모공양, 분담 업무 종사를 교훈하는 도덕의 내용이다.

(3) 淸廉節義

君子 謀道 不謀食이라든가 安貧樂道라든가 不義而富貴於我如浮雲이라든가 餓死事小 失節事大라든가 三軍可奪帥也匹夫之志不可奪 臨大節而不可奪 등은 유교의 士風으로 여겼다. 따라서 조선 유학자들은 청렴과 절의의 덕을 생명과 같이 중히 여겼다. 정치가는 청백리나 청빈을 명예로 알았으며 불의하거나 부귀함을

Scanned with CamScanner

수치스러워 했다. 貪官汚吏나 賣國變節漢은 유교 사상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신유교 지식인들에 의해 조선 전기 가사가 다수 창작되었으므로 작품에 나타난 청렴절의 사상을 살펴봄은 심도를 깊게 하는 일일 것이다.

차라리 싀여지여 億萬번 變化하여
南山 늦은 봄의 杜鵑의 넉시 되여
梨花 가디 우희 밤낫즐 못 울거든
三淸 洞裏의 졈은 한널 구름되여
바람의 흘리 나라 紫微宮의 나라올라
玉黃 香案前의 咫尺의 나아 안자
胸中의 싸힌 말삼 쓸커시 사로리라
어와 이내 몸이 천지간의 느저나니
黃河水 말다만난 楚客의 後身인가
傷心도 가이업고 賈太傅의 넉시런가
한숨은 무스일고 荊江은 고향이라
십년을 流落하니 白鷗와 버디 되여
함끼 늘자 하엿더니 어루난 듯 괴난 듯
남의 업슨 님을 만나 金華省 白玉堂의
꿈의조차 향긔롭다 (萬憤歌)

杜鵑과 구름이 되어 三淸洞과 紫微宮에 날아가고 바람되어 들어가 억울함을 하소하겠다는 도학자의 기개가 있다. 楚客의 상심과 賈太傅의 한숨이 나와 같아서 시절 따라 불운을 맞게 되었다. 10년 세월 동안 유배지에 갇혀서 자신의 청렴과 上을 위하는 절의가 徒勞에 불과했다. 백구를 만나 벗을 삼으니 임금이 심경을 알아 주는 듯하다고 한다.

曺梅溪는 연산군 4 년(1498)에 戊午士禍를 만나 佔畢齋 계통의 학자들을 유배할 때에 義州로 귀양갔다가 다시 전라도 순천으로 이배되었다. 그곳에서 成宗 임금을 玉皇에 비겨 하소연하는 萬憤歌를 지었다. 마치 屈原의 天問과 같은 유배 가사이다. 楚客의 원통함을 호소하면서 도덕 숭상과 청렴 절의를 잃지 않음이 가상하다.

陳蔡之厄을 聖人도 못 면하며
유예비죄를 君子인들 어이하리
五月 飛霜이 눈물로 어릐난듯
三年 大旱도 寃氣로 니뢰도다

Scanned with CamScanner

楚囚南冠이 古今의 한둘이며
白髮黃裳의 셔룬 일도 하고만타
------ <중략> -------
물을 길이 젼혀 업다 伏羲氏 六十四卦
天地萬物 상긴 뜻을 周公을 꿈의 뵈와
자시이 뭇잡고져 하날이 놉고놉하
말업시 놉흔 뜻을 구룸 우희 나난 새야
네 아니 아돗더냐 어와 이 내 가삼 (萬憤歌)

孔夫子도 이웃 나라 제후국에서 봉변을 당하는가 하면 군자도 죄없이 구금되는 일이 있었다. 이런 楚囚南冠의 史實과 현재도 있을지도 모를 일에 대해 작자의 마음은 절박하다. 伏羲氏의 역술로 또는 周公의 세계상으로 알아 볼 수 없을까. 하늘을 나는 구름과 새에게도 청렴 절의의 심정을 담아 보는 작자의 시정이 잘 나타나 있다. 俛仰亭 宋純은 明宗 때 우참찬에 이르렀다. 中宗 19년(1524)에 담양 제월봉 아래 정자를 짓고 俛仰亭歌을 창작했다.

天地도 넙고넙고 日月도 한가하다
羲皇을 모을너니 니적이야 긔로괴야
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긔로괴야
江山風月 거날리고 내 百年을 다 누리면
岳陽樓上의 李太白 사라 오다
浩湯 情懷야 이예서 더할소냐
이몸이 이렁굼도 亦君恩이샷다 (勉仰亭歌)

安貧樂道와 節義의 노래다. 향리인 전라도 담양 기촌에 면앙정을 짓고, 산수의 아름다움에 몰입하는 내용이다. 丁克仁의 賞春曲에서 안빈낙도의 영향을 받았고 군주를 위하는 節義를 이었다. 이 가사는 한국 신유교 지식인인 李退溪와 풍류자 鄭松江에게 영향을 끼쳤다.

南征歌는 明宗 10년(1555)에 乙卯 倭變이 일어나자 楊蓬萊가 형 士俊과 함께 李俊慶 幕下에서 南征軍의 항전 모습을 보고 지은 애국 충군의 節義 歌辭이다.

上有 聖主人끠 므러시라 살오려뇨
廉頗 李牧이면 수이 아나 할가마난
馬援 확삭을 어늬 스츼 뷜고
--- <중략> ---
天雨洗兵하야 海岱永淸하니

Scanned with CamScanner

壯士喧乎하야 歡聲이 四合이로다
士女 百姓달하 어대어대 가 잇다가
모다곰 오나산다 禾穀이 離離하고
桑麻芃芃이로다 國富民安하야
太平을 하리로다 (南征歌)

抗倭 戰勝歌로 朴蘆溪의 太平詞, 船上歎 등과 쌍벽을 이룰 만한 사실적 작품이다. 南判尹遺事에 실려 전하는 이 작품에서 남정군의 용감함과 보국 충의의 모습을 李牧과 馬援에 비교하고 있다. 유교사상의 도덕 실천가였던 이들의 절의를 남정군이 남해안에 침입한 왜적을 몰아냄으로 해서 시현한 내용이다.

그리하여 「海岱가 永淸하고 禾穀이 離離하며 桑麻가 芃芃함」을 노래했다. 堯舜 시대의 淸州가 태평했으며 國富民安이었음을 비견했다.

처음의 한어버이 사롬사리 하려 할 재
仁心을 만히 쓰니 사람이 졀로 모다
플 뼛고 터을 닷가 큰 집을 지어내고
셔리 보십 장기 쇼로 田畓을 긔경하니
오려논 텁밧치 여드레 가리로다
子孫에 傳繼하야 代代로 나려오니
논밧도 죠커니와 雇工도 勤儉터라
요사이 雇工들은 혬이 어이 아조 업서
밥사발 큰나 쟈그나 동옷시 죠코 즈나
너희내 일 아니코 時節 좃차 사오나와 (雇工歌)

신유교 지식인들은 처음 관료직에서 상당한 의욕을 보이면서 중국 성현들의 생활 제도의 지침까지 도입하여 정착시켜 나갔다. 그러나 사화, 당쟁, 임란으로 인한 불안과 갈등으로 점차 위축되어 갔다. 왕정의 권위는 여전하지 못하고 의정부는 관리 통솔이 어려웠다. 한바탕 요원의 불길처럼 지나간 당쟁, 사화, 전쟁으로 인한 班常의 해이와 부정부패가 일기 시작한 때문이다. 조선 초에는 신유교 지식인들의 仁心이 새국가 형성과 제도 개혁에 적극적이었다. 따라서 군신이 청렴, 근검, 절의를 지켜나갔으나 昨今에 와서는 「요사이 雇工들은 혬이 어이 아조 업서」와 같이 애국, 충군이 없고 따라서 청렴과 절의를 잃어가고 있음을 일깨워 주는 내용이다. 武科 출신인 許坤 작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적다. 李梧里가 답가를 지어

Scanned with CamScanner

화답한 것으로 보아 알려진 인물로 짐작된다. 芝峯類說에는 許堉의 작품으로 기록이 전하고 雜歌에서는 宣祖께서 지었다고 한다.

조선 전기 가사의 사상적 측면에서 먼저 유교사상을 살펴 보았다. 인의정치에서 三皇과 二帝三王 그리고 周公의 역사상, 중사상, 大法인 홍무사상을 가사에서 노래함으로써 仁義의 고대 유교사상을 맥락에 따라 고찰했다.

도덕실천에서는 고대 유교사상을 집대성하고 발전시킨 주대와 그뒤 체계화와 실천에 옮긴 사실을 가사문학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알아 보았다.

도문일치에서 도학의 면려는 勸義指路歌와 雇工答主人歌에 주로 나타났다. 도학숭상에서는 樂志歌, 道德歌, 琴譜歌, 相杵歌에서 현저하였고 청렴절의는 萬憤歌, 俛仰亭歌, 南征歌, 雇工歌에 주로 나타나고 있었다.

Ⅵ. 結論

조선 전기 歌辭 26 편은 그 題名으로 볼 때 대체로 歌와 別曲으로 구별된다. 조선 전기 가사 문학의 세계관 표출을 보면 「歌」의 主理的 觀念論과 「別曲」의 主氣的 觀念論의 대립적 표출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大體的인 경향에 불과하다. 다만 이 두 가지 세계관을 止揚한 仙的 세계관과 한민족 고유 사상의 세계관에 대한 표출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점이다. 또 조선 전기 가사가 性理學的 이념을 주요 표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문학적인 면의 乾燥性을 지적받기 쉬우나 사류 지식인들의 정신 세계를 주로 優雅美나 崇高美를 통하여 표출함으로 가사문학에 대한 평가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姜銓燮, 韓國詩歌 文學 硏究, 圖書出版 大旺社, (1986)
金起東, 歌辭文學硏究, 서울: 正音文化社, (1986)
金東旭, 歌辭文學硏究, 서울: 正音文化社, (1986)
金聖培, 朴魯春, 李相寶, 丁益燮, 註解歌辭文學全集, 서울: 集文堂, (1981)
柳承國, 韓國의 儒敎, (1980)

Scanned with CamScanner

徐元燮, 歌辭文學硏究, 서울: 正音文化社, (1983)
李能和, 朝鮮道學史, 普成文化社, (1992)
李東英, 歌辭文學硏究, 서울: 正音文化社, (1986)
李敏弘, 士林派文學의 硏究, 서울: 螢雪出版社, (1987)
李秉烋, 朝鮮前期畿湖士林派硏究, 서울: 一潮閣, (1987)
李相寶, 韓國歌辭文學의 硏究, 서울: 螢雪出版社, (1974)
李相寶, 李朝歌辭精選, 서울: 精硏社, (1965).
李廷卓, 韓國山林文學硏究, 서울: 螢雪出版社, (1984)
林基中編, 歷代歌辭文學全集, 東西文化院, 驪江出版社, (1987)
丁益燮, 歌辭文學硏究, 正音文化社, (1986)
차성환, 한국종교사상의 사회학적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2)
崔康賢, 歌辭文學硏究, 서울: 正音文化社, (1986)
崔斗植. 韓國詠史文學硏究, 太學社, (1987)
한영우, 정도전사상연구, 한국문화연구총서, (1973)
玄相允, 朝鮮儒學史, 玄音社, (1986)

Scanned with CamScanner

Каса[138] дууны учир зүйн уялдаа холбоо хандлага

Кан Шингү

[Хураангуй]

Каса дууны зохиол олон тоотой байдаг нь тэрхүү зохиолч, шүлэгч, тосгоны номч нар ихээхэн анхаардаг байсныг харуулж өгдөг. Номч хүмүүсийн "Каса" хэлбэрийн бүтээлийг гойд сонирхож байсан нь тэдний бодож ойлгодог, мэдэрдэг өндөр түвшний илэрхийллээс тэс өөр чөлөөтэй арга барилаар илэрхийлэгдэж, нарийн түвшний дууны аяар бус, хэн хүний дуулж чадах аян дээр дуулагддаг байсан "Каса" зохиолын онцлогоос болсон хэмээн бодогддог. Гэвч энэ байдал нь Жусон улсын сүүл үед бий болсон нөхцөл байдал бөгөөд Жусон улсын эхэн үеийн нөхцөл байдал өөр байсан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Өмнөх үеийн "Каса"-г судалж байсан судалгааг сөхөж үзвэл 1-рт, "Каса" дууны зохиолын үүсэл хөгжлийн судалгаа, 2-рт, "Каса" дууны зохиолын хэлбэрийн судалгаа, 3-рт, агуулга дахь үзэл санаа, цаг үеийн байдлын судалгаа гэж товчлон өгүүлж болох ч эдгээрийг нэгтгэн бүтээл тус бүрийн судалсан олон судалгаанууд хийгдсэн нь харагддаг. Мөн "Ённам Каса", "Нэбан/гэрийн доторх/ Каса" гэх мэт газар орон, нийгмийн давхаргад холбогдох судалгаанууд байдаг. Хэдий тийм боловч "Каса" дууны зохиолын эхэн үе болох Жусон улсын эхэн үеийн бүтээлүүд, тэр дундаа "Сарим/номч мэргэд/" боловсролтой иргэдийн давхаргын "Каса" дууны зохиолын хэлбэрийн тал, агуулга, сэдвүүдээр тулгуурласан судалгаа нь бараг үгүй юм.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 нь Жусоны эхэн үеийн номч мэргэдийн давхаргын "Каса" дууны бүтээлийг авч үзэн, түүний илэрхийлэл дэх дуу(歌) болон шүлгийн хэлбэрийн дуу(別曲), Жусоны эхэн үеийн "Каса" дууны зохиол дахь ертөнцийг үзэх үзлийг гаргаж ирснээр тэрхүү зохиолын байр суурийг тодорхойлохыг зорьсон болно.

Жусоны эхэн үеийн "Каса" дууны зохиолыг Жусон улс байгуулагдсанаас хойш 17-р зууныг хүртлэх хугацааг тоймлон авч,

[138] Жусон улсын дунд үеэс дуулагдаж ирсэн уртын дуу

Scanned with CamScanner

“Имжинвэран/Эртний японы дайралтад өртсөн үе/” хүртэлх хугацааг хамааруулав. Учир нь “Имжинвэран”-ы үед улс төр, нийгэм, соёлыг бүхэлд нь хамарсан өөрчлөлт их байдаг. Хэдий тийм боловч тэр үеийг дайны төгсгөл үеэр гарсан зааглаж үзэх нь боломжгүй. Дайнаас үлдсэн хор нөлөө маш удаан хугацаанд үргэлжилж, тэр дундаа ертөнцийг үзэх үзэл, утга зохиолын түүхэн дэх илэрхийллийн бодит арга барилын талаарх хөгжлийг цаг хугацааны хувьд нарийн тодорхойлох нь төвөгтэй байдаг билээ. Судалгааны судлагдахуунаар “Каса” дууны хорин зургаан зохиолыг сонгон судлав.

Голлох үг : Каса- хэлбэрт шүлэг, Жусоны эхэн ба сүүл үе, Сарим/номч мэргэд/, номч мэргэдийн давхарга, Дуу, Имжинвэран

Scanned with CamScanner

한국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소설의 정치성

현 길 언[139]

목차

1.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극복하는 소설
2. 새로운 방법과 고착된 의식
3. 해원과 귀향의 구조와 그 의미
4. 윤리적 이데올로기와 혁명적 이데올로기: '외삼촌'의 정체

[국문 초록]

1980년 중반 이후 국내 정치 상황이 극히 유동적인 때에 소설계에서는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극복하려는 소설이 쓰여졌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출간된 황석영의 신작 『손님』은 당시 소설이 추구했던 문제를 환기시켜 주고 있다.

이 작품은 역사의 복원이라는 리얼리즘의 정신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리얼리즘 기법을 시도했다. 그것은 환상적 기법으로서 굿을 빌어서 죽음 이후의 새로운 세계를 상정하는 것이었다. 작품의 주제도 작가의 의도에서 밝혔듯이 한국의 근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 사이에 이글어진 한국인의 초상을 추구했다. 그런데 이러한 의도는 작가의 이념에 치우쳐 편향된 정치의식을 형상화하는데 그쳤다.

작품의 또 하나의 주제인 전쟁으로 상처받은 이들의 해원의 문제도 귀향 모티브로 처리했으나, 그 비극의 원인을 미군과 기독교 교인들에게만 돌렸고, 작품의 공간 설정도 이북에 치우쳐 있으며, 증언에 의하여 비극의 역사를 복원하는데도 증언자의 편향 때문에 신뢰성을 잃으므로, 진정한 해원의 문학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손님들인 마르크시즘과 기독교로 인해 야기된 민족 구성원 간의 대립을 화해로 극복하는 구조에서, 그 화해는 증언에 의한 역사의 복원에서 가능한데, 그 증언이 신뢰성을 얻지 못함으로 화해의 논리가 형식에 그쳐 있다. 이러한 화해를 이루는데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민족주의와 마르크시즘과 기독교가 혼합되어 있는 인물을 설정했는데, 그 인물 자체가 분단된 민족의 비극을 포용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즉 북한의 주체사상 이념을 체질화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화해도 이념적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139] 울란바타르대학교 석좌교수.

Scanned with CamScanner

민족문학의 지평을 위하여 발표된 이 작품도 그 역사 인식의 편향성 때문에 또 하나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치문학으로서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주제어 : 황석영의 『손님』, 새 리얼리즘기법, 리얼리즘정신, 해원의 문학, 정치문학, 주체사상문학

1.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극복하는 소설

『창작과 비평』[140]복간호(1988 년 봄호)에 게재된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이라는 권두 좌담[141] 기사는 그 시대의 문화적 상황을 설명해준다. 그 대담 중에 다음과 같은 발언은 그 동안 일부 진보적 사회운동가 측에서 논쟁을 거듭해왔던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사시하고 있다.

(1) 임(영일) --민족문제란 단순히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계급적 프리즘을 통해서 주어지는 문제입니다.(p,25) 이 점에서 민중운동의 성장이란 구체적으로는 기층생산대중들이 그들의 생활상의 요구들을 풀어나가려는 일상적이고 혹은 조직적인 싸움의 과정에서 생생하게 민족문제와 맞대면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요. (---)이미 이 부분에서 그것과 부딪치고 있음을 확인된다고 보아집니다. 민중운동의 성장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족문제, 분단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인식할 수 있었던 사회층은 분명히 기층민중이라기보다는 소시민 인텔리층일 수 있습니다. ---소시민적 민족주의는 하나의 전망으로서 진보적인 자기 기능을 갖는 것이었을지언정 명확한 계급적· 계층적 기반 위에 선 것이 아니었고, (--)이들에 의한 분단문제는 관념적인 다위성에 치우쳤던 감이 있습니다. (----) 그러나 80 년대의 상황의 변화를 민중운동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제는 민족문제를 보는 관점의 변화도 분명히 요구되는 것이고……

---

[140] 1966 년에 계간지로서 창간된 이후 1980 년에 강제 폐간되었다가 1988 년 봄호로 재 복간되었다. 그 동안 부정기적으로 간행되었다.

[141] 좌담에는 최원식(문학평론가 국문학교수), 임영일 (사회학 교수), 전승희(영문학자), 김명인(문학평론가)이 참여했는데, 기사를 보면 사회 없이 방담 형식으로 진행된 것 같다.

Scanned with CamScanner

이 발언은 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중운동은 기층 생산대중 즉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민중운동이어야 한다.(지금까지는 소시민적 민족주의 운동으로 흘러갔다) 이 기층민중 즉 계급적 민중운동은 결국 민족문제와 만나게 되는데, 1980 년대 후반에 들어와 그러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즉 민족운동과 민중운동은 계급운동이 되어서야 만나게 된다는, 즉 계급문제와 민족문제의 통일이 요구된다는 발언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좌담자가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다.

(2)--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동시적 해결이 가능하다, 하나의 싸움을 해나가는 과정이 동시에 두 개의 모순을 푸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예컨대 다국적자본이 들어와 있는 기업에서 싸움을 한다고 할 경우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은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김명인, p,26)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의 실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에 의해서 민족 통일을 실현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노동자에 의한 통일, 한반도 상황에서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두 방담자는 지금까지 논쟁을 거듭해온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 계급에 의해서 실현되는 통일된 한국의 구체적인 모형, 즉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민족주의를 넘어선 또 다른 지평에 있다는 것이다. 당시로서는 매우 암묵적이면서 예민한 정치성을 포함한 발언이다.

이 문제가 1980 년대 후반기에 한국의 지성그룹이 주도하는 잡지에서 공공연히 논의되었다. 한편에서는 설사 드러내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중 계급운동 그룹에 의해서는 이러한 조직 노선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1980 년대 한국사회는 이념의 혼란과 새로운 이념 창출을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 여년의 시차를 두고서 황석영의 소설 **「손님」**[142]**을** 읽을 때,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난제였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

142 이 작품 『손님』 (창작과 비평사, 2001)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서평을 썼는데, 『문학과 종교』 7-2, 문학과 종교학회,2001 년 가을) 이 글은 그 서평에 이데올로기와 정치성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손님」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을 쓸 계획이다. 이 작품을 인용하거나 작품의 내용을 이 글의 본문으로 인용하거나 요약하여 처리할 경우에 그 내용이 게재된 작품의 페이지를 밝히겠음.

Scanned with CamScanner

한민족은 오래 동안 단일민족으로 단일 국가를 형성해 왔다. 삼국시대 이후에 반도 안의 신라 중심의 국가로 정립하기는 하였지만, 삼국과 고려와 조선조가 한민족의 전통을 이은 국가였다. 그러나 2 차대전 이후의 분단 상황은 일제 강점의 유산이면서 동시에 세계 냉전체제의 희생물이라는 점에서, 민족주의는 냉전체제를 극복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외세로부터 자유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반미와 상통하게 되었다. 2 차대전 이후 미군의 점령으로 분단이 고착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의한 미군 주둔이 민족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정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서 민족주의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단을 고착시키는데 미국과 소련이 공동의 책임이 있고, 더구나 북한 사회주의 국가는 민족국가와는 그 이념이 상치된다는 점에서 논리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문학에서도 반미와 통일의 바탕에는 민족주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것이 발전된 경지에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논리를 찾기도 한다. 그래서 민족문학의 바탕에는 반미와 반자본주의 논리가 깔려 있고, 이 문제를 극복하여 새로운 이념으로 정착된 것이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민족'이나 '민족주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윤리적 이데올로기이다. 한국사회에서 강력한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는 타고난 것이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단지 시대 상황에 따라 그 양상이 변모할 따름이다. 일제 강점기에서 민족주의는 통치체제에 대한 저항 이데올로기였으므로 선택 사항이었고 그래서 가치 지향적이었다. 해방 후 정부 수립 이전까지도 이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에 대응하는 선택 사항이었으므로 역시 이념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민족 문제는 선택 사항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가 선택 사항이 되어 가치의 대상이 된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작용하고 있다.

1980 년대 이후 민족주의는 통일 지상주의와 만나면서 애매한 모습으로 한국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해 왔다.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됨으로 민족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세계가족시대에서 볼 때에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극히 정치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적 상황에서 민족주의 선호도와 상관된다. 이 문제는

Scanned with CamScanner

황석영의 「손님」을 통해서 이러한 혼란된 정치이데올로기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2. 새로운 방법과 고착된 의식

이 작품에서는 황해도에서 월남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목회자가 된 류목사가 형의 죽음을 안고 고향을 방문하여 한국전쟁 당시에 살육이 벌어졌던 고향의 실상을 알고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형 류장로와 공산주의자로 변신한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알게 된다. 비극의 희생양이 된 모든 이들은 황해도 진오귀굿을 통해서 과거의 원한을 잊고 저 세상으로 천도하여 복을 누리도록 하는, 일종의 귀향모티브의 작품이다.

그런데 작가는 이 작품을 쓰면서 그 나름의 방법을 모색했다. '작가의 말'에서 창작 방법과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과거의 리얼리즘 형식은 보다 과감하게 보다 풍부하게 해체하여 재구성해야 된다. 삶은 놓친 시간과 그 흔적들의 축적이며 그것이 역사에 끼여들기도 하고 꿈처럼 일상 속에 흘러가 버리기도 하는 것 같다. 역사와 개인의 꿈같은 일상이 함께 현실 속에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어서도 안되고, 화자는 어느 누군가의 관점이나 일인칭 삼인칭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등장 인물 각자의 시점에 따라 서로를 교차하여 그려서 완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p,260, 작가의 말)

과거의 리얼리즘을 극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의 진상을 복원하고 그 극복을 도모하려고 했다. 복잡한 역사적 사건을 정직하게 밝히는 데는 단일한 기법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전통적인 리얼리즘기법을 넘어 새로운 리얼리즘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작가가 증언하려는 역사적 사실은 분단 상황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건이므로, 그것을 밝히는 데는 적절한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만큼 작가는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고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법적인 문제와 달리 작가는 '손님' 격인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 틈바구니에서 겪어야 했던 민족의 비극적 상황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려는 입장에서 '주체형성의 위기와 결부지었다' [143]고 작품의 주제를 밝히고 있다.

---

[143] 임홍배, 「주체의 위기와 서사의 회귀」 『창작과 비평』.117 호, 창작과 비평사, 2002 년 가을. pp,370.

Scanned with CamScanner

기독교와 맑스주의는 식민지와 분단을 거쳐오는 동안에 우리가 자생적인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타의에 의하여 지니게 된 모더니티라고 할 수 있다. 전통시대의 계급적 유산이 남도에 비해 희박했던 북선지방은 이 두가지 관념을 '개화'로 열렬하게 받아들였던 셈이다. 이를테면 하나의 뿌리를 가진 두 개의 가지였다. 천연두를 서병(西病)으로 파악하고 이를 막아내고자 했던 중세의 조선 민중들이 '마마' 또는 '손님'이라 부르면서 '손님굿'이라는 무속의 한 형식을 만들어낸 것에 착안해서 나는 이들 기독교와 맑스주의를 '손님'으로 규정했다.(p,261-2.작가의 말)

여기에서 창작 의도가 분명하다. 해방 후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한 민족 분단과 그 전쟁을 소설화함에 있어 '주인과 손님의 틀'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약한 주인집에 들어온 손님들의 싸움으로 비극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주인과 손님 간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 이 소설의 의도인데 그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그 비극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은 진지했으나[144] 인간과 세계와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은 경직되어 있다. 작품은 생(生)과 사(死), 현재와 과거, 현실과 환상의 중첩되어 넘나들면서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꿈과 무속 양식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자유로움과 다층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인간을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는 고착된 이념에 치우쳐 있다. 그것은 기법이 다양하고 혁신적임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매우 정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큰 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황해도 진오귀굿을 근간으로 원한과 갈등을 해소하는 해원굿의 구조로 짜여져 있다. 갈등의 해소는 고향으로 돌아감으로 가능한데, 작품에서 귀향 모티브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땅의 고향과 영원한 내세의 고향이다. 여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작품의 구조도 이원적이다. 미국과 북한의 공간, 이 땅과 내세, 과거와 현재 등 대부분의 소설의 자질들도 이원적이다.

둘째는 작품은 미궁에 묻혀 있던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문제와 그 해결'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 해결은 왜곡된 역사를 바르게 복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기에 첫째 구조는 본원적인데 비해 이 문제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이다. 사실이 밝혀짐으로 화해와 해원이

---

144 성민엽은 이 작품에서 흔히 나타나는 교차서술의 양식은 '다성적 구조'로 이해했다. 성민엽, 「이데올로기 너머의 화해와 그 원리」, 『창작과 비평』 114 호, 창작과 비평사, 2001 년 가을, pp,246.

Scanned with CamScanner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의 해명은 주로 등장인물들의 증언에 의하게 되는데, 그 증언에 따라 인물들은 세력화된다. 그런데 그 세력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증언 자체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더구나 증언으로 문제가 해명되는데, 증언자는 사건의 중심인물의 개입이 없이 제 3 자(구경꾼)들 뿐이다. 이 점에서 증언의 신뢰도는 문제가 된다.

셋째는 손님인 마르크시즘과 기독교와 주인인 우리와의 삼각구도에서 전개된다. 그것은 마르크시즘과 기독교의 갈등 양상이 크게 부각되다가 차츰 약화되면서 주인의 문제로 돌아온다. 여기에서 살아있는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로 변신하고, 죽은 공산주의자들도 그 해원되는 과정을 통해서 마르크시스트가 아닌 조선사람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삼각관계의 구도가 무너지면서 하나로 통합이 되지만 기독교와 민족은 통합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여기에서 마르크시즘과 기독교의 관계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넷째,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결국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극복하는 길을 시사함으로 결말에 이른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 민족이 반세기 넘게 뼈에 사무치도록 붙잡고 살아온 문제인데, 그렇게 간단한 증언만을 통해서 진정한 해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역사적 진실을 해명하는데 있어서 증언자의 균형이 문제가 된다. 가려진 실상을 밝혀내거나, 왜곡된 진실을 복원하는 것은 작가가 의도했던 대로 새로운 리얼리즘의 기법을 필요로 했는데, 그것은 방법으로만 쓰여졌고, 인물과 사태의 진실성을 강화하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작품의 정치 역사적 의미가 밝혀질 것이다.

3. 해원과 귀향의 구조와 그 의미

작품의 중심 플롯은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의 핍박을 받고 고향(황해도 찬샘골)을 떠나 월남하여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기독교 목사가 되어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류 요섭 목사가 고향을 찾아가 가족과 친지를 상봉하면서, 당시 전쟁 중에 고향에서 일어난 사태의 실상을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다. 한국전쟁 당시 전황이 역전되어 미군이 북진하게 될 무렵, 황해도 구월산에 숨어있던 기독교 청년으로 중심으로 조직된 통일단원들이 미군이 진주하기 이전에 고향 치안을 장악하고 좌익세력들을 상대로 보복한다. 이 과정에서 비극적인 살육 사건이 벌어졌는데, 류 목사 형인 류 장로가

Scanned with CamScanner

가해자로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가족도 다 버리고 단신 월남한 류 장로는 미국으로 건너가 살면서도 그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고민하다가 류 목사가 귀향하기 직전에 죽는다. 황해도 짓지노귀굿의 뒤풀이 양식을 빌어 가해자나 피해자나 서로 용서하고 '좋은 데루 천도'하는 결말로 되어 있다.[145]

형식적으로는 전쟁 당시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손님들의 싸움에 희생된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피차 지녔던 원한을 풀고 화해하여 천도되는 결말로 처리되고 있다. 이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근거는 모두 한 민족이고, 그러한 비극은 전적으로 손님들 탓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다.

작품의 중심은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방황하며 살아온 나그네가 귀향함으로 그 동안에 간직하고 있었던 한을 푼다는 구조인데, 이 귀향과 해원이 맞물림이 작품 이해의 관건이 된다. 고향을 떠난(배신한)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자기 회복을 의미한다. 그 안에는 도덕적인 차원의 회복과[146], 본질적인 차원의 회복이 있다. 이 회복은 역사적인 사실이 밝혀짐으로 가능하다. 즉 한국전쟁 당시에 우익 기독교청년단원들이 저지른 만행(고향사람들의 표현)을 다 드러내놓고 역사적 진실을 확인했을 때에 가능해진다. 그러한 면에서 이 회복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잘못된 역사의식을 회복하여 민족 공동체로 귀환하는 것이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그것도 남조선이 아닌, 조국(북한)이 그렇게 증오하는 나라 미국으로 건너가 자본주의 부스러기를 얻어 돈을 벌고 살던 류장로는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죽어서 뼈 한 조각으로(동생이 갖고 간다) 고향으로 돌아왔다. 류 목사는 고향을 버리고 떠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특히 형을 대신하여),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사태의 진상을 모두 알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승의 고통을 잊고 천도되어 영생하기를 기원한다. 이 과정에서 고향 떠난 자의 귀향과 한을 갖고 죽은 자들의 해원과 살아있는 자의 역사 회복이 이루어진다. 류 목사가 평양에 도착해서 친지들을 만나고 고향을 찾아가고, 조카와 형수와 외삼촌을 만나는 모든 과정은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잃어버렸던

---

[145] 작품은 모두 12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 장은 황해도 짓지노귀굿의 12 마당을 그대로 빌었다.

[146] 기독교 성경 신약 누가복음 15 장 11-32 절.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타향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기뻐 맞으면서 그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Scanned with CamScanner

민족적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해결의 과정에서 밝혀진 실상을 독자가 신뢰할 수 있을까? 그 신뢰성은 작품 자체의 구조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

황해도 찬샘골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에 대한 증언이 사실로서 모든 독자가 신뢰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증언자들이 균형있게 선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좌우 이념의 대립으로 발생한 냉전의 부산물이다. 그러므로 전쟁의 와중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좌우 양편 사람들에 의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증언되어야 한다.

작품에서 사건의 진상은 화자의 회상과 환영(幻影)으로 나타나는 망자들의 진술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직접 증언으로 밝혀진다. 우선 환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망자인 류장로(기독교)와 순남의 아저씨(노동당원)와 이찌로라는 별명을 가진 박일랑(노동당원)에 의해 증언된다. 살아있는 증언자로서는 류장로의 아들과 부인, 류목사(기독교)의 외삼촌과 전쟁기념관 안내원들이다. 여기에서 류장로 형제를 빼고는 모두 마르크스 추종자이거나 북쪽 체제 사람들이다. 외삼촌은 하나님은 믿기는 하나, 그것은 북한 식 믿음이다. 류 장로의 아들 단열(낳았을 때 다니엘이라는 이름이었다)은 기독교 신앙을 버렸고, 그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지금은 북한 체제에서 북한식으로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북한 체제 사람들로서 류 장로와는 다른 입장에서 사건을 보고 있다. 이들에 의해 증언되는 사건의 진상은 북한 체제 한계 안에서 밝혀진 것이다.[147] 그 내용은 전쟁기념과 안내원의 미군 학살 진상을 설명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진상을 증언하는 자의 선택에서부터 균형을 잃고 있다.

더구나 류장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지 않는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민하다가 죽는다. 다음으로, 등장인물도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장편소설인 경우 많은 등장인물 중에 주인공인물에 대해 화자는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이 작품의 문제를 주인을 괴롭히는 '손님들의 싸움'에 두었다면, 그 두 부류의 손님에 대한 작가의 눈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허약한 주인을 괴롭힌 손님의 정체가 밝혀질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가 된

147 김병익은 작품의 이러한 요소를 '북쪽 시각으로 6.25 전쟁을 접근한 분단문학의 또 다른 지평을 연 것'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김병익, 「이념의 상잔, 민족의 해원」, 『문학동네』 28 호, 문학동네, 2001 년 가을, pp,536. 그렇다면, 이 작품도 과거 남쪽의 시각으로 한국전쟁을 인식했던 그 한계를 스스로 갖고 있다. 그것을 극복할 때에 진정한 화해의 소설의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순남이 아저씨와 박일랑과 그와 다른 편에 있는 우익 측 인물에 대한 배려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다. 작품의 시간성과 공간성이 '북한 방문기' 라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럴수록 작가는 양쪽을 동등하게 배려했어야 밝혀진 진상의 내용에 대해 독자는 신뢰할 수 있다.

만약 증언이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면, 작품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입장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비인간적인 폭격과 우익 인사들의 반인륜적인 작태를 밝히는 수준으로 끝날 수 있다. 그렇다면 밝혀진 사실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없다. 류 목사의 귀향도 무의미하게 된다. 형식적인 해원에 그칠 뿐이다. 굿판을 통해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천도되려면, 먼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신뢰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신뢰가 이념을 전제로 했다면 작품의 주제는 변하고, 해원의 의미도 정치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작품의 플롯은 역사적으로 묻혀있거나 아니면 남한이나 미국에서는 바로 알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류 목사가 형의 뼈 몇 개를 갖고 고향으로 찾아가서 사람과 친척을 만나는 일은 결국 막연한 고향 방문이 아니라, 류 목사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고향에서 듣는 사건의 해명은 너무 애매하고 또 일방적이다.

애매한 이유는 사건과 직접 관련을 갖고 있는 인물들은 거의 죽었기 때문이다. 류 장로도 죽었고, 순남의 아저씨와 박일랑도 죽었다. 이들 외에 오직 외삼촌과 어머니가 생존해 있다. 그 외 류 목사 또래의 어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자리에 등장하지 않는다. 직접 관여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들의 입을 통해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뿐이다.

해방 직후부터 야기된 기독교 세력과 좌익 주도 세력 간의 갈등은 전쟁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살육으로 번지게 된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순남의 아저씨와 박일랑이 변신에 대해서는 제 5 장에서 외삼촌과 순남이 아저씨의 환영에 의해 전해질 (pp,119-128) 뿐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수준이다.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준이다.[148] 해방 이후 북한 지역에 소련군의 진주하고,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자, 순남이

[148] 소설언어는 일상적 언어로 확인할 수 없는 세계를 제시해야 한다. 이 작품에 나타난 해방 공간에서 좌익세력이 우익 세력을 탄압했던 정황은 일상적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 이하이다. 그것은 작가가 순남이 아저씨와 박일랑에 대해 특별하게 배려했기 때문이다.

Scanned with CamScanner

아저씨와 박일랑이 공산당 간부가 되어 나타난다. 곳곳에서 기독교 세력과 공산주의자 간에 싸움이 벌어진다. 황해도 재령과 평양에서 3.1 절 기념행사 때 벌어진 사건, 신의주 사건은 그러한 시대 상황을 설명하는 한 예에 불과하다.

농촌위원장이 된 박일랑이 앞장서서 중농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거나 헌납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류 장로 부친과 상호 부친이 공산주의자에 의해 테러를 당하게 되는데, 이 상황은 매우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다(pp,131-132). 류 요한 장로의 환영이 나타나서 순남이 아저씨와 보안대원들이 교회를 접수하고 탄압하는 상황을 그리는데, 그 수준도 상식적이다(p,140). 그에 비해서 재령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막노동꾼이 된 박일랑이 의식화되어 공산주의자가 되는 과정은, 순남이 아저씨의 환영을 통해, 그의 인간성과 살아온 내력 등 무산자가 의식화되는 과정으로 상세하게 처리하였다(pp,135-137). 그들에 의해 토지개혁이 단행되고, 교회가 탄압당하는 사건은 사회주의 혁명을 과정에서 거쳐 가야 할 일로 인식하고 있다.

제 5 장에서 이러한 처리는 다시 제 10 장(시왕)에서, 과거에 목사가 되려다가 기독교연맹군 위원이 된 '외삼촌'에 의해 반복된다. 그는 화자에 의해 매우 정직하게 사태를 증언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 중등 교육을 받았으며 목사가 되는 것을 소원이었다(p,168). 그는 기독교 신자이며, 그 혼란기에도 인간적으로 우익 인사들을 위기에서 도와주기도 했고, 지금도 류 목사에 대해 우호적이다. 외삼촌은 순남이 아저씨가 공산주의자가 되는 과정과 그의 인간성 외삼촌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전하고 있다(pp,189-193).

이처럼 좌익 쪽 인물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에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처리하였다. 기독교도이면서 중농 지주가 된 류 요섭 목사 집안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류 목사네 가정은 동척 마름으로 친일해서 재산을 늘렸다. 기독교인이 된 후에 조상이 모시던 성주단지를 부셔버리거나. 집사가 되던 날에 마을 장승법수를 뽑아다가 수풀에 던져버리는(p,40) 등 집안의 전통과 마을의 풍습을 무시하는 편견이 심한 인물로 설정된다. 이것은 민족 전통을 부정하는 기독교의 한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순남이 아저씨는 가난하게 살았기에 교회에 다닐 형편이 안 되었고(p,79), 그 가난 때문에 공산주의자가 되었다고, 자신의 처지를 독자에게 말하도록 화자가 배려했다.

Scanned with CamScanner

작품의 인물과 플롯과 기법은 결국 용서받지 못할 한 사람 류장로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 점에서, 작품 형식의 자유스러움에 비해 주제는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민족 화해'에 이르는 데는 제한적이다. 작중 인물들은 모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였다. 순남이 아저씨와 박일랑과 류 요한 장로, 기독교 청년들로 조직된 통일단원들까지도 그렇다. 그들은 상대를 괴롭혔고 죽이기도 했으나 결국 자신도 죽거나 죄의식에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었으니 모두들 냉전의 희생자들이고 피해자이다. 허약한 주인집에 들어온 손님들의 싸움으로 당하게 되는 이들의 비극에 초점을 두었다면, 주인을 제외한 손님(기독교나 마르크시즘) 추종자들도 모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다. 그런데 작품은 유독 한 사람 류 요한만을 용서받지 못할 가해자로 설정되어 있다.

류 요한은 일평생 죄의식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는다. 그는 박명자네 식구들을 몰살시킨 일을 부담으로 갖고 한평생 살아왔다. 또 리당 위원장 박일랑을 죽인 일 때문에 죄의식에 시달린다(p,17). 그는 자신의 도덕성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다시 외부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되어 저주를 받는다. 그가 몰살시킨 가족 중 한 사람인 박명선으로부터 저주를 받고,(p,49). 아들인 단열도 그를 증오하고 배척한다(p,94). 박물관 해설원과 당시 참상을 목격하고 살아난 증인들인 김명자, 주창원, 최경녀, 조순원, 유매물, 리인화로부터 우익이 저지른 학살의 참상을 증언하는 가운데 그를 저주한다(pp,108-113). 그들은 그 사건이 미군이 저질렀다고 하지만, 요섭은 그 때는 아직 미군이 진주하지 않았으므로, 우익청년단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판단한다. 그 안에 류 요한이 있다. 또 그는 아내로부터도 배척을 받는다.

"그 인간 제명에 죽었구만. 차라리 우릴 데리구 갔으믄 닞구나 살디. 찬샘골서 죄인으로 십넌 세월얼 보내서요"

"형수님, 그 얘긴 잊읍시다."

"류요한이가 맺사람이나 쥑였넌지 시동상은 아오? 자그만치 내가 아는 것만해도 우리 동니서 열 사람이 넘어요." (p,151)

요한의 아내는 시동생 요셉과는 화해가 되지만 남편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시동생이 갖고 온 남편의 뼈 한 조각을 보고서야 그에게 죽임을 당한 이들도 죄 많은 류 요한 장로의 넋을 용서해 줄 것이라고 한다(p,156). 이러한 아내의 생각은 류 장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임을 강조한다.

Scanned with CamScanner

이처럼 류 요한 장로는 철저한 악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도록 설정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그를 용서함은 관용이다. 류요섭 목사가 고향을 방문하여 일가 친척들을 만나 고 당시 비극적인 상황을 알게 되는 과정은 결국 형의 죄상을 밝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해방 당시 정국을 소개하는 상황에서도 망인이 된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류요한 장로는 한복 수의를 입었고, 순남이 아저씨는 인민복 차림이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이 현재 처지를 말하는 것이다. 한 사람은 완전히 죽었으나 다른 한 사람은 그 때 입었던 옷을 벗지 않아도 될 처지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작자의 편향된 의식을 읽을 수 있다. 마르크스도 기독교도 다 무의미하다면 왜 순남이 아저씨는 인민군 복장으로 나타나는가?

상황 설정도 균형을 잃고 있다. 주인을 무시한 손님들의 싸움이라면, 두 손님이 저지른 싸움에 대해 균형있게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해방 직후 새로운 세력에 의한 토지개혁은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사건처럼 개괄적으로 설명했고, 우익 청년단체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치밀하고 사실적으로 처리했다.[149] 특히 그 상황을 중립적인 인물 외삼촌에 의해서 증언된다. 그는 류 요한의 비인간적 만행이 숨김없이 세상에 전하는 기능적 인물로 등장한다.

원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서 한 마을이 살육의 장이 되었고, 그 때에 죽은 수많은 원혼들의 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류 목사의 귀향을 계기로 그 한이 풀리고 억울하고 불쌍한 원혼들이 천도될 수 있다. 그 천도는 민족의 동질성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가능한 일이다. 아버지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였던 류 장로 가족들이 그 동생이 들고 온 뼈 조각을 보고 용서하게 되는 것은 이념으로 파탄된 가족 관계를 회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류 장로의 귀향은 결국 형의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류장로의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한 자책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149 그 상황은 8 시왕-심판마당-에서(pp,167-249) 처리하는데, 이 장은 작품의 클라이막스로서, 류요한의 광적인 만행이 치밀하게 나타나 있다. 분량으로도 이 작품 12 장 중에 8 장 한 장이 무려 79 쪽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량은 작품 전체 254 페이지의 32%에 해당한다.

Scanned with CamScanner

가족 공동체, 더 나아가서 민족공동체를 파탄시킨 것은 마르크시즘과 기독교라는 두 이념이었다면, 이 이념에 의해서 파탄된 가족과 민족 공동체에 대한 서사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해원을 통한 천도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이 두 이념의 옷을 입고 나타난 손님들에 대한 인식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마르크주의자였던 순남이 아저씨나 이찌로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에 기독교의 옷을 입은 류 장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인식을 그대로 나타낸 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러한 불균형은 류 장로에 대해 정직하게 인식하려고 했던 (형식적으로) '외삼촌'의 존재를 통해서 검증될 것이다. 작품에서 민족주체적 입장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외삼촌'은 과연 중립적인 인물인가.

4. 윤리적 이데올로기와 혁명적 이데올로기: '외삼촌'의 정체

작품은 대립에서 화해로 변모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 손님격인 마르크시즘과 기독교로 인해 야기된 대립을 화해로 극복되도록 전개되었다. 그래서 땅에서는 이념의 족쇄에 묶여 고통당하던 이들이 이제는 그 원한을 풀고 저 세상에서 자유로워지는 양식이다. 그런데 진정한 해원은 사건의 진상을 정직하게 밝혀질 때 가능하다. 그 '정직'은 작품의 구조를 통해서 제시되고, 독자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될 때에 진정한 해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작품은 류요한 장로의 살인마적 행동을 세상에 알리는데 치중하였다. 공간 배경은 미국과 북한이지만, 북한에 치우쳐 있고, 류요한에 대해서도 죄인으로서 그의 고통과 고독에 대한 천착이 없이 그의 엽기적인 행동을 드러내는 데만 치우쳐 있다. 그가 왜 그렇게 엽기적인 행동을 감행해야 했으며, 고향을 떠나 타향에 방황하여 사는 동안 돈은 있으나 행복할 수 없었던 그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그 시대 비극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모두 죽었고, 이제 이 사건을 증언하는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요한의 가족과 동생 류 요섭 목사와 그 외삼촌만 남았다. 이들은 그 아픔을 증언하는 중심인물들로서 역사적 비극과 그 증오를 현실적으로 풀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류 목사는 인간의 사유로 감당할 수 없을 정황에 처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시종 일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Scanned with CamScanner

이러한 처리는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화해의 구조를 완벽하게 구체화시키는 장치처럼 보인다. 과거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의 정황에 처한 망자들의 의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승에서 자행되었던 우익 측 이념으로 의한 미움과 증오와 대립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증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손님의 실체에 대한 정직한 이해를 넘어 이찌로가 말했듯이 '조선의 하나님을 믿는 일'이 비극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은 고향 모티브를 통해서 처리됨으로 더욱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고향은 땅 위의 고향이 아니라, 인간이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일 수도 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또는 돌아가려고 할 때에 모든 것을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평안은 진실이 밝혀질 때만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일을 중심에서 감당하고 있는 '외삼촌'의 존재가 중요하다. 그는 과연 중립적인 인물인가.

그는 앞에서 확인한 바대로 외형적 조건으로 보면 한국기독교인의 중심인물이다. 그의 인품도 류 요한 장로처럼 편협하지 않았다. 조선기독교연맹에 관여했고, 우익인사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보호해 주는 도량과 포용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북쪽 체제에 있는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북조선 인민이다. 또한 그는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식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보면 그는 외형적으로는 중립적이다. '외삼촌' 속에는 민족과 마르크스와 기독교인의 모습이 뒤섞여 있으면서, 두 손님의 속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그의 정체는 두 손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민족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외삼촌의 기독교적 속성은 기독교의 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에서 말하는 소위 '조선식 기독교'인일 뿐이다. 그러한 점에서 그는 오히려 마르크스적인 요소를 기독교보다는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조선의 마르크스주의자'이고 '조선적 기독교인'의 전형이다.

이러한 인물로 대신하는 이념은 민족주의와 마르크시즘이 북한식 기독교가 혼합되어 있는, 민족주의를 넘어선 또 다른 이념으로 무장된 인물임을 의미한다. 그것은 현재 북한의 주체사상 이념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외삼촌은 그 체제 안에서 중도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인물을 통해서 분열과 비극을 극복하고 화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류 요섭과 순남이 아저씨와 박일랑, 그리고 당시 비극을 증언했던 살아있는 사람들이 혼합된 인물이다. 그래서 소설의

Scanned with CamScanner

클라이맥스에서 외삼촌에 의해 류 요한 장로의 정체를 밝혀낸다. 그것은 일종의 심판이다. 심판이 끝나서야 원혼들은 땅을 떠나 저 세상에서 만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작품은 '외삼촌'의 존재를 통해서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외삼촌은 민족주의와 마르크시즘이 혼합된 이데올로기를 대신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작품의 중심구조가 주인인 민족과 손님인 마르크시즘과 기독교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독자는 외삼촌으로 대신하는 이념적 인물을 간과해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손님」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새 이데올로기를 민족주의로 포장하여 제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문다. 이미 동구권이 무너지고, 김일성 사망 이후 그 권력이 세습되고 있는 21 세기에, 어떻게 이러한 정치 변혁의 이데올로기를 상정할 수 있을까.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수긍할 수 없는 사안이면서도 문학으로서는 가능한 일이다.

이제 동구권의 몰락으로 남북의 대치 상황은 급격하게 변모하면서 통일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남북의 교류는 물질 교류인적 교류를 넘어서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서 정치적 교류에 이르고 있고, 통일이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시민들은 모두 인식하고 있다. 이제는 통일이 관념이나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1 세기 한국은 상당한 사회 정치 변동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변혁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대치 상태가 화해로 변한다는 것은 정치 경제는 물론 사회와 개인의 의식까지도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정치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족주의 통일지상주의 이념이다. '한국민족이 주체가 되어 통일을 이룩하자'는 이념에 대해서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그 민족의 주체는 조선식 마르크시즘 조선식 기독교가 합치되면서 한국의 역사 전통에 뿌리박은 이념이다. 그것은 민족주의를 넘어서 있는 김일성 주체사상과 얼마나 거리가 있을까.

작품에서 '외삼촌'은 대립되는 두 이념을 통합하는 중간자적 존재이다. 이에 형의 유골을 들고 고향을 찾아온 류 목사도, 갈등과 적대 관계에 있던 세력 간의 관계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 고향은 어머니와 같이 그러한 이념을 모두 초월할 수 있는 공간이다. 류목사도 민족의 화해를 원해서 고향을 찾았다는 점에서 외삼촌과 같은 이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것은 통일을 대비하여

Scanned with CamScanner

취할 수 있는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선택을 작품은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낭만적이며 혁명적인 사안이다.

이러한 혁명적인 발상도 한국의 정치 사회 상황이 혼란스러운 시대이기에 가능하다. 「손님」은 2000 년대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통일과 민족화합을 전제한 정치이데올로기를 시사하는 작품이다. ***

Scanned with CamScanner

Солонгосын үндэсний үзэл санаа болон романы улс төрийн чанар

Хён Гилон

[Хураангуй]

1980 оны дунд үеэс хойш дотоодын улс төрийн байдал туйлын тогтворгүй байх үед утга зохиолд үндэсний зөрчил, нийгмийн давхаргын зөрчлийг даван туулахыг эрмэлзсэн зохиолууд бичигдэж байлаа. Түүнээс хойш 10 жил өнгөрсний дараа хэвлэгдсэн Хуан Согён-ий “Зочин” бүтээл нь тухайн үеийн утга зохиолын тэмүүлж байсан асуудлыг дэврээж өгсөн юм.

Энэ бүтээл нь түүхийн эргэлт хэмээх реализмийн үзэл санааг хөгжүүлэхээр шинэ реализмийн аргыг хэрэглэх гэж оролджээ. Энэ нь хоосон төсөөллийн арга бөгөөд бөө мэргэчдээс аргалж гуйгаад үхсэний дараах шинэ ертөнцийг төсөөлөх байв. Бүтээлийн сэдэв ч зохиолчийн хүсэл санааг харуулах мэт солонгосын шинэчлэгдэн хөгжихөд хамгийн их нөлөөлсөн Христийн шашин, Марксийн үзлийн хооронд холбирсон солонгосын өвөг дээдсийг гаргахыг зорьжээ. Гэхдээ энэ зорилго нь зохиолчийн үзэл санаанд нэвт орон туйлширсан улс төрийн үзэл суртлыг бий болгосноор дуусч байна.

Бүтээлийн бас нэгэн сэдэв болох дайнаас шархалсан далайчдын асуудал ч эх орондоо буцахыг хүсэх хүслээр солигдож, тэрхүү гунигт явдлын шалтгааныг америк цэрэг болон христчин хүнрүү эргүүлж, бүтээлийн орчныг хойд зүгт чиглүүлж байгаа бөгөөд өөрийн гэрч үгээр дамжуулан гунигт харууслын түүхийг дахин эргүүлэхэд гэрчлэгчдийн туйлшралаас болоод итгэх байдал алдагдаж, улмаар жинхэнэ далайчны уран зохиол болж чадсангүй.

Мөн зочид болох марксизм болон христийн шашнаар дамжуулан яригдаж буй ард иргэдийн хоорондын зөрчлийг харилцан яриагаар бүрэн гүйцээсэн байдалд тэрхүү харилцан яриа нь гэрч үгээр бий болох түүхийг дахин сэргээж чадах байвч, тэрхүү гэрч үгс нь итгэл олохгүй байснаар харилцан яриа төдийгөөр дуусчээ. Эдгээр харилцан ярианууд нь голлох үүрэг хүлээхийн тулд үндэсний үзэл болон марксизм, христийн шашинтай холилдсон нэгэн дүрийг бий болгож, тэр нь өөрөө хуваагдсан үндэстний харууслыг тайтгаруулж чадах дүр бус, хойд солонгосын гол үзэл, ойлголтыг дүрслэх дүр болсноороо

Scanned with CamScanner

харилцан яриа ч үзэл суртлын хэв маягтай болж байна. Шинэ үндэсний уран зохиолын тэнцвэртэй байдлыг харуулсан энэ бүтээл ч тэрхүү түүхийн туйлширсан ойлголтоос болж нэгэн үзэл суртлыг сурталчилсан улс төрийн утга зохиол болон хувирчээ.

Голлох үг : Хуан Согён “Сунним/Зочин/”, Шинэ реализмийн арга, Реализмийн үзэл санаа, Хэ Воны утга зохиол, Улс төрийн утга зохиол, нэг хүнийг тахин шүтэх утга зохиол.

Scanned with CamScanner

Ким Су Волийн намтар, уран бүтээл дэх уран чадварын өсөлт, өөрчлөлтийг намтар судлалын аргаар судлах нь.

Докторант Д. Нармандах [150]

Гарчиг

1. Оршил
2. Ким Су Волийн амьдрал, уран бүтээл
3. Ким Су Воль найрагчийн намтрын онцлох үйл явдлууд
4. Дүгнэлт
Ашигласан ном

[хураангуй]

Намтрын товчоон

Солонгосын нэрт яруу найрагч Ким Су Воль нь 1920 – 1930 аад оны үеийн шилдэг төлөөлөгч яруу найрагч билээ. Францын уран зохиол судлаач Шарль Сент Бёв, “Яруу найрагчийн уран бүтээл нь түүний боловсрол, ёс суртахуун, хүмүүжил, гэр бүлийн болон нийгмийн амьдралтай салшгүй холбоотой бөгөөд өвөрмөц шинж, хувь хүний үзэл бодол, түүний үр дүнгийн илэрхийлэл болдог “ гэсэн байдаг. Ким Су Үол нь 1902 оны 8 сарын 6 ны өдөр Солонгосын хойд нутаг Пён Анд төржээ. 1904 онд аав нь төмөр зам дээр ажиллаж байхдаа осолд орж ухаан мэдрэл нь эрүүл бус болсон байна. Үүнээс хойш Ким найрагч нь хамаатныдаа амьдрах болж түүнд хууч яриа, үлгэр домог зэргийг нагац эгч Гэ Хы Ён ярьж өгдөг байв. Энэ нь түүнд уран зохиолд дуртай болоход нь маш их нөлөөлжээ. Тэрбээр Намсаны ерөнхий сургуулийг дүүргээд 1915 онд Усаны дунд сургуульд суралцан тэнд зохиолч Ким Ог, Жу Ман Шиг нартай уулзан уран зохиолын талаар мэдлэгээ дээшлүүлсэн байна. Тийнхүү 1920 онд тэрбээр Чанжу хэмээх утга зохиолын сэтгүүлд шүлгээ анх удаа нийтлүүлжээ. 1925 оны эхээр Ким найрагчийн “ Жиндальлэ цэцэг “ шүлгийн түүвэр гарсан ба 1923 онд тэрбээр Японд дээд сургуульд элсэн орсон байдаг. Мөн 1916 онд тэрбээр гэрлэсэн боловч гэр бүлийн амьдрал түүнд аз жаргал авчраагүй юм. 1923 оны 9 н сард Японд газар хөдлөлт болж үүний улмаас найрагч эх орондоо эргэж иржээ. Эх орондоо буцаж ирсний дараа тэрбээр янз

[150] 몽골 인문대학교 비교구비문학 박사과정, 울란바타르대학교 몽골학연구소 연구원.

Scanned with CamScanner

бүрийн ажил хийсэн боловч бүтэлгүйтэн дампуурсан байна. Ингээд Ким Су Үол найрагч сэтгэлийн зовлон шаналалд автан улмаар бор дарсанд оржээ. 1934 оны 12 сарын 24 нд хор уун амиа хорлосон байна.

Гоплох үг: Солонгосын нэрт яруу хайрагч, Ким СуВоль, СуВолийн намтарын судлал, Шүлэг, Бүтээлийн чиг хандлага

1. Оршил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найрамдалт харилцаа өргөжин хөгжиж манайхан Солонгосын хэл утга, соёлын зүйлсээс суралцан судлан орчуулсаар байгаа билээ. Солонгосын уран зохиолын нэртэй төлөөлөгч зохиолчид, шилдэг зохиол бүтээлүүдийг уншин орчуулж судлах нь солонгос хэл суралцагч, судлаачдын зүй ёсны ажил юм. Энэхүү зорилгын үүднээс 1920 -30 аад оны Солонгосын яруу найргийн гол нэгэн төлөөлөгч яруу найрагч Ким Су Волийн амьдрал, уран бүтээлийг уран зохиолын намтар судлалын аргаар бага зэрэг судлан бичлээ.

2. Ким Су Волийн амьдрал уран бүтээл

Солонгосын нэрт яруу найрагч Ким Су Воль нь 1920— 30 аад оны үеийн Солонгосын яруу найргийн гол төлөөлөгч юм. Францын романтизмын үеийн уран зохиол шинжлэлч, шүүмжлэгч Шарль Сент Бёв , "….Яруу найрагчийн уран бүтээл нь тухайн зохиолчийн хүмүүжил, боловсрол, гэр бүл болон нийгмийн хүрээлэл зэрг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сэтгэхүйн онцлог, хувь бодгаль хүний үзэл бодлын илэрхийлэл, түүнээс үүдсэн үр дүн байдаг " гэж үзсэн байдаг билээ. (Г. Билгүүдэй. Өрнө дахины уран сайхны шүүмжлэлт сэтгэлгээний тойм, 75 дахь талд) Ким Су Воль нь 1902 оны 9 сарын 7 ны өдөр / зарим толь бичигт 8 сарын 6 гэжээ / мэндэлсэн бөгөөд түүнийг 2 ойтой байхад эцэг нь төмөр зам тавьж байсан Япон ажилчны халдлагад өртөж ухаан санаа нь хэвийн бус болсноор хүү өвөө дээрээ өсөх болжээ. Өвөө нь түүнд хятад ханз бичиг үсэг зааж сургасан явдал түүний зохиолч болох замын эх үндсийг тависан байдаг. Тэрбээр өвөг эцгээсээ Солонгосын эртний ёс заншил, аман болон бичгийн утга зохиолын дурсгалуудаас сонсож мэдэн түүний зан аашийг өвлөн авчээ. Ингэснээр хорвоогийн амьдралын утга учир, хүний зан авир, нийгмийн өөрчлөлт, зөрчил тэмцлийг танин мэдэх үзэл төлөвшихөд чухал нөлөө болсон юм. Ким Су Волд бас чухал

Scanned with CamScanner

нөлөөлсөн хүн бол түүний эзэж Жан Гён Сүг, авга эгч Гэ Хы Ён нар байжээ. Түүний эзэж аавтай нь гэрлээд 4 хөн жил болж байтал нөхөр нь тийнхүү хэвийн бус ухаан санаагаа алдсан байдалтай болсон нь маш том цохилт болсон байна. Нөхөр нь хөдөлмөрийн чадваргүй болж, өөрөө эрдэм боловсролгүй бүсгүй ганцхан хүү Ким Су Волдоо л найдлага тавьж байв. Авга эгч Гэ Хы Ён нь ер бусын ой сайтай, ажигч гярхай хүү Ким Су Волд янз бүрийн үлгэр домог, хууч яриа, түүхийг ярьж өгдөг байсан нь түүнд чухал нөлөө үзүүлсэн байна. Ийм байдалтай өссөн Ким Су Воль нь 14 нас хүртлээ Усаны дунд сургуулийн дунд ангид суралцаж байтал өвөг эцгийн тулгалтаар 14 настайдаа хүчээр эхнэр авахуулсан байна. Энэ гэрлэлт түүний сэтгэлд нийцээгүйгээр барахгүй уран бүтээлд нь ч онцгой нөлөөлжээ. Өвөг эцгийн хатуу сургаал, хүмүүжил, Конфуцийн номлол, хүсээгүй гэрлэлт, эрдэм боловсролгүй эзж, хүнд өвчтэй аав, ёс төдий эхнэр энэ бүхэн Ким Су Волийн үзэл бодолд онцгой нөлөөлсөн нь дамжиггүй. Хүнд хэцүү амьдрал нь түүний зохиолын утга агуулга, хэлбэр хийц зэрэгт хурцаар тусгагдах болжээ. Түүний ертөнцийг үзэх үзэл нь бусдаас гойд онцгой байв. Түүний шүлгийн ертөнцийг ойлгохын тулд эхлээд шүлэгт нь гарах “ далайн шувуу “ ба “ тахиа “ —г харьцуулан авч ярих хэрэгтэй болно. Ер бусын далайн шувуу нь том далавчаараа тэнгэр, далайг хөдөлгөж байна. Тэр шувууны хурдан хүчтэй хөдөлгөөнийг харахад тэвчиж дийлшгүй ухаан алдмаар байдалтай байх аж. Гэвч тэр шувуу эх газарт буун ирээд явбал том далавч нь биеэ цохиод унаган явж чадахгүй үхэж байх юм. Харин эх газрын тахиа бол явж чадахаар барахгүй хурц хошуугаараа будаа зэргийг тоншоод хоолоо олоод идчихээд амьдарна. . Ким Су Воль шүлэгтээ ийнхүү шувуугаар амьдарч чадахгүй, хөлөө алдаж үхэж буй хүнийг дүрсэлжээ. Өөрөө ч 33 хан насандаа нас барсан байдаг. Шувууны үхлээр хүний үхлийг ч илэрхийлж байна. Харин тахиа бол амьдралын төлөө ямар ч гэсэн урдах хоёр гурван алхмын зайтай газар яваад амьдраад байна. Яруу найрагч энэхүү шүлгээрээ бараг өөрийгөө дүрслэн гаргасан гэхэд болно. Түүний богинохон амьдрал тахианы амьдралтай ч төсөөтэй юм шиг сэтгэгдэл хүмүүст төрнө. Шувуу бол тэнгэртээ л амьдарна, газарт буухаараа амьдарч чадахгүй болно. Үүгээр хүн ч гэсэн хүсэл мөрөөдлөө, итгэл сэтгэлээ алдвал шувуу газарт бууж үхэж буйтай нэгэн адил болно хэмээн дүрсэлсэн байна. Яруу найрагч өөрөө амьдралын хүсэл эрмэлзэл, итгэл зэрэг бүх зүйлээ алдан архинд орж гажигтай хүн мэт амьдралынхаа сүүлийн жилүүдийг өнгөрүүлжээ. Бүр сүүлдээ

Scanned with CamScanner

хорвоогийн амьдрал бүх зүйлийг мартан явах ганц зам нь үхэл болсон байна. Ким Су Воль найрагчийн үхэл, амьдралын тухай ойлголтыг эндээс мэдэж болохоор байна. Харин түүний шүлгүүд өнөөг хүртэл ард олонд уншигдсаар байна. Үүний гол нууц нь Солонгос үндэстний нийтлэг шинжүүдийг хадгалаад зогсохгүй онцлог зүйлүүдийг бүтэц, найруулгадаа агуулан гаргасандаа байгаа гэж судлаачид үздэг байна. Тэрбээр тухайн үедээ Японучууд солонгос хэл, бичгийг хориглож байсан ч өөрийн үндэсний уламжлалт бичгээрээ яруу найргаа туурвиж, эртний ши жу хэмээх 3. 3 гэсэн мөрт шүлгийн уламжлалыг хадгалан үлдсэн болохоор Солонгосчуудын талархлыг хүлээж тэдний урам зоригийг зоригжуулж өгч байсан байна. Тиймээс Хан үндэстний оюун сэтгэлгээ, үзэл бодол, ухамсрыг нарийн илэрхийлж чадсан нь харагддаг. Манай нэрт эрдэмтэн Ш. Гаадамба, " ...Яруу найраг бол авиа дуу нийлсэн, хэмжээ хэц таарсан яруу сайхан байгуулалттайн дээр хүний сэтгэлд хурцаар нөлөөлдөг..." гэж бичсэн байдаг. (Ш. Гаадамба. Утга зохиолын онолын үндэс, УБ, 1989) Түүний яруу найргийн бас нэг онцлог бол баатруудынхаа хувь заяаг төгс шийдэж гаргаж өгчээ. Энэ нь Солонгос хүний аливааг эцсийг нь хүртэл хийж дуусгаж байж салдаг зан чанартай холбогдож байгаа бөгөөд үүгээрээ ард олны сэтгэлд хамгийн их нийцдэг байжээ. Ким Су Воль найрагчийн хамгийн алдартай шүлэг болох " Ягаахан даль цэцэг " шүлгийг аваад үзье. Солонгос хүн бусдын нэг адил цэцгэнд дуртай байна. Учир нь цэцэгнээс амар тайван, баяр хөөрийг мэдэрч авна. Цэцгийг хараад хүн үргэлж баяр баясгалантай сайхан сэтгэл, сэтгэгдэл төрдөг. Мэдээж уур уцаар төрөхгүй. Тэгэхээр яруу найрагчид цэцэг бол дэврүүн оргилсон, сайхан сэтгэл төрдөг аж. Ийм сэтгэлээр дээрх шүлгийг бичсэн гэхэд болно. Жишээ нь.

— Намайг хараад дургүйлхэн явахад тань
— Дуугүйхэн үдэж өгье.
— Ён бёны Яг сан уулын
— Ягаахан даль цэцгийг
— Тэвэр тэврээр алгуурхнаар замд чинь тавьж өгье
— Алгуурхнаар тависан цэцэгсийг
— Алхам тутамдаа аажимхан гишгэлээрэй.
Намайг хараад дургүйлхэн явахад тань
Насан эцэслэсэн ч нулимс унагахгүй.

Энэ шүлэгт харахад дургүй нь хүрч яваад өгч байгаа хайртдаа янз бүрийн үг хэлэлгүй, зүгээр л ягаан цэцгийг замд нь тавиад

Scanned with CamScanner

явуулж байгааг дүрсэлсэн байна. Хайртай хүндээ ямар их өгөөмөр сайхан сэтгэл гаргаж байгааг үнэн хэрэг дээрээ яруу найрагч гаргасан байна. Ингэж сэтгэлийн сайхныг уран яруу дүрсэлснээрээ шүлгийн амин сүнс, хүч чадлыг шингээж уншигчдад хүрэхээр болсон байдаг. Нөгөө талаар яваад өгч байгаа " хайртай хүн " гэдгээр харийнханд алдагдсан эх орноо далд утгаар илэрхийлсэн байна. Эх орны хүү бол эх орондоо юугаа ч хайрлахгүй зориулдаг гэдгийг хамгийн сайхан ягаан даль цэцгийг ч барьж байна гэж дүрсэлсэн байна. Энэ бол хайртыгаа явуулаад гомдоллож байгаа хэрэг огт биш юм. Агуу их хайр, сэтгэлийн өгөөмөр сайхан, тэвчээрийг бас давхар илэрхийлсэн шүлэг юм. Ингэж түүний яруу найрагт цэцэг, шувуу, гол ус зэргээр хүний сэтгэлийн нарийн зүйлийг илэрхийлсэн байдаг. Мөн өөрийн үзэл бодол, сэтгэлийг шингээж өгсөн нь ажиглагдаж байна. Ким Су Воль найрагч яруу найрагтаа "холын тэртээх ертөнц " буюу бодит амьдралаас өөр, хүсэл мөрөөдлийн ертөнцийг гайхалтай сайхан дүрсэлж чадсан байна. Түүний шүлэгт гарч буй тэрхүү "ертөнц " бол бодит амьдралтай нийцдэггүй, бодит амьдралыг уучилдаггүй гэж хэлж болно. Тэрбээр бодит амьдралыг бараан өнгө аястай, дур хүсэл, шуналаар дүүрсэн, зовлон гунигтай, хүн хурдан түүнээс салж явахаар байдалтайгаар дүрсэлсэн байдаг. Хамгийн сайн сайхан зүйл бол шүлгэнд гарч буй "холын тэртээх ертөнц "—өд байх юмаа гэдгээр төсөөлж байна. Тэрхүү ертөнц бол их чөлөөтэй, өргөн хүрээтэй байна. Бодит амьдрал бол нийгэм, хүмүүс, гэр бүл зэрэг хүчин зүйлсүүдээр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байна гэж яруу найрагч үзэж байв. Тийм болохоор жинхэнэ чөлөөт сэтгэлгээ бол шүлэгт гарч буй " ертөнцөд " л биеллээ олно гэж үзсэн. Үүнийг " Уулын цэцэг " шүлэгтээ байгальтай хослуулан дүрсэлсэн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Ууланд цэцэг дэлгэрч байна
Цэцэг дэлгэрч байна.
Ирэх хавар, зун ялгалгүй
Цэцэг дэлгэрч байна
Уул, ууланд
Дэлгэрэх цэцэгс
Холын тэртээх (ертөнцөд)—эд ганцаар дэлгэрнэ
Ууланд жиргэх шувуу
Цэцгэнд дурланхан
Ууландаа л амьдарна.
Ууланд цэцэг хагдарч байна
Цэцэг хагдарна

Scanned with CamScanner

Ирэх хавар, зун ялгалгүй
Цэцэг хагдарна.

Ким Су Волийн хувийн амьдрал өвөг эцгийн зааснаар конфуцийн сургаалын дагуу явсан байдаг. Хуучирсан ёс суртахуун, хариуцлагыг дагахаас өөр аргагүйд хүрсэн ажээ. Тэдний гэр бүлийнхэн эхнэрээсээ өөр эмэгтэй хүнийг хайрлах ёсгүй гэсэн хатуу байр суурьтай байжээ. Тиймээс түүний шүлэгт гарч буй эмэгтэйчүүд, хайр дурлалыг чөлөөтэй хүлээж авдаггүй байв. Харин яруу найрагч өөрөө хэдийгээр хайр сэтгэлээрээ хүнтэй гэрлээгүй ч хайр сэтгэл, бүсгүй хүний тухай гайхалтай сайхнаар шүлэглэсэн байна. Энэ нь бодит амьдралтайгаа зөрчилдөж байсан байна. Тэгэхээр Ким Су Волийн шүлгийн "сайхан ертөнц " бол түүний хүсэл мөрөөдөл байжээ. Магадгүй хувийн амьдрал хүнд хэцүү, дарамттай байснаараа яруу найрагч илүү сайхныг бичих сэрэл, мэдрэмжтэй байсан болов уу гэж санагдаж байна.

Мөрөөсөх сэтгэлийн амраг

Чиний зөөлөн, улаахан урууланд
Цэвэр ариун, сайхан сэтгэлд
Би, халуун үнэсэлтээн.....
Зүрхнийхээ цохилтоон
Зуурхан ч болов, тасралтгүйгээр нийлүүлэх сээн.

Хайрын бэлэг

Хонгор түүний минь дусал дуслаар бөнжигнөх нулимс
Ховор эрдэнэ ч юм уу даа
Энэхүү нулимсыг
Эрчлээ нь үгүй улаахан утсанд
Хэлхэн хэлхэнхэн
Хайрын бэлэг болгон
Хонгор түүнийхээ хүзүүнд зүүхсэн. Д. Нармандахын орчуулга.

Ким Су Воль найрагч солонгос эмэгтэйн ариун журамт, даруу төлөв, цэвэр ичимтгий зан, байдлыг " Хожмын өдөр ", " Урьд нь мэддэггүй байжээ" шүлэгтээ гаргахдаа:

Хожмын өдөр таныг ирэхэд
Харин би " мартсан" гэх л байх даа

Scanned with CamScanner

Тэр үед та л лав дотроо зэмлэнэ
Тэнэгхэн би чинь
Танхилхан насны мөрөөдлөө мартсан гэх байх даа…

Хожмын өдөр шүлгийн хэсгээс.

Хавар намар ялгалгүй харанхуй шөнө бүр гарах сарыг ч
Урьд нь анзаардаггүй байжээ
Ингэж үгүйлэн үгүйлэхийг
Урьд нь мэддэггүй байжээ
Саран авхай саатан харц унагахыг
Урьд нь анзаардаггүй байжээ
Сайхан түүний гунигийг
Урьд нь мэддэггүй байжээ…

Урьд нь мэддэггүй байжээ шүлгийн хэсгээс

Орчуулагч Д. Нармандахын орчуулга

….Сэтгэл зүрхэн дэх нэг л үгээ
Эцсээ хүртэл бүгдийг нь хэлээгүй юмаа
Хайрлаж байсан тэр хүн ээ
Хайрлаж байсан тэр хүн ээ….
Сүнс дуудахуй шүлгийн хэсгээс (И Ан на. Солонгосын шилдэг тавин шүлэг номын 9 дэх талд)

Гэж дүрсэлжээ. Энд бас хагацал салалт, хүлээлт, хайрлан санагалзал, ганцаардал зэргийг давхар илэрхийлсэн байна.

Санаанд илхэн түүний минь дуу

Санаанд илхэн түүний минь цээлхэн дуу
Хэзээд миний сэтгэлийг дэвтээж байдаг
Өдрийн уртад үүдэндээ зогсоод сонссон ч
Санаанд илхэн түүний минь сайхан дуу нь
Наран жаргатал чихэнд сонсогдсоор байх юм.
Шүлэг нойронд хүртэл сонсогдоно
Намуухнаар эгшиглэх аянд
Нойрондоо дийлдэнэ, эсвэл хулжина
Харин унтаад сэрэхэд
Хонгорхон түүний дуу
Бүр сонсоогүйтэй адил юу ч үгүй мартагдсан байх юм.

Scanned with CamScanner

Учрахын хүслэн

Тэнгэрийн наран жаргахад үдшийн бүрэнхий дагуулсан
зам ширтээд л
Тэртээх уулсын чанадад үүлс бараантан далдраад л
Тэврэлдэн уулзахын хүслэн оргилох нь юуных вэ?
Түүний ирэх зам намайг яахын аргагүй
Түрүүлэн тосч угт гээд байна уу даа
Тэнгэрт саран авхай гийж галуу ганганана.

Д. Нармандахын орчуулга.

Шүлгийн агуулга хэлбэр, айзам хэмнэл нь эртний шүлгийн дэг ёсыг хадгалсан байдаг бөгөөд үг хэллэг нь энгийн боловч цаад утга агуулга нь гүн гүнзгий байдаг билээ.. Түүний шүлэгт хайртынхаа төлөө ямагт өөрийгөө золиослох, үгүйсгэх, бүх зүйлээ түүндээ зориулах хүсэл эрмэлзэл дүүрэн байдгаараа онцлогтой юм.

Золгүй амьдрал

Золгүй, золгүй
Дэндүү золгүй амьдрал байж дээ
Анхандаа амьдрал байж
Ахиулж нэг харвал хайр байж
Тэр хайр гэж юу юм бэ?
Түүний төлөө өөрийгөө золиослоно гэсэн үг
Тэгвэл золиос гэж юу юм бэ?
Бусдыг өөр шигээ бодно гэсэн үг
Золгүй золгүй
Дэндүү золгүй амьдрал байж дээ.

Шүлэг нь хүний сэтгэлийн гүн рүү хандаж нэвтрэхийг хичээсэн байдаг. Ингэснээрээ уншигчдад гүн гүнзгий утга санааг төрүүлж нэлээд бодож ухааруулах оюун бодомжийг өгч байна. Хүний сэтгэлийн нарийн нууц, дотоод зөрчлийг дүрсэлсэн байдаг. Яруу найрагч өөрөө өөрийгөө голж чамлаж , харамсаж байснаа ч шүлэгтээ гаргасан байна. Цаад утгаараа эр хүн бол ийм сул дорой байж болохгүй гэдэг санааг ч “Уул”, “Сүнс дуудахуй” зэрэг шүлэгтээ өгүүлсэн байна. Эр хүнийг “уул”—аар төлөөлүүлэн дүрсэлсэн байдаг. Эр хүний цайлган цагаан сэтгэлийг ч гаргахаа мартсангүй.

Scanned with CamScanner

Өөрөөн уул шиг байж чадаагүй тархаж бутарсан нэр чинь
Өргөн орчлонгийн хоосонд замхарсан нэр чинь
Дуудсан ч гэсэн эзэн үгүй нэр чинь
Дуустлаа дуудах нэр чинь …

Сүнс дуудахуй шүлгийн хэсгээс

Түүний шүлгийн өөр нэг онцлог бол ардын аман болон бичгийн зохиолын уламжлалыг баяжуулан ашиглаж бичсэнд оршиж байна. Жишээлбэл: “Жобдун шувуу”, “Пак нон күл тарён” гэдэг шүлгүүдийг дурдаж болно. Энд ардын домог үлгэр зэргээс сэдэвлэн тухайн цаг үеийн хүнд хэцүү амьдралыг тусгаж харуулсан байдаг юм. Солонгос хүний сэтгэлийн гүн дэх баяр гуниг, жаргал зовлонг илэрхийлж чадсанаараа үндэсний онцлогийг тодорхойлж байна.

Жобдун жобдун
Жиндү голын цаахна амьдарч байсан эгч минь
Жиндү голын урдах тосгонд ирэн уйлж байна.

Ардын домогт гардаг жобдун хэмээх шувуугаар хагацсан эгчийгээ төлөөлүүлэн дүрсэлсэн “Жобдун шувуу“ шүлгийн хэсгээс

Су Воль найрагч эх орон, байгаль дэлхийн сайхныг магтан дуулсан олон шүлгүүдийг бичсэн байна. Ийм шүлгүүдийн уянгын би баатар нь доктор С. Байгальсайханы бичсэнчлэн: “….Тухайн агшинд эх орноороо бахархсан иргэн хүний дотоод сэтгэлийг илэрхийлж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Баяр баясгалан

Би ганцаар толгод дээр гарлаа
Өглөөн нарны туяанд
Өвс ногоо халиуран салхи исгэрнэ
Өөрийн минь хөндүүр сэтгэл
Үзэмжит байгалийн сайханд тайвшрав.
Энэ л үед эр хүний баяр жаргалыг мэдрэв, би.

Уулан дээр

Уулсын зулай дээр зогсон ширтэхэд
Их далай хөндөлсөн хэвтээд л

Scanned with CamScanner

Учрах хонгор түүний минь тосгон
Илхэн хэрнээ зүүдний мэт тэнгэрлэг замхарна
Гүн шөнө усны шувууд ганганалдахад
Гүймэл цэнхэр долгион зүсэн хөвөх хөлөг онгоцууд
Холын аяндаа хүнгэнэн хөдлөх нь
Хөх усан далайгаан хөвсөлзүүлэн аваад явчих мэт
Энд л би өдөр шөнө халаагаа авалцахыг харж
Шуугин урсах усны чимээг сонсонхон
Шинэ өглөөн нарны алтрах цацрагаар биеэн ээж
Гагцхүү гүн нойронд амтшин
Гоолиг түүнийгээн наадан тоглохоор ирэхийг ч мэдсэнгүй.

Д. Нармандахын орчуулга

Ардын уран зохиолч, академич Ц. Дамдинсүрэн бичихдээ: "...шүлгийг зохиох ба засахад утгаас гадна бас шүлгийн хэмжээ, уншигдах аялгууг чухал болгоно..." гэжээ.

3. Ким Су Воль найрагчийн намтрын онцлох үйл явдлууд

1. 1902 оны 9 сарын 7 ны / зарим толь бичигт 8 сарын 6 / өдөр төржээ.
2. 1904 онд түүний аав нь төмөр зам дээр ажиллаж байсан японы халдлагад өртөж ухаан санаа нь хэвийн бус болсон.
3. 1907 онд өвөөгөөрөө хятад ханз бичиг заалгажээ.
4. 1909 онд Намсаны сургуульд элсэн орсон.
5. 1915 онд анхны шүлгээ бичжээ.
6. 1916 онд өвөөгийн зааврын дагуу гэрлэжээ.
7. 1920 онд Чанжу сэтгүүлд шүлэг нь нийтлэгдсэн.
8. 1922 оноос судлаач шүүмжлэгчдийн анхаарлыг татаж эхэлсэн.
9. 1923 оноос тэр үеийн зохиолчидтой нөхөрлөж эхэлжээ.
10. 1925 онд шүлгийн анхны түүвэр ном хэвлэгджээ.
11. 1926 оноос Тун А Илбу сонинд ажиллах болсон.
12. 1934 оны 12 сарын 24 ний өдөр тэрбээр хор уун амиа хорложээ.
13. 1968 оны 3 сард "Солонгосын мэдээ" сонины газраас Сөүл хотын Намсан ууланд түүний дурсгалыг хүндэтгэн мөнхөлж шүлгийг нь сийлсэн гэрэлт хөшөөг босгожээ. Түүнчлэн Ким Су

Scanned with CamScanner

Воль яруу найрагчийн шүлгийн түүврийг хэд хэдэн удаа дахин хэвлүүлэн гаргасан байдаг.

4. Дүгнэлт

Су Воль найрагч барууны шүлгийн хэв маягийг үл тоон өөрийн үндэсний цэвэр хөг аялгуугаар шүлгээ туурвисан билээ. Үүгээрээ түүний давтагдашгүй шинж чанар товойн ялгардаг юм. Ким Су Воль найрагч богинохон хугацаанд ур чадвар нь өсч бусдаас ялгарч нэрд гарсан байдаг. Тэрбээр 1915 онд анхны шүлгээ бичсэн байдаг бол 1920 онд утга зохиолын сэтгүүлд шүлгүүд нь нийтлэгдсэн байна. Үүнээс хойш олны анхаарлыг татдаг болж 1922 онд түүний яруу найргийн талаар судлаач шүүмжлэгчид бичих болжээ. 1923, 24 онуудад Юү Сүг, На Ду Хян, Ким Дун Ин зэрэг зохиолчидтой нөхөрлөснөөр уран бүтээлийн тал дээр их өссөн буй за. Үүнийг тодорхойлох жишээ бол 1925 онд шүлгийн түүвэр номоо хэвлүүлсэн байна. Ер нь түүний амьдрал уран бүтээлийг 2 үе болгон хуваан авч үзэж болно. 1. Эхэн үе 1915—1925 он хүртэл, 2. Дараачийн үе 1925— 1934 он хүртэл. 1930 оноос хойш амьдрал нь уруудах тийшээ хандаж бор дарс ихээр хүртэн хүнд хэцүү амьдралаас залхан зовлон гуниг, үхэл хагацал зэрэг сэдвүүдийг ихээр хөндөн бичдэг болжээ. Тийнхүү 1934 онд амиа егүүтгэн хорвоог орхисон байдаг. Гэвч Ким Су Волийн шүлгүүд хожмын үедээ өв болон үлдэж одоо ч хүмүүсийн анхаарлыг татсаар байгаа юм. Тэрбээр янаг амрагийн, нийгэм, эх орон, байгаль дэлхийн, хүний сэтгэлийн сайхныг бахархан магтан дуулж, иргэний уянгын төрлийн шүлгүүдийг бичсэн байдаг юм.

Ашигласан ном

1. Ким Су Волийн шүлгийн түүвэр. Сөүл, 1984. солонгос хэл дээр
2. И Ан На. Солонгосын шилдэг тавин шүлэг. Улаанбаатар дээд сургууль, 2006
3. Г. Билгүүдэй. Өрнө дахины уран сайхны шүүмжлэлт сэтгэлгээний тойм.
4. Ш. Гаадамба. Утга зохиолын онолын үндэс, УБ, 1989
5. С. Байгальсайхан. Уран дүрийн онолын лекцүүд.
Түлхүүр үг : Солонгосын нэрт яруу найрагч, Ким Су Воль, Су Волын намтар судлал, шүлгүүд, уран бүтээлийн чиглэл

Scanned with CamScanner

김소월의 전기 연구
-작품에 나타난 문학적 성장 및 변화을 중심으로

나르만다흐

[한국어 초록]

한국의 유명한 시인 김소월은 1920 년부터 1930 년까지 당시의 대표적인 주요 시인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 낭만주의시대 문학 비평가 샬르 센트 벼브는 "시인의 작품은 시인 개인의 예절, 교육, 가족, 사회와 같은 요인에 달려 있는 사고 특징, 개인의 사상, 그 결과이다." 라고 말했다. 김소월은 1902 년 8 월 6 일에 평안북도 구성군에서 태어났다. 1904 년 처가로 가던 부친 아버지 김성도는 정주군과 곽산군을 잇는 철도 공사장의 일본인 목수들에게 폭행당한 후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 이후 김소월은 광산을 경영하는 조부 밑에서 자랐다. 김소월에게 이야기의 재미를 가르쳐 주고, 그가 시인으로서의 시작에 큰 영향을 미친 숙모 계희영을 만난 것도 이 무렵이다. 남산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5 년 오산학교에서 조만식과 평생 문학의 스승이 될 김억을 만났다. 김억의 격려를 받아 1920 년 동인지 <창조> 5 호에 처음으로 시를 발표했다. 1925 년에는 생전에 낸 유일한 시집인 <진달래꽃>을 발간했다.

1916 년에 결혼했다. 1923 년에 도쿄상업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9 월에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중퇴하고 귀국했다. 고향으로 돌아간 후 여러가지 일을 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술을 먹고 취한 채 세월을 보냈으며 1934 년 12 월 24 일에 아편을 먹고 음독 자살하였다.

작품 경향

초기에는 민요조의 여성적이고 서정적인 목소리의 시작활동을 하였으나 후기작품에서는 민족적 현실의 각성을 통해 남성적이며 참여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였다. 소월은 할아버지에게 한국 고대 풍습,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을 많이 들었다. 한자를 배운 것은 시인이 되는 길의 시작을 준비해 주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예절 교육, 유교 교육, 원하지 않은

Scanned with CamScanner

결혼, 가족의 어려운 삶은 김소월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그의 작품에 정확하게 묘사되었다. 김소월은 작품에 새, 닭으로 사람과 사회의 삶을 비교하며 묘사했습니다.

그는 한국 민족 사상, 사고, 의식을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님은 없다" 하고 말한 것은 사랑하는 애인,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국을 잠재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김소월의 시에 꽃, 새, 강물 같은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묘사했다. 사회 생활고, 흑색으로 가득히 묘사되었다. 가장 좋은 것은 시에 나타낸 " 먼 다른 세계"이다. 그는 사람의 비밀, 마음 감정, 갈등을 보여 주었다. 김소월은 한국 구비문학, 기록문학의 전통을 부유하게 했다.

주제어: 한국 유명한 시인, 김소월, 소월의 전기 연구, 시, 작품 경향.

Scanned with CamScanner

朴在森 詩에 나타난 죽음 이미지의 변모양상

강 회 진[151]

목차

Ⅰ. 서론
Ⅱ. 부활과 재생의 이미지
Ⅲ. 허무의 이미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박재삼 시에 나타나는 죽음 인식과 죽음 이미지의 변모양상을 고찰하여, 전기시와 후기시가 판이한 시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음을 밝히는 데 있다.

박재삼은(1933-1997) 1953 년 《文藝》지에 시조「강물에서」를 모윤숙의 추천으로 발표하고, 1955 년 《현대문학》에「정적」을 서정주 추천으로, 시조「섭리」를 유치환 추천으로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등단 이래 1997 년 타계하기 까지 15 권의 시집과 12 권의 시선집 등 방대한 분량의 시를 남겼다.

전기시에 나타나는 죽음 인식과 죽음 이미지는 설화적 공간과 일상적 공간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어떠한 공간에서 표출되든 물 이미지와 빛 이미지가 혼융되어 반짝이는 재생과 부활의 아름다운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기시에서는 자아의 현실적 죽음을 자각하게 되면서 『追憶에서』라는 연작시편을 통하여 전기시적 인식의 토대인 유년체험에서 오는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들을, 회상의 방식을 통하여 어리석은 일로 또는 몽상으로 부정한다. 이는 이후의 시적 인식의 맥을 잇는다. 결국 자아의 죽음에 직면해서 유한자로서 절대의 진리인 죽음을 거역할 수 없다는 한계인식에 이른다.

주제어 : 박재삼, 추억, 죽음, 빛, 허무,

---

[151] 문학박사, 제 2 회 몽골 파견 시인.

Scanned with CamScanner

Ⅰ. 서론

박재삼은(1933-1997) 1953 년《文藝》지에 시조「강물에서」를 모윤숙의 추천으로 발표하고, 1955 년 《현대문학》에「정적」을 서정주 추천으로, 시조「섭리」를 유치환 추천으로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등단 이래 1997 년 타계하기까지 15 권의 시집과 12 권의 시선집 등 방대한 분량의 시를 남겼다.[152]

본고는 박재삼 시를 전기시와 후기시로 양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전・후기의 시기 구분은 제 7 시집 『追憶에서』 이전의 시를 전기시로, 『追憶에서』와 그 이후의 작품은 후기시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의 근거는 박재삼 시인이 1967 년 고혈압으로 6 개월 가량 입원 생활을 한 후, 연이은 재발과 합병증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쇠잔해 감과 더불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서[153] 『追憶에서』 이전과

---

[152] 박재삼은 1962 년 신구문화사에서 제 1 시집 『춘향이 마음』을 출간한 이래 『햇빛 속에서』(문원사, 1970), 『千年의 바람』(민음사, 1975), 『어린 것들 옆에서』(현현각, 1976), 『뜨거운 달』(근역서재, 1979), 『비 듣는 가을나무』(동화출판공사, 1981), 『追憶에서』(현대문학사, 1983), 『대관령 근처』(정음사, 1985), 『내 사랑은』(영언문화사, 1985. 시조집), 『찬란한 미지수』(오상, 1986), 『사랑이여』(실천문학사, 1987), 『해와 달의 궤적』(신원문화사, 1990), 『꽃은 푸른 빛을 피하고』(민음사, 1991), 『허무에 갇혀』(시와시학사, 1993), 『다시 그리움으로』(실천문학사, 1996)등 15 권의 시집을 출간하였고, 『아득하면 되리라』(정음사, 1984), 『간절한 소망』(어문각, 1985), 『울음이 타는 江』(혜원출판사, 1987), 『가을바다』(자유문학사, 1987), 『햇빛에 실린 曲調』(성지문화사, 1988), 『울음이 타는 江』(미래사, 1991), 『사랑하는 이의 머리칼』(미래문화사, 1993), 『친구여 너는 가고』(미래문화사, 1993), 『박재삼 시 전작 선집』(영하출판사,1995), 『사랑하는 사람을 남기고』(오상, 1997)등 12 권의 시선집이 있다. 그 외, 『슬퍼서 아름다운 이야기』(경미문화사, 1977), 『빛과 소리의 풀밭』(고려원, 1978), 『노래는 참말입니다』(열쇄, 1980), 『샛길의 유혹』(태창문화사, 1982), 『너와 내가 하나로 될 때』(문음사, 1984), 『아름다운 삶의 무늬』(어문각, 1986), 『차 한잔의 팡세』(자유문학사, 1986), 『아름다운 현재의 다른 이름 』(1994)의 수필집이 있다.

[153] 박재삼은 1964 년 32 세 때, 근 10 년 근무하던 현대문학사를 그만두고《문학춘추》창간과 함께 입사 했다. 그러나 1 년만에 판권이 삼중당에서 다른 데로 넘어가자 퇴사 했다. 33 세에 월간 《바둑》지 편집장으로 입사했으나 6 개월 만에 그만두고(이때 프로 기사들을 주로 알았으며, 그것이 인연이 되어 관전평을 쓰게 된다)대한일보 기자로 들어간다. 35 세때 고혈압으로 6 개월 가량 입원한다. 36 세에 아버지가 고향에서 별세하자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37 세에 처음으로 집을 장만한다. 같은 해, 삼성출판사에 입사함으로써 잡지사 기자, 신문사 기자, 출판사 사원을 두루 거쳤다. 1970 년 무렵부터 신문에 바둑 관전기를 쓰게 된다. 1972 년 40 세에 완전히 직장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자유인이 되지만, 순전히 원고지를 메우고 사는 신세에서는 해방되지 않았다. 이 땅은 시 만으로는 살 수 없어, 잡문도 쓰고 해서 수입을 메꾼다. 이 무렵 주로 일본어 번역으로 수입을 올렸다. 1980 년 48 세에 고혈압과 위궤양으로 한양대학병원에 약 15 일 입원했다. 이 무렵부터 연작 「추억에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딸 소영이 대학에 입학하자 학원장학회에서

Scanned with CamScanner

이후의 죽음에 대한 판이한 인식을 보여 준다는 데 있다.[154] 아울러 생활고에 점차 시달리게 되어 시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도 후기시의 한계에 일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들로 인하여 전기시와 후기시의 죽음 인식과 표상은 변별되는 양상을 보인다.[155]

본고의 작품 분석은『박재삼 시전집』(민음사, 1998)과『追憶에서』(현대문학사, 1983),『사랑이여』(실천문학사, 1987)에서 죽음 인식이 표출된 시를 대상으로 한다.

박재삼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40 여년의 詩作생활과 15 권의 창작시집이 이루어 낸 시세계와 그 문학사적 위상을 생각할 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주로 그가 작고하기 전까지는 잡지에 발표된 평론이나 서평 또는 월평 형식의 에세이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본격적인 작품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박사논문 1 편[156]을 비롯한 본격적인 학위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 두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내용적 측면의 연구는 박재삼 시에 나타난 '恨'의 분석, 전통적 서정성의 계승, 이미지분석등의 방식으로 주제에 접근하고 있다.[157]

'병고에 시달리는 문인'의 대우로 혜택을 주어 학비부담의 짐을 덜게 된다. 1982 년 50 세부터는 거의 연작「追憶에서」만을 발표한다.
박재삼, 박재삼 연보,『아득하면 되리라』(정음사, 1984).

[154] 문학작품은 언어의 문자적 표현이라는 형식상의 기본요소를 통하여 형상화된다. 문학의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의 기능 이외에 작품 속에서만 특이한 의미를 지니는 상징적 표징을 갖고 있다. 우회적이고 상징적으로 죽음이 묘사된 경우에도 그것을 죽음으로 다루어야 한다. 즉 죽음과 관련한 언어 표현이 있는 죽음과 언어 표현이 없는 죽음의 두 가지 양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해 둘 때 박재삼의 시에서는 직접적인 어휘들이 죽음 이미지를 그려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죽음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의 조성으로 죽음 인식이 형상화되기도 한다.

[155] 김훈은 1987 년 간행된 제 11 시집『사랑이여』의 발문에서 초기시에 비하여 긴장은 다소 늘어져 있고, 동일한 감정의 틀에 말을 부어넣어서 찍어낸 듯한 시들도 없지 않다고 하며, 다소 여러 편의 시들이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죽음을 말할 때 그의 시들은 인생론으로 빠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훈,「공치고 돌아가는 白手의 노래」,『사랑이여』, (실천문학사, 1987).

[156] 김강제,「박재삼 시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2001).
김강제의 논문은 비교적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유일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박재삼 시 전체를 대상으로 그의 시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의 양상을 분석하여 그의 의식 및 시의 본질을 규명하고 서정성의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아울러 당대의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문명비판의식 및 합리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거부감 또는 비판의식을 살펴보고 있다.

[157] 박재삼의 시의 특징을 '恨'으로 보고 접근한 글에는 고은, 김현, 권영민, 정효구, 조남익, 김효중, 이광호의 글을 들 수 있다. 고은은 박재삼의 시를 광명과 수성의 주정적 사세계로서 고대의 향가와 여요 및 이조시가의 근원에 이어지고 있다고

Scanned with CamScanner

둘째, 형식적인 측면의 연구에는 운율, 중심 시어, 어법, 설화 변용 등의 분석으로 형식적 특징을 추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서우석, 이헌석, 윤석산, 윤재근, 오세영, 민병욱, 이경수의 글이 있다.[158]

보았다. 그는 시 속의 눈물겨움이 사실상 민요의 세계, 민요적 부녀층의 세계, 이조시대 및 변방의 자리를 친 서민해환의 세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나 그것은 어떤 문화에 대해서도 도외시된 '고유의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은, 「실내작가론(10)박재삼편」, 《월간문학》, 1970.1

김현은 '한'을 기조로 하는 보편적인 한국인의 심성이 박재삼의 시에서 결국 자연, 대부분의 경우 초기시에서는 바다로, 후기시에서는 햇볕과 합일한다고 보았다. 또한 초기시의 자연이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한국인의 슬픔을 감싸안아 주는 수동적인 자연이라면 병과의 투쟁 이후 자연은 그를 키우고 돌봐주는 능동적인 자연이라고 파악했다. 김현, 「시와 시인을 찾아서(2)」, 《심상》, 1974.3.

전통적인 서정성의 측면에서 바라본 글로는 김영민, 오세영, 하현식, 심재휘, 김주연, 이명재의 글이 있다.오세영은 박재삼을 천성적 서정시인으로 보고 그의 시에 한국인의 내면에 깔린 한과 같은 정서가 은연중에 비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것을 통속적으로 혹은 육감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순수하고 투명하게 승화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파악하며 시인이 이 한의 정서를 인간의 차원에서 탐닉하지 않고 자연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데서 가능했다고 파악한다.

심재휘는 박재삼의 시에서 두 가지 주된 심상을 찾는데 하나는 지상의 것을 대표하는 눈물 혹은 물의 심상이고 다른 하나는 천상의 것을 의미하는 빛의 심상이 그것이다. 지상의 물은 언제나 천상의 빛을 향해 있고, 닮으려 하고, 염원한다. 그러나 지상과 천상의 거리는 소망의 깊이와 반비례하고 그것이 현실적 차원으로 확대될 때 지상의 슬픔은 한으로 전이된다고 보고 있다.

이미지 측면의 연구에는 이상숙, 김양희의 글이 있다. 이상숙은 민족 정서로서 채택된 '恨'과 '울음'을 일관되고 정연한 '물'의 이미지와 그 변주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한'과 '울음'이 의도적으로 설정된 것인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 그 의미가 감상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의지적인 것임을 확인하였다. '물'의 이미지는 의지, 초월, 부활의 의미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낙관적 세계관이 추출될 수 있다. 다른 이미지들이 '물'의 이미지의 확대 기능과 함께 일상 세계를 포괄해 가는 과정에서도 낙관적 세계관은 견지되었다. 이는 후기 시의 변모 양상에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초기 시에서 보이는 '한과 애상 안에서도 의지와 초월'은 전통 서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숙, 「박재삼 시의 이미지 연구-초기 시에 나타난 '물'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94).

김양희는 초기 시의 이미지 분석을 통해 박재삼 시의 지배원리를 和의식으로 보고 이것이 자연을 통해 구현되는 것을 밝히고 있다. 김양희, 「박재삼 시 연구-초기시의 이미지를 중심으로」(한양대석사논문, 1996),

[158] 이헌석은 박재삼 초기시의 어미 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분석했다. 박재삼의 시가 문학성을 인정받고 독자에게 좋은 반응을 획득할 수 있었던 까닭은 내용에서 보다 '쉽고도 가까운 시어'를 선택하여 시적 형상화를 이룬 까닭으로 지적한다. 내용이 평이하고 구조가 단순한 그의 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어의 조탁에 치열하리 만큼 심혈을 기울인 때문이라고 평가한다.이헌석, 「시어의 다원화를 위하여(1)-박재삼 시의 어미 활용고」, 《월간문학》(1985.5).

서우석, 「박재삼-가라앉은 리듬」, 『시와 리듬』(문학과지성사, 1981).

윤석산, 「우리시대의 과제」, 《현대시학》(1986.9).

윤재근, 「박재삼론」, 《현대문학》(1977.5).

오세영, 「고전의 시적 변용」, 『현대시와 실천비평』(1983).

이경수, 「서정주와 박재삼의 춘향 모티프 시 비교연구 - 시선과 거리를 중심으로」, 『고려대민족문화 연구소』(1996).

Scanned with CamScanner

이 외로 이광호의 글[159]은 박재삼에 대한 최초의 석사학위논문으로 박재삼 시가 어조의 음악적 자질에 대한 섬세한 배려와 운율 효과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박재삼 시의 어조와 운율의 성격을 분석했다. 주제를 중심으로 다룬 글로는 홍성란, 오정석[160]의 논문이 있으며 주제와 이미지를 함께 다룬 글로는 김설아, 김태호[161] 등의 논문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기본적인 인식을 전제로 박재삼 시 속에 나타나는 죽음 인식과 죽음 이미지의 변모 양상을 전·후기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Ⅱ. 부활과 재생의 이미지

무속신앙이나 불교에서는 궁극적으로 저승을 이승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한다. 저승이라는 내세를 설정하고 죽음은 항상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생명의 전이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존재 전이일 뿐, 별반 차별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의 내세관에 있어서의 특징은 죽음을 '현실 극복을 위한 이상향'으로 설정하고 동경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요나 설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현실적 삶의 한계상황에 대한 대안으로서 혹은 현실적 장애 요인에 대한 우회적 출구로서 내세를 현세에 끌어들이고 있다.[162]

박재삼의 시에서도 현실 극복을 위한 이상향의 설정 혹은 현실적 장애 요인에 대한 우회적 출구로서의 죽음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전기시 가운데 특히 설화적 인물이 등장하는 시에서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박재삼 시에 나타나는 설화적 인물은 '춘향', '심청', '흥부', '남평문씨 부인', '누이' 등이다. '춘향'과 '심청', '흥부'는 우리 민족의

---

159 이광호, 「박재삼 시 연구-초기 시의 어조와 운율 분석」, (고려대 석사논문, 1988).

160 홍성란, 「박재삼 시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1998).
오정석, 「박재삼 시 연구-세계인식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8).

161 김태호, 「박재삼의 시세계 연구」, (건국대 교육학석사학위논문, 1998).
김설아는 박재삼 시에 주요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눈물', '추억', '자연'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통해 해결 양상을 규명하고, 슬픔과 서러움등의 심리 상태로 드러나는 '恨'의 정서를 분석하고 있다. 김설아, 「박재삼 시 연구-한의 근원과 해한 의지」, (숙명여대 교육학석사학위논문, 1999).

162 박태상, 『한국문학과 죽음』, (문학과지성사, 1993), pp.3-36 참고.

Scanned with CamScanner

심층 정서를 이루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의 주인공이며 '남평문씨 부인'과 '누이'는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구적 인물이다. 시인의 진술과 같이 허구적 공간의 여성들은 바다에 빠져 죽은 이모의 이미지 변용이다.

「포도」는 『춘향전』을 소재로 한 연작시 가운데 '춘향'이 등장하는 시로서 죽음의 언표를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이다.

형틀에 매여 원통하던 일을 이승에서야 다 풀고 갔으련만
저승에 가 비로소 못잊겠던가
춘향이 마음은 조롱조롱 살아 다시 열렸네

저것은 가냘피 아파 우는 소리였던 것을,
저것은 여릿이 구슬 맺힌 눈물이던 것을,
못견딜 만큼으로 휘드리었네

우리의 무릎을 고쳐, 무릎을 고쳐 뼈마치는 소리에
우리의 귀는 스스로 놀라고,
절로는 신물이 나, 신물나는 입맛에 가슴 떨리어,
다만 우리는 혹시 형리(刑吏)의 손아픈 후예(後裔)일라……

그러나 아가야, 우리에게도 비치는 것은
네 눈이 포도(葡萄)라, 살결 또한 포도라……

-「葡萄」 전문

이 시는 『춘향전』을 소재로 한 10편의 연작시[163]가운데 하나로, '저승'에 가 있는 '춘향'은 포도로 재생했다는 시적 구도를 취하고 있다. 포도는 갈등, 재회, 불사, 희망, 부활등을 상징한다.[164] 박재삼은 '춘향'이라는 설화적 인물을 차용하여 전통적 의미의 문학적 원형인 '춘향'이미지를 창조적으로 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재삼의 '춘향'은 '원통'한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여 신선하고 풍요로운 포도의 이미지로 다시 태어난다. 즉 시 속의 '춘향'이 '비극적인 인물상'이라는 선행연구의 견해와는 달리, 박재삼의 시에 나타나는

163 『춘향전』을 소재로 삼은 연작시 10 편은 「水晶歌」, 「바람 그림자를」, 「매미 울음에」, 「자연」, 「화상보」, 「녹음의 밤」, 「포도」, 「한낮의 소나무에」, 「무봉천지」, 「대인사」이다.

164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2』(동아출판사, 1992),pp.714-717.

Scanned with CamScanner

춘향의 모습은 비관적인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낙관적 인물인 것이다.[165]

「꿈으로서 묻노니」는 『심청전』의 설화적 공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죽음의 언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춘향'이 등장하는 시와 마찬가지로 '深靑傳'이라는 시어를 통하여 '심청'을 연상시키는 이 시도 문학적 원형으로서 이미 마련된 민족 정서의 공감대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심청전의 원형적 의미를 직접 차용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변용시키고 있다.

울고 있는 것이 한가지
결국은 한 바다로 오는 것인가.

우리의 사는 길은 아리아리
골목이 엇갈린
햇볕 半 그늘 半,
바다에도 그런 골목이 있는가.

애타는 일만 肝臟이 다 녹으면
때와 곳이 남는가,
아무것도 없는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차라리
우리나라의 바다여!
심청전 속의 크낙한 꽃이
다시 솟아서
끝장이 좋을 날은 없는가,
오롯한 꿈으로서 묻노니.

-「꿈으로서 묻노니」 전문

시적 화자는 '햇볕 半 그늘 半'의 대로 아닌 골목길을 가는 것과도 같이 희비가 엇갈리는 굴절 많은 인생사를 반추하며 죽음의 공간인 '바다'에도 그러한 질곡이 있는가 묻는다. 이는 곧 죽음의 '바다'에는

---

[165] 김현과 김주연은 박재삼이 「춘향이 마음」 연작을 통해서 한국적 한의 형상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대해 김양희는 박재삼 시 속의 인물인 '춘향'과 『춘향전』의 '춘향'을 동일시한데서 발생한 오류로 보고 있다. 이는 고소설의 인물 '춘향'을 나름의 시각으로 변용시킨 박재삼의 작가적 의도를 간과하고 있는 태도라고 보고 있다.
김양희, 앞의 논문.

Scanned with CamScanner

번뇌와 절망이 없다는 화자 인식의 완곡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애타는 일만 간장'이 다 녹아 죽고 나면 이승의 텅 빈 공간에는 열락의 꽃이 핀다. '심청전 속의 크낙한 꽃'은 연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꽃은 불교에서 흔히 세속적인 번뇌를 끊고 얻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마음이나, 재생, 윤회, 환생 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때, 눈먼 세속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심청이 뛰어든 바다는 환생의 장소요, 생명의 원천이라는 공간적 의미와 함께 풍요와 죽음이라는 양가적 정서를 지니고 있다. 시적 화자는 죽음의 바다에서 연꽃으로 환생한 심청이 왕비가 되어 신분상승을 이루고, 맹인잔치를 열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그런 좋은 날이 '골목이 엇갈린 햇볕 半 그늘 半'의 난세를 뛰어 '우리나라에서'혹은 시적 화자에게 실현되기를 바라는 꿈을 꾼다. 따라서 '심청'이 현실 극복을 위하여 뛰어든 우회적 출구로서의 '바다'역시 빛나는 환생의 연꽃처럼 아름다운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죽음이 주는 비극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흥부'가 등장하는 시 가운데 죽음의 언표를 찾아볼 수 있는 시로는 「가난의 골목에서는」을 들 수 있다.

> 골목골목이 바다를 향해 머리칼같은 달빛을 빗어내고 있었다.
> 아니 달이 바로 얼기빗이었었다. 흥부의 사립문을 통하여 골목
> 을 빠져서 꿈꾸는 숨결들이 바다로 간다, 그 정도로 알거라.
>
> 사람이 죽으면 물이 되고 안개가 되고 비가 되고 바다에나 가는
> 것이 아닌 것가. 우리의 골목 속의 사는 일 중에는 눈물 흘리는
> 일이 그야말로 많고도 옳은 일쯤 되리라. 그 눈물 흘리는 일을 저
> 승같이 잊어버린 한밤중. 참말로 참말로 우리의 가난한 숨소리는
> 달이 하는 빗질에 빗어져, 눈물 고인 한 바다의 반짝임이다.
>
> -「가난의 골목에서는」 전문

'골목'에서 살아가는 범상한 사람들의 '가난한 숨소리'는 '흥부의 사립문을 통하여서 골목을 빠져서 꿈꾸는 숨결들이'있는 '달빛'받아 반짝이는 아름다운 '바다'로 간다. '바다'는 사람이 '죽으면'가는 무덤이지만 그 '바다'는 '눈물'흘릴 줄 아는 '골목'의 '가난한 숨소리'를 지닌 '옳은'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다. '눈물 흘리는 일'을 '잊어버린'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1 차적 인식으로서의 '저승'같은

Scanned with CamScanner

세상이다. 그러나 그 '바다'는 '달이 하는 빗질에 빗어져' 아름답게 '반짝이는' 공간이다.

화자는 '눈물'을 슬픈 것으로만 인식하지 않는다. 슬퍼서도 흘리고 기뻐서도 흘리는 그 카타르시스의 '눈물'은 빛을 만나 언제나 생명이 반짝이는 물의 이미지로 승화된다. '눈물'은 화자에게 '흥부'와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정감 있는 세상의 정신의 풋대와도 같은 것이다. 이 시의 '바다'에 드리워진 죽음 이미지는 따라서 죽음이라는 비애감에서 달빛 받아 반짝이는 승화된 공간을 형상화 하고 있다.

다음으로 허구적인 인물인 '남평문씨 부인'이 등장하는 시중 죽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로는 「봄바다에서」,「어지러운 혼」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들의 주제적 인물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년의 성장체험에서 비롯된 허구적 인물이다. 문학 작품에서 주제적 인물이 자살하는 경우, 대개 연못이나 강, 호수, 바다 등 '물'에 뛰어들어 죽거나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는다. 이처럼 주제적 인물들이 바다에 투신함으로써 촉발되는 죽음 이미지는 부활의 공간을 마련하며 그것은 밝게 반짝이는 아름다운 공간으로써 묘사된다.[166]

물은 알려지다시피 신화적 의미에서 창조력의 원천으로 여성의 생산적 원리를 상징하며,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재생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167] 다음의 시를 보자.

1.
화안한 꽃밭 같네 참.
눈이 부시어, 저것은 꽃핀 것가 꽃진 것가 여겼더
니, 피는것 지는것을 같이한 그러한 꽃밭의 저것은 저승
살이가 아닌것가 참. 실로 언짢달것가. 기쁘달것가.
거기 정신없이 앉았는 섬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살았닥했도 그 많은 때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이 숨소리를 나누고 있는 반짝이는 봄바다와도 같은 저승
어디쯤에 호젓이 밀린 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것가.

---

166 조선시대의 소설문학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다가 현실도피처로 구사된 「홍길동전」에서의 바다는 이데아의 결합을 지닌 상상의 바다로, 「심청전」처럼 죽음과 부활이라는 재생의 의미를 지닌 설화적인 바다가 있다.

167 바리공주 신화를 보면 공주가 위중한 부모를 구하기 위해 서역국으로 가 생명의 약수를 가져와 죽은 부모를 살려낸다. 이 약수는 세속과는 다른, 상징적 죽음의 통과제의를 거쳐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재생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2.
우리가 소시(少時)적에, 우리까지를 사랑한 남평 문씨
부인은, 그러나 사랑하는 아무도 없어 한낮의 꽃밭 속에
치마를 쓰고 찬란란 목숨을 풀어헤쳤더란다.
확실히 그때로부터였던가. 그 둘러썼던 비단치마를 새
로 풀며 우리에게까지도 설레는 물결이라면
우리는 치마 안자락으로 코 훔쳐주던 때의 머언 향내
속으로 살달아 마음달아 젖는단것가.

돛단배 두엇, 해동갑하여 그 참 흰나비 같네.

-「봄바다에서」 전문

이 시는 화자의 죽음 인식의 표상이 드러난 시 가운데 죽음의 언표가 가장 많이 드러난 시라 할 수 있다. '저승살이', '죽은 사람', '저승', '흰 나비' 등은 직접적인 죽음의 언표라 할 수 있다. 무속과 민속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비로 환생하는 설화[168]를 찾아볼 수 있듯이 이 시에서 흰나비 역시 남평문씨 부인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 이 시는 '한낮의 꽃밭 속에 치마를 쓰고 찬란한 목숨을 풀어헤쳤더란다'는 직접적인 죽음의 언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결국 봄바다에 치마를 둘러쓰고 몸을 던진 남평문씨 부인의 자살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바다는 '찬란한 목숨을 풀어헤'친 죽음의 공간이다. 이때 바다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꽃이 핀 '화안한 꽃밭', 밝은 '한낮의 꽃밭'으로 그려짐으로써 죽음이 그려내는 어둡고 비극적인 정서는 밝게 환기되며 극복된다. 봄은 시작, 부활, 풍요, 재생, 만남, 희망등을 상징하고 바다는 근원의 생명이며, 재생을 상징한다는 것을 염두 해 둘 때 바다=꽃밭, 남평 문씨 부인의 치마=물결, 돛단배=흰나비 등의 동일화에 의해 바다는 죽음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지만 재생의 공간이라는 것을 추출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현, 김주연 등이 박재삼의 시 의식을 '비극성' 혹은

[168] 대표적인 설화로서 아랑의 설화가 있다. 어느 마을의 처녀가 혼약 후 결혼식을 치르기 전날 남자를 잃었는데, 그의 무덤 앞에 가 엎드려 슬피 울자, 봉분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같이 따라간 한 마을 처녀가 말릴 새도 없이 처녀는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 갔다. 그러자 무덤은 도로 닫혔고, 미처 들어가지 못한 치맛자락이 나비로 변하여 날아갔다고 전한다.

Scanned with CamScanner

'허무주의'라고 평가한 것은 김양희의 논지와 같이 일면적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169]

'누이'라는 허구적 인물이 죽음 이미지 속에서 그려지는 시로는 「밤바다에서」와 「봄이 오는 길」을 들 수 있다.

비로소 가슴 울렁이고
눈에 눈물 어리어
차라리 저 달빛 받아 반짝이는 밤바다의 質定할 수 없는
괴로운 꽃비늘을 닮아야 하리.
아니 아파야 아파야 하리.

이윽고 누님은 섬이 떠 있듯이 그렇게 잠들리.
그때 나는 섬가에 부딪치는 물결처럼
누님의 치맛살에 얼굴을 묻고
가늘고 먼 울음을 울음을
울음 울리라.

-「밤바다에서」 부분

'반짝이는 밤바다'의 '꽃비늘'은 화자의 '슬픔'의 정서를 극복시키는 '누님'을 형상화한 것이다. 섬은 고립, 단절의 의미를 지니며, 바다의 풍랑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시련을 당하는 곳이기도 하고, 유배지, 이상향, 작은 왕국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섬은 저승과 이승을 점유하는 공간이며, 영혼의 부활 의지가 새겨진 곳이기도 하다. 또한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꿈을 다시 자리잡게 만드는 곳, 유토피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밤바다'라는 공간 속에 떠오른 '누님'은 비극적 정서 안에 놓여 있는 화자의 '슬픔'과 아픔을 감싸안을 수 있는 이상향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치맛살'로 표상된 '누님'의 큰 사랑과 포용에 '얼굴을 묻고', '슬픔'과 '아픔'을 '가늘고 먼 울음'속에 나직이 풀어 놓는다. '울음'은 시적 화자의 비극적 정서를 정화시키는 장치이다.

---

[169] 박재삼의 시에서 바다가 죽음의 공간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우리는 시인의 현실인식이 비극성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된다. 박재삼의 바다가 죽음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논자들은 박재삼의 시인식을 '비극성', '허무주의'로 평가하여 왔다. 그러나 이것은 '바다'가 상징하는 양면성 중 일면만을 강조한 단편적 인식의 소산이다. 박재삼의 바다는 비극성을 짙게 배태한 공간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죽음과 삶이라는 대립물이 화해롭게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김양희, 앞의 논문, p.34.

Scanned with CamScanner

이처럼 개인 설화적 인물이 등장하는 죽음인식과 이미지는 '바다'라는 신성하고 풍요로운 재생의 공간으로 치환되어, 아름답게 '반짝이는' 환생의 공간으로 형상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화적 공간에서 살펴본 죽음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일상적 공간에서 나타난 죽음 이미지 역시 물 이미지와 빛 이미지의 변용을 통하여 아름답게 반짝이는 공간에서 형상화됨에 따라 죽음이 주는 비애의 정조를 극복하고 있다.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江을 보것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죽은 가을江을 처음 보것네.

-「울음이 타는 가을江」 전문

강은 깨달음, 정화, 재생, 차안과 피안의 경계등을 상징하고, 가을은 결실, 무상, 해탈 등을 상징함은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또한 '제삿날', '해질녘'은 죽음의 언표이다. 사랑과 그리움이 심화되면 성숙과 죽음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가을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이 박재삼 시의 중요한 하나의 의미망[170]이라 할 때, 위의 시는 사랑의 성숙을 '제삿날'이라는 죽음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시인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시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겠으나, 하나의 시 해석의 근거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인이 진술한 바, '제삿날'은 그리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제종 동생의

[170] 이광호, 앞의 논문, p.61.

Scanned with CamScanner

죽음[171]과 관계가 깊다. 굳이 제종 동생의 죽음이 아니어도 '제삿날'은 타자의 죽음에 관한 일이라 볼 수 있다. 그 죽음은 극단적인 감정을 잠재울 수 있는 일정한 거리감을 갖게 한다. 따라서 죽음 인식과 그 표상은 비극적 구도 안에서 그려지지 않고 사랑의 성숙과 소멸이라는 시적 구도와 궤를 같이 하여 형상화된다.[172] 이때, 죽음 이미지로서의 '가을江'과 '바다'는 '불빛'에 어우러지고 '해질녘 울음이 타는'으로 묘사된 저녁놀과 융합하여 붉게 반짝이는 아름다운 정경을 자아낸다. 이는 죽음의 정서가 주는 침울하고 어두운 비애감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산골물소리'는 가볍게 살아버린 우리네 인생의 표상이며 '그 기쁜 첫사랑'의 물소리이다. 어린 '산골물소리'가 성숙을 향하여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도달할 쯤에는 세월을 견뎌내어 인생의 참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제 '산골물소리'는, '그 기쁜 첫 사랑은''소리죽은' 근엄한 모습의 '가을 江'이 된다. 세월이 가져다 준 원숙함으로 사랑의 참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시적 화자는 '서러운 사랑'의 귀결을 노래하되, 비탄에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시는 사랑의 성숙과 소멸을 죽음 이미지와 함께 그려내되, 빛·불 이미지와 물 이미지의 융합을 통하여 아름답게 반짝이는 구도 속에서 미적으로 형상화하여 죽음 이미지가 주는 비극성을 극복하고 승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환한 저승 같은 꽃빛깔 앞에
차라리 눈이 부시어
어질어질 눈을 뜨지 못하면
하는 수 없지

---

171 그게 벌써 15 년쯤 전의 일인 것 같다. 한창 재롱 피우는 아이로 내 제종 동생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일인지 나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그래 나는 어물어물하다 슬그머니 거기서 빠져나와 사람이 없는 언덕에 가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언덕은, 바다가 바로 눈앞에 보여오는 곳에 있었다. 가만히 앉아있기도 어줍은 일이기도 해서, 머리를 땅에 닿을 만하게 물구나무 서서 두발 사이로 바다를 보았다. 그때 웬일인지 내 눈에선 눈물이 괴더니 그것이 얼굴로 젖어내렸다. 바다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늘 보는 바다가 실로 훌륭한 경치로서 내 눈에 도달해 온 것이다. 그때까지 바다는 이웃사람의 얼굴을 대하듯 별것 아닌 것으로 내 마음에 자리하여 있다가 별안간에 아름다워 왔기 때문이다. 銀金이라 한다면 좀 속된 표현일 것이고, 하여간 눈물의 꽃이 꽃피어난 꽃발인양 바다는 온통 현란한 경계로 내개 밀어닥쳤는지 모른다.(한 경험, 『현대한국문학전집』 18 권) 김현, 앞의 글, pp.87-88.

172 '노을'과 '가을'은 소멸을 의미한다. '소멸'현상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정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노을', '가을'은 소멸을 상징하면서 성숙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리고 성숙이란 저절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겪은 이후의 상태에서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Scanned with CamScanner

나를 안심하고
눕게 하는 것
-「들풀 옆에서」 부분

들풀이 '환한 저승 같은 꽃'을 피운 풀밭에 '안심하고' 누운 그 순간은 한없이 무구한 행복의 순간이다. 위의 시에서 나타나는 죽음 이미지 즉, '저승'의 이미지는 시적화자가 '환한' '꽃'들이 핀 풀밭에 누워 '안심'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일상적 공간의 죽음 이미지 역시 설화적 공간의 죽음 이미지와 같이 맑고 밝은 서정성 안에서 죽음이 주는 비극적 인식을 승화, 극복하고 있다.

Ⅲ. 허무의 이미지

경험적인 죽음, 즉 타자의 죽음은 죽음을 객관화시켜 생각하게 한다. 객관화된 죽음은 보편적 자연현상으로 인식되며, 남아있는 사람에게 비애와 허무를 느끼게 한다. 박재삼의 전기시는 타자의 죽음을 재생과 부활이라는 구도 속에서 형상화 시키고 있다. 특히 설화적 공간의 죽음 이미지는 타자의 죽음을 바탕으로 하여 형상화한 것으로서, 반짝이는 물과 빛 이미지에 융합되어 미적 구도 안에서 그려져 죽음의 비극성을 초월한다. 따라서 부정성의 언어나 비극적인 감정의 발산이 아닌 정화된 의미로서의 눈물과 울음과 강과 바다가 있다. 시 속 화자들이 바다에 투신함으로써, 그 죽음은 재생과 부활의 상징성을 획득하고 영원회귀로의 실마리가 된다. 전기시의 죽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화적 공간에서든 일상적 공간에서든 밝고 반짝이는 건강한 서정성 안에서 형상화 되어 죽음으로부터 오는 비애의 정조를 극복하고 있다. 결국 타자의 죽음 안에서 예술이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적 예상을 초월하는 인생의 방법이다. 그러한 구도 안의 예술이란 타자의 죽음을 바라보며 느끼는 일시적인 공포와 고통, 허무에의 절망감을 줄이는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자아의 현실적 죽음에 이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박재삼 역시 『追憶에서』에 이르면 병세가 악화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됨에 따라 죽음에 대한 전기시의 시적 인식에 틈을 보이게 된다. 연작시편을 통하여 전기시적 인식의 토대인 유년체험에서 오는

Scanned with CamScanner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들은 어리석은 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자아의 현실적 죽음을 자각하게 되면서 죽음 인식에 변화가 오게 되며, 이로써『追憶에서』연작시편을 통하여 죽음 인식의 변모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박재삼에게 있어 죽음은 부활이나 재생의 구도 속에 편입되는 순환과정으로서 인식되지 않는다. 현실적 죽음은 소멸인 것이다. 따라서 비애감과 허무와 무상감이 사실적이며 직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追憶에서』[173]는 박재삼 시의 죽음 인식의 변모 양상을 고찰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시집이다.[174] 이 시집에는 전기시의 죽음 인식의 근거가 되는 유년시절의 체험을 담은 68 편의 연작시가 실려 있다.

우리 고향 八浦 앞바다에는
친이모도 빠져 죽고
먼 일가뻘 되는 숙모도 빠져 죽고
또 딴 사람들도 몇몇 귀한 목숨을 바쳤다.
그들은 왜 자살이라는 것을 택하여
삶의 마감을 닫은 것일까.
거기에 아슬한 꿈의 파편이 묻어
살맛나게 하는 강의 引力이 있지 않았을까.
아마도 죽을 그 임시에는
바다가 꽃밭으로 보일 것에
틀림없으리라고 짚어 보았다.
그래서 한결같이 고무신을
곱게 벗어 두고 들어갔던가.
아, 서러운 이유는 다
어디론가 어느샌가 속속들이 잊고
크낙한 아름다움에
푹신 취해서 젖어들고 있었다고 풀이해 보았다
그 아름다운 바다가
그러나 내 나이 쉰이 넘은 눈에는

---

[173] 박재삼, 『追憶에서』, (현대문학사,1983).

[174] 고혈압을 앓고 있던 박재삼 시인이 폭음으로 인해 완치되지 않은 위궤양에 걸려 1980 년(48 세)에 입원하게 되면서부터 질병의 고통은 끊이지 않고 그를 괴롭힌다. 이듬해에 다시 고혈압과 위궤양으로 한양대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이때부터 '병고에 시달리는 문인'의 대우로 혜택을 받아 자녀 학비보조의 짐을 덜게 된다. 박재삼은 이 무렵부터 연작시 「追憶에서」를 발표하기 시작하며 전기시적 죽음 인식에서 후기시적 죽음 인식으로의 이행을 보인다. 고형진,김기중 대담, 「오, 아름다운 것에 끝내 노래한다는 이 망망함이여」, 《시와산문》 (1992, 봄). 참고.

Scanned with CamScanner

시들하고 멋대가리 없는 것으로
어느새 둔갑하고 있었다.

-「추억에서 · 16」 전문

전기시의 재생과 부활이라는 구도 안의 죽음 인식과 표상은 순수한 세계, 나아가 '꿈의 세계'로 간직되어 오던 과거로부터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追憶에서』에 이르면 과거 유년체험의 상상력은 약화되고, 그러한 인식과 시적 태도를 '끝내 사라지고 마는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무화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위의 시는 중반까지 전기시적 태도의 근원을 반추하고 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 '나이 쉰이 넘은' 화자는 그러한 인식 태도를 '시들하고 멋대가리 없는 것'으로 '둔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김시태는 '때묻은 현실이 압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175]

인용한 시에서는 전기시의 죽음 인식과 후기시의 죽음 인식의 변별적 기준을 볼 수 있다. 화자는 '자살'을 아슬아슬한 꿈의 파편이 묻어 살맛나게 하는 '引力'이 있는 행위로 보고 있다. 그것은 주제적 인물들이 '꽃밭'의 '크낙한 아름다움에 푹신 취해서 젖어들'듯이 '그 아름다운 바다'에 몸을 던지게 한다. 그러나 '나이 쉰이 넘'은 화자에게는 '그 아름다운 바다'는 '시들하고 멋대가리 없는 것으로 어느새 둔갑'하여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삶 속의 죽음이라는 공허한 세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죽음 인식은 '때묻은 현실의 압력'과 지병이 악화되어 가는 자신을 돌아볼 때, 더욱 뼈져리게 느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시에서 극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

萬植이란 친구는 참 희안했다.
그는 이런저런 얘기 끝에
세살 때 저승에 갔다 왔다고

---

175 오십은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시인에게는 그것이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토록 큰 부담을 주고 있는가. -(중략)-이 시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때묻은 현실의 압력이다. -(중략)-때묻은 현실의 세계는 자아의 내부에 보존되어 온 과거의 꿈과 그 꿈을 지탱하는 모든 생명력을 박탈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의 경우에 있어서 <늙어서>라든가, <죽어 있었다>라든가 하는 것은 꿈의 상실을 의미한다. 삶의 본질이며 그 필수조건인 꿈을 더 지탱할 수 없게 될 때, 그는 결국 삶 속의 죽음이라는 공허한 세계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김시태, 「진정한 자아의 探究」, 『追憶에서』 해설,(현대문학사, 1983).

Scanned with CamScanner

엉뚱한 말을 꾸며서 근사하게 했다
그 말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국민학교에 가기 전의 댓살 적에는
같이 신바람이 나서
그 얘기에 빠져 버리곤 했었다

그가 치장한 저승 가는 길은
나비처럼 팔랑팔랑
온통 반짝이는 것이 주렁주렁 달려서
이승인가 저승인가 알 듯하면서
잘 모르는 것이 많았다
마치 상여가 나가는 길처럼
아름다우면서 약간 서러운 것도
찡하게 가슴에 울려 왔었다

세월은 줄기차게 흘러서
나는 오십줄의
어느 누구에게도 안 속는
겉으로는 건전한 나이가 되었건만
그때의 그 거짓말이 어쩌면
참말인지도 모른다고 간혹 생각하는
아, 꿈 같은 한때!

-「追憶에서 · 46」 전문

오십의 나이가 된 화자는 과거의 죽음 인식은 하나의 몽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다. 과거 저승이라는 공간은 몽상의 공간이며 동경의 공간이었으나, 현실적인 공간의 병들고 늙은 화자는 이제 그러한 '꿈'을 꿀 수 없다. 더 이상 죽음은 아름답게 인식되지 않으며 그 '꿈'은 짙은 허무로 느껴질 뿐이다.

이상으로 전기시적 죽음 인식이 연작시『追憶에서』에 이르러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를 살펴보았다. 전기시의 인식의 모태가 되는 바다는 항상 물과 빛 이미지와 융합하여 아름답게 반짝이는 환한 꽃밭으로 그려진다. 그리하여 죽음 이미지는 비극성과 허무를 극복하게 된다. 그러나 회상 방식의 진술을 통하여 유년체험의 인식을 '나이 쉰이 넘은 눈'으로는 '차마 發說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요, '꿈'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임을 고백한다. 이는 후기시적 인식에 맥을 잇고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자아의 죽음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된 후기시에서는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유한자로서의 한계인식이 허무와 무상감으로 표출된다. 또한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정조가 문면에 그대로 드러난다. 죽음 이미지는 전기시의 그것처럼 상상의 공간에서 미적으로 승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죽음은 이제 자아가 온몸으로 느끼는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온다.

땅에서만 기껏 칠십 년쯤 살다가
드디어 묻혀갈 뿐인 것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 하나만도」 부분

이 인연을 어찌하고
각각 이승을 뜨고
억울하게 땅 밑에 묻히는
숱한 세월을 생각하면
그 허무를 어쩔까나

-「잠자는 아내를 보며」 부분

아주 먼 나라로
정처없이 떠나야 하지만,
그렇게 밖에는 길이 없지만

-「빛나는 도장」 부분

'기껏' 칠십 년쯤 살다가 죽어서 '땅 밑에 묻히는' 일은 억울한 일이다. 죽고나면 '이승'의 모든 인연과는 단절된다. 어떠한 기교나 수사 없이 화자는 허무에 닿은 죽음 인식을 직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한계상황에 직면하여 이제는 '아주 먼 나라'라는 죽음의 세계로 '정처없이 떠나야'한다고 말한다. 그 '길'은 허무만이 남는 소멸의 길이다. 따라서 이를 잘 아는 화자는 '허무주의만 곱씹'는 겸허한 자세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음을 자각하고 있다.

이상으로 『追憶에서』 이후의 작품에 나타나는 죽음 인식과 표상을 살펴보았다.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죽음이냐 아니면 타인의 죽음이냐에 따라 접근의 방법과 시각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아름답게 형상화된 죽음의 이미지는 훗날,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면서 소진되어 가는 자신의 죽음에 맞닥뜨리면서부터는 차갑고 어두운 땅 속이 죽음의 세계로 그려지고 있다. 자신의 존재가 없는 한, 세상의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일 뿐이다.

이후 이어지는 시들에서부터는 한계인식과 허무와 무상감이 시 전반적인 이미지로 자리함을 알 수 있었다.

Ⅳ. 결론.

이 글의 목적은 박재삼 시에 나타나는 죽음 인식과 죽음 이미지의 변모양상을 고찰하여, 전기시와 후기시가 판이한 시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음을 밝히는 데 있다.

박재삼의 시는 1983 년에 간행된 『追憶에서』를 기점으로 양분되는 특징적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전기시와 후기시로 나누는 기준이 된다. 전기시에 나타나는 죽음 이미지는 유년체험 안의 물 이미지(바다)와 빛 이미지(햇빛)가 융합하여 밝고 반짝이는 공간에서 마련되어, 슬픔의 정서를 갖고 있되 그것이 비극의 정조로 함몰되지 않고 아름답게 형상화됨에 따라 비극성을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후기시에 와서는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며 늙어가는 자시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죽음에 대한 비관적 한계인식은 허무와 비애의 하강적 죽음 이미지로 표출된다.

전기시에 나타나는 죽음 인식과 죽음 이미지는 설화적 공간과 일상적 공간으로 나누어 실펴 본 결과 어떠한 공간에서 표출되든 물 이미지와 빛 이미지가 혼융되어 반짝이는 재생과 부활의 아름다운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기시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자아의 현실적 죽음을 자각하게 되면서 『追憶에서』라는 연작시편을 통하여 전기시적 인식의 토대인 유년체험에서 오는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들을, 회상의 방식을 통하여 어리석은 일로 또는 몽상으로 부정한다. 이는 이후의 시적 인식의 맥을 잇는다. 결국 자아의 죽음에 직면해서 유한자로서 절대의 진리인 죽음을 거역할 수 없다는 한계인식에 이른다. 죽음은 소멸이요, 멸망이라는 비관적인 세계인식을 낳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죽어 묻히게 되는 공간은 아름답게 그려지지 않는다. 저승은, 죽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생의 종착역이다. 그리하여 유한자로서의 운명 앞에 담담하게 역설과 아이러니의 냉소적 반어를 정제되지 않은 직설적 화법에 담아냄을 알 수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이 글의 박재삼 시 연구는 그가 전통적 서정시인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죽음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 따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서양철학적 죽음 인식과 죽음의 현대적 모습에 대한 통찰에 근거한 시 연구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박재삼, 『햇빛 속에서』, 문원사, 1970.
———, 『千年의 바람』, 민음사, 1975.
———, 『비 듣는 가을나무』, 동화출판사, 1981.
———, 『追憶에서』, 현대문학사, 1983.
———, 『대관령 근처』, 정음사, 1985.
———, 『찬란한 미지수』, 오상, 1986.
———, 『사랑이여』, 실천문학사, 1987.
———, 『해와 달의 궤적』, 신원문화사, 1990.
———, 『꽃은 푸른 빛을 피하고』, 민음사, 1991.
———, 『허무에 갇혀』, 시와시학사, 1993.
———, 『다시 그리움으로』, 실천문학사, 1996.
———, 『박재삼 시전집』, 민음사, 1998.

<참고문헌>

고은, 「실내작가론(10) 박재삼편」, 《월간문학》, 1970. 1 월호.
고형진, 「시와 시인을 찾아서-박재삼 시인 편」, 《시와시학》, 1995. 가을호.
고형진, 김기중 대담, 「오, 아름다운 것에 끝내 노래한다는 이 망망함이여」, 《시와산문》, 1992. 봄.
김강제, 「박재삼 시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2001.
김현, 「시와 시인을 찾아서(2)」, 《심상》, 1974.3 월호.
김훈, 「공치고 돌아가는 白手의 노래」, 『사랑이여』, 실천문학사, 1987.
김설아, 「박재삼 시 연구-한의 근원과 회한 의지」, 숙명여대 교육학석사논문, 1999.
김시태, 「진정한 자아의 탐구」, 『追憶에서』, 현대문학사, 1983.
김양희, 「박재삼 시연구-초기 시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양대석사논문, 1996.

Scanned with CamScanner

김영민, 「박재삼 論-서정시의 새로움을 위한 求道」, 《문학사상》, 1988.8 월호.
김주연, 「1945 년 이후 시인 개관」, 『현대한국문화의 이론』, 민음사, 1972.
김태호, 「박재삼의 시세계 연구」, 건국대 교육학석사논문, 1998.
박태상, 『한국문학과 죽음』, 문학과지성사, 1993.
서우석, 「박재삼-가라앉은 리듬」, 『시와 리듬』, 문학과지성사, 1981.
심재휘, 「슬픔의 상상력」, 『1950 년대 시인들』, 나남출판사, 1994.
오세영, 「아득함의 거리」, 《현대시》, 1991.7 월호.
오정석, 「박재삼 시 연구-세계인식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1998.
윤석산, 「우리시대의 과제」, 《현대시학》, 1986.9 월호.
윤재근, 「박재삼론」, 《현대문학》, 1977.5 월호.
이경수, 「서정주와 박재삼의 춘향 모티프 시 비교연구-시선과 거리를 중심으로」,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이광호, 「박재삼 시 연구-초기 시의 어조와 운율 분석」, 고려대석사논문, 1988.
이상숙, 「박재삼 시의 이미지 연구-초기시에 나타난 '물'을 중심으로」, 고려대석사논문, 1993.
이인복,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의식의 사적 연구』, 열화당, 1979.
홍성란, 「박재삼 시 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1998.

박재삼 연보

1933 년 4 월 10 일 박찬홍과 김어지의 차남으로 동경부(東京府) 도남다마군 성촌실야구에서 출생. 아버지는 노동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으며 형과 누이 둘과 생활함.

1936 년 가족 모두 귀국하여 어머니의 고향인 경남 삼천포에 자리잡음.

1940 년 삼천포초등학교에 입학.

1946 년 삼천포초등학교 졸업 뒤 삼천포여중에 사환으로 들어가 그 학교에서 교 편을 잡고 있던 김상옥 선생을 만나 감화를 받고 시를 쓸 결심을 굳힘.

1947 년 삼천포중학교 병설 야간중학교에 입학.

Scanned with CamScanner

1948 년 교내신문 <삼중> 창간호에 동요 「강아지」, 시조 「해인사」 발표. 주간 중학교로 옮김. 제 1 회 영남예술제 한글시 백일장에사 시조 「촉석루」 가 차상 입상.
1950 년 김재섭, 김동일과 함께 동인지 《군상》 펴냄.
1951 년 4 년제 중학 졸업 뒤 삼천포고등학교 2 년에 편입.
1953 년 삼천포고등학겨 수석 졸업. 모윤숙 선생 추천으로 시조 「강물에서」 가 《문예》 지 11 월호에 발표됨.
1954 년 김상옥 선생 소개로 현대문학사에 취직.
1955 년 《현대문학》 추천을 통해 시조 「섭리」, 시 「정적」 (서정주 추천)이 발표 되어 김관식, 신동준과 함께 등단, 고려대 국문과에 입학(3 년 중퇴).
1957 년 「춘향이 마음」 발표, 『현대문학』 신인상 수상.
1962 년 김정립 여사와 결혼, 제 1 시집 『춘향이 마음』 (신구문화사)출간.
1963 년 장녀 소영 출생.

Scanned with CamScanner

“Паг Жэсам” зохиолчийн шүлэгт илэрч буй үхлийн дүрслэлийн хувирах байдал

Кан Хуэжинь

[Хураангуй]

Энэхүү өгүүллийн зорилго нь Паг Жэсам шүлэгчийн шүлэг дэх үхлийн ойлголт, үхлийн дүрслэлийн хувирах байдлыг анхааран үзэж, эхэн болон сүүл үеийн шүлгийн тэс өөр ойлголтыг илэрхийлж байгааг илрүүлэхэд оршино.

Паг Жэсам(1933-1997) зохиолчийн “Мүние/Урлаг, утга зохиол, 1953 он/” сэтгүүлд “Кан мүрэсо/Голын усанд/”хэмээх хэлбэрт шүлгээ Му Юүнсүгийн хүсэлтээр нийтэлж, 1955он “Хёндэ мүнхаг/Орчин үеийн утга зохиол/”сэтгүүл “Чонжог/Аваал эхнэрийн хүү/”шүлгээ Со Жонжүгийн хүсэлтээр, “Собри/байгалийг эзэмших/” хэлбэрт шүлгээ Юү Чихуаны хүсэлтээр нийтлүүлэн олонд танигдаж байв. Ийнхүү танигдсанаасаа хойш 1997онд өөд болох хүртлээ нийт 15-н шүлгийн ном, 12 шилмэл шүлгийн ном зэрэг маш их шүлгийн бүтээл туурвиж үлдээжээ.

Эхэн үеийн шүлгүүдэд гарч буй үхлийн дүрслэл нь ус /далай/ болон гэрэл/нарны гэрэл/ зэрэг нь хоорондоо уусан нэгдэж гэгээлэг орчинг бий болгож, гуниг харуусал байвч тэр нь гайхамшигтайгаар өөрчлөглөж тэрхүү гуниг харууслыг ялан дийлж байдаг.

Гэвч сүүл үеийн шүлгүүд нь өвчин хийгээд амьдралын доройтолд автан хөгширч яваа өөрийнхөө үхлийг мэдэрснээрээ үхлийн тухай ойлголт нь хий хоосон зүйл биш бодит зүйл болохыг харуулсан байдаг.

Голлох үг : Паг Жэсам, дурсамж, үхэл, гэрэл, хоосон.

Scanned with CamScanner

조기천 시 연구

이 석 철[176]

목차

1. 서론 - 조기천과 김일성
2. <서사시>에 대한 예비 고찰
3. 「백두산」의 서사시적 성격
4. 결론 - 북한문학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선

[국문초록]

조기천 자료를 유형화하면, 새조국 건설의 의지, 희망, 기쁨을 노래한 시편, 남녘에 대한 걱정 및 투쟁의 의지, 빨찌산을 노래한 시편, 조국해방전쟁의 상황, 분노, 승리의 의지를 노래한 시편, 개인적 서정을 노래한 시편, 항일 무장 투쟁의 과정을 노래한 시편, 친소 친중 등의 국제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시편으로 나눌 수 있다.

논자는 「백두산」을 '서사시'가 아닌 '서정서사시'의 전범으로 보았다. 논자는 내재적이면서도 외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그들의 용어를 쓰되, 그들이 잘못 쓴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 올바른 내용으로 정리하여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기천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자기 스스로 정리해 놓은 용어가 있다. 바로 '서정서사시'이다.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통해 조기천의 「백두산」이 정통 서사시가 아닌 '서정서사시'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북한 문학, 서사시, 서정시, 서정서사시, 백두산

1. 서론 - 조기천과 김일성

현재 필자가 가지고 있는 조기천 자료로는 『 우리의길』 (조선인민출판사, 1946), 『 백두산』 (문예출판사, 1986) 등이다. 이외에도 조기천의 시집으로는 '『 백두산』 (노동신문사, 1948), 『 우리의 길』(국립출판사,1949), 『 항쟁의 여수』(문화전선사,1950),

[176]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빗방울화석 시인 활동

Scanned with CamScanner

『 생의노래』(1950), 단시집 『 조선은 싸운다』 (조선문화사,1951)' 등이 있고, '『 조기천 선집』(1952)이 상 · 하권으로 문예총출판사에서 간행' 되었다고 알려졌다.[177] 그의 시편들을 유형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새조국 건설의 의지, 희망, 기쁨을 노래한 시편
「우리의 노래」, 「그네」, 「흰바위에 앉아서」, 「보뚝에서」, 「휘파람」, 「동해바다」, 「땅의 노래」, 「두만강」, 「큰거리」, 「五 · 一을 맞으라」, 「우리의길」

• 남녘에 대한 걱정 및 투쟁의 의지, 빨찌산을 노래한 시편
「분노」, 「봄노래」, 「항쟁의 려수」, 「네거리에서 - 남조선 민청원의 수기」

• 조국해방전쟁의 상황, 분노, 승리의 의지를 노래한 시편
「불타는 거리에서」, 「조선의 어머니」, 「죽음을 원쑤에게」, 「눈길」, 「조선은 싸운다」, 「우리는 조선청년이다」, 「나의 고지」, 「문경고개」

• 개인적 서정을 노래한 시편
「수양버들」

• 항일 무장 투쟁의 과정을 노래한 시편
「백두산」

• 친소 친중 등의 국제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시편
「10 월 - 위대한 10 월 혁명 37 주년을 맞으며」, 「을밀대에서 부른 노래 - 쓰딸린大元帥에게드림」

위의 분류에서 보이듯 조기천의 시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대한 분노나 강점기 현실의 지난하고 상세한 묘사를 나타내는 시편들은

---

177 이명재, 『 북한문학사전』 (국학자료원,1995) 943 쪽: 『 우리의길』 은 원본을 얻은 결과 '국립출판사'에서 1949 년에 간행된 것이 아니라 '조선인민출판사'에서 1946 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내용도 단순히 조쏘친선사상을 테마로 한 서정서사시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북쪽의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에는 기본적인 텍스트를 선정하고 발굴하는 것에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위와 같이 다른 모습에는 문학사전의 한계일 수도 있고, 필자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시집일 수도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보이지 않는다. 반면 새조국 건설의 의지, 희망, 기쁨을 노래한 시편들이나 조국해방전쟁의 상황, 분노, 승리의 의지를 노래한 시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아무래도 그의 이력 때문이다. 그는 1913 년 11 월,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가족들이 모두 시베리아로 이주하였다. 소비에트 정권의 혜택을 받아 국비생으로 사범전문학교와 고리끼 사범대학 러시아문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그를 잘 기억하고 있는 정상진[178]은 조기천이 1913 년 러시아 연해주 스파스크촌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점, 강제이주의 굴욕적인 상황을 몸소 느끼지는 않았으나 조선족의 비극을 마음속 깊이 고민하였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 1938 년 9 월 1 일, 강제 이주 후 카자흐스탄 크슬-오르다시 조선사범대학 문학부 3 학년 첫 학업 시간에 우리는 조기천을 처음 보게 되었다. 세계문학사 강의 시간이었는데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아담한 체격에 항상 웃는 모습과 열정으로 빛나는 눈에 단정하고 자신있는 정다운 목소리 등 첫 인상부터 학생들의 마음에 들었다.

소련에서 생활했던 조기천은 '레닌기치'신문사에서 기자로 생활하며 많은 시편들을 썼다고 한다.[179] 또한 당시 소련에서 창작활동을 전개하던 카프작가 조명희를 만나 그 슬하에서 문학을 배우고 시를 창작하였으며 그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 선배들과 동포들에게서 모국어를 깊이 있게 배우고 조국의 현실을 연구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었다. 조기천이 혁명적 수령관이 투철하고 모국어에 능통한 시인으로 자라난 것은 다 이와 관련되어 있다'[180]는 것이다. 물론

---

[178] 1918 년 5 월 5 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남. 1945 년 소련군 해병대 소속장교로서 나진, 웅기 지역의 해방전선에 참전한 후 북한의 요직을 두루거치며 일했고, 1946 년 원산문예총에서 펴낸 시집 『응향』의 발행인도 맡았다. 그후 그는 문예총 부위원장(1946-48), 김일성종합대학외국문학부장(1948-50), 문화선전부 부상(1952-55)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1956 년 이후 종파투쟁의 여파에 휘말려 소련으로 귀환한 후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생활했다. 현재 85 세이고 알미아타에서 문필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잊을 수 없는 순간들」, 『통일문학』(2005.2;제 5 권 5 호) 176 쪽.)

[179] 정상진, 같은 책. 195 쪽.

[180] 박종식, 같은 책. 5 쪽: 혁명시인 조기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개선과 함께 오매에도 잊지 못하던 사랑하는 조국에 귀국하였다. (중략) 시인 조기천은 로씨야에 자리 잡은 후에 중앙아시아의 따슈껜뜨사범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였고 그곳에서 멀리 백두령봉을 마음속에 그리며 세계관을 세워 나갔다. 이때 그는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성전을 줄기차게 벌리시여 절세의 애국자, 전설적 영웅, 민족해방의 구성으로 인민들의 다함 없는 존경을 받고계시는 김일성장군님의 세인을

Scanned with CamScanner

이 견해를 전적으로 수긍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백두산」과 조기천을 북의 당국이 만들어낸 '신화적 인물'로만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181]

조기천에 대한 연구는 「백두산」에 국한되어 있다. 학위 논문은 김지선,[182] 김현주[183]가 서사시 「백두산」연구를 하였고, 신동호[184]가 '백두산' 상징을 통해 고은의 '백두산', 김성휘의 '장백산아 말하라'를 비교 연구하였다. 장부일[185]과 박정호[186]는 장시 장르 속에 「백두산」을 포함하여 근대장시의 형성과정을 보여 주었다. 김지선은 조기천에 대한 연구를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주제적 접근을 시도한 임헌영, 김재홍, 노귀남[187] 등과 둘째, 수령형상문학으로 바라보는 윤재근 · 박상천, 권영민, 성기조, 박태상, 선우상열 등과 셋째, 북한문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역사적 · 실증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188]와 넷째, 장르적 접근을 시도한 김대행, 김재홍, 장부일, 박정호, 이명재, 오성호 등[189]과 마지막으로 백두산의 상징성과 연결하여 접근한 연구로 김열규 등[190]이 있다.[191]

북에서의 조기천 연구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과거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고귀한 업적을 이루어낸 해방의 감격'을

감탄시키는 투쟁이야기를 전해듣고 백두의 령장 김일성장군님을 뜨겁게 흠모하고 숭배하였으며 늘 애국의 열정으로 가슴을 불 태웠다. 이것은 후일 그가 혁명적명작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창작하는데서 귀중한 사상정신적 량식으로 되었다.

[181] 이에 대해 Gabroussenko, Tatiana는 "Cho Ki-chon: The Person Behind the Myths"(korean Studies - Volume 29, 2005, pp. 55~94.)에서 조기천이 북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신화로 만들어진 인물임을 주장한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 작품의 내적 전개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정치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시선이 한계로 생각된다. 반면 당시 북의 문학적 현실에서 '김일성'이라는 아이콘이 갖는 중요한 의의에 대해서는 졸고 「안타나클라시스로서의 김일성(소논문)」 참조.

[182] 김지선, 「조기천의 『백두산』 연구」, 부경대 석사, 2003.

[183] 김현주, 「조기천의 『백두산』 연구」, 목포대 교육, 2004.

[184] 신동호, 「한국시에 나타난 백두산 상징 연구」, 중앙대 석사, 1999.

[185] 장부일, 「한국 현대 장시의 전개양상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21집』(1996.2).

[186] 박정호, 「한국 근대장시 형성과정 연구」, 외대 박사, 1997.

[187] 이들은 「백두산」이 김대장보다는 민중들의 표상인 꽃분과 철호를 통한 민중영웅주의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보았다.

[188] 새로운 제도의 성립 속에서 중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였고 새 역사의 주인공을 찾기 위한 여러 이야기의 하나로 「백두산」이 창작되었다고 보았다.

[189] 「백두산」이 서사시(혹은 장시)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

[190] 신동호의 논문에서 백두산은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국가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상징체계로서 남한에서는 4. 19 를 통해 민족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등장하면서 민족정신과 통일의 상징체계로 되었다고 하였다.

[191] 김지선, 위의 글, 4 쪽.

Scanned with CamScanner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에서 '인민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 수령을 따르고 그 길에 인민의 민족적 존엄과 행복이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가 바뀐다.[192] 박종식은 '주체 태양의 품에 안겨 영생하는 혁명시인'으로 조기천의 시세계를 논하고 있다.[193]

그러나 실제로 작품을 읽어보면 조기천이 '김일성'이라는 '주체 태양의 품에 안겨 영생하는 혁명시인'이고 '수령형상의 원형'으로서 「백두산」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조기천은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낙관과 신념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했던 시인'이라는 것이 정확한 견해라 할 것이다.

2. <서사시>에 대한 예비 고찰

근대의 서사시에 대한 개념은 사실 소설에서의 서사개념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예비 고찰만 하겠다.

서구의 서사시 이론과 한국적 특성을 감안하여 서사시를 규정짓는다면 한국의 근대 서사시는 집단의식을 표상하며, 구성요건을 갖춘 어떤 이야기가, 압축되고 함축이 있는 시적 문체로 서술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집단의식'과 '이야기', 그리고 '시적 문체'이다. 집단의식은 고대의 영웅서사시 이래로 가장 중시되어온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서사시의 대상이 되어온 영웅들의 행위는 각 민족의 신화, 전설, 민담, 역사 등 집단의식을 소재로 한 것이다. 서사시는 한 개인의 개인적 정서표출보다는 이러한 집단의식, 즉 신과 영웅들이 공존하는 세계라든가 개인의 의식과 행동이 사회적 요구와 일치하는 집단적 배경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의식은 반드시 시적문체를 지녀야 한다. 서사시가 시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압축되고 함축이 있는 시적 문체'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서사시는 한 편의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적 문체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여부가 근대 서사시의 중요한 평가기준의 하나가 된다. 또한 서사시에는 무엇보다 '이야기'가

---

[192] 시대 순으로「조선문학통사」,「조선문학사」,「조선문학개관」 등의 순서로 조기천 부분을 확인해 보면 대략의 내용은 위와 같다.
[193] 「북과 남, 해외 시의 피줄도 하나」, 평양출판사, 주체 90(2001)년 5 월.

Scanned with CamScanner

도입되어야 한다. 이 서사성은 서사시를 서사시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194]

장부일의 견해대로 서사시는 '개인의 의식과 행동이 사회적 요구와 일치하는 집단적 배경'에서 시작하여 '압축되고 함축이 있는 시적 문체'로 쓰여진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는 이 견해를 확장하여 '장시'라는 개념도 도입한다.

한국 근대 시사에서는 이러한 서사시로 분류할 수 있는 <국경의 밤>이나 <승천하는 청춘>을 위시해서 몇몇 작품들의 존재를 찾을 수 있기도 하지만, 또한 長詩이면서도 서사시의 골격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시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김기림의 <기상도>의 경우, 서정시로 분류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형을 지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서사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시에는 서사적 구조 대신에 다수의 정서적 태도가 인위적으로 통일되어 있을 뿐인데,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시들을 '抒情 長詩'라는 개념으로 부를 수 있다. 서정 장시는 서사시와는 달리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의 전개에 의존하여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기 보다는 다수의 정서를 여러 가지 시적 방법에 의해 결합하여 어떤 추상적이고도 광범한 관념을 표출하는 형식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게다가 서사시가 객관적 시점을 유지하는 데 비해 서정 장시는 주로 주관적 시점을 견지하는 특징 또한 지니고 있다. 서사시와 함께 이러한 서정 장시를 모두 포함하여 '장시'란 개념으로 칭할 수 있다.[195]

그의 '장시'[196]에 대한 견해는 일견 타당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길이가 긴 시를 모두 서사시라고 할 수도 없으며,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모두 서사시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서사'와 '서사성', '서사시'를 엄밀히 구별하여 좀더 세분화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부일은 '장시'를 형식적으로는 길이가 길고, '서사성'은 가지고 있되, 서사시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시점을 유지하기보다는 '주관적 시점'을 가지고 있는 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

194 장부일, 같은 글, 43 쪽.
195 장부일, 같은 글, 43~44 쪽.
196 김재용은 '서정서사시'와 '장시'를 구분하여 장시와 유사성을 갖지만, 서정서사시 속에는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장시와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김경숙, □북한현대시사□, 태학사, 106 쪽) 이런 형식적 차원에서 장르 구별은 좀더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그러한 특징을 조기천의 「백두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97]

서사적 방식으로 씌여진 시의 한 형태. 서사시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거기에 참가한 인간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일정한 이야기 줄거리에 따라 재현한다. 이 점에서 외부세계에 의하여 환기된 시인의 체험과 사상감정을 직접 토로하는 서정시와 구별된다. 서사시에서는 주인공의 성격과 사건에 대한 묘사가 시인의 사상감정, 정서적 체험에 대한 직접적 토로와의 통일속에서 주어진다. 서사시는 서사적인것과 서정적인것이 결합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서정서사시와 공통성을 가지나 서정서사시보다 서사적 성격이 더 강하고 대상에 대한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시인의 서정적 토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서사시는 사건구성과 언어묘사에서 간결성과 선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함축과 비약의 수법을 많이 쓴다. 서사시는 일반적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건이나 위대하고 영웅적인 인간의 생활과 투쟁, 업적 등을 형상하는 경우가 많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영웅적현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위대한 전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인민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영웅적위훈, 당의 령도따라 벌어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근로사들의 장엄한 투쟁 등은 우리 나라에서 서사시문학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오게 한 생활적 바탕으로 되었다. 서사시 ≪백두산≫, ≪우리의 태양 김일성원수≫ 등을 그 실례로 들 수 있다.[198]

---

[197]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비슷한 견해로 박정호의 논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박정호의 논문에서는 '서사시'와 '장시'에 대한 구분이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백두산」을 서사시로 볼 것인지 장시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박정호, 같은 논문 : 또한 설화와 삽입가요 등이 혼성되어 있는 장르복합적 장시이다. 이 시는 설화의 서사적 사건 전개에 의해 줄거리가 전개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동감 있는 인물을 배치하여 웅대한 스케일의 서사적 사건을 전개시키며 정치상을 드러내고 철학적 주장을 토로하면서 장형화되었다. (중략) 다수의 인물이 등장하고 투쟁과 사랑,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목적을 성취하면서 시는 장형화 되었다. 패배와 좌절, 비애와 회한의 정서가 주조를 이루는 가운데 민족적 자부심과 민중의 성취감을 고취시킨 미학적 건강성이 인정되며, 서사·본사·결사를 갖춘 서사시로서 나라찾기와 나라세우기의 형상적 인식으로서도 그 의의가 주목된다. 긴장감이 감도는 사건의 전개와, 고소설과 같은 흥미와 유장한 서사, 영화와 같은 속도감 등이 이 시의 대중적 성공요소이자 강점이다. 「백두산」은 풍부하고도 적절한 우리말 구사, 웅대한 스케일, 다양한 성격의 창조, 미학적 건강성, 역사와 정치의 적극적 형상화 등으로 장형화된 시로서 한국 근대장시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주었다(206~207 쪽).
[198] 파일 자료, 「문학예술사전」의 검색어: 서사시.

Scanned with CamScanner

위의 예문에서 보여지듯 북에서의 '서사시'는 '주인공의 성격과 사건에 대한 묘사가 시인의 사상감정, 정서적 체험에 대한 직접적 토로와의 통일속에서 주어진다'고 보았다. 또 서정서사시와의 대조를 통해 서사성의 강도 차이가 서사시와 서정서사시를 구별하게 해 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상 시에 드러나는 '서사성'과 '서정성'의 비율을 수치로 계산하여 볼 수 있겠는가? 결국 '서사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만이 '서사시'와 '서정시', '서정서사시'라는 장르규정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3. 「백두산」의 서사시적 성격

3.1. 조기천의 <서정서사시> 개념과 「백두산」

당시 북의 시단에서는 서사성을 획득하기 위해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개인적 정서표출보다는 집단의식이, 즉 '집단적 주체'들의 '부르기와 응하기'[199]를 통해 당대의 현실을 빨리 대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 북한의 시문학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사성의 강화이다. 그것은 서정시에 서사성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서사시가 이전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창작되면서 시 분야의 핵심적인 양식으로 자리잡는 경우로 나타나기도 한다.[200]

김재용은 당시 북의 시단에서 서사성을 요구하게 된 이유로 우선 '현실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대한 시적 대응의 필요성', 둘째로 '민족해방의 고양과 집단적 기억' 때문이라고 하였다.[201] 또한 서사시의 등장에는 두 가지 '원천'이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일제하에서 서사시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로 서사성을 강하게 띤 장시들이 나옴으로써 서사시로 발전한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었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소련으로부터의 영향(소련 문학의 포에마라는 장르)'이 있었다는 것이다.[202] 그리고 이 시기의 서사시는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뉜다고 보았다.

---

199 이 부분의 자세한 사항은 졸고, 「안타나클라시스로서의 김일성」에서 참조할 것.
200 김재용, 「서정성과 산문화 사이에서」,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2003, 2 쇄), 165 쪽.
201 김재용, 같은 책, 166 쪽.
202 김재용, 같은 책, 172 쪽.

Scanned with CamScanner

하나는 '일제하 항일운동을 다룬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대 현실을 배경으로 외세에 맞서 통일을 이루려는 것'을 그린 것으로 본 것이다. 김교수는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조기천의 「백두산」을, 후자의 예로 조기천의 「생의 노래」를 들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앞선 두 논자들의 견해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남한의 학계에서 정설처럼 정리된 부분이기도 하다. 또 이 견해들은 남한만의 시선은 아니며, 북쪽의 견해와 서사시라는 점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 북쪽에서는 이 견해에 '수령형상문학의 원형'이라는 것을 덧붙이는 정도로 보면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사시'와 '서정서사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한 마디로 서정서사시라고 하지만 그것을 서사시와 서정서사시로 구별할 수도 있다. 즉 서정서사시 작품들 가운데서 주로 거대한 사회력사적 사변을 취급함으로써 서사성이 서정성보다 우세한 작품을 특히 서사시라고 부른다.

그러나 서정서사시에서 서사성이 우세한가, 그렇지 않으면 서정성이 우세한가 하는 것은 묘사 대상의 규모나 성격, 그리고 시인의 창작 개성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극히 불안정한 상대적 기준이며 따라서 서사시라는 그 어떤 시 쟌르 혹은 형태를 형성시키는 사상미학적 특성으로는 될 수 없다. (중략) 서정서사시는 소설과 마찬가지로 사건과 인물을 등장시켜 그것을 조형적 화폭으로 묘사하면서 슈제트와 이야기를 구성한다. 또 주인공의 성격과 운명의 발전을 통하여 일정한 사상주제적 목적을 실현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서정서사시에서는 소설에서처럼 객관적 입장에서 외부적으로 묘사하고 작가 자신은 태연자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인의 감정을 거쳐서 정서적으로 묘사한다. 즉, 서정서사시에서 시인은 현실을 그에 대한 시인 자신의 정서적 관계 속에서 묘사하면 자신의 주정 속에서 구워내어 정서적으로 토로한다. (중략) 서정서사시에서 사건들과 인간관계에 대한 묘사는 소설에서와 같은 전개된 묘사가 아니라 대담한 생략과 압축이 가해지고 그 압축되고 생략된 공간이 시인의 주정토로로 암시되는 그런 묘사다.[203]

이 글에서 엄호석은 「백두산」이 '서정서사시 작품으로서도 비교적 사건들이 풍부하고 서사성이 많'지만 단편소설에 비하여 '슈제트가

---

[203] 엄호석, 「시문학 쟌르와 형태」, <청년문학> 1964. 11.12; 박기훈 엮, 「사실주의 서정시 강좌」, 이웃 1992, 114~116 쪽에서 재인용.

Scanned with CamScanner

단순하고 간결'하다고 평하고 있다. 이로부터 '서정서사시에서는 주인공의 성격 특히 그 내면세계의 해명도 소설에서처럼 주인공의 행동, 정황, 심리 자체의 논리에 내맡기는 길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시인의 태도의 표명, 즉 주정토로를 통하여' 시가 더 많이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백두산」을, 특히 서시 부분에서 '서정서사시적 묘사의 모범'으로까지 평할 수 있다는 것이다.[204] 반면 안함광은 '조기천이 《우리의 길》 을 비롯하여 자기의 몇 개 작품에 서정서사시라는 명칭을 준 것은 그 작품들을 창작함에 있어서 두 개 표현 방식의 결합을 동등한 비중으로 설정하였었다는 창조적 특성과 결부'[205]된다고 보았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북이든 남이든 「백두산」에 대한 장르적 규정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사시'와 '서정서사시'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복합적이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북에서 정리한 '서사시'와 '서정서사시'의 개념이 그쪽에서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작품을 통해 엄밀한 고찰도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남에서든 북에서든 과연 시에서의 '서사성'의 요구가 '서사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올바르게 구현되었는지, 또 각 작품들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생각하게 된다. 이는 남과 북의 견해에 모두 동일하게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조기천은 그의 시편들에 '서정서사시'와 '서사시'를 구분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그러나 시인의 개념규정이 정확한 것인지, 또 조기천의 '서정서사시론'이 실제 북쪽의 문단에서 개념규정한 '서정서사시'에 합당하게 쓰여 졌는지, 조기천의 '서사시'들은 과연 '서사시'에 합당하게 쓰여 진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이 시점에서는 절실히 필요하다.

서사적 묘사와 서정적 토로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진 시의 한 형태. 서사시가 서사적 방식에 서정적 방식이 결합되여 이루어진 형태라면 서정서사시는 서정적 방식에 서사적 방식이 결합되여 이루어진 형태이다. 서정서사시는 서사시와 마찬가지로 인물들의 성격과 그들의 호상관계, 사건, 사실 등을 묘사한 이야기줄거리를 가지고 있으나 서사시에 비하여 서사적 성격이 약하며 그 대신 서정성이 보다 강하다. 서정서사시는 그 형태상 특성으로 하여

---

[204] 엄호석은 '서정서사시'와 '서사시', '담시'의 개념을 명확하게 활용하지만, 어느 정도 '서정서사시'와 '서사시'를 혼합된 개념으로 보는 면도 있다.
[205] 안함광, 「조선문학사」, 교육도서출판사, 1956.

Scanned with CamScanner

생활반영의 규모와 용적이 서사시에 비하여 작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의 올바른 문예정책에 의하여 서정서사시가 다른 시문학형태들과 함께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고 있다. 서정서사시 ≪항쟁의 려수≫, ≪연풍호반의 새봄≫, ≪장군님의 어머니≫등은 그 실례로 된다.[206]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서정서사시는 '서정적 방식에 서사적 방식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형태'로 '이야기 줄거리'를 가지고 있으나 '서사성'은 약한 서정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정서사시는 앞서 이야기된 대로 조기천의 초기 시집에서 조기천 스스로가 붙인 이름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 시편들로는 「땅의 노래」「네거리에서」「우리의 길」[207], 「땅의 노래」, 「항쟁의 려수」[208]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과연 조기천이 스스로 붙인 서정서사시들은 평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서정적 방식에 서사적 방식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형태'로 '이야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항쟁의 려수」는 '밤은 깊어가도', '어머니', '그들은 셋이였다', '새벽에', '바다여'라는 소주제가 엮인 '서정서사시'이다. 이 시는 총 510 행으로 되어 있다. 여순항쟁[209]을 다룬 시편으로, '밤은 깊어가도'에서는 '조선의 남단 려수 / 인민위원회 일어서고 / 공화국의 자랑스런 깃발이 / 밤하늘에 치솟는 / 인민항쟁의 려수-'의 긴장된 상황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까지도 항쟁의 대열에 서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여준다. '어머니'에서는 시적화자가 바뀌어 항쟁에 참가한 오빠의 동생이 총에 죽은 어머니를 부르며 자신도 '조국의 자유를 위해 / 독립과 민주를 위해 / 불속으로 불속으로 / 우리 인민이 나아갑니다 / 어머니 / 저도 나갑니다!'라고 표현한다. '그들은 셋이였다'에서는 다시 '밤은 깊어가도'의 화자처럼 작품 밖의 인물로 바뀌어 아버지와 아들 형제의 투쟁을 노래한다. '새벽에'는 '그'의 투쟁과 결의를, '바다여'에서는 작품 밖의 화자가 바다를 대상으로 당시 학살의 현장을 증언하고, '원쑤에게 달려'들어 '애국의 장엄한 파도'가 되라는 내용이다.

---

206 파일 자료, 「문학예술사전」의 검색어: 서정서사시.
207 조기천, 「우리의 길」, 조선인민출판사(평양), 1948. 8.
208 조기천, 「백두산」, 문예출판사(평양), 1986.5.
209 '항쟁'인가 '반란'인가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겠다. 역사적인 가치 판단에 대해서도 고민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이 시는 상당히 「백두산」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호흡이며 구성이 거의 동일하다. 기본적인 호흡자체는 물론 구성의 차원에서도 길이만 짧고 내용만 달랐다 뿐이지 거의 동일한 작품으로 읽히는 것이다. 「항쟁의 려수」는 전체적으로 화자가 작품의 밖에서 '사건의 순간'을 다루면서 정서적인 융합을 시도,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감정의 표출과 의미 부여가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는 서정서사시로서 면모를 확인하는 것에 변화가 없다. 그 중 주목해야할 것은 '어머니'에서 화자가 변한다는 점이다. 각 시편들을 분절적으로 보면 '어머니'는 서정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화 될 수 있다. 임화의 단편서사시 「우리 오빠와 화로」와도 상당히 유사한 시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 시에서 시인의 대변자로서 등장하는 시적화자는 '서사시'로서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항쟁의 려수」에 등장하는 인물군은 모두 불특정 인물군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인물상이 아닌, 그렇다고 전형성을 완전히 획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다. 인물에 어떤 이름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인물의 전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는 서사시에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인물형을 형상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편서사시'와 '서정서사시', '서사시'의 구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서정시에 몇 가지 이야기(서사적 골격)가 들어가 있다고 하여 이를 서정시가 아닌 '서정서사시'로 규정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210]

비교적 자세하게 「백두산」의 서사시로서 면모를 고찰한 다음의 견해를 보면

「백두산」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시가 서사시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백두산」은 <장편서사시>라고 명기되어 있음을 본다. 그렇다면 서사시란 무엇인가? 연전에 필자는 우리의 근대서사시를 살펴본 결과 서사시가 ①서사적 구조를 지니고 있을 것, ②역사적 사실과 연관·대응될 것, ③사회적 기능을 지니고 있을 것, ④집단의식을 바탕으로 할 것, ⑤창작된 당대현실과 암유적 관계를 지닐 것, ⑥노래체의 율문으로 짜여질 것, ⑦길이가 비교적 길어야 할 것 등을 그 범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비춰볼 때 「백두산」은 모든 항목에서 대체로 부합됨을 알 수 있다. 즉 「백두산」은 서사시로서의 기본 요건인 일정한 성격을

[210] 그뿐만 아니라 '단편서사시'라고 이야기된 이전의 시형태와 구분은 명확한가라는 문제의식도 가질 수 있게 된다.

Scanned with CamScanner

지닌 인물과, 일정한 질서를 지닌 사건을 갖춘,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①서사시적 구조를 지니고 있을 것'에 부합한다. 또한 「백두산」은 일제 강점하 민족의 수난사와 민족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②역사적 사실과 연관 대응될 것'이라는 조건에도 부합한다. 또한 「백두산」은 일제 강점하의 항일무장투쟁사를 직접 형상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③④의 항목과 관련되며, 광복 후의 현실상황에서 새조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자고 하는 의도에서 집필됐다는 점에서는 '⑤당대현실과 암유적 관계를 지닐 것'과도 밀접히 대응된다. 아울러 노래체의 율문형식으로 씌어진 1,500 자 여 행의 장시라는 점에서는 ⑥⑦과 연관된다. 따라서 「백두산」은 서사시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의 최대 수난기에 처해서 그러한 민족적 위난을 타개하고 조국광복과 독립을 전취해 나아가려는 일제하의 무장투쟁과정의 한 모습이 서사시적 구성으로 파란만장하게 펼쳐짐으로써 민족·민중서사사의 한 전형성을 확보한데서 이 작품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하겠다.[211]

여러가지 의미에서 「백두산」에는 '서사시적 성격'이 많다. 김재홍 교수의 말에 의하더라도 서사시적 성격은 대단히 많은 요소에 의해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 즉 객관적 화자의 객관적 진술을 통한 서사성의 확보가 충족되지 않아 조기천의 '백두산'은 '서사시'가 아닌 '서정서사시'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이야기 되었듯이 '서정서사시'가 '서사시'보다 '서사성(서사적 골격)이 적고 서정성이 강하다'는 차원에서다.

3.2. 「백두산」의 <서사시적 성격>

「백두산」은 머리시, 본시, 에필로그로 이루어진 대단히 긴 장시이다. 본시만 7 장 46 절로 이루어져 있다. 본 내용을 요약하면

1 장: 백두산 일대에서 항일무장유격대와 일제토벌대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진다. 철호는 비밀공작원으로 조선에 파견된다.

2 장: 철호는 백두산의 화전 마을에서 꽃분이를 지도한다.

3 장: 꽃분은 대담한 기지로 위험에 빠진 철호를 구하고 둘 사이는 동지적이면서 묘한 연정의 관계를 이룬다.

---

[211] 김재홍, 「<백두산>, 그 진행형 테마 - 조기천/백두산 론」, 「문학사상」 지령 200 호, 199~200 쪽.

Scanned with CamScanner

4 장: 항일무장유격대들은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규율을 지키며 살아간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김대장에 대한 에피소드가 삽입되어 있다.

5 장: 철호와 함께하던 나어린 소년 영남은 압록강에서 장엄하게 전사하고, 꽃분은 H 시로 떠난다.

6 장: 꽃분과 철호의 공작으로 유격대는 H 시를 습격할 수 있었고, 민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떠난다.

7 장: 토벌대의 공격으로 석준과 철호는 전사하고 남은 유격대는 해방의 각오를 불태운다.

본시의 내용은 서사적 골격을 잘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본시에서 서사적 골격이 깨지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동무들! / 우리 빨찌산들이 / 어느때부터 마적이 되었는가? / 어느때부터/ 평민의 재산을 로략했는가? / 이 굴레를 보라- / 이 소는 조선농민의 소다 / 저 소는 중국농민의 소다'[212]

이 부분은 김대장의 고매한 품성과 강한 규율성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유일하게 들어 있는 부분이다. 석준이 훔쳐온 소를 잡자 김대장은 너의 행동은 왜놈들을 돕는 행위라고 이야기한다. '동무들! / 우리는 대하가 되련다 바다가 되련다 / 우리의 근간도 민중속에, 우리의 힘도 민중속에 있다! / 민중과 혈연을 한가지한 빨찌산임을 우리 잊었는가?'라며 석준뿐만 아니라 유격대원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준다. 김대장은 '임자를 찾아 소값을 주라'라고 명령하고 돌아선다. 이 상황을 통해 빨찌산들이 어떤 커다란 충직과 신념에 가슴이 꽉 차오른다.[213] 그러나 다음 부분을 통해서 서사시로서 가져야할 거리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보면 서사적 골격이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새파랗던 석준의 낯에
몇줄기 붉은 빛,
빨찌산들의 낯에도
해발이 비친다
어떠한 커다란 충직과 신념이
빨찌산들의 가슴에 드러누워

---

[212] 백두산 4 장 5~6 부분.
[213] 조기천, 「백두산」, 43-45 쪽.

Scanned with CamScanner

툭-툭 어리광치듯
심장을 쥐여박는다

이 부분에서 화자는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작품 속의 인물에 대단히 많이 근접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본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 동무들!≫ / 철호 일어서며 말한다. / 마을은 잠든 듯 / 젖빛 솜을 막 쓰고 / 오로지 순사주재소 높다란 대문간만 / 우둑이 상 찌프리고 / 마을을 흘겨보는 듯. / 어둠은 산촌을 누르며 막 들어서는데 / 화전골 솔밭 속엔 네 사람의 말없는 리별. / ≪자, 그러면...≫ / 마음들이 엉성키는 그 악수 / 그리곤 심장의 벽을 툭 울리는 리별의 첫 발자취소리! / 전우들의 악수- / 그것은 싸움의 맹세였다. / 승리의 신심이였다. / 승리의 신념이였다. / 우리의 동무들이 / 그렇게 악수하고 / 탄우 속으로 뛰여들었고 / 사지에 선뜻 들어섰다. / 그렇게 악수하고 / 감옥에 뒤몰려갔고 / 교수대에 태연히 올라섰다. / 아아, 어린애의 웃음같이도 깨끗하고 / 어머니의 사랑같이 꾸준하고 / 의의 선혈같이 빨간 / 적도의 태양같이 열렬한 / 충직한 전우의 그 악수!... (밑줄 필자)[214]

이 부분이 철호의 심리적 묘사였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화자의 직접적인 개입일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은 서사적 골격에서 벗어나 주변인물화 되어버리기도 한다.

또한 「백두산」의 전체 구조에서 인물의 구현에도 상당한 문제의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투쟁을 미화하거나 찬양하려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작품의 기본 전개는 「철호-꽃분」으로 표상되는 민중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민중서사시적 성격을 더 지닌다고 하겠다. 특히 민족이 고난에 찬 운명과 역사적 진로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민족서사시의 성격을 강하게 띄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215]

이 작품이 주는 감동이나 생동력은 철호나 꽃분이의 민중적인 생활감각이나 투쟁성에서 비롯되는 요인이 크다. 이들의 고난에 찬 삶과 투쟁과정이 민중적인 전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단점이 드러난다. 이들의 용맹성이나 애국주의, 동지애,

214 「백두산」 2 장 마지막 부분.
215 김재홍, 같은 글, 208~209 쪽.

Scanned with CamScanner

희생정신 등이 돋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게서 「살아 있는」 인간미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에 암시된 연정이 좀 더 성숙된 면모로서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형성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됐더라면 작품의 비장미가 더욱 고조됐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오직 투쟁만을 위해 일직선으로 달려감으로써, 이념에 의해 조작되는 「자동 인간형」으로 처리되고 마는 데서 아쉬움이 놓여진다는 말이다. 그것은 전형적인 투사의 모습으로서는 성공적인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인간적 따뜻함과 진솔함에서 우러나는 살아 있는 인간형 창조라는 점에서는 실패라고 할 수 있다.[216]

김재홍의 지적대로 「백두산」에서 주된 인물상은 '철호와 꽃분'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철호와 꽃분이를 중심으로한 민중들의 형상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에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의 지적대로 '자동 인간형'의 투쟁 전사로만 보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작 시 자체에서는 '철호와 꽃분'의 전형적 면모와 인물의 내적 갈등, 구체화된 면모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백두산」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서사시로서 가져야할 덕목의 부족은 결정적으로 머리시와 맺음시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머리시와 맺음시는 본시와는 전혀 다른 과정으로 창작되었으면 주정적 토로가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217]

삼천만이여!
오늘은 나도 말하련다!
<백호>의 소리없는 웃음에도
격파 솟아 구름을 삼킨다는
천지의 푸른 물줄기로
이 땅을 파몰아치던 살풍에
마르고 탄 한가슴을 추기고
천년 이끼오른 바위를 벼루돌 삼아
곰팽이 어렸던 이 붓끝을
육박의 창끝이듯 고루며
이 땅의 이름없는 시인도
해방의 오늘 말하련다!

X

---

[216] 김재홍, 같은 글, 213~215 쪽.
[217] 필자는 이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우선 본시와 머리시와 맺음시가 따로 쓰여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Scanned with CamScanner

중략

X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의 선혈로 딩굴었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밤길 더듬어
백두의 밀림 찾았더냐?
가랑잎에 쪽잠도 그리웠고
사지를 문턱인듯 넘나든이 그 뉘냐?
산아 조종의 산아 말하라-
해방된 이 땅에서
뉘가 인민을 위해 싸우느냐?
뉘가 민전의 첫머리에 섰는냐?

X

중략

X

바위! 바위!
내 알리 없어라!
정녕코 그 바위일수도 있다
빨찌산초병이 원쑤를 노렸고
애국렬사 맹세의 칼 높이 들었던 그 바위
빨찌산용사 이 땅에 해방의 기호치던
장백에 솟은 이름모를 그 바위
또 내 가슴속에도 뿌리박고 솟았거니
지난날의 싸움의 자취 더듬으며
가난한 시상을 모으고 엮어
백두의 주인공 삼가 그리며
삼천만이여, 그대에게
높아도 낮아도 제 목소리로

Scanned with CamScanner

가슴 헤쳐 마음대로 말하련다![218]

머리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 전체의 서사적 골격에 의해 이야기되는 많은 에피소드들을 통해 빨찌산의 싸움, '지난날의 싸움의 자취'를 더듬어 '가난한 시상을 모으고 엮어 / 백두의 주인공 삼가 그리며 / 삼천만이여, 그대에게 / 높아도 낮아도 제 목소리로 / 가슴 헤쳐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화자(시인과 동일한 존재로 느낄 수 있는)가 이 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맺음시에서 의인화되어 처리된 '백두산'의 외침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우리 시문학에 있어서 마야코프스키의 고귀한 전통을 올바로 받은 시인의 작품이 전체 인민의 열렬한 지지와 애독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그것은 곧 우리 시문학의 방향에 뚜렷한 지침을 주고 있는 장편서사시「백두산」을 비롯한 조기천씨의 일련의 작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인들이 진정한 애국자로서 인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선 마야코프스키 시의 고상한 사상성, 인민성, 예술성 및 그 형식을 깊이 연구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219]

조기천 및 당대 이북의 시인들이 이어받았다고 이야기되는 소련의 서사시는 어떠한가? 마야코프스키의 「블라지미르 일리치 레닌」을 보면

...
　　날카로운 레닌의 눈길.
심장을 꿰뚫듯,
　　영혼을 끄집어내듯
이 한 번의 눈길로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농부들의 절규와
　　병사들의 신음을.
노동자가 무엇을 원하고
　　　　광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는

---

218 「백두산」 머리시 부분.
219 민병균, 「쏘베트 시문학을 섭취함에 있어서 경험과 교훈」, 『노동신문』, 1949; 이선영 외, 『현대문학비평자료집』 1 권, 태학사, 383~390 쪽 ; 김지선 논문 재인용.

Scanned with CamScanner

온 세상을 둘러보고
온 나라 백성을
　　가늠해 보았다.
밤새도록
머리 속으로
　　지구를 달아보고
아침에
일어나 외쳤다 :
<모든 이여 들으라,
　　모든 이여,
　　　모든 이여 들으라!
병사들,
부자들에게
짓밟힌
모든 노예들이여,
　　들으라!
소비에뜨에게 권력을!
농민에게 토지를!
인민에게 평화를!
배고픈 이에게 빵을!>
이 말을 듣고서
　　부르주아는 두고보자 별렀다.
두호닌과 꼬르닐로프,
　　구츠꼬프와 께렌스끼,
모두들 이를 갈며 별렀다.
그러나
병사들은
　　한 방의 총성도 없이
레닌의 말에
　　순종했다.
　　　-「블라지미르 일리치 레닌」 부분[220]

1924 년에 마야코프스키는 「블라지미르 일리치 레닌」이란 영웅서사시를 썼다. 본문에 실려 있는 이 장시는 1 천행에 이르는 것으로서 오늘날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방법이 승리를 거둔 하나의 전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

220 마야코프스끼(석영중 역), 『좋아!』, 열린책들, 150~151 쪽.

Scanned with CamScanner

이 시 속에서 마야코프스키는 레닌의 삶, 레닌의 공적을 역사적으로 민중 및 당과 연관지우면서 그리고 있다. 이 시는 민중의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역사에서 한 개인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시는 레닌, 민중, 당이라고 하는 세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 속에서 노동자를 자본주의적인 노예상태에서 해방시키는 데 지도적인 역할을 한 노동계급이 간과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레닌은 시대의 새로운 전형이자 총화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야코프스키도 이 긴 장시 끝부분에서 레닌을 '심비르스크의 한 벽지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 시 구석구석에서 보이는데, 레닌이 장기를 두고 있는 장면은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레닌을 총체적으로 잘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적으로 해석해 볼 때 이 영웅서사시엔 서사시와 서정시를 종합시키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다. 이 시속엔 시인의 형상인 서정적 자아가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서정시로 끝나지 않은 까닭은 묘사된 현실 혹은 묘사된 대상이 서정적 주인공에 의해 굴절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관성에 만일 이 시가 서정적 주인공의 체험을 읊조리는 것이었다면 서사시로 나아가지 못하였을 것이다.[221]

위 인용문의 지적대로 서사시는 '묘사된 현실 혹은 묘사된 대상이 서정적 주인공에 의해 굴절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재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백두산」에서는 '서정적 주인공'이 아닌 작품 밖의 '시적 화자'(거의 시인과 동일한 시선의 거리에 있는 존재)에 의해 굴절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북쪽에서 평가하듯이 「백두산」이 '김일성을 위한 송시'로 보기 위해서도 채워야 할 내용과 형식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다. '항일 혁명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김일성을 총체적으로 잘 형상화'해야 할 것이고, '묘사된 현실 혹은 묘사된 대상'을 '객관적으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앞에서 인용했던 구절들을 통해 '김일성'이라는 영웅을 서사시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인물들의 형상화하는 것에서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도 서술하였듯이 「백두산」 전편에는 하나의 주된 정서가 일관되게, 서로간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흐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작가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서술자'이다. 이 서술자의 정서가 작품

---

[221]이득재, 「시와 혁명」, 『내가 아는 한 노동자』, (열린책들,1989), 124-125 쪽.

Scanned with CamScanner

전면에서 깊은 관계를 가지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철호와 꽃분'이라는 민중적 영웅 의 구체적인 형상(구체적인 상황과 그 상황에서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감정까지 포함한)이 오히려 '서술자'의 시선과 서술자의 정서로 인해 흐릿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야코프스키의 「블라지미르 일리치 레닌」을 통해서 확연하게 볼 수 있다.[222]

4. 결론 - 북한문학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선

조기천의 「백두산」이 '서사시'인가 아닌지는 '보편적 문학' 개념을 적용한 '서정시'와 '서사시'의 절대적 구분을 통해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정(抒情)이란 '정서를 풀어낸다'는 뜻이다. 즉 화자의 정서를 '직접' 풀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반면 서사(敍事)란 '사건을 펼친다'는 뜻이다. 화자(서술자)가 어떤 사건을 간접적으로 펼쳐 보이는 것에서 문학성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정시와 서사시의 가장 극명하고 단순한 차이는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일 것이다. 즉 서사시라고 불리는 어떤 시에 어떤 특성이 있어서 '서사시'라고 정의하고 싶다고 하여도 '화자가 어떤 사건을 간접적으로 펼쳐 보이지 않는다면 서사시가 될 수 없다. 그럴 때에는 서사시적 성격을 가진 서정시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논자는 「백두산」을 '서사시'가 아닌 '서정서사시'의 전범으로 보았다. 물론 북쪽에서 그러한 견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북쪽에서는 서사시와 서정서사시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서사시'로서의 면모와 '수령형상문학'으로서의 면모만 내세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남쪽에서도 역시 비슷한 오류들이 보인다. 특히 북한 문학, 즉 조선 문학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이다.

논자는 내재적이면서도 외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그들의 용어를 쓰되, 그들이 잘못 쓴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 올바른 내용으로 정리하여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기천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자신 스스로 정리해 놓은 용어가 있다. 바로 '서정서사시'이다.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통해 조기천의 「백두산」이 정통 서사시가 아닌 '서정서사시'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조선 문학(이북 문학 - 북한 문학)에 대해서 연구할 때, 외재적 비판이냐 내재적 비판이냐를 가지고 혹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

[222] 혁명의 진행형, 투쟁의 과정에 대한 내용은 A, 블록의 「12」을 통해 확인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고찰하도록 하겠다.

Scanned with CamScanner

견해를 가지고 미리 재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조선 문학'에 대한 견해는 통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문제를 좀 더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무조건 부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무조건 쫓아간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을 문제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단순하게 말해 보편적인 문학 개념을 통해 '개념'을 정확하게 의미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조기천 선집: <백두산> <우리의 길>

Gabroussenko, Tatiana 는 「Cho Ki-chon: The Person Behind the Myths」「korean Studies - Volume 29」

김지선, 「조기천의 『백두산』 연구」, 부경대 석사

김현주, 「조기천의 『백두산』 연구」, 목포대 교육

신동호, 「한국시에 나타난 백두산 상징 연구」, 중앙대 석사

장부일, 「한국 현대 장시의 전개양상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 21 집』

박정호, 「한국 근대장시 형성과정 연구」, 외대 박사

김재용,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

파일자료, 「문학예술사전」

김경숙, 「북한현대시사」, 태학사

박종식, 「북과 남, 해외 시의 피줄도 하나」, 평양출판사

박기훈 엮, 「사실주의 서정시 강좌」, 이웃

안함광, 「조선문학사」, 교육도서출판사

「문학사상」, 지령 200 호

마야코프스끼(석영중 역), 「좋아! 」, 열린책들

마야코프스끼(이득재 역), 「내가 아는 한 노동자」, 열린책들

「통일문학」, 2005.2;제 5 권 5 호

Scanned with CamScanner

Жу Гичонь зохиолчийн шүлгийн судалгаа

И Согчоль

[Хураангуй]

Жу Гичонь шүлэгч, түүний бүтээл шүлгүүдийг хэлбэрээр ангилвал дараах байдалтай байна.

- Шинэ эх орноо байгуулах чин хүсэл, найдлага, баярыг дуулсан шүлэг
- Өмнө зүгт санаа зовсон, тэмцэлд уриалсан, партизаныг дуулсан шүлэг
- Эх орны чөлөөлөх дайны нөхцөл байдал, уур хилэн, ялалтын чин зоригийг дуулах шүлэг
- Хувь хүний мэдрэмж, дүрслэлийг дуулсан шүлэг
- Японыг эсэргүүцэн зэвсэггүй тэмцэх явдлыг дуулсан шүлэг
- Зөвлөлт улс, Хятад улсыг дотночлох зэрэг олон улсын, нийгэм

Судлаач би бээр “Пэгдү Сан/Пэгдү уул/”-ыг “Туульс” бус “Уянгын туульс” –ын үлгэр гэж үздэг. Мөн дотоодод чиглэсэн төдийгүй гадаад байдлыг ч сонгох нь чухал гэж үзэж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эдгээрт хэрэглэгдэх нэр томьёо нь тэдгээр хүмүүс буруу хэрэглэсэн явдал байгаа бол түүнийг нь засаад, зөв агуулгатай болгон цэгцлэн бичих хэрэгтэй. Жишээлбэл, Жу Гичонь нь дээрх нөхцөл байдлын талаар өөрийн цэгцтэй нэрлэсэн нэр томьёо байдаг. Тэр нь “Уягнын туульс” юм. Бидний өмнө нь ярьсан зүйлсээр Жу Гичонь “Пэгдү Сан/Пэгдү уул/” нь уламжлалт туульс бус “Уянгын туульс”-аар бичигдсэнийг мэдэж болно.

Голлох үг : Хойд солонгосын утга зохиол, туульс, уянгын яруу найраг, уянгын туульс, Пэгдү сан/Пэгдү уул/

Scanned with CamScanner

동북아시아의 가족학 분야 공동 연구 및 협력 증진 방안

테.남질[223]

가족의 기원과 발전을 역사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통시적 관점에서 연구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가족은 전통과 개혁의 상호관계 속에서 발전하기 때문이다.

가족의 발달과 그 미래상에 대한 문제들은 오늘날 전세계의 학자들과 연구자들의 호기심과 연구동기를 자극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터키, 미국 등에서는 학자들이 가족 문제를 연구하여 책으로 적극적으로 출판하고 있다.

몽골인들의 전통과 풍습은 아시아나 유럽 등 다른 지역의 유목민들과 아주 똑같지는 않더라도 많은 면에서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으며, 정착문화를 가지고 있는 주변국들의 전통과 풍습 중에도 몽골과 유사한 것들이 있어 왔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이란, 인도, 미국 등으로부터도 어떤 것들은 몽골인들의 전통과 풍습속에 유입되기도 하였다.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전통과 풍습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앞에서 언급한 나라들로 전파되어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전통과 풍습이든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몽골과 같이 아시아와 유럽의 정치,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충지가 되고 있는 곳들은 더더욱 여러 나라와 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거만하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세계 전체의 상황이나 여러 나라들의 **공동의** 이익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각각 자기 민족만을 생각할 때가 많았다.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정치적 시도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고, 국가간의 협력 사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형태들이 시도되고 그 범위도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들간의 교류도 늘어나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긴밀해져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현대에, 몽골과 동양인들의 전통을 민족정서와 그에 기반한 행위라는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이 몽골인들의 문화, 기원과 족보, 역사 연구의 중요한

---

[223]울란바타르대학교 정교수. 가족학 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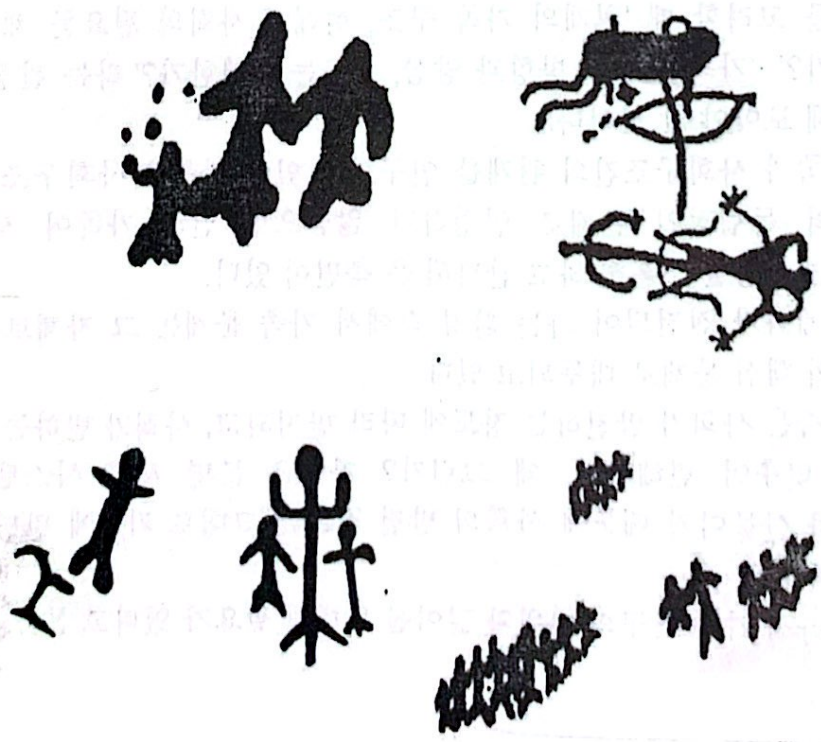
Scanned with CamScanner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나아가 전 인류의 문화와 역사에 끼친 영향을 분명히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생활하던 주거 공간들에 대한 발견과 연구가 몽골, 러시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지에서 행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몽골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지역의 암각화에서 게르(몽골 전통 가옥), 여자, 남자, 아이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양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무덤 속에 남자와 여자를 함께, 또는 남자(아버지)· 여자(어머니)· 아이를 함께 매장한 것이 발견되고 있으며, 석상에도 남자와 여자가 벗은 상태로 마주 보도록 배치한 것이 발견되었고, 땅을 파서 만든 집이나 움막 등에서도 남녀가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모양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바퀴살이 있는 마차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발굴물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은 몽골 가족의 기원과 형태의 발달성을 연구하고 정의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유물들을 근거로 추정해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 쯤에 일부일처제의 가족 형태가 중앙아시아(몽골)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Scanned with CamScanner

가족은 사회가 초기 단계에서 상급 단계로 발전해 감에 따라 그 형태도 미숙한 모습에서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변해간다.

실제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몽골은 사회 전반에 걸쳐 깊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세계에 걸쳐 가족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15-20 년 후 쯤) 여자와 남자의 새로운 세대가 출현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문화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한 가지 주제와 통일된 계획에 따른 연구 과제를 정하여 몽골, 동양, 서양의 여러 국가들에 대해 연구를 시행하는 것은 학문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일 것이다.

가족 연구는 어떤 학자 혼자서, 또는 어떤 나라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따라서 전세계가 합심하여 가족 연구의 기초를 튼튼히 놓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게.모르간은 '만약 가족의 형태가 4 세대를 거쳐 이제 5 세대에 접어들었다는 근거를 받아 들인다면 이 5 세대 가족 형태는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지금으로부터 약 140 여년 전인 19 세기에 자기 자신에게 던졌었다.

그렇다면 현재 인류가 21 세기에 진입하여 사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모르간이 제시한 질문에 대해 21 세기의 사회 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의 가족 구조, 형태가 사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 '가족 변화의 방향과 양상, 정도는 어떠한가?' 라는 관점에서 대답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족과 사회구조간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가족을 사회구조 속의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족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소홀히 하고 간과해 온 측면이 있다.

세계화가 진전되어 가는 환경 속에서 가족 문제는 그 자체로 사회 발전의 핵심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족은 사회가 발전하는 정도에 따라 반전되고, 사회가 변하는 것과 발을 맞추어 변해간다. 왜 그런가? 가족은 분명 사회 시스템에서 발생한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의 발전 정도는 그대로 가족에 반영되기 때문이다[224].

따라서 가족 연구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24] F.Engels.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K.Marx, F.Engels. 선집. 울란바타르, 1971. p.305/

Scanned with CamScanner

그렇다면 이를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맞닿게 된다. 사회 문화 연구의 범위 안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는 가족문제와 연관하여 일하고 있거나 일하기를 원하는 학자들, 연구자들 간에 서로 관계를 맺고, 정보와 연구결과를 상호 교환하고, 공동 연구를 행하고,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저서를 발간하는 등의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의 목표는 몽골의 한국학 연구자인 베.소미야바트르가 강조하여 한 말에 잘 나타나 있다. "그저 단지 언어 현상을 상호 비교하는 수준의 연구에서 벗어나 그 언어를 사용하고 유지하고 전수해 온 그 국민의 역사, 문화 속에 내재된 의미, 민족학, 역사학, 의미론, 고고학 등의 연구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본질적 의미를 분명히 알아내고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문헌

1. Т.Намжил. Монгол ба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гэр бүл. УБ., 1996, 2002.
2. Т.Намжил. Монгол, Дорно, Өрнийн гэр бүлийн зан заншлын уламжлалын харилцаа, хамаадал. УБ., 2002
3. Т.Намжил. Монгол гэр бүлийн түүх. УБ., 2009
4. Ф.Энгельс. Хувийн өмч, өрх гэр, төрийн үүсэл. /К.Маркс, Ф.Энгельс. Түүвэр зохиол III. 1971.305 дахь тал/

Scanned with CamScanner

ЗҮҮН ХОЙД АЗИД ГЭР БҮЛ СУДЛАЛ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ХӨГЖҮҮЛЬЕ

Т.Намжил[225]

Гэр бүлийн үүсэл, хөгжлийг түүхэн үзэгдэл хэмээн ойлгож, түүхэн харьцуулсан аргаар судлах нь үр дүнтэй байх бололтой. Учир нь гэр бүл бол уламжлал, шинэчлэлийн холбогдлоор хөгждөг.

Гэр бүлийн хөгжил, түүний хэтийн төлвийн асуудал орчин үед ч дэлхий дахинаа эрдэмтэд судлаачдын анхаарлыг зүй ёсоор татсаар байна. Солонгос, Орос, Хятад, Япон, Турк, Америкт гэр бүлийн асуудлыг судалж, эрдэмтэд өөрсдийн бүтээлүүддээ зохих байр эзлүүлдэг боллоо.

Монголчуудын зан заншил нь Ази, Европын бусад нүүдэлчдийнхтэй яг адилгүй атлаа олон талаар төстэй байсан бөгөөд зэргэлдээх суурьшмал улс орны зан заншилд ч Монголынхтой ойролцоо зүйл байсаар байжээ.

Алс тэртээх Европ , Иран, Энэтхэг, Америкаас зарим зүйл Монголчуудын заншилд ч нэвтэрсэн. Төв Азийн нүүдэлчдийн зан заншлын зарим зүйл ч тэдгээр оронд дам нөлөөлсөн явдал байна.

Ямар ч улс түмний зан заншил бусдынхаас бүр мөсөн ангид тасархай, ондоо байдаггүй. Монгол зэрэг Ази, Европын улс төрийн амьдрал, хөгжлийн чухал зангилаа, хөшүүрэг мэт болсон газарт бусад улс түмний нөлөө их байсан нь мэдээж юм.

Бид үзэл суртал “үндсэрхэх үзэл”-н харгайгаар дэлхийн нийтлэг байдлын тухай, янз бүрийн орнуудын нийтлэг эрх ашгийн тухай бодохоосоо илүү тус тус үндэстнүүдийн талаар бодох нь л их байдаг байв.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д улс төрийн шинэ сэтгэлгээ тодорхой биелэлээ олж байгаагаар мэдэгдэхүйц нааштай өөрчлөлт гарч, улс орнууд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д шинэ шинэ хэлбэрүүд бий болж, цар хүрээ нь өдрөөс өдөрт өргөжин тэлж, улс түмэн харилцан ойлголцож, ойртон нягтрах нь нэн чухал үйл явц болж байгаа өнөө үед Монгол, Дорнын ард түмнүүдийн уламжлалыг зан үйлийн талаас судлах нь Монголчуудын соёл, удам угсаа, түүхийн судлахуунд хэрэглэгдэхүүн болоод зогсохгүй Төв Азийн

---

[225] Улаанбаатар дээд сургуулийн гэр бүл судлалын Профессор, Гэр бүл судлаа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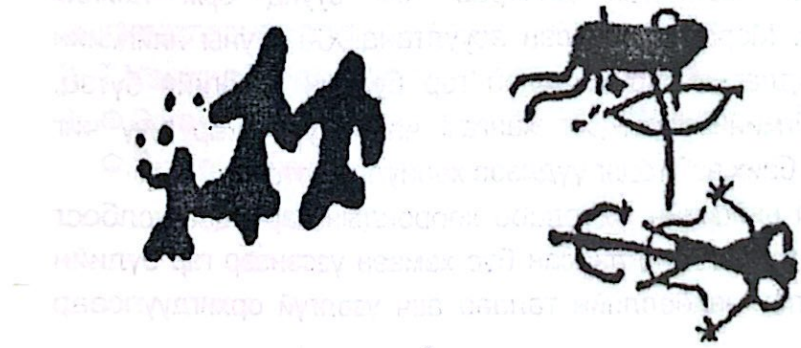
Scanned with CamSca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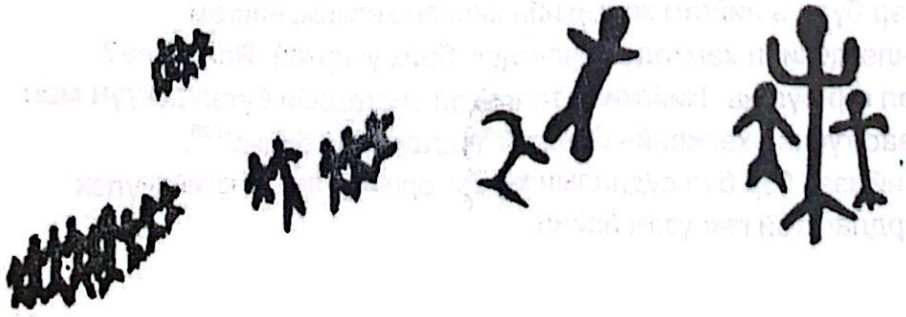
ард түмнээс нийт хүн төрөлхтний соёл, түүхэнд гүйцэтгэсэн үүргийг тодруулахад зайлшгүй шаардагдах чухал хүчин зүйлийн нэг болох юм.

Шинэ чулуун зэвсгийн үед хүний амьдарч байсан оромж, гэр байшин Монгол, Орос, БНСУ,БНАСАУ, Япон, Америк тивийн орнуудад нилээд судлагдан мэдэгдэх болж байна.

Бидний хийж буй судалгааны үр дүнгээс үзвэл Төв Азийн нутаг дахь хадны зураг дүрсэлсэн гэр, эмэгтэй, эрэгтэй хүний, хүүхдийн зураг зэрэг онцлох тэмдгийн хэлбэр дүрс, хийц дүрслэл, булшинд эрэгтэй, эмэгтэйг хоёуланг нь, эрэгтэй /эцэг/, эмэгтэй /эх/-ийг хүүхдийн хамт оршуулсан, хүн чулуунд эрэгтэй, эмэгтэй хүний биеийг нүцгэн байдлаар дүрсэлж, хосоор өөд өөдөөс нь харуулан босгосон, малтмал сууц, урцнаас гэрт, бүлгээрээ гэр бүл бололцох хэлбэрээс хос гэр бүл үүссэн, төмөрлөгийг хэрэглэж эхэлсэн, хэгээстэй бүхээгт тэрэг үүссэн зэргийг нотолж буй эртний судлалын олдворууд нь Монголчуудын гэр бүлийн үүсэл, хэлбрийн хөгжлийг тодорхойлох хэрэглэгдэхүүн болж байна.

Эдгээрт үндэслэн үзвэл одоогоос 6 мянга гаруй жилийн өмнө моногам гэр бүл Төв Ази /Монгол/-д үүссэн байжээ.





Scanned with CamScanner

Гэр бүл нь нийгэм доод шатнаас дээд шатанд дэвшин хөгжихийн хирээр доод хэлбэрээс дээд хэлбэрт шилжиж байдаг.

Чухам энэ үүднээс үзвэл Монгол оронд нийгмийн өргөн хүрээнд гүнзгий, эрс өөрчлөлт явагдаж байна.

Дэлхий дахинд гэр бүлүүдэд эрс өөрчлөлт гарах эхлэл тавигдаж байна. Ойрын ирээдүйд /15-20 жилд/ эмэгтэйчүүд болон эрэгтэйчүүдийн шинэ үе бий болно.

Ийм учраас бид харилцан хэлхээ холбоотой байж, бие биедээ соёлынхоо нөлөөг судлахын тулд нэгэн сэдэв, нэгдсэн төлөвлөгөөтэй судалгааг Монгол, Дорно, өрнийн орнуудад хийх нь шинжлэх ухаанд илүү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Гэр бүл судлал нь нэг эрдэмтний бус, нэг орны гүйцэтгэх ажил биш боллоо. Тиймээс дэлхий дахинаа гэр бүл судлалын суурийг хамтын идэвхи хүчээр баттай тави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олох нь харагдаж байна.

Г.Морган хэрэв гэр бүл дөрвөн хэлбэрийг дараалан туулаад тав дахь хэлбэртэй байгаа тэр баримтыг зөвшөөрөн хүлээвэл, энэ хэлбэр цаашдаа удаан хугацаагаар үргэлжлэн байх уу? гэдэг асуултыг өөртөө одоогоос 140-өөд жилийн өмнө XIX зуунд тавьсан байдаг.

Тэгвэл хүн төрөлхтөн даяараа XXI зуунд орж нийгэм өөрчлөгдсөөр. Морганы тавьсан асуултанд XXI зууны нийгмийн хөгжлийн хандлагыг баримжаалан гэр бүлийн өнөөгийн бүтэц, хэлбүүд нийгмийн хэрэгцээг хангаж чадах уу, ямар шүү чиг баримжаатай байх вэ? гэдэг үүднээс хариулах ёстой.

Гэр бүл ба нийгмийн тогтолцоо хоорондын харилцаа холбоог судлахад гэр бүлийг бие даасан бус хэмээн үзсэнээр гэр бүлийн нийгэмд үзүүлэх нөлөөллийн талаар авч үзэлгүй орхигдуулсаар иржээ.

Глобаль хөгжлийн орчин дахь гэр бүлийн асуудал нь өөрөө нийгмийн хөгжлийн нэг зангилаа асуудал болон тавигдаж байна.

Гэр бүл нь нийгэм хөгжихийн хирээр хөгжиж, нийгэм өөрчлөгдөхийн хамтад өөрчлөгдөж байх учиртай. Яагаад вэ? Гэвэл гэр бүл нь "Нийгмийн тодорхой систем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 мөн учраас түүний хөгжлийн байдлыг тусгаж байх болно"[226].

Тиймээс Гэр бүл судлалын хүрээг өргөжүүлэн гүнзгийрүүл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гэж үзэж байна.

---

[226] Ф.Энгельс.Өрх гэр, хувийн өмч, төрийн үүсэл. /К.Маркс, Ф.Энгельс. Түүвэр зохиол. УБ.,1971.305 дахь тал/

Scanned with CamScanner

Үүний тулд яах ёстой вэ? Гэсэн асуудал гарч ирж байгаа юм. Нийгэм, соёлын судлалын хүрээнд Зүүн хойт Азийн гэр бүлийн асуудлаар ажиллаж байгаа болон ажиллах сонирхолтой эрдэмтэд, судлаачдын хооронд холбоо тогтоох, харилцан мэдээлэл солилцох, хамтран судалгаа хийх,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д оролцуулах, хамтын бүтээл туурвих зэрэг чиглэлийг баримтлан хөгжүүлэх нь зүйтэй болов уу.

Үүний тулд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ГЭР БҮЛ СУДЛАЛЫН ХАМТЫН НИЙГЭМЛЭГ"** –ийг байгуулж, ажиллуулах саналыг дэвшүүлж байна.

Бидний гол зорилго бол Солонгос судлаач Монголын эрдэмтэн Б.Сумъяабаатарын онцлон тэмдэглэснээр: "Зөвхөн хэлний үзэгдлийг хооронд нь харьцуулан судлах хүрээнээс хальж, тэдгээр хэлийг өвлөн авч ирсэн ард түмнийх нь түүх, утга соёлын нийтлэг, угсаатан судлал, түүх, утга зохиол судлал, хуучны судлалын хэрэглэгдэхүүнийг нийтэд нь ашиглан утга учрыг нь тодруулахад оршиж байна".

Ашигласан ном:

1. Т.Намжил.Монгол ба Зүүн хойт Азийн гэр бүл. УБ.,1996, 2002.
2. Т.Намжил. Монгол, Дорно, өрнийн гэр бүлийн зан заншлын уламжлалын харилцаа, хамаадал. УБ.,2002
3. Т.Намжил.Монгол гэр бүлийн түүх. УБ.,2009
4. Ф.Энгельс. Хувийн өмч, өрх гэр, төрийн үүсэл./ К.Маркс, Ф.Энгельс. Түүвэр зохиол III . 1971.305 дахь тал/

Scanned with CamScanner

Дарьгангын Гуулин хотын туурь болон Алтан овооны хөхөвтөр цайвар өнгийн хүн чулууны талаар өгүүлэх нь.

P.Batchuluun[227]

Гарчиг

1. Оршил
2. Нэг: Туурийн товцог
3. Хоёр: Туурийн эргэн тойронд
4. Гурав: Алтан Овооны хүн чулуу
5. Дүгнэлт

Хавсаргалт

[Хураангуй]

Улаанбаатар Дээд сургуулийн эрдэмтэн багш нар болон Солонгосын судлагч нараас бүрдсэн “Монголын хэл, түүх, соёл судлалын шинжилгээний ангийнхан” 2011 оны 08 дүгээр сар 05-нд Дарьганга сумын төвөөс өмнө (баруун өмнө гэж болно) зүгт 12 гаруй км-т орших “Сүмтийн тойрмын туурь” буюу “Гуулин хотын туурь” гэж нэрлэгдэх газар очив.

Энд жалга судаагаар тусгаарлагдсан хоёр жижиг товцог байх бөгөөд хойд талын товцог дээр нь эртний туурь байна. Туйр байх товцгийн хойд талыг эмжиж дагасан шулуун, тэгш өнцөг хэлбэртэй ул мөрийг товцгийн хэмжээтэй нь харьцуулан жишиж үзэхэд харьцангуй урт ажээ. Туурийн товцог дээр барилгын дээврийн вааран эдлэлийн гол түүхий эд болгон ашиглаж байсан нарийн ширхэгтэй цагаан шар шороо их байна. Цагаан шар шороо нь тойром, туурь орчмын хөрс шорооноос ялгаатай бөгөөд үүнийг өөр газраас зөөж авчирсан гэж үзэж байна. Энд шатааж боловсруулсан хөхөвтөр саарал, бор шаргал өнгийн ваар (дээврийн) эдлэлийн үлдэгдэл их байна. Мөн төмрийн агуулга ихтэй болох нь мэдэгдэх, харьцангуй хүнд жинтэй улаан хүрэн, хүрэн өнгийн чулуу багагүй хэмжээтэй байна.

Алтан Овооны зүүн хормойд “ ноён хөрөг ” гэж нэрлэдэг чулуун хөшөө байдаг. Дорнод Сүхбаатар аймгийн нутагт байх хүн чулуун хөшөө нь ихэвчлэн цагаан шаргал, бор шаргал өнгийн боржин болон галт уулын хүрмэн чулуугаар хийгдсэн байдаг бол Алтан Овооны “ноён хөрөг” хүн

[227] 울란바타르대학교 몽골어 석사과정.

Scanned with CamScanner

чулууны өнгө бусдаасаа ялгарах хөхөвтөр цайвар өнгийн гантиг чулуугаар хийгдсэн.

Алтан овооны хөхөвтөр цайвар өнгийн хүн чулуу(ноён хөрөг)–г Сүмтийн тойрмын буюу Гуулин хотын гар урлалын газартай ихээхэн хамааралтай урлаж бүтээснийг салган үзэх аргагүй.

Голлох үг: Хүн чулуу, Овоо, Туурь, шаазан ваар, Дээврийн хавтан

Улаанбаатар Дээд сургуулийн эрдэмтэн багш нар болон Солонгосын судлагч нараас бүрдсэн "Монголын хэл, түүх, соёл судлалын шинжилгээний ангийнхан" 2011 оны 08 дүгээр сар 05 -нд Дарьганга сумын төвөөс өмнө (баруун өмнө гэж болно) зүгт 12 гаруй км-т орших "Сүмтийн тойрмын туурь" буюу "Гуулин хотын туурь" гэж нэрлэгдэх газар очив.

Туурийн эргэн тойрны газар ус болон туурь дээр байгаа зарим зүйлийн талаар өгүүлэх нь:

Энд жалга судаагаар тусгаарлагдсан хоёр жижиг товцог байх бөгөөд хойд талын товцог дээр нь эртний туурь байна.

Нэг: Туурийн товцог.

<u>Шулуун, тэгш өнцөгтэй байгууламжийн үл мөр</u>

Туурь байх товцогийн хойд талыг эмжиж дагасан шулуун, тэгш өнцөг хэлбэртэй үл мөрийг товцгийн хэмжээтэй нь харьцуулан жишиж үзэхэд харьцангуй урт ажээ/зураг 1/.

<u>Ваар эдлэл:</u>

Туурийн товцог дээр барилгын дээврийн вааран эдлэлийн гол түүхий эд болгон ашиглаж байсан нарийн ширхэгтэй цагаан шар шороо их байна/зураг 2/. Цагаан шар шороо нь тойром, туурь орчмын хөрс шорооноос ялгаатай бөгөөд үүнийг өөр газраас зөөж авчирсан гэж үзэж байна. Энд шатааж боловсруулсан хөхөвтөр саарал, бор шаргал өнгийн ваар (дээврийн) эдлэлийн үлдэгдэл их байна/зураг 3/. Дээврийн ваарын үлдэгдлийг сайтар нягтлан үзэхэд дотор найрлага бүтцэд нь цайвар хөхөвтөр өнгийн чулууг хольж шатаасан нь тод харагдана. Ваар (дээврийн) эдлэлийн заримынх нь ар талд уг зүйлийг хийх үед ашиглаж байсан бүдүүн нэхээст даавууны мөр тод үлджээ.

<u>Төмрийн хүдэр</u>

Scanned with CamScanner

Туурийн товцог дээр төмрийн агуулга ихтэй болох нь мэдэгдэх, харьцангуй хүнд жинтэй улаан хүрэн, хүрэн өнгийн чулуу багагүй хэмжээтэй байна/зураг 4/. Туурийн ойр хавьд төмрийн хүдэртэй газар байхгүй гэх бөгөөд төмрийн хүдэрийг хаа нэгтээгээс зөөн авчирсан байна.

Хагарч бутарсан хөхөвтөр цайвар өнгийн чулуу.

Туурийн товцог дээр хагарч, бутарсан хөхөвтөр цайвар өнгийн гантиг чулуу багагүй хэмжээтэй байна/зураг 5/.

галт уулын чулуу

Дурдаж буй хоёр товцгийн нэг дээр галт уулын хүрмэн чулуу их хэмжээгээр байгаа нь тэндээс зүүн урд зүгт нэлээд зайтай унтарсан галт уулаас зөөн авчирч хэрэглэж байсан бололтой /зураг 6/.

билүү чулуу

Туурийн ойр орчимд ургаа байдлаар илрээгүй, харьцангуй хатуу шинжтэй билүү чулуу их хэмжээтэй байгаа нь мөн л өөр газраас зөөн авчирч хэрэглэж байсныг харуулж байна/зураг 7/.

Хоёр: Туурийн эргэн тойронд

Ургаа хадтай товцог.

Туурийн урд талд ойрхон хөхөвтөр саарал өнгийн ургаа гантиг хад бүхий жижиг товцог байна/зураг 8/. Ургаа хадтай жижиг товцгийн орой дээр болон туурийн товцог дээр хагарч бутарсан хөхөвтөр цайвар гантиг чулуу багагүй хэмжээтэй байгааг чулууны мастерууд үйлдвэрлэл, урлал явуулж байхдаа үлдээсэн ул мөр гэж үзэж байна.

Хөхөвтөр гантиг чулууг өнгөлж шинжихэд Алтан овооны зүүн хормойд байх “ноёны хөрөг” хөшөөний чулуутай адил төстэй байна.

Ургаа хадат товцог дээр хүний гарын нөлөөгөөр бутарсан чулуунаас өөр туурийн товцог дээрх шиг олон зүйл орхигдоогүй онцлогтой.

Товцгийн урд этгээдэд хужиртай тойрмын эрэг түрж хиллэнэ.

Даацалдаг булаг

Туурийн зүүн хойд зүгт даацалдаг, булгийн усыг одоо буусан малчид унданд хэрэглэдэг.

Scanned with CamScanner

Гурав: Алтан Овооны хүн чулуу.

Алтан Овооны зүүн хормойд "ноён хөрөг" гэж нэрлэдэг чулуун хөшөө байдаг.

Дорнод Сүхбаатар аймгийн нутагт байх хүн чулуун хөшөө нь ихэвчлэн цагаан шаргал, бор шаргал өнгийн боржин болон галт уулын хүрмэн чулуугаар хийгдсэн байдаг бол Алтан Овооны "ноён хөрөг" хүн чулууны өнгө бусдаасаа ялгарах хөхөвтөр цайвар өнгийн гантиг чулуугаар хийгдсэн. /зураг 9/

Дүгнэлт

Үүнийг бичигч дараахи гол санааг дэвшүүлж байна:

Сүмтийн тойрмын туурь буюу Гуулин хотын туурь гэж нэрлэх энэ газарт эрт цагт гар үйлдвэрлэл явагдаж байсан.

Туурийн эргэн тойрноос олдсон олон төрөл зүйл материалыг тус бүрийн зориулалтаар нь салган ангилж үзвэл төмрийн дархан, чулуучид, ваар шаврын мастерууд энэ газарт үйлдвэрлэл явуулж байсан.

Сүмтийн тойрмын буюу Гуулин хотын туурийн дэргэдэх товцгийн хөхөвтөр өнгийн ургаа гантиг чулуугаар Алтан овооны чулуун хөшөөг урлаж хийсэ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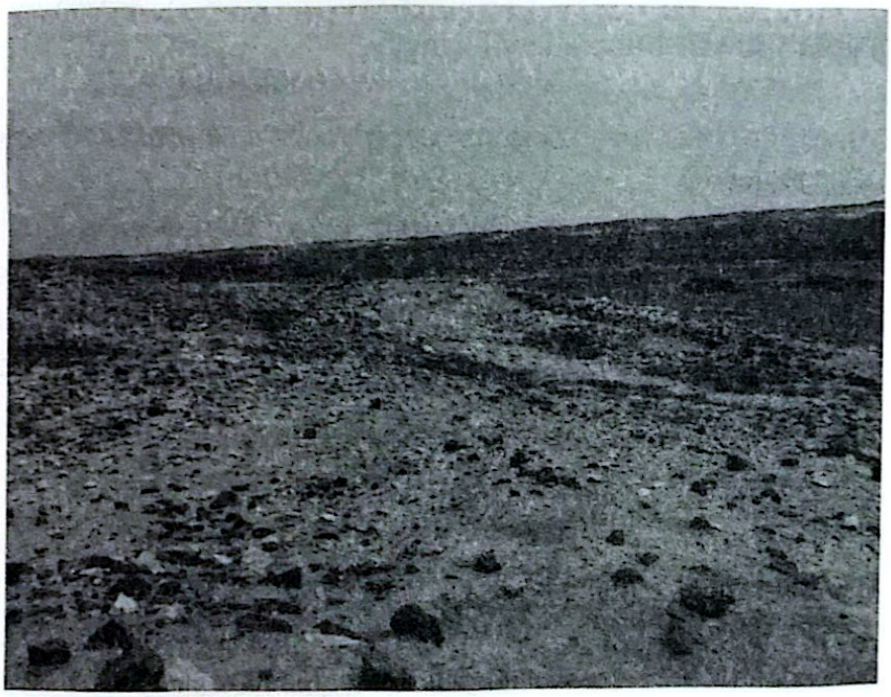
Алтан овооны хөхөвтөр цайвар өнгийн хүн чулуу(ноён хөрөг)–г Сүмтийн тойрмын буюу Гуулин хотын гар урлалын газартай их хамааралтай урлаж бүтээснийг салган үзэх аргагүй.

Хэзээ нэгэн цагт Гуулин улсын гар урчуудтай Дарьганга нутгийн урчууд хамтран ажиллаж, ур ухаанаа уралдуулж нутаг нутгийнхаа соёлын онцлогийг солилцон байсныг үгүйсгэх аргагүй ю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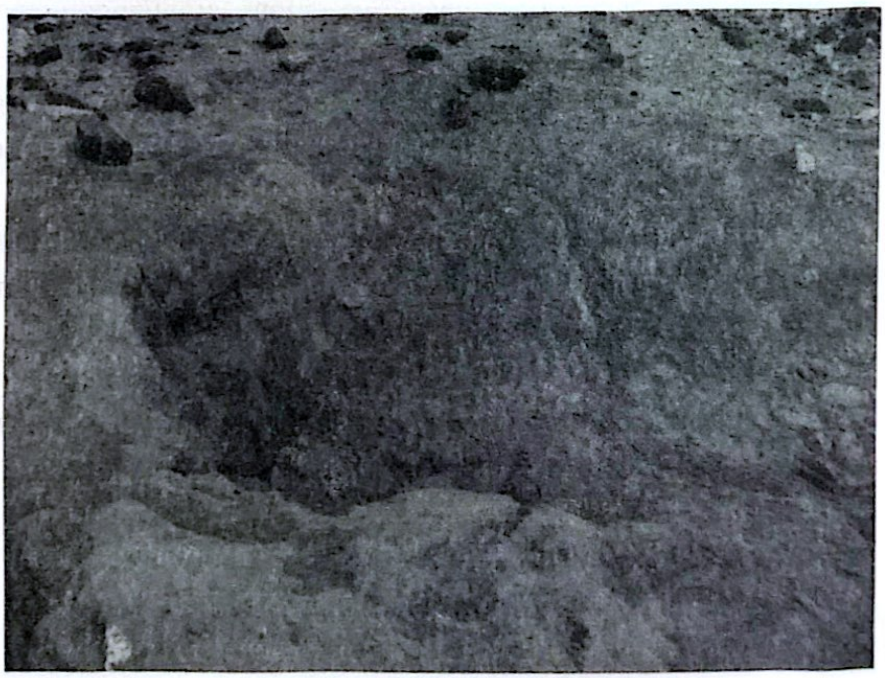
Дорнод Монголын судалгааны анги
Боловсруулалт хийж, бичсэн П. Батчулуун.
2011.09.25

Я. Цэвэл.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вч тайлбар толь" тал – 550. 1966 он. УБ.

Scanned with CamScanner



зураг 1. чулуун хашааны ул мөр



зураг 2. нарийн ширхэгт цагаан шар шороо.

Scanned with CamScanner



зураг 3. хөх саарал, бор шаргал өнгийн ваар эдлэл



зураг 4. төмрийн хүдэр агуулсан чулуу

Scanned with CamScanner



зураг 5. туурийн дээрх бутарсан хөхөвтөр чулуу



зураг 6. туурь дээрх галт уулын чулуу

Scanned with CamScanner



зураг 7. туурь дээрх билүү чулуу



зураг 8. туурийн дэргэдэх хөхөвтөр хадтай товцог

Scanned with CamScanner



зураг 9. алтан овооны хөхөвтөр цайвар чулуун хөшөө

Scanned with CamScanner

Blue stone in remain of Old Korea(Guuling) and Blue stone statue in Altan Ovoo

P.Batchuluun

[한국어 초록]

울란바타르대학교 교수들과 한국인 연구자들로 구성된 '몽골어와 역사, 문화학 연구팀'이 2011 년 8 월 5 일에 다리강가(몽골 지명) 중심 마을에서 남쪽으로 12km 지점 'Sumtiin toirmiin tuir(숨트잉, 옛 터)', 즉 'Goolin hotiin tuir(고려 도시터)'라고 불리우는 곳을 찾았다.

이 곳에는 골짜기로 분리된 두 개의 작은 언덕이 있는데, 뒤쪽의 언덕에 옛터가 있다. 이 언덕 위에 평선과 네모난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터가 있으며, 건축 지붕에 쓰이는 진흙 기와 원료로 사용했던 가루로 된 하얗고 노란 흙이 많다. 그리고 가마에 태운 푸른 색, 흰색, 갈색 도자기 조각들이 많다. 또는 철광석, 파랗고 밝은 색의 대리석, 화강암, 숫돌도 보인다.

'알탕 오버이(금 성황당)' 산의 왼쪽 끝에 '너영 허럭(남자양반 석인상)'이라는 석인상이 있다. 더르너드와 수흐바타르 아이막에 있는 석인상들은 보통 황색, 갈색 화강암과 현무암으로 만들어졌는데, '알탕 오버이'의 '너영 허럭'은 그것과 달리 파랗고 밝은 색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Sumtiin toirmiin tuir' 즉 'Goolin hotiin tuir'이라는 이 곳에는 옛날의 수공 공장이 있었다. '알탕 오버이'의 '너영 허럭' 석인상은 그 옛도시터와 상관이 없을 수 없다고 본다.

주제어 : 석인상, 성황당, 터, 도자기, 기와.

Scanned with CamScanner

금관가야 허왕후의 출신지에 관한 학설 검토[228]

Davaa Uugantuya[229]

目次

I. 머리말
II. 허왕후에 관한 기록과 유적
2.1.『삼국유사(三國遺事)』,「가락국기(駕洛國記)」와 탑상편,「금관성바사석탑」
2.2. 가야국 유적과 유물
III. 허왕후의 출신지에 관한 설
3.1. 아요디아 왕조가 식민국으로 건설한 태국 메남강의 아유티야설
3.2. 야요디아를 거쳐 중국 사천성(四川省) 안악현(安岳縣)에서 온 허씨족 소녀설
3.3. 한반도 서남해의 해양세력인 왜(倭) 지배층 출신
3.4. 중국 내륙지방인 서장성의 아유타국 아리지방
3.5. 발해 연안 출신
3.6. 왜(倭) 땅인 북 큐슈로부터 온 가락 계통의 귀족 처녀
3.7. 낙랑 지역에서 온 상인 집단의 일족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삼국유사(三國遺事)』,「가락국기(駕洛國記)」가 전하고 있는 가야국 건국신화, 즉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왕의 부인 허(許)씨의 출신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데 있으며, 각각의 주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975 년부터 허왕후의 출신지 문제는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나, 오늘날도 의문으로 남아있다.『삼국유사(三國遺事)』,「가락국기 (駕洛國記)」는 허왕후의 입을 빌려 "저는 아유타국(阿鍮陀國)의 공주" 이라 전하고 있는데, 이 아유타국 (阿鍮陀國)이 어디이며, 허왕후는 무엇 때문에 가야로 시집왔을까?

---

[228] 이 논문은 한국의 숙명여자대학교에서 2011 학년도 제 2 학기 대학원 수업 <한국신화 연구>(담당교수: 이지영)에서 본인이 발표한 과제물을 논문 형식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주제발표 때와 최종과제물 제출 때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주신 이지영 교수님께 감사 드린다.

[229]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 고전문학 전공 박사과정 1 학기

Scanned with CamScanner

이종기는 "아요디아 왕조가 식민국으로 건설한 태국 메남강의 아유티야", 김병모는 "아요디아를 거쳐 중국 사천성(四川省) 안악현 (安岳縣)에서 온 허씨족 소녀", 의희근은 "한반도 서남해의 해양세력인 왜(倭) 지배층 출신", 강평원은 "중국 내륙지방인 서장성의 아유타국 아리지방", 김인배는 "발해 연안 출신", 김석형은 "왜(倭) 땅인 북 큐슈로부터 온 귀족 처녀", 김태식은 "낙랑 지역에서 온 상인 집단의 일족"이라 주장하고 있다.

본고는 각각 주장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에 주목하였다. 본 설화 내용을 해류와 항해술 혹은 쌍어문의 고유성의 해명없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설화 내용을 어디까지 실제로 보아야 하며, 과연 설화 속 지명을 실명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풀고 정리해야 할 과제물인 듯 싶다. 더불어 김수로왕과 허씨는 같은 집단인가? 다른 집단인가? 이와 같은 의문들이 정리되어야 허왕후의 수수께끼가 어느 정도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다.

주제어: 김수로왕, 가야, 허왕후, 쌍어문, 아유타국

I. 머리말

가야국[230] 시조 김수로왕의 부인은 허(許)씨인데,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 중에 어떤 아들은 김해 김씨가 되었고, 어떤 아들은 김해 허씨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는 김해 김씨, 김해 허씨가 370 만명이 넘어 약 400 만에 육박하고 있다.[231]

『삼국유사(三國遺事)』는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왕과 그의 부인 허왕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허왕후의 출신지에 관한 문제다.

『삼국유사(三國遺事)』는 허왕후의 입을 빌려 "저는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로서 성은 허(許)요, 이름은 황옥 (黃玉)이며 나이는 열여섯입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 아유타국이 어디인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아요디아 왕조가 식민국으로 건설한 태국 메남강의 아유티야설, 아요디아를 거쳐 중국 사천성(四川省)

---

[230] '가야'라는 이름을 쓴 국가는 둘이었다. 400 년경까지는 김해의 가락국이 '가야'라고 청하였고, 5 세기 후반 이후에는 고령의 대가야국이 '가야'라고 청하였다. 고고학적으로 보아 4 세기 이전의 문화 중심은 김해 지방이고, 5 세기 이후의 문화 중심은 고령 지방이었다. 그러므로 일단 4 세기 이전을 전기(前期) 가야시대, 5 세기 이후를 후기(後期) 가야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야사정책연구위원회, 『가야, 잊쳐진 이름 빛나는 유산』, 혜안, 2004 년, 25 쪽.)

[231] 강평원, 『쌍어속의 가야사』, 생각하는백성, 2002 년, 66 쪽.

Scanned with CamScanner

안악현(安岳縣)에서 온 허씨족 소녀설 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와는 전혀 다른 견해도 있는데, 일본열도에서 돌아온 가락국 왕녀설과 낙랑에서 온 상인설 등이 그것이다.

본고는 아요디아 왕조가 식민국으로 건설한 태국 메남강의 아유티야설, 아요디아를 거쳐 중국 사천성(四川省) 안악현(安岳縣)에서 온 허씨족 소녀설을 비롯한 기본설에 대한 후자의 비판을 제시함으로써, 연구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허왕후에 관한 기록과 유적

2.1. 『삼국유사(三國遺事)』, 「가락국기(駕洛國記)」와 탑상편, 금관성 바사석탑

가락국 김수로 왕비인 허황옥(許黃玉)에 대한 내용은 『삼국유사(三國遺事)』, 「가락국기(駕洛國記)」에서 볼 수가 있는데, 「가락국기 (駕洛國記)」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편」 권 2 에 수록된 것이며, 고려시대인 서기 1076 년에 금관주(金官州), 곧 오늘날 김해 땅의 행정관인 지주사(知州事)가 편수한 책인데, 그 내용의 일부를 후에 일연이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기록한 것이다.

「가락국기(駕洛國記)」[232] 에서의 허황옥이 가야로 들어오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무 24 년 무신년(48 년)7 월 27 일에 구간들이 조회(朝會)때 왕께 아뢰었다.

"대왕께서 내려오신 이래로 아직도 좋은 짝을 얻지 못했으니, 신들의 딸들 중에서 제일 훌륭한 처자를 뽑아 궁궐로 들여 배필로 삼으십시오"

왕이 말했다.

"짐이 이곳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이었다. 왕후를 맞는 것 역시 하늘의 명이 있을 것이니 그대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유천간에게 가벼운 배와 날랜 말을 주어 망산도(望山島)에 가서 기다리도록 명하고, 또 신귀간에게는 승점(망산도는 서울 나쪽의 섬이며, 승점은 연하(輦下)의 나라)으로 가도록 명했다. 그때 갑자기 바다 서남쪽 모퉁이에서 붉은 돛을 단 배 한 척이 붉은 깃발을 나부끼며 북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유천간 등이 먼저 섬 위에서 횃불을 들자 배는 재빨리 육지 쪽으로 달려왔다. 신귀간 등이 이를 보고는 대궐로 달려들어와 아뢰었다. 수로왕은

232 일연(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민음사, 2007 년.

Scanned with CamScanner

이 말을 듣고서 기뻐했다. 얼마 후 구간들을 보내 목련(木蓮)으로 만든 키를 바로 잡고 좋은 계수나무로 만든 아름다운 노를 저으며 그들을 맞이하며 대궐 안으로 모셔오게 했다. "왕후"가 말했다.

"나는 그대들과 평소에 알지 못하는 사인데 어찌 감히 경솔하게 따라가겠는가?"

유천간 등이 돌아가서 왕후의 말을 아뢰니, 왕은 그녀의 말이 옳다고 여겨 유사(有司)를 데리고 행차했다. 그리고 대궐 아래 서남쪽 60 보쯤 되는 곳의 산언저리에 장막을 치고 기다렸다. 이에 왕후가 산 밖의 별포 나루터 입구에 배를 대고 육지로 올라와 높은 언덕에서 쉬면서 입고 입던 비단 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폐백으로 바쳤다. 이때 모시던 **잉신 두 명이 있었는데 이름은 신보(申輔)와 조광(趙匡)이고, 그들의 아내 두 사람은 모정(모정)과 모량(모량)이었으며, 노비까지 합치면 모두 20 여 명이었다. 가지고 온 수놓은 비단과 두꺼운 비단과 얇은 비단, 의상, 필로 된 비단, 금은, 구슬과 옥, 아름다운 옥, 장신구 등은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왕과 왕후가 함께 침전에 들게 되었는데, 왕후가 조용히 왕에게 말했다.

"저는 **아유타국(阿踰他國)**의 공주인데, **성은 허씨(許氏)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나이는 열여섯 살**입니다. 본국에 있던 **금년 5 월에** 부왕과 왕후가 저를 보고 말하기를 '아비와 어미가 어젯밤 똑같이 꿈속에서 상제를 보았다. 상제께서 가락국의 임금 수로는 하늘이 내려 왕이 되게 한 신성한 사람으로, 새로 나라를 세웠으나 아직 짝을 정하지 못했으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공주를 가락국으로 보내 수로왕의 짝이 되게 하라고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꿈에서 깨고 난 후에도 산제의 말이 귀에 남아 있으니 너는 여기서 빨리 우리와 작별하고 그곳으로 향해 가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를 타고 멀리 **신선이 먹는 대추를 구하고, 하늘로 가서 선계의 복숭아를 좇으며 반듯한 이마를 갖추어** 이제야 감히 임금의 얼굴을 뵙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로왕과 혼인하고, 타고 온 배를 돌려 보냈는데 15 명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거등왕을 낳고 157 세 때 세상을 떠났다고 전한다. 다시 말하자면, 허왕후는 서기 48 년에 16 세의 나이로 가라국에 와서 왕비가 되어 189 년에 별세하였으니, 출생년도는 서기 32 년이고 사망시의 나이는 157 세가 된다는 것이다.

아유타국에 관한 기록은 같은 『삼국유사(三國遺事)』 탑상편 **「금관성바사석탑」** 조에도 나온다.

금관(金棺)에 있는 호계사(虎溪사)의 파사석탑(婆娑石搭)은 옛날 이 고을이 금관국으로 있을 때 세조 수로왕의 왕비 허 왕후 황옥(黃玉)이

Scanned with CamScanner

동한(東漢) 건무(建武) 24 년 무신년(48)에 서역 아유타국[233]에서 배에 싣고 온 것이다. 처음에 공주가 부모의 명을 받고 바다에 배를 띄어 동쪽으로 향하러 하다가 수신의 노여움을 사건너지 못하고 돌아와 부왕에게 아뢰자, 부왕이 이 탑을 배에 싣고 가라고 했다. 그래서 무사히 바다를 건너 남쪽 언덕에 정박했다. 이 배에는 붉은 돛대와 붉은 깃발을 달았고, 아름다운 주옥을 실었기에 주포(主浦)라 이름했다.

...제 8 대 질지왕 2 년 임진년(452)에 이르러, 그 땅에다 절을 짓고 또 왕후사(王后사)를 지어, 지금까지 여기서 복을 빌고 남쪽 왜를 진압했다. 이것은 "가락본기에 자세히 보인다"

...탑은 사각형에 5 층인데, 그 조각이 매우 기묘하다. 돌은 약간 붉은 반점 무늬를 띠고 있는데 질이 매우 연하여 이 땅에서 나는 것은 아니다(...)

2.2. 가야국 유적과 유물

허왕후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그 해명이 유적과 관련된 경우가 많음으로 선행연구에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몇 가지 유적과 유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납릉 정문 (그림 1): 수로왕릉은 납릉이라고 부르는데, 정문 위 나무판에 종 모양의 물체를 가운데 두고 머리를 마주한 물고기 두 마리(신어)가 그려져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인도 아유타국의 건축 문양[234]이로 추정된다.

허왕옥 능의 비석: 능비에 "가락국 수로왕비 보주태후 허씨릉(駕洛國 首露王妃 普州太后 許氏陵)"이라고 씌여 있다.[235]

파사석탑 (그림 2)[236]: 허왕후릉 앞에 세운 파사석탑. 탑의 원래 이름은 '바사석탑'이며, 서기 48 년 김해 가락국 건국 초기에 허왕후가 아유타국에서 배를 타고 올 때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며 싣고 왔다고 전승되어 있으며, 돌무더기의 재질은 인도산으로 추정된다. 본래는 김해호계사에 있던 것으로 절이 없어지면서 고종 10 년 (1873)에 지금의 허왕후 능역으로 옮겨졌다.[237]

태양문장 (그림 3): 김수로왕릉에 있는 "가락태조왕릉중수기념비"의 이수에 새겨진 문장(紋章)이다. 이 이수는 그 크기와 조각

---

233 예부터 서역(西域)은 인도와 인도 서부쪽 나라를 일컫던 말이다(이종기, 『가야공주 일본에 가다』, 책장, 2005 년, 48 쪽.)

234 박기현,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 역사의 아침, 2007 년, 75 쪽.

235 김병모, 『허황옥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 역사의 아침, 2008 년, 22 쪽.

236 박기현, 위의 책, 68 쪽.

237 이희근, 『한국사 그 끝나지 않는 의문』, 다우, 2001 년, 27 쪽.

Scanned with CamScanner

방법이 현재 광화문에 있는 기념비각의 것과 동일하다. 이 문장은 가락국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38]

Ⅲ. 허왕후의 출신지에 관한 설

3.1. 아요디아 왕조가 식민국으로 건설한 태국 메남강의 아유티야설

허왕후의 출신지 문제는 이종기에 의해 처음으로 부각되었다.

주지하듯이, 『삼국유사(三國遺事)』는 그녀를 아유타국의 공주라 하였다. 이에 1975 년 5 월, 실제로 아유타국(阿鍮陀國)의 자취를 찾아 중부 인도 뉴델리 지방까지 직접 답사하여 상세히 조사했던 이종기는 그의 저서 『가락국탐사(伽羅國探査)』에서 『삼국유사(三國遺事)』, 「가락국기(駕洛國記)」가 전하는 아유타국(阿鍮陀國)은 그 당시 서역이라 부르던 인도 지방에 있는 나라라고 하였다. 아유타(阿踰陀), 아유차(阿踰遮) 등으로 표기되어 일찍부터 중국측에 알려진 이 왕국은 갠지의 상류인 사라유 강의 좌안에 있는 나라라고 한다. 이 아유타는 인도명으로는 "아요오디아(Ayodhya) [239] "이며, 대략 기원전 5 세기경부터 전 인도 대륙은 물론 동남아시아 일대에 그 이름이 알려진 태양왕조(왕자인 '라마'를 태양왕의 화신으로 숭배해온 곳)의 옛 도읍이라고 한다. 또는 아요오디아는 성도한 샤키아무니가 방문한 후로는 불교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스칸다푸라(Skandapurana)라는 인도의 고기(古記)에 따르면 '아요디아, 혹은 비시누(라아마)의 도시는 한 마리의 물고기의 모양으로 건설되었다'고 한다.

그의 인도국 아요오디아를 답사한 결과로 두 가지 밝혀졌다고 하는데, 첫째는 김해 왕릉 출입구에 있는 마주 보는 두 마리의 물고기는 아요오디아의 건물마다 입구에 그려져 있다고 한다. 또 하나는 "가락국기"가 기록한 왕녀의 승선이 천기 (검붉은 색의 깃발)를 달고 왔다는 사실인데, 이 검붉은 깃발은 태양 왕조 아유타국의 깃발이며, 아요디아 도처에서 게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다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아요오디아 왕가는 왕후가 출발하던 서기 48 년보다 20, 30 년전 (서기 20 년경)에 크샨 (Kussian)의 군대에 의해서 왕도를 잃고 떠났으며, 허왕후가 5 월에 배로 출발해서 7 월에 도착하였는데 아요디아가 있는 갠지즈강 상류까지는 배가 거슬러

---

[238] 이종기, 『가락국탐사(駕洛國探査)』, 일조각, 1976 년, 87 쪽.
[239] 싸움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뜻(이종기, 앞의 책, 79 쪽).

Scanned with CamScanner

올라 갈 수 없(6 월의 풍향도 갠지스 강의 흐름과 동일하여 범선이 이 강을 그 기간에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실제로 불가능하다)으므로, 왕녀의 사실상의 출발지는 오늘날의 타이국(태국)의 메남 강가에 있는 옛 도시 아유티야로 추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아요디아 왕국이 1 세기 전에 건설한 식민국[240]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아요디아 왕국이 태국 메남강 유역에 건설한 식민국 "아유티야"가 있는데(그림 5 참조), 허왕후는 이곳 출신의 왕녀라는 설이다. 김해 수로왕 묘역의 쌍어와 태양문양은 아요디아의 문장이라는 것이 본 가설의 근거다.

3.2. 아요디아를 거쳐 중국 사천성 안악현에서 온 허씨족 소녀설

이종기에 의해 처음으로 부각된 허왕후의 출신지 문제는 그 뒤 김병모에 의해 그 의문의 해답을 얻으려는 탐사로 이어졌다. 즉, 『김수로왕비의 혼인길(1999)』와 『허황옥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2008)』의 저자이자 고고학자 김병모는 40 년간의 답사 결과로, 아요디아를 거쳐 중국 사천성 안악현에서 온 허씨족 소녀는 바로 허황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허황옥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2008)』에 따르면 쌍어(머리를 마주한 물고기 두 마리)가 김해읍 김수로왕릉 정문, 김해 은하사 대웅전 등 가야의 고지[241]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쌍어신앙이 가야인들의 신앙이었다[242]고 보았다.

이런 쌍어문은 우타르 프라데쉬주의 수도인 러크나우 시[243] 근처에 있는 옛날 도시 아요디아 (Ayodhia)[244]의 힌두교 사원의 정문, 계단의

---

[240] 이종기, 위의 책, 99-100 쪽.

[241] 쌍어가 발견된 지역
- 김해 수로왕릉 납릉 정문: 6 조
- 김해 수로왕릉 안향각: 2 조
- 김해 은하사: 2 조
- 울산 개운사: 2 조
- 양산 통도사 삼성각: 1 조
- 양산 계원사 대웅전: 2 조
- 합천 영암사지: 1 조
- 공주 무령왕릉 출토 그릇 밑바닥 그림: 1 조
- 조선시대 여자의 노리개와 비녀 다수
- 근대에 제다한 먹 (김병모, 앞의 책, 109 쪽)

[242] 김병모, 위의 책, 109 쪽.

[243] 러크나우는 인도의 북주인 유피주의 수도로 갠지스 강의 한 지류에 자리 잡고 있는 교육 도시다(김병모, 위의 책, 76 쪽.)

[244] 힌두교의 중흥 시조인 "라마"의 탄생지다.

Scanned with CamScanner

양쪽 난간, 집집마다의 대문에 붙어 있으며, 가락국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한다.

또는 고대 인도인의 토착어인 드라비다어로는 가락과 가야는 물고기라는 뜻의 드라비다 계통의 말[245]이라고 하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가락국과 인도의 아요디아는 역사 기록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쌍어문은 현재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 페르시아, 파키스탄, 네팔, 미얀마, 일본에서도 발견되었으므로, 쌍어신앙을 믿은 사람들은 지중해에서부터 한반도까지 넓을 지역에 살았으며, 기원전 7 세기경부터 서기 1 세기경까지 육로를 통해 접촉했다고 한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왕후의 시호가 보주태후이다.

"<u>가락국 수로왕비 보주태후 허씨릉 (駕洛國 首露王妃 普州太后 許氏陵)[246]</u>

이어서 김병모(2008)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 아요디아 땅의 주민들은 석가모니가 탄생할 때(기원전 6 세기)쯤에 코살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있었으며, 그 당시 인도는 마가다국, 같다라국 등 열여섯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다. 마우리아 왕조가 이들 나라를 통일하고 이후 승가 왕조에 이르렀을 때, 북쪽에서 쿠샨이 침입하여 아요디아 지방도 쿠샨[247]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기원전 1 세기 때의 일이다. 그 바람에 이 지방을 지배하던 아요디아의 사제계급과 왕족들이 쿠샨의 침입 경로 반대쪽으로 즉, 보주로 피신하였다.

또는 『중국 고금지염대사전』에 따르면, 보주(普州)는 사천성(四川省) 안악현(安岳縣)의 옛 이름이며, 주(周)[248]나라 때부터 송나라[249] 때까지의 명칭이라고 한다. 이 사천성(四川省)은 허황옥

---

[245] 김병모, 위의 책, 115 쪽.

[246] 김해읍, 수로왕릉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왕비의 능이 있다. 무덤 앞에 있는 능비에는 이와 같이 새겨져 있다(김병모, 위의 책, 21 쪽.)

[247] 쿠샨이란 세력은 중국사에 등장하는 귀상(貴霜)으로, 오늘날의 중앙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중국서부 지방인 감숙(甘肅), 청해(青海) 일대에 살고 있던 흉노의 한 갈래인 월지족(月氏族)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흉노의 세력이 강건하여 중국의 한나라를 위협하던 시절에는 중국도 흉노와 화친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본격적으로 흉토 토벌 정책을 펴기 시작한 무제 (기원전 140-87 년 재위) 때부터 서쪽으로 이동한 흉토 일파가 대월지인데, 이들이 오늘날의 카자흐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지방에 토착 세력을 통치했고, 토착 세력이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쿠샨'이라고 학계는 주장한다.

[248] (기원전 1046 년경-기원전 256 년)

[249] (960-1279 년)

Scanned with CamScanner

여인이 생존했을 기간인 서기 1 세기와 2 세기는 동한, 곧 후한이었고, 그때 사천 지방은 촉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촉 땅은 양쯔 강의 상류로 네 강이 합쳐져서 소위 장강을 이루는 곳이며, 동쪽으로는 양쯔 강이 흘러 상해를 통해 황해 바다와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남만, 곧 오늘날의 운남 지방과 귀주 지방이라고 한다.

또『후한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250]

..."광무(光武) 23 년(서기 47) 남군 (南郡) 만족이 반란을 일으켰다. 무위장군 유상을 파견하여 토벌했다. 강하(江夏)로 이주시켰다...

..."화제(和帝) 영원(永元) 13 년(서기 101) 허성(許聖)[251]의 무리가 세금 차별에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다음 해 여름, 정부는 사자를 파견하여 형주의 여러 군의 1 만여 병을 독려하여 반란군을 토벌했다. (...) 허성 일당을 크게 격파했더니 허성이 항복했다. 이들은 또 다시 강하로 이주시켰다".

여기서 말하는 남군은 양쯔 강 지방의 현재 사천성 일대이며, 반란 세력이 강제로 내쫓겨 새로 정착한 강하 지방은 오늘날 무한(武漢) 지방을 말하고 있다. 또는 서기 101 년 반란의 주동자가 바로 허성이란 것으로, 보주(普州) 땅에 허씨 집단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현재 안악현(安岳縣) 내에는 14 개의 보주 허씨 집성촌이 있으며 그 인구는 15 만 명이다. 집성촌 뒷산의 암벽에 음각된 신정(神井)의 내용에는 '허황옥'이라는 이름이 나오며, 음각 바로 아래 쌍어문 한 조가 새겨져 있다. [252]이 신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정: 보주 땅 동쪽 마을 종지란 곳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솟아 인걸이 떨치고 영명한 역사가 있다. 허씨족은 일찍부터 이곳에 살았는데 훌륭한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한다. 그 집 뒷산은 사자와 같고 앞뜰은 비단과 같았다. 바위 아래 우물이 있어 맑은 물이 넘쳐흘러 긷는 즉시 가득차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다. 동한 초에 **허황옥이라는 소녀**가 있어 용모가 수려하고 지략이 뛰어났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다. 일찍이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정묘년에 기근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마침 어머니(증조가)가 산기가 있어 떠나는 사람들과 헤어져 남게 되었다. 아버지(증조부)가 구걸을 해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 때 내(조부)가 이 땅에 태어났으나, 먹을 젖이 없었다. 증조부가 우물가에서 경건히 하늘의 도움을

---

250 김병모, 앞의 책, 124 쪽.

251 여기서 허성(許聖)의 '허'는 성이 아니라 세습되는 직업 무사(巫師)를 부르는 명칭이라고『후한서』는 말하고 있다(김병모, 위의 책, 185 쪽.)

252 김병모, 위의 책, 244 쪽.

Scanned with CamScanner

빌자, 이윽고 우물 속에 물고기가 뛰어올랐다. 나뭇가지를 꺾어 낚시를 드리워 하루에 두 마리씩 낚았다.

(물고기를)쪄서 죽을 만들고 유즙을 만들어서 여러 해를 지낼 수 있었다. 너의 할아버지는 이리하여 살아남았다. 후손들이 그 우물의 신령스러움에 감복하여 '신정'이라고 높여 불렀다. 그래서 허씨족이 오늘날과 같이 번창하고 위대한 씨족이 되었다' 을유년 춘삼월 상순 의단 세움.

이런 역사적 사건과 쌍어신앙 집단의 흔적에 의한 김병모 선생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인도에서 망명한 허황옥의 선조들이 중국 사천성 안악현에서 살다가 서기 47 년에 한족의 박해로 무한으로 강제 이주당했을 때 지도 자급 가계의 한 여인이 있었으며 바로 허황옥이므로, 그들은 정착자인 양쯔 강 중류의 무한 지방을 거쳐 양쯔 강을 따라 상해 지방으로 간 다음 바다를 건너 한반도 김해의 가라국에 도착한 것이라고 보았다. 허황옥 일행은 촉 땅, 곧 보주를 떠나 1 년 만에 가락국에 도착한 것이며, 보주 출신의 허황옥이 가라국에 와서 왕비가 되어 살다가 죽자 고향의 이름을 따서 시호를 보주태후라고 붙인 것으로 주장했다.

3.3. 한반도 서남해의 해양세력인 왜(倭) 지배층 출신

그러나 이희근도 『한국사 그 끝나지 않는 의문(2001)』에서 김병모의 가설을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수로왕릉 정문의 쌍어문이 아요디아국의 문장이어야 하고, 그것이 서기 1 세기 허왕후때부터 전승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둘째는 여러 번의 보수과정을 거친 수로왕릉의 정문과 안향각(安香閣)의 쌍어문이 원래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들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줄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정조실록』(정조 16 년 4 월 을사조)에서는 지금의 쌍어문이 그려진 수로왕릉 정문과 안향각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2. 『숭선전지』에 따르면, 정문의 쌍어문은 정조 17 년(1793) 신축 때나 헌종 8 년 이전 시기에, 안향각의 쌍어문은 순조 24 년(1824)에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Scanned with CamScanner

3. 그러므로 인도 아요디아국 난민들이 그린 것이 아니라 수로왕릉의 정문과 안향각 등의 건물을 세울 때에 동원된 승려들이 쌍어문을 새겼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쌍어문은 본래 불교와 관련된 문장으로, 왕릉 정문의 현판에는 이것 외에도 불교와 밀접한 그림과 문양들이 등장한다.

4. 그러므로 허왕후 출신지는 인도의 아요디아도 태국의 아유티아도 아니다.

그러면 허왕후의 출신지는 어딜까? 그의 가설의 요지는 이렇다. : 허왕후 출신지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금관성파사석탑조」의 "제 8 대 질지왕 2 년 임신(425)에 왕후사를 세워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을 빌고 있으며 아울러 남쪽의 왜까지 진압시켰으니 모두 이 나라 본기(本紀)에 적혀 있다" 라는 대목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왕후사는 허왕후의 8 대 손인 질지왕이 허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절인데, 허황후의 신령스러운 도움으로 그 후 왜 세력까지 통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왕후사 창건 시기에 가야는 왜국의 통제에서 벗어났는데, 이는 허왕후를 매개로 한 이념을 공유한 결과였다. 가야와 왜, 두 집단의 일체감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 허왕후였다는 말이다. 수로왕과 허왕후 세력이 한동안 교혼(交婚)관계를 유지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희근은 "허왕후가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목적도 없이, 자신의 나라 인도에서 벵골만과 남중국해라는 수만 리의 험한 뱃길을 뚫고 한반도 동남부의 가야왕국에 시집 올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서기 1 세기 무렵 인도 아요디아국과 김해 가락국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중국조차 인도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는 서기 1 세기의 항해술로는 인도에서 가야까지 이르는 그 긴 항해를 할 수도 없었을뿐더러 설혹 이 머나먼 항해가 가능하더라도 목숨을 무릅쓰고까지 가야로 시집 가는 일을 강행했을 리가 만무하다. 이러므로 상기 제시하는 바와 같이 허왕후의 출신지는 기존의 가설처럼 인도가 아니라 한반도 서남해의 해양세력인 왜(倭) 출신일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3.4. 중국 내륙지방인 서장성의 아유타국 아리지방

Scanned with CamScanner

소설가 강평원은 『쌍어속의 가야사』에서 허왕후의 고향은 인도 아요디아가 아니라 중국 내륙지방인 서장성의 아유타국 아리(阿里)지방이며, 허황옥의 그곳을 떠나면서 지은 노래가 전래민요인 '아리랑'이라고 보았다. 또 중국 문헌인 『산해경(山海經)』을 근거로 가야는 원래 중국대륙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가라국 상징인 쌍어는 중국 하나라 우임금의 아버지 "곤(鯤)"을 뜻하며 수로왕은 그 후손이라고 했다.

본 가설은 시사하는 것이 크나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산해경』에서의 동물들 이름은 모두가 고대 부족국가의 대명사이다. 혹은 가야국의 표식은 쌍어이다. 김수로왕 직계 시조는 분명히 물고기의 표상을 가진 사람이거나 물고기를 대명사로 가진 이름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253]

2. 『산해경』에 따르면, 황제의 아들인 창의가 낳은 아들이 전욱고양씨이며, 전욱고양씨가 낳은 아들이 곤곤이다. 즉, 한마디로 곤이며 곤이 낳은 아들이 문명(文明)이었던 하나라 우(禹)임금이다.

3. 삼국시(三國時)에 있었던 대륙에는 가야국이 있었는데, 육가야의 시조는 김수로왕이다. 김수로왕의 아버지는 신라 4 대 탈해이사금이며, 가야국의 운조는 전욱고양씨의 아들인 곤이다. 그러므로 가야국의 상징인 쌍어는 곤곤[254], 즉 큰 두 마리의 물고기를 뜻한다.[255]

4. 아유타국에서 태어난 허황옥 공주의 고향은 바로 중국 대륙 내륙지방인 서장성 서북부인 아리 지방이다. 이곳에서 후한의 강력한 힘에 밀려 전란과 반란 등으로 인해 백성들과 함께 동으로 동으로 이주해 온 것으로 보인다. 중천축국이 동남쪽인 서장성으로부터 인도 항하 유역까지 뻗어 있을 때 감숙성 서쪽으로는 소월지국이 강성해지면서 서역으로 바라문교를 휩쓸고 대월지국으로 강성해 갔다. 후한 때 흉노를 격파시키면서 인도의 항하 유역까지 침략하였다. 한편 서역 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동부까지 점령하는 등 대전란이 일어났던 시대이다. 그로 인하여 천축국은 세력의 약화로 남으로 동으로 밀려나면서 소퇴해 갔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점에서 아유타국은 스스로 몰락의 위기를 맞게 되는 비운에 놓이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

253 강평원, 앞의 책, 75-78 쪽.

254 '곤'이란 큰 물고기를 상징하고, 또 여러 마리의 물고기 중 최고의 뜻을 가진 글자다(강평원, 앞의 책, 77 쪽.)

255 강평원, 위의 책, 157 쪽.

Scanned with CamScanner

있다. 이때부터 아유타국의 공주였던 허황옥은 산길을 찾아 동으로 동으로 고행의 피난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3.5. 발해 연안 출신

마찬가지로 김인배는 〈'해류'를 통해 본 한국 고대민족의 이동〉에서는 문정창의 가설을 제시하면서 위의 두 가지 기본 설을 반박하고 있다. 김인배는 재야사학자인 문정창의 반론의 요지를 정리했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256]

1. 아요디아는 갠지즈강의 하구에서 2 천여 리 거슬러 올라가는 내륙지대이며, 연평균 기온 섭씨 43 도의 흑서지방으로 주민들은 흑인에 가까운 피부색을 지녔다. 허왕후의 피부색도 검었다면, 반드시 유전이나 그에 따른 기록과 전설 등이 남았을 것인데도 그런 것이 없다.

2. 이 지방 사람들의 언어가 가라국 사람들의 언어와 분명히 달랐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역시 언어불통 등의 기록이 전혀 없다.

3. 「가락국기(駕洛國記)」에는 허왕후가 수로왕을 찾아온 때 (AD 48)의 나이를 28 세라 했는데 아유타국 즉, 인도의 아요디아 왕국은 AD 20 년까지만 존속했던 나라이다. 그러므로 망국 당시의 황옥공주의 나이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AD 48 년과 AD28 년 간의 시차가 있다. 이렇게 보면 아유타국의 멸망 당시에 황옥공주는 겨우 한 살이거나 뱃속에 있었거나 두 중의 하나라는 결론 나온다. 설령 공주의 나이를 망국 당시 16-20 세 사이로 가정한다면, AD 48 년에는 실제 나이가 44-48 세가 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석될 경우, 아요디아 멸망(AD20 년)당시에 허황옥은 출생커녕 나라도 없는 처지에서 13 년쯤 지나서 경우 탄생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4. 「가락국기(駕洛國記)」에 기록된 바, "상제가 꿈에 저의 부왕과 모후에게 명하여 공주를 빨리 김수로왕에게 보내라"한 구절대로 아무리 중대한 사명을 띠었다 해도, 방년의 규수가 인도 내륙의 아요디아 지방에서 몇 사람의 시종만을 거느리고 2 천여 리의 갠지즈강을 빠져나와 벵갈만을 거쳐 발레이반도를 위회하고 또 인도차이나를 거쳐서, 거기에 다시 길고긴 남지나해와 동지나해의

---

[256] 김인배, 〈'해류'를 통해 본 한국 고대민족의 이동(가락국 허왕후 출자에 대한 기존학설 비판)〉, 122 쪽.

Scanned with CamScanner

풍랑을 견디며 한반도까지 도달하자면, 그 항로야말로 5 만 여 리가 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므로 허황후는 결코 인도 아유타국의 왕녀일 수 없다는 것이 문정창의 결론이다.

이어서 김인배로의 견해로는 황옥공주의 인도로부터의 동래설보다는 오히려 발해연안에서 황해를 거쳐 온 북방로부터의 남하설 쪽이 훨씬 신빙성이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황옥은 5 월에 본국으로부터 출발, 7 월 27 일에 가락국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개월 남짓한 기간이 경과되었으니 황옥의 출발지는 멀리 5 만 여 리 떨어진 인도의 아유타국이 아니라 발해연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음력 5 월부터 7 월까지의 해류는 춘계 및 하계의 평균해류 현황도와 월별 해류 상세도를 참조해 볼 때 허황옥의 안전한 항해경로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이 된다. 물론 해류만 가지고 따진다면 하계의 쿠로시오를 타고 동지나해를 거쳐 한반도까지 도착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공간적 이동에 대한 설명일 뿐 시간의 경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합리성을 해소시킬 수 없다.

셋째, 수로왕은 공주가 먼 곳에서 찾아오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것은 유수에 의해 왕망의 세력이 토멸되자 먼저 떠나온 수로가 뒤늦게 찾아올 일족이 있을 것을 예측했던 것이며, 결국 황옥과의 혼인은 혈족혼으로 해석함이 이론상 타당하다.

넷째, 왕후가 타고 온 배를 마침내 돌려보낼 때 삿대잡이와 노잡이가 모두 15 명이 있어 각각 쌀 10 섬, 배 30 필을 주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고 했는데, 본국이라면 그 곳이 5 만여 리 밖의 저 머나먼 인도까지 되돌려 보냈다는 뜻인가? 특히 "고공즙사(篙工楫師)에 관한 해석이 중요하다. 보통 간단히 "뱃사공"으로 해석하고 마는데 이제까지 "삼국유사", 「가락국기(駕洛國記)」의 모든 한역들이 그러하였다. '고공(篙工)은 삿대잡이다. 삿대의 역할은 배를 물가에서 떼거나 댈 적에 또는 옅은 곳에서 배를 밀어나가는 경우에 쓰인다. 말하자면 삿대는 진선간(進船竿)이다. '즙'은 말할 것도 없이 '노'다. 그러므로 이런 규모의 배를 타고 갠지즈강 내륙에서부터 동지나해를 건너올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진맥진했을 터인데 사흘

Scanned with CamScanner

만에 다시 그 먼 길을 위협한 물길로 되돌려보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아니, 이 계절의 쿠로시오는 그 같은 항해를 아예 허용하지조차 않는다.

다섯째, 배가 들어온 방향에 대해 가락국기」는 명백히 '서남쪽 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하계의 해류상황으로 보건대 황해에서 제주해협을 지나 거제도 이서까지 쿠로시오 지류의 영향을 받는 정상해류를 타고 온 경로와 일치한다.

여섯째, '바다에 떠서 쩐 대추(棗)를 구하고, 하늘에 가서 복숭아(蟠桃)를 얻어(이병도 역)'의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허황옥의 출신지에 대한 해답은 기대할 수 없다.

여기서 '증조', '반도'는 결코 신선의 과실 따위가 아니라, 바다에 뜬 허황옥의 일행이 항로과정에서 표착한 섬이거나, 아니면 망망대해에서 눈에 비친 그 섬의 형상에 관한 묘사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옳으며, 증조는 단오도, 반도는 제주도를 가르키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

즉, 발해만의 어느 지역이선가 배를 띄운 그들 일행은 황해를 거쳐오는 동안 한 달 남짓 망망대해를 떠돌았을 것이다. 이윽고, 서해연안수와 조경을 이루는 해류에 실려 한참을 남하하던 끝에 그 해류상에서 맨 처음 발견하는 섬이 홍도이자 단오도(우뚝 솟은 홍갈색 암벽의 바위 섬)이다. 단오도와 연서, 그리고 홍도의 최남단 마부포말로 이어지는 이 부근은 지금이나 조류가 강하기로 유명하다. 그 빠른 물길을 타고 허황옥 일행의 배는 단오도의 서쪽을 감돌아 마부포 끝머리를 멀찍이 바라보며 또 한참을 지나갔을 것이다. 그런 다음 해류는 그들의 배를 저절로 남해안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실어간다. 양력 6-7 월의 해류는 거의 틀림없이 그쪽 방향이다. 해류따라 방향을 옮기면, 하늘 높이 한라산 봉우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제주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김인배는 "발해 연안에서 배를 띄운 허황옥 일행이 황해를 거쳐 단오도를 바라보며 이옥이고 방향을 바꾸어 제주해협을 따라 남해로 진입했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3.6. 왜(倭) 땅인 북 큐슈로부터 온 귀족 처녀

김석형, 『고대한일관계사(1988)』에 따르면, 허왕후가 가락국에 와서, 타고 온 배를 돌려 보내고, 뱃사공들 열 다섯 명에게 각각 쌀 열 섬, 베 30 필씩을 주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장면을 김석형은 가락

Scanned with CamScanner

계통의 왜 소국이 고국에 대하여 사람과 공물을 바치던 사실을 반영한 것이므로, 노비나 군인이나 공물 뿐만 아니라 고국의 왕과 결혼을 한 만한 귀족 처녀도 바쳤던 것이라 보았다. 그는 왜 땅에 있는 가락국 귀족들의 문벌에 고국 귀족들과 겨눌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1. "붉은 비단 돛을 달고 붉은 깃발을 펼친 배"라는 서술이 윤색이 아니라면, 고국으로 왕래하는 배들이 상당히 화려했고, 가락 계통임을 표시하는 독특한 빛깔을 썼다.
2. 허왕후가 산에 올라가서 비단 바지를 벗어서 폐백으로 삼아 산신령에게 바쳤다는 것은 내왕하는 뱃사람들의 전통적인 의식이다.
3. 허왕후는 탈해, 호고의 경우처럼 고국으로 와서 버젓한 귀족으로 살았다. 이런 일이 당시 가락국과 그 왜 땅의 소국들 간에도 있었다.
4. 또는 허왕후의 갖고 온 온갖 보물을 7 세기에 운반할 수 있었던 것은 생구(生口)나 노비가 주되었다는 것이다.
5. 허왕후는 실물일 수 없다.
6. "바다 서남쪽 구석으로부터" 나타타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다고 하는데, 이 배가 왜 땅인 북 큐슈(이 섬의 동북일대)로부터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해안을 거쳐서 서쪽이나 제주도로부터 온 배가 아니었음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다.

이어서 그는 "아유타에 비정할 만한 지점을 아직 찾지는 못하였지마는 그 곳이 워낙 '가라'로 불리웠고 가락국과는 최단 항로로 갈 수 있으며, 또한 그 곳의 한국 계통 유적 유물들이 역사적으로 풍부하다는 사실들로 미뤄 이렇게 보아 잘못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3.7. 낙랑 지역에서 온 상인 집단의 일족

김태식, 〈가락국기 소재 허왕후 설화의 성격(1997)〉, 에 따르면 허왕후의 출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김태식은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설화를 문헌적으로 고증하여,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기록 안에 들어 있는 문자사용 용례를 조사하여 저성 시기 및 문자 정착 시기를 구분하여 그 설화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canned with CamScanner

1. 수로왕이 왕비를 맞이하는 연대가 건무 24 무신년(서기 48 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의문이다. 현재 김해시 중심가 일대는 서기 1 세기 당시에는 그리 높은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성과로 보았을 때 문화 중심으로 대두하는 시기는 3 세기 후반부터이다. 그러나 수로왕 신화 자체의 성립 시기를 3 세기 후반으로 늦출 수는 없다. 초기의 문화 중심이었던 양도리 지역에서 설화의 줄거리가 성립된 후 세력 중심지가 김해시 일대로 옮겨왔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망산도(望산島)'와 관련해서, '망산도(望산島)'는 지금의 김해시 칠산 한 군데로만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승재(乘岾)'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왔으나 궁월에 가까운 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봉황대로 추정한다.

4. 허왕후는 언덕에서 입고 있던 비단 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폐백으로 드렸다고 하는 행위를 여러 점에서 본 견해가 있으나, 이 행위는 초행지를 통과할 때의 통과의례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이며, 여기서 비단 바지가 나오는 것은 허왕후가 값비싼 옷을 입고 있는 높은 신분의 여성임을 보여 준다.

5. 또는 20 여 명의 노비나 많은 보화들도 허왕후의 높은 신분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6. 허왕후가 바다를 통해 들어오면서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 나라가 불교적으로 가장 인연이 깊은 나라였기 때문에 결혼 설화 속에 삽입된 것이다.

7. 상기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허왕후는 낙랑 지역에서 도래한 2 차 유이민이거나, 또는 낙랑 지역에서 수시로 왕래하는 상인 집단의 일족이었을 것이다.

IV. 맺음말

가야와 허왕후에 관한 문제는 참으로 알지 못할 역사의 역설인 것 같다. '가야'라는 말조차 국명인지, 지역명인지 논란거리며, 언제 나라가 건국되어 왜,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그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망국의 유민들은 어디로 갔는지, 자체 역사서는 왜 남기지 못했는지 등의 궁금증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 [257]

[257] 박창희, 『살아 있는 가야사 이야기』, 이른아침, 2005 년, 30 쪽.

Scanned with CamScanner

이런 신비에 싸인 가야사를 더욱 신비롭게 하는 것 중 하나가 김수로왕의 부인 허왕후의 실체와 출신지다.

아유타국(阿踰陀國)은 어딜까? 허왕후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가야로 시집온 것일까? 여러 의문 속에서도 핵심 쟁점은 허왕후의 출신지다. 허왕후의 출신지를 추적하는 일은 인도와 한반도,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전체를 넘나들면서 고대사의 비밀을 파헤쳐야 하는 어렵고 흥미로운 작업인 것 같다.

허왕후의 출신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과 가설은 저마다 근거와 설득력이 있으나 어느 것 하나 확실한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고 잇지 못한 상태인 셈이다. 학계에서도 허왕후 출신지 문제는 결정적인 고곡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 "통설"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허왕후의 출신지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정리되면 어느 정도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다.

1. 본 설화 내용을 어디까지 실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2. 지명을 실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3. 가야국 성립시기가 언제인가?
4. 해류와 항해술의 이해
5. 쌍어문의 고유성
6. 김수로왕과 허씨는 같은 집단인가?/다른 집단인가?

[참고문헌]

강평원, 『쌍어속의 가야사』, 생각하는백성, 2002 년.

김병모, 『허왕옥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 역사의 아침, 2008 년.

김석형, 『고대한일관계사』, 한마당, 1988 년.

김인배, 〈'해류'를 통해 본 한국 고대민족의 이동(가락국 허왕후 출자에 대한 기존학설 비판)〉, 1989 년.

김태식, 〈가락국기 소재 허왕후 설화의 성격〉, 1997 년.

박기현,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 역사의 아침, 2007 년.

박창희, 『살아 있는 가야사 이야기』, 이른아침, 2005 년.

이종기, 『駕洛國探査』, 일조각, 1976 년.

『가야공주 일본에 가다』, 책장, 2005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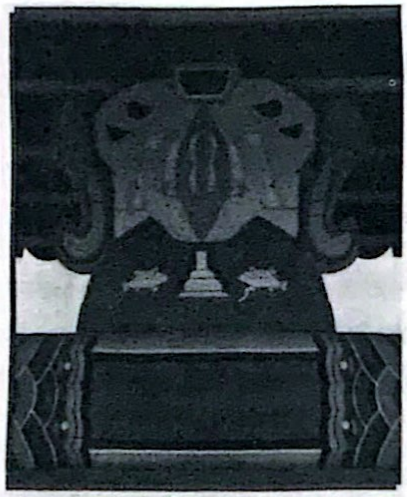
이희근, 『한국사 그 끝나지 않는 의문』, 다우, 2001 년.

일연(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민음사, 2007 년.

Scanned with CamScanner

부록

그림 1:김수로왕 납릉 정문 [258]



납릉 정문 위의 그림 수로왕릉은 납릉이라고도 부르는데, 정문 위 나무판에 종 모양의 물체를 가운데 두고 머리를 마주한 물고기 두 마리가 그려져 있다.

그림 2: 파사석탑[259]



파사석탑 허황옥이 가야로 올 때 탄 배에 싣고 온 탑으로, 배의 중심을 잡고 귀신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그림 3: 태양문장[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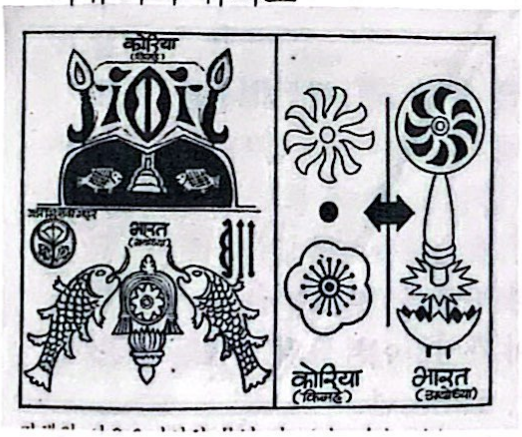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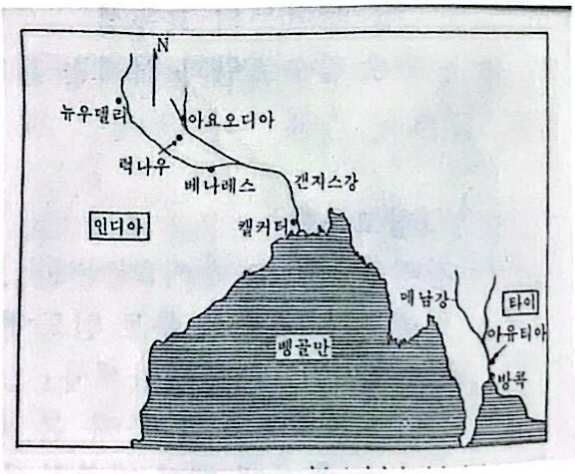


그림 4: 아요디아와 아유티야 위치도[261]



김해와 아요디아의 무늬 비교
(좌편 위가 김해, 우편 좌측이 김해)

---

[258] 김병모, 앞의 책 16 쪽.
[259] 박기헌, 앞의 책, 68 쪽.
[260] 이종기, 앞의 책, 87 쪽.
[261] 이종기, 위의 책, 198 쪽.

Scanned with CamScanner

КЫМГУАНЬ КАЯА ХӨ ХАТНЫ УУГУУЛ НУТГИЙН ТУХАЙД

Даваагийн Уугантуяа

[Хураангуй]

Тус судалгааны зорилго нь “Гурван улсын нөхсөн судар”-т уламжлагдаж буй Каяа улсын үүсэл гарлын домог үлгэр өөрөөр хэлбэл, Каяа улсын өвөг дээдэс болох Кимсүро хааны хатан Хө овогтын төрсөн нутгийн талаарх өмнөх судлаачдын хийсэн судалгааг нэгтгэн дүгнэж, цаашдын судалгааны гарцыг тодорхойлоход оршино.

Хө овогтын талаар 1975 оноос судлагдах болсон хэдий ч өнөөг хүртэл дорвитой хийгдсэн зүйл алга байна. Тодруулбал “Гурван улсын нөхсөн судар”-т өгүүлэгдэж буй Хө овогтын төрсөн нутаг гэгдэх Аюүта нь ямар улс болох?, Хө овогт юуны учир Каяа улсад бэр болон очив? зэрэг асуудал нь өнөөдрийг хүртэл оньсого хэвээрээ л байна.

Судлаач И Жон Ги нь “Аюодиа хаант улсын байгуулсан Аюүтияа улсын иргэн” гэж үзсэн бол Ким Пйөн Мо нь “Аюодиагаар дамжин хятадын Сачөнь хэрэм Аньяг тосгоны Хө овогт охин”, И Хы Гинь нь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 баруун өмнөд далайн Ва улсын язгууртан”, Кан Пйөн Вөнь нь “Хятадын Сөжан хэрмийн Аюүта улсын Ари нутгийн охин”, Ким Им Бэ нь “Парэ Йөнань нутгийн охин”, Ким Сөг Хйөн нь “Ва улсын нутаг дэвсгэр дэх Хойд Кюүшү нутгийн угсаатан гаралтай охин”, Ким Тэ Шиг нь “Наннан нутгийн дээдсийн охин” гэх мэтчилэн тайлбарлаж, дор бүрнээ нотолгоо баримтыг дурдсан байдаг. Гэвч өнөөдрийг хүртэл нэгдсэн дүгнэлтэнд хүрээгүй билээ.

Тус судлагааны дүнд дараах асуудлыг дэвшүүлж болмоор санагдана.

- Домог үлгэрийг хэр зэрэг үндэслэлтэй гэж үзэх,
- Домог үлгэрт гарч буй газар усны нэрийг хэрхэн тайлбарлах,
- Каяа улсын түүхийг хэзээнээс эхлэн тооцох,
- Далайн урсгал, хос загасан шүтээний ухагдахуунгүйгээр тус домог үлгэрийг тайлах аргагүй бөгөөд энэ асуудлыг хэрхэн шийдвэрлэх,
- Кимсүро хаан болон Хө овогтыг нэг угсаа холбоонд авч үзэх нь зүйтэй эсэх зэргийг дахин сайтар нягтлан, шийдвэрлэж чадвал Хө хатны “оньсого” бага ч болов тайлагдах буй за.

Түлхүүр үг : Кимсүро хаан, Каяа, Хө хатан, Хос загасан шүтээн, Аюүта улс.

Scanned with CamScanner

논문 심사 및 투고 규정

1.심사기준과 심사

(1) 본지에 게재하는 원고는 논문, 자료, 서평 등을 포함하고, 투고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재 여부를 결정한다.(청탁한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2) 본지에 게재될 수 있는 논문의 내용은 한국학, 몽골과 한국학 관계의 비교 연구를 모두 포함한다.

(3) 논문은 독창성, 분량과 체제, 논리적 타당성, 학문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4)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자에게 원고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6) 심사 결과 게재 여부에 대한 심사위원의 판단이 다를 경우에 심사위원 2/3 의 의견에 따른다.

2.논문 투고자

(1) 논문 투고자는 본지논문게재 체제에 맞게 논문을 작성하여 그 파일과 출력한 원고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보완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3.논문 집필 규정

(1) 논문은 한국어나 몽골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와 상대되는 언어(영어, 한국어, 몽골어)로 된 필자의 성명을 포함한 초록(abstract)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논문 초록에는 반드시 5개 이상의 주제어를 명시해야 한다.

(3) 논문 체제는 반드시 제목-초록-본문-참고문헌의 순서를 따른다.

Scanned with CamScanner

(4) 논문 분량은 A4 지 8 장-10 장으로 한다.(글자크기 10.3 포인트 기준)

(5) 2 인 이상공동 작성된 논문의 경우 제 1 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4.기타 사항

(1) 원고 작성: <한글> 3.0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로 작성함.

(2) 용지 설정(F7)

1) 용지 종류: A4

2) 용지 여백: 위-20, 머리말-15, 꼬리말-15, 왼쪽-30, 오른쪽-30

(3) 문단 모양

1) 여백: 왼쪽-0ch, 오른쪽-0ch

2) 첫째 줄: 들여 쓰기 안 함

3) 간격: 문단 위-0mm, 문단 아래-0mm

4) 줄 간격: 165%

5) 정렬: 정렬 방식-혼합, 낱말 간격: 0%

(4) 글자 모양(Alt L)

1) 글꼴: 신명조

2) 장평: 100%

3) 자간: -5%

(5) 글자 크기

1) 제목: 15p(진)

2) 저자명: 11p(윤고딕 120)

3) 목차: 9p

Scanned with CamScanner

4) 초록: 9.5p

5) 본문: 10.5p

6) 각주: 9p

7) 인용:9.5p

8) 참고문헌: 10.5p

(6) 논문 순서

1) 제목

2) 저자명(소속은 각주 아래로 표기 * 이용)

3) 목차

4) 국문초록

5) 본문

6) 영문 혹은 몽골어 초록

(7) 본문 모양: 장, 절 등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또는 로마자를 사용함(이탤릭, 밑줄 등을 사용하지 않음)

1

1.1

1.1.1

(8) 예문과 인용문: 위아래로 본문과 1 줄 띄며 본문과 같은 글꼴로 작성한다. 크기: 9.5%

(9) 각주: 본문에 사용되는 각주는 문헌각주와 내용각주를 모두 인정한다. 문헌 각주인 경우, 각주의 글자 크기나 글꼴은 <한글>에 처음 설정된 기본값을 사용하며 문헌 배열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저자, 「논문」, 『저서』 권호수, 출판지명: 출판사, 연도, 인용 면수,(단, 출판지명은 생략 가능)

Scanned with CamScanner

예) 홍길동, 「이조 사회의 계급 연구」, 『한국학논총』 제 17 집, 한국학연구소, 서울.1999, pp. 5-34

(10) 참고문헌

1) 별지에 쓰지 않고 본문 뒤에 이어 씀
2) 문헌 배열순서: 국문, 몽골어, 중문, 일문, 영문(기타 로마자어 사용 언어 포함) 순으로 배열하고 각각 그 언어의 자모순으로 배열함
3) 단행본의 경우-저자, 발행년도, 『서명』, 출판사
4) 논문의 경우- 저자, 발표년도,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호수, 발간 학회.
5) 영문일 경우- First Name, 2nd Name 의 이니셜, 발행년도, 논문제목, 게재지명(게재지명 혹은 단행본의 경우는 이탤릭체). 출판지명: 출판사. (단, 출판지명은 생략 가능)

(11) 논문에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에 따른다.

「 」: 작품, 논문, 영화, 드라마, 연극

『 』: 작품집, 신문, 잡지, 저서

‘’ : 강조, 간접, 인용

“” : 직접 인용

Scanned with CamScanner

U.B. 한국학 연구 (3 호)

발행인: 최기호

편집인: 신대철

발행기관: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발행일: 2010.12.

www.ubu.ac.kr

www.ulaanbaatar.edu.mn

Tel: 976-11-462147, 462026-9

Fax: 976-11-462040

E-mail: ubuniversity@hanmail.net

ubanna@hanmail.net

P.O Box 658, Ulaanbaatar 210644, Mongolia

Scanned with CamScanner

2011.12 3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 Хүнминжонгым-ийн зохиосон үе шат болон Жонг И гүнжийн авиа ны өөрчлөлт тогтворжих тухай асуудал ,,, Чой Гихо
-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өвөрмөц хэлц үүсэх хүчин зүйлүүд ,,, Т. Мөнхжаргал
-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йл үг үүсгэх аргыг харьцуулсан нь - Нэр үгээс үйл үг үүсгэх ,,, Кан Соньхуа
- БНСУ болон гадаад улс орон дах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хэтийн төлөв ,,, И Ёнсүг
- Монголын их дэд сургуулий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болон тулгарч буй асуудлууд ,,, А. Нарангэрэл
- Сургалтын талбарт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нэр үгийн нөхцлийн алдааг ажиглах нь ,,, Хуан Жонсүг
- “Хааны чих бол Илжигний чих” үлгэрийн бүтэц ба агуулга ,,, И Анна
- Каса дууны логик уялдаа ,,, Кан Шингү
- Солонгосын үндэсний үзэл санаа болон үргэлжилсэн үгийн зохиолын улс төрийн чанар ,,, Хён Гилон
- Солонгосын яруу найрагч Ким Су Волийн талаархи судалгаа ,,, Д. Нармандах
- “Паг Жэсам” зохиолчийн шүлэгт илэрч буй үхлийн дүрслэлийн хувирах байдал ,,, Кан Хуэжин
- Жу Гичонь зохиолчийн шүлгийн судалгаа ,,, И Согчоль
- Зүүн хойт Азид гэр бүл судлал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хөгжүүлье ,,, Т. Намжил
- Дарьгангын Гуулин хотын туурь болон Алтан овооны хөхөвтөр цайвар өнгийн хүн чулууны талаар өгүүлэх нь ,,, П. Батчулуун
- Кымгуань Каяа Хө Хатны уугуул нутгийн тухайд ,,, Д. Уугантуяа

УЛААНБААТАР ДЭЭД СУРГУУЛЬ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ТӨВ

Scanned with CamScanner